



용인 처인성

시골조사 보고서

 용인시립도서관



EM63435

2002

용인시 ·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충북대학교중원문화연구소

여

백



용인 처인성

시골조사 보고서
차용걸 노병식 박준균

2002

용인시 ·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충북대학교중원문화연구소

여

백

차 례

사진차례

도면차례

1. 조사 경위	11
2. 처인성 관련 기록과 시굴전 상황	13
(1) 처인성 관련 기록	13
(2) 시굴전 처인성지의 상태	17
3. 시굴조사의 내용	22
(1) 조사 경과	22
(2) 서남벽 성벽 확인 시굴 구덩	22
(3) 성내 유구 확인 시굴 구덩	45
4. 출토 유물	63
(1) 시굴조덩 1·2 출토유물	63
(2) 시굴구덩 3 출토유물	76
(3) 시굴구덩 4 출토유물	82
(4) 시굴구덩 5 출토유물	142
(5) 출토유물의 성격	159
5. 시굴의 성과와 전망	162
6. 참고자료	164

도면

사진

도면차례

[도면 1] 처인성 부근 지형도 (1: 50,000)	16
[도면 2] 처인성 부근 고지도 (대동여지도)	18
[도면 3] 처인성 부근 지형도 (1: 5,000)	19
[도면 4] 처인성 부근 임야도	20
[도면 5] 처인성 등고선 및 시굴구덩 위치도	23
[도면 6] 처인성 남문지 시굴구덩이 유구 평면도	25
[도면 7] 처인성 남문지 동측 측벽 토층 구성도	27
[도면 8] 처인성 남문지 서측 측벽 토층 구성도	29
[도면 9] 처인성 남문지 성벽 진행방향 종단면 토층도	31
[도면 10] 처인성 남문지 단면 실측도(A-A')	35
[도면 11] 처인성 남문지 단면 실측도(B-B')	37
[도면 12] 처인성 남문지 단면 실측도(C-C', D-D')	39
[도면 13] 처인성 99-3 시굴구덩 평면 및 저장구덩 단면 실측도	47
[도면 14] 처인성 99-3 시굴구덩 동벽 및 북벽 토층 단면 실측도	48
[도면 15] 처인성 99-3 시굴구덩 서벽 및 남벽 토층 단면 실측도	49
[도면 16] 처인성 99-4 시굴구덩 평면 실측도	50
[도면 17] 처인성 99-4 시굴구덩 동벽 및 서벽 토층 단면 실측도	51
[도면 18] 처인성 99-4 시굴구덩 남벽 및 북벽 토층 단면 실측도	52
[도면 19] 처인성 99-4 시굴구덩 단면 실측도(A-A' · B-B')	53
[도면 20] 처인성 99-4 시굴구덩 구돌유구 단면 실측도	54
[도면 21] 처인성 99-5 시굴구덩 평면 실측도	57
[도면 22] 처인성 99-5 시굴구덩 남벽 및 북벽 토층도	58
[도면 23] 처인성 99-5 시굴구덩 동벽 토층도	61
[도면 24] 처인성 북쪽 성내 및 성외 단면도	59
[도면 25]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 도토기·자기류	66
[도면 26]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 압막새기와	68
[도면 27]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 수키와	70
[도면 28]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 압키와	73

[도면 29]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 암키와	75
[도면 30] 처인성 시굴구덩 3 출토 도토기 구연부·사족기편	78
[도면 31] 처인성 시굴구덩 3 출토 도토기·석기·자기·기와류	81
[도면 32]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 도토기 구연부편	85
[도면 33]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 도토기 구연부편	89
[도면 34]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 도토기 구연부편	91
[도면 35]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 사면편병	94
[도면 36]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뚜껑·자기·병·편병류	98
[도면 37]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병·주름무늬병편	101
[도면 38]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저부편	104
[도면 39]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 동체부편	106
[도면 40]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 동체부편	108
[도면 41]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 동체부편	110
[도면 42]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 동체부편	111
[도면 43]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 구연부편	114
[도면 44]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 구연부편	117
[도면 45]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 구연부편	119
[도면 46]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 저부편	121
[도면 47]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 저부편·손잡이편	124
[도면 48]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백자 및 석기류	127
[도면 49]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철기류	130
[도면 50] 처인성 99-5 시굴구덩 출토 철기류	132
[도면 51] 처인성 99-5 시굴구덩 출토 암막새	134
[도면 52] 처인성 99-5 시굴구덩 출토 전·수키와	136
[도면 53] 처인성 99-5 시굴구덩 출토 암키와	139
[도면 54] 처인성 99-5 시굴구덩 출토 암키와	141
[도면 55] 처인성 99-5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류	145
[도면 56] 처인성 99-5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류	147
[도면 57] 처인성 99-5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자기류·철기류	151
[도면 58] 처인성 99-5 시굴구덩 출토 암막새·치미	153
[도면 59] 처인성 99-5 시굴구덩 수키와	154
[도면 60] 처인성 99-5 시굴구덩 암키와	158

사진차례

[사진 1] 처인성 항공사진(남쪽에서)	169
[사진 2] 처인성 항공사진(북쪽에서)	169
[사진 3] 처인성 항공사진(서북쪽에서)	170
[사진 4] 처인성 표석 및 시굴조사 안내판	170
[사진 5] 처인성 남문지 외측 시굴 전 모습	171
[사진 6] 처인성 남문지 안쪽 시굴전 전경	171
[사진 7] 처인성 남문지 유구 전경(좌측이 성내)	172
[사진 8] 처인성 남문지 유구 전경(우측이 성내)	172
[사진 9] 처인성 남문지 종단면 토층 모습(성밖에서)	173
[사진 10] 처인성 남문지 성벽 종단면 토층 모습(성밖에서 서측 부분)	173
[사진 11] 처인성 남문지 성벽 기둥구덩과 토층 모습(성안에서 서측 부분)	174
[사진 12] 처인성 남문지 성내측 동측벽 관측 토층 모습	174
[사진 13] 처인성 남문지 성내측 바닥면 모습	175
[사진 14] 처인성 남문지 성내측 토층과 바닥 모습	175
[사진 15] 처인성 남문지 성외측 동측벽 토층 모습	176
[사진 16] 처인성 남문지 성외측 서측벽 토층 모습	176
[사진 17] 처인성 남문지 문터 바닥 잔존부 전경	177
[사진 18] 처인성 남문지 문터 외측 전경	177
[사진 19] 처인성 남문지 내측 동쪽 관측용 기둥구덩 모습	178
[사진 20] 처인성 남문지 내측 서쪽 기둥구덩과 관측토루 모습	178
[사진 21] 처인성 남문지 내측 서쪽 기둥구덩과 중간 기둥 사이의 관측층 모습	179
[사진 22] 처인성 남문지 내측 서쪽 기둥구덩 세부 모습	179
[사진 23] 처인성 남문지 내측 동쪽 기둥구덩 모습	180
[사진 24] 처인성 남문지 내측 동쪽 관측용 기둥구덩과 내측 한계 담장 유구 모습	180
[사진 25] 처인성 남문지 바깥 기둥구덩 전경(성 안쪽에서 봄)	181
[사진 26] 처인성 남문지 바깥 기둥구덩 동측 부분 전경	181
[사진 27] 처인성 남문지 바깥 기둥구덩 서측 부분 전경	182
[사진 28] 처인성 남문지 바깥 동쪽 기둥구덩 세부 모습	182

[사진 29] 처인성 남문지 바깥 서쪽 기둥구덩 세부 모습	183
[사진 30] 처인성 남문지 문터 외측 기둥구덩 세부 모습	183
[사진 31] 처인성 남문지 안쪽 대지의 저장구덩 모습	184
[사진 32] 처인성 99-2 시굴구덩 전경(동쪽에서)	184
[사진 33] 처인성 99-3 시굴구덩 전경(남쪽에서)	185
[사진 34] 처인성 99-3 시굴구덩 전경(서쪽에서)	185
[사진 35] 처인성 99-3 시굴구덩 저장유구 전경	186
[사진 36] 처인성 99-3 시굴구덩 저장유구 세부 모습	186
[사진 37] 처인성 99-3 시굴구덩 북서쪽 토층 모습	187
[사진 38] 처인성 99-4 시굴구덩 동쪽 토층 모습	187
[사진 39] 처인성 99-4 시굴구덩 유구 전경(북쪽에서)	188
[사진 40] 처인성 99-4 시굴구덩 유구 전경(서쪽 높은 곳)	188
[사진 41] 처인성 99-4 시굴구덩 고려시대 온돌유구 전경(동쪽에서)	189
[사진 42] 처인성 99-5 시굴구덩 전경(남쪽에서)	189
[사진 43] 처인성 99-5 시굴구덩 서쪽 퇴적 토층 모습(동쪽에서)	190
[사진 44] 처인성 승첩기념 김윤후 추모제 거행 모습	190
[사진 45] 처인성 시굴조사 지도위원회 모습	191
[사진 46] 처인성 시굴조사 지도위원회 유물 공개 모습	191
[사진 47] 처인성 시굴조사 지도위원회 남문지 유구 관람 모습	192
[사진 48] 처인성 시굴 후 남문지 외측 복구 모습	192
[사진 49] 처인성 시굴 후 남문지 내측 복구 모습	193
[사진 50] 처인성 시굴 후 내부 시굴구덩 복구 모습	193
[사진 51]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유물 토도자기류	194
[사진 52]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유물 자기·손잡이·원형 와제품	195
[사진 53]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유물 암막새기와	196
[사진 54]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유물 원형와제품·수기와	197
[사진 55]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유물 암기와	198
[사진 56]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유물 암기와	199
[사진 57]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유물 암기와	200
[사진 58]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유물 암기와	201
[사진 59] 처인성 시굴구덩 3 출토유물 도기류	202
[사진 60] 처인성 시굴구덩 3 출토유물 토도기·석기·자기	203

[사진 61] 처인성 시굴구덩 3 출토유물 자기·원형 와제품·암막새기와	204
[사진 62]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구연부	205
[사진 63]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구연부	206
[사진 64]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구연부	207
[사진 65]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구연부·사면편병	208
[사진 66]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뚜껑·병·저부	209
[사진 67]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저부 및 주름무늬 병	210
[사진 68]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동체부·저부	211
[사진 69]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저부·동체부	212
[사진 70]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동체부	213
[사진 71]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동체부	214
[사진 72]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동체부	215
[사진 73]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구연부	216
[사진 74]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구연부	217
[사진 75]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저부	218
[사진 76]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저부·가로띠손잡이	219
[사진 77]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자기·석기류	220
[사진 78]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철기류	221
[사진 79]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철기류	222
[사진 80]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철기류	223
[사진 81]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암막새기와	224
[사진 82]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수키와	225
[사진 83]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수키와	226
[사진 84]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암키와	227
[사진 85]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암키와	228
[사진 86]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암키와	229
[사진 87]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암키와	230
[사진 88]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암키와	231
[사진 89]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암키와	232
[사진 90]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사면편병·기타	233
[사진 91]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토도기 동체부 및 저부	234
[사진 92]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토도기 구연부·저부·손잡이	235

[사진 93]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자기류	236
[사진 94]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자기류·철모·개원통보	237
[사진 95]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암막새기와·치미편	238
[사진 96]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수키와	239
[사진 97]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수키와	240
[사진 98]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수키와·암키와	241
[사진 99]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암키와	242
[사진100]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암키와	243
[사진101]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암키와	244

이

백

1. 조사 경위

현 경기도(京畿道) 용인시(龍仁市) 남사면(南四面) 아곡리(衙谷里) 산 43번지 일대에 위치한 옛 처인성(處仁城)의 유지(遺址)는 서기 1232년(高麗 高宗 19년) 12월 16일 승려(僧侶) 김윤후(金允侯)가 당시 행정구역 이름인 처인부곡(處仁部曲)의 주민(住民)들과 함께, 이 성(城)에 입보(入保)하였다가 몽고(蒙古) 원수(元帥) 사르타이(撒禮塔)를 사살(射殺)한 승전지(勝戰址)로 알려져 있다.

이 성터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1977년 10월 12일자로 경기도 기념물 제 44호로 지정하였다. 1979년에는 남서쪽 성벽 120m를 복원하고, 1980년에는 동·남·북쪽 방향의 성벽 205m가 수축되었다. 당시의 복원이나 수축 공사는 고(故) 이선근(李瑄根)박사가 자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성이 백제 때 축성된 것이라고 보았던 모양이다.

처인성터에 대하여는 간단한 조사 사실이 알려져 있었을 뿐이었다가, 1998년에 이르러 용인시와 용인문화원, 그리고 용인시사편찬위원회와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 의해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대략의 상황을 알게되었다.(용인시사총서 4, 용인의 옛 성터) 성터는 지표조사에 의하여 통일신라 후기 이후에 축성되어 경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용인시에서는 역사상 저명한 호국유적지인 처인성지에 대하여 정확한 학술자료를 확보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성터에 대하여 1차로 성벽(城壁)의 상태에 대한 확인과 성내의 일부지역에 대한 유구(遺構)와 유물의 매장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시굴조사를 계획하였다. 이 조사는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가 맡아서 하였으며, 이후 처인성 부근에 대한 지표조사도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다음과 같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시행하였다.

지도 위 원 : 최영희(당시 문화재위원 제3분과위원장, 현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장정호(당시 경기도박물관 관장, 현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장)

한영우(문화재위원, 서울대 교수)

김병모(문화재위원, 당시 한양대 박물관장, 현 한국전통문화학회장)

조유전(문화재위원, 당시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조사 단 장 : 양기석(충북대학교, 당시 중원문화연구소장)

책임조사원 : 차용걸(충북대학교 교수)

조사 위 원 : 주채혁(강원대학교 교수)

윤용혁(공주대학교 교수)
박선주(충북대학교 교수)
심정보(대전산업대 교수)
심광주(토지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조 사 원 : 노병식(당시 중원문화연구소 연구원, 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박연서(당시 중원문화연구소 조교, 현 용인민속박물관)
박중균(충북대학교 강사)

보 조 원 : 이학권(당시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졸업생, 현 대학원생)
엄승룡(충북대학교 사학과 졸업생)
김영민(충북대학교 사학과 졸업생)
김정길(충북대학교 사학과 졸업생)
김주미(당시 충북대학교 사학과 졸업생, 현 대학원생)
한선경(충북대학교 사학과 졸업생)
조순흠(당시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생, 현 대학원생)

이 시굴조사는 현장 작업이 완료된 후 약보고서를 작성하고, 유물카드의 작성에 노병식과 이학권·김정길(사학과 4년)이 수고하였고, 유물에 대한 개략적 설명은 노병식과 박중균이 하였다. 유구 설명은 차용걸의 원고를 바탕으로 박중균이 추가로 지도위원회 이후의 사실을 삽입하였다.

당시 약보고서에 이어 곧바로 보고서 간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김주미와 한선경 양이 유물의 실측과 트레싱을 담당하고, 노병식과 박중균이 유구 도면의 보완과 트레싱을 분담하여 작업을 하였다. 사진의 편집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보고서의 최종 마무리는 유물의 정밀한 관찰을 통하여 보다 새로운 사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약보고서의 작성과 관련된 컴퓨터 작업은 조순흠이 담당하였다.

최종 보고서의 작성이 늦어진 것은 시굴조사에 이어서 처인성터 주변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과, 처인성터 시굴조사에서 나온 철제 유물의 보존처리, 그리고 이들을 종합하는 도중에 다른 유적지의 현장조사가 겹쳐 있었으므로, 이제야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최종단계에서는 박중균이 유물설명과 유물촬영을 하고, 한선경이 유구와 유물의 실측도면 작성과 트레싱을 다시 하는 수고가 있었다. 유구에 대한 설명은 차용걸이 직접 담당하였다.

2. 처인성 관련기록과 시굴조사 이전의 상황

(1) 처인성 관련기록

① 『高麗史』 卷23 世家23 高宗2 高宗19年 12月

撒禮塔攻處仁城 有一僧避兵在城中 射殺之 答東眞書曰…至今年十二月十六日 永州屬邑處仁部曲之小城 方與對戰 射中魁帥撒禮塔殺之 俘虜亦多 餘衆潰散…

(살례탑이 처인성을 공격하였다. 승려 한사람이 병란을 피하여 성안에 있다가 화살을 쏘아 살례탑을 죽였다. 동진국에 대답하는 글에 말하기를…금년 12월 16일에 이르러 수주에 속한 고을인 처인부곡의 작은 성에서 바야흐로 적과 싸우려고 마주하여 화살을 쏘아 적군의 괴수 살례탑을 명중시켜 그를 죽이고, 포로로 잡은 것도 역시 많았으며, 나머지 무리들은 무너져 흩어졌다…)

② 『高麗史節要』 卷16 高宗19年 9月

三軍平忠州而還…○撒禮塔攻處仁城 有一僧避兵在城中 射殺撒禮塔 國家嘉其功 授上將軍 僧讓功于人曰 當戰時 吾無弓箭 豈敢虛受重賞 固辭不受 乃拜攝郎將 僧卽金允侯也

(삼군이 충주의 난을 평정하고 돌아왔다. ○살례탑이 처인성을 공격하였다. 승려 하나가 병란을 피하여 성안에 있었다가 활로 쏘아 살례탑을 죽였다. 나라에서 그 공을 가상히 여겨 상장군의 벼슬을 주니 승려는 공을 다른 사람에게 사양하며 말하기를 “싸울 때에 나는 활과 화살이 없었는데 어찌 감히 헛되게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이에 섭랑장의 벼슬을 주었는데, 그 승려는 바로 김윤후였다.)

③ 『高麗史』 卷103 列傳16 金允侯

金允侯 高宗時人 當爲僧 住白峴院 蒙古兵至 允侯避亂于處仁城 蒙古元帥撒禮塔來攻城 允侯射殺之 王嘉其功 授上將軍 允侯讓功于人曰 當戰時 吾無弓箭 豈敢虛受重賞 固辭不受 乃改攝郎將 後爲忠州山城防護別監 蒙古兵來圍州城凡七十餘日 糧儲幾盡 允侯諭勵士卒曰 若能效力 無貴賤悉除官爵 爾無不信 遂取官奴簿籍焚之 又分與所獲牛馬 人皆效死赴敵 蒙古兵稍挫 遂不復南 以功拜監門衛上將軍 其餘有軍功者 至官奴白丁亦賜爵有差 出爲東北面兵馬使 時東北面已沒於蒙

古 故不赴 官至守司空右僕射致仕

(김윤후는 고종 때 사람이다. 그때 중이 되어 백현원에 머물다가 몽고군이 오자 윤후는 처인성에서 난리를 피하였다. 몽고의 원수 살레탑이 와서 성을 공격하니 윤후가 그를 쏘아 죽였다. 왕은 그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상장군 벼슬을 주었는데, 윤후는 다른 사람에게 공을 양보하여 말하기를 “싸울 때 나는 활과 화살이 없었는데, 어찌 감히 헛되게 많은 상을 받겠는가”하고 군이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섭랑장의 벼슬로 고쳐주었다. 후에 충주의 산성방호별감이 되었다. 몽고 군대가 와서 충주성을 무릇 70여 일이나 에워싸니 쌓아둔 양식이 거의 다되었다. 윤후는 사졸들을 격려하여 깨우쳐 말하기를 “만약 힘을 다할 것 같으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직과 작위를 제수할 것이니 너희들은 못믿을 게 없다”하였다. 드디어 관노들의 장부를 가져다가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또 노획한 소와 말을 나누어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죽기로 적에게 달려들어 몽고군이 자못 좌절하고 다시는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였다. 공로로 감문위의 상장군에 제수되고, 그 나머지 군공이 있는 사람들은 관노나 백정에 이르기까지 역시 차등 있게 작위가 하사되었다. 나아가 동북면병마사가 되었으나, 그때는 이미 동북면이 몽고에게 넘어갔으므로 부임하지 못하였다. 관직은 수사공 우보야에 이르러 벼슬을 그만두었다.)

④ 『元史』 卷2 本紀 太宗4年 8月

撤禮塔 復征高麗 中矢卒

(살레탑이 다시 고려를 정벌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⑤ 『元史』 卷208 列傳95 外夷1 高麗

撤禮塔攻高麗處仁城 中流矢卒 別將鐵哥引兵還

(살레탑이 고려의 처인성을 공격하다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별장 철가가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⑥ 『新元史』 卷249 列傳146 外國1 高麗

(太宗四年)是年 札刺赤兒台 攻處仁城 有一僧避兵城內 射殺之

(이해에 칠랄치아태가 처인성을 공격하였다. 성안에 피난한 중 하나가 있다가 그를 쏘아 죽였다)

⑦ 『元高麗紀事』

(太宗皇帝)四年壬辰 八月 降旨 復遣撒里塔火里赤 領兵討之 至王京南處仁城攻擊 撒里塔火里赤 中流矢卒 別將鐵哥火里赤領兵回

(태종 4년 임진년 8월에 명령을 내려 다시 살리탐화리적을 보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고려를 토벌하였다. 왕경의 남쪽 처인성에 이르러 공격하다가 살리탐화리적이 나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별장 철가회리적이 군대를 거느리고 돌아왔다)

⑧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0 京畿道 龍仁縣 古跡 處仁城

在縣南二十五里 土築 今盡頽廢 有軍倉 ○高麗 高宗時 遷都江華 元帝怒 遣兵問狀 元帥撒歹繫御史雜端薛慎於軍中 到松京 將渡江南下 慎謂撒歹曰 國諺有之 異國大官渡江南下者不吉 撒歹不聽 抵漢陽山城拔之 次至處仁城 爲流矢所中而死 元兵回到松京 謂慎有知識 遣入江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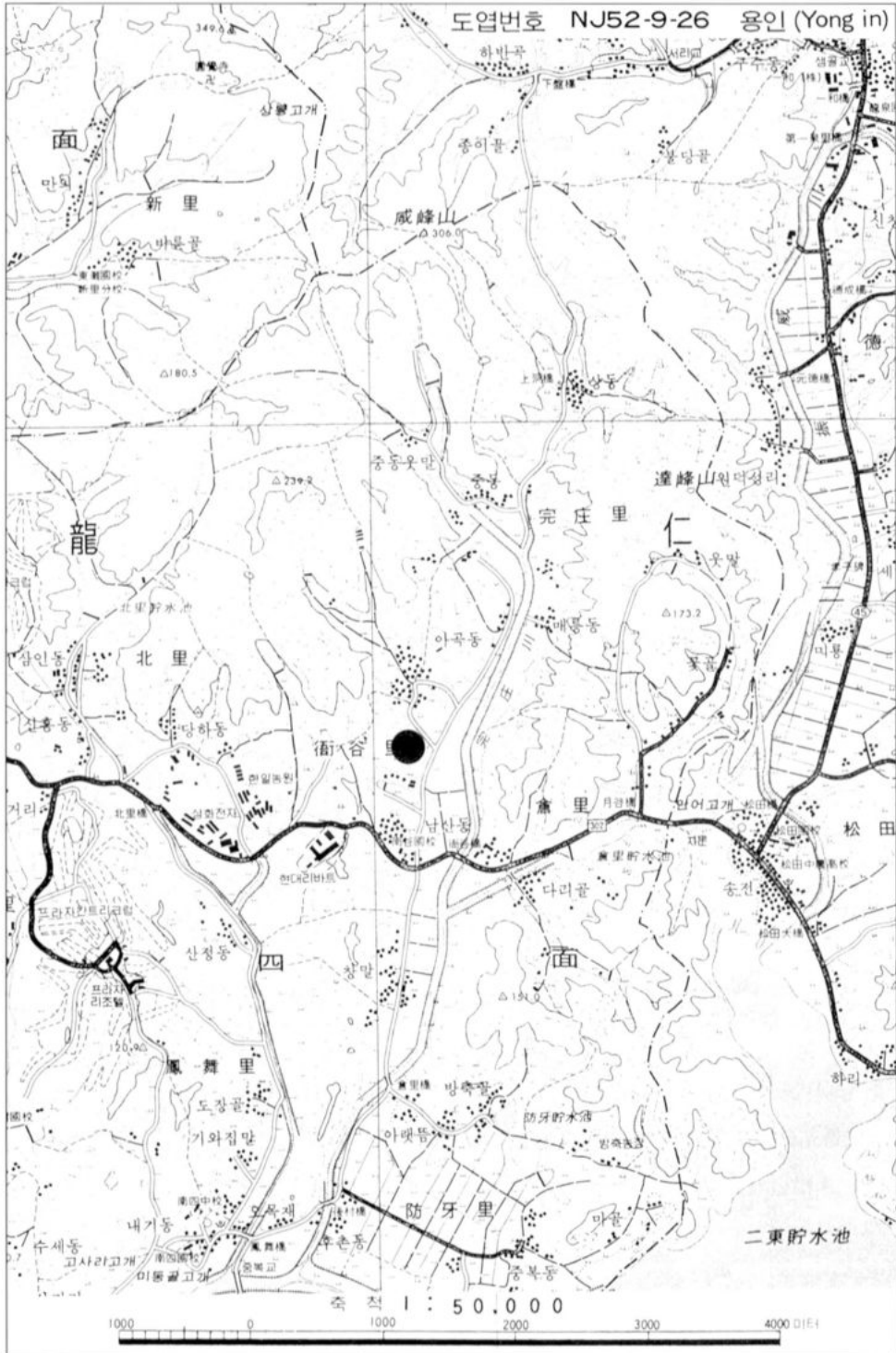
(용인현의 남쪽 25리에 있다. 흙으로 축조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무너져 폐지되었다. 군창이 있다. ○고려 고종 때 강화로 도읍을 옮기니 원나라 황제가 노하여 죄상을 묻는 군대를 보내었는데, 몽고군 원수 상알이 고려의 어사잡단 설신을 군중에 묶어 데리고 송경에 이르러, 장차 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오려 하였다. 설신이 상알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다른 나라의 높은 관리가 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불길하다’ 고 하는 말이 있다” 고 하였으나, 상알이 듣지않고 한양산성에 다달이 그곳을 함락시키고 다음에 처인성에 이르렀다가 나는 화살에 명중되는바 되어 죽었다. 원의 군대가 회군하여 송경에 이르러서야 말하기를 “설신은 지혜와 식견이 있다”라 하고 강화로 들여보냈다)

⑨ 『京畿誌』 龍仁縣 古跡 處仁城

在縣二十五里 土築 今盡頽廢 有軍倉 今無 ○高麗 高宗時 遷都江華 元帝怒 遣兵問狀 元帥撒歹繫御史雜端薛慎於軍中 到松京 將渡江南下 慎謂撒歹曰 國諺有之 異國大官渡江南下者不吉 撒歹不聽 抵漢陽山城拔之 次至處仁城 爲流矢所中而死 元兵回到松京 謂慎有知識 遣入江華

⑩ 『大東地志』 龍仁縣 城池 處仁古城

土築 周三里



[도면 1] 처인성 부근 지형도 (1: 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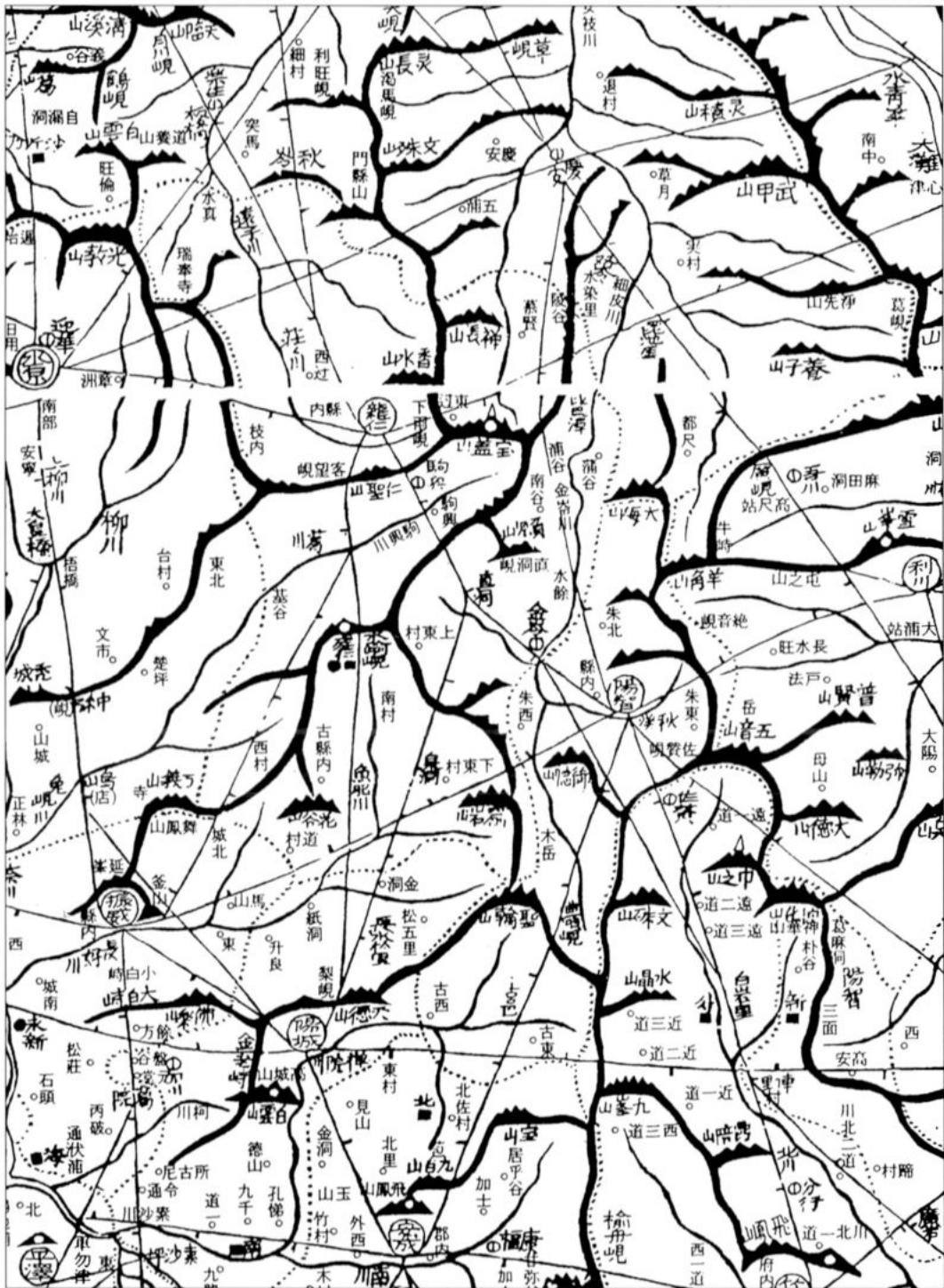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 처인성은 당시 수주(현재의 수원)에 소속된 부곡으로서 여기에 작은 규모의 토성이 있었으며, 원의 군대 수뇌부가 한양산성(현재의 북한산성)을 함락하고, 기세를 몰아 남하하던 시기에, 이 작은 성에 피난하던 김윤후가 쓴 화살이 적군 총 지휘관 살리타이를 명중시키자, 적군이 황급히 철수한 사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토축으로 된 작은 성터에는 조선시대 초기까지도 군창이 경영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폐지되어 다만 고적이 되었다. 『大東地志』에서 처인고성의 둘레가 3리나 된다고 하였으나, 현재 남은 성터는 마름모꼴에 가까운 둘레 약 350~360m의 작은 토루가 있을 뿐이다. 이 토루에서 북쪽으로 계곡 안쪽이 아곡리 마을이며, 동북으로 계곡의 건너편이 되는 낮은 구릉을 “사장터”라 부르며, 이곳이 적 장수가 화살에 맞아 죽은 곳이라 일러온다고 마을의 주민들이 땅이름을 전한다.

(2) 시굴조사 이전 처인성터의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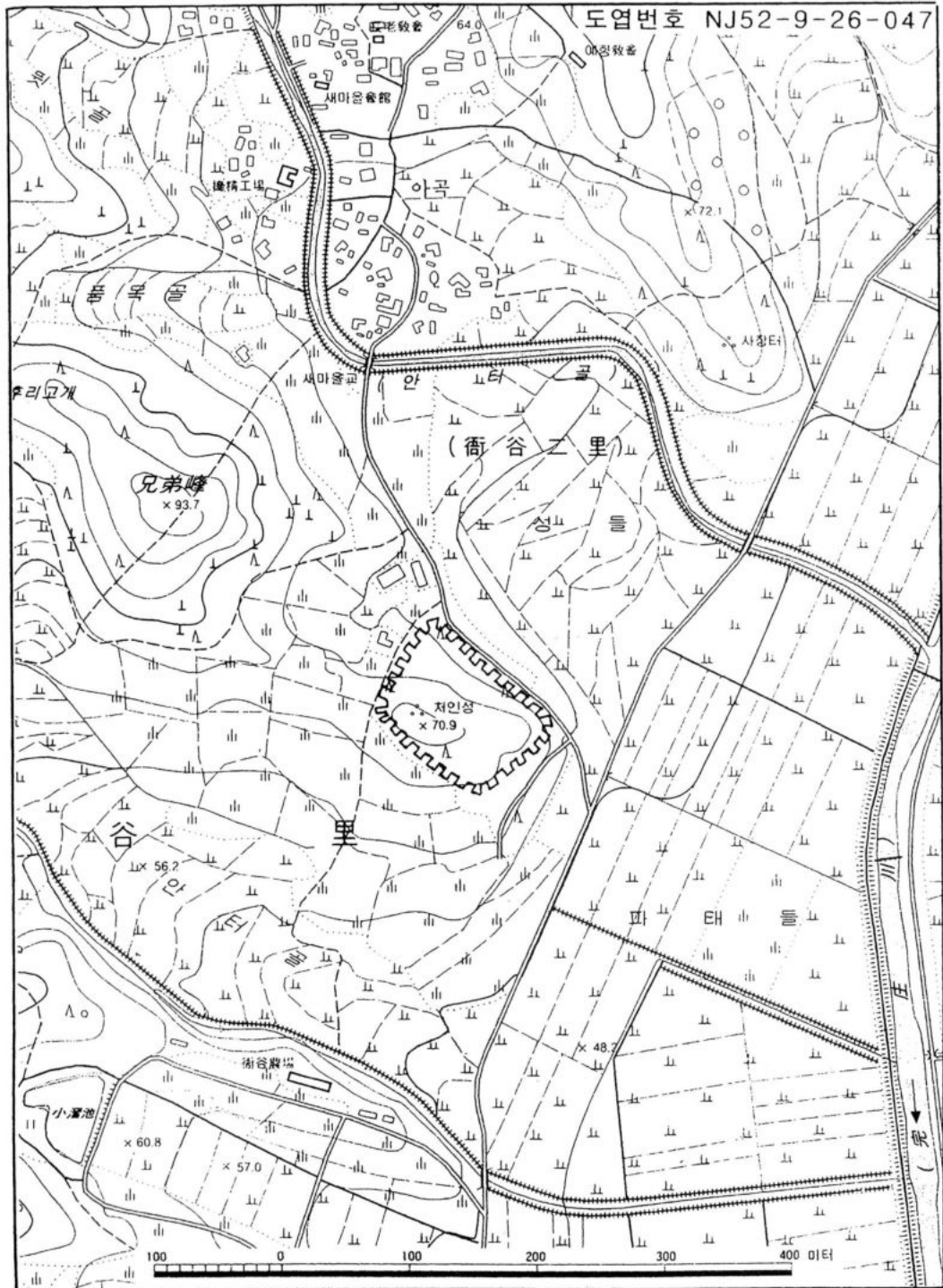
현재의 용인시 남사면 아곡 2리의 마을 입구에 해당하는 해발 약 70m 정도의 낮은 구릉 선단부(先端部)에 토루가 있고, 이 토루의 외측은 북동으로 논, 남서로 밭이 있다. 아곡 마을의 출입구인 도로가 동북쪽 성벽의 외측 아래에 붙어 나 있다[도면 1·3, 사진 1]. 성의 북쪽 모서리 외측에서 분기된 농로가 북서쪽 성벽의 바로 아래로 나 있으며, 이 농로에 의하여 구릉의 능선이 잘려져 있다. 성의 내부와 성벽 위에는 굴참나무가 비교적 조밀하게 자라 있어서 도토리가 많이 열린다[도면 3, 사진 2·3].

성터는 평면형태가 사다리꼴, 혹은 마름모꼴에 가까우며, 사방의 방향에서 거의 간방(間方)에서 성벽이 방향을 바꾸어 회절(回折)한 때문에 남북 방향으로 보면 마름모꼴에 가깝다[도면 5, 사진 3]. 성벽은 전체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층단을 이루며 낮아진 경사면을 둘러싸고 있어서, 성벽의 안쪽으로는 서북벽과 동남벽에서 높이가 약간 높아져 있고, 서남벽은 낮은 높이이고, 북동벽은 안쪽의 높이가 없다. 바깥으로는 35~45도에 가까운 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므로, 성벽의 윤곽은 매우 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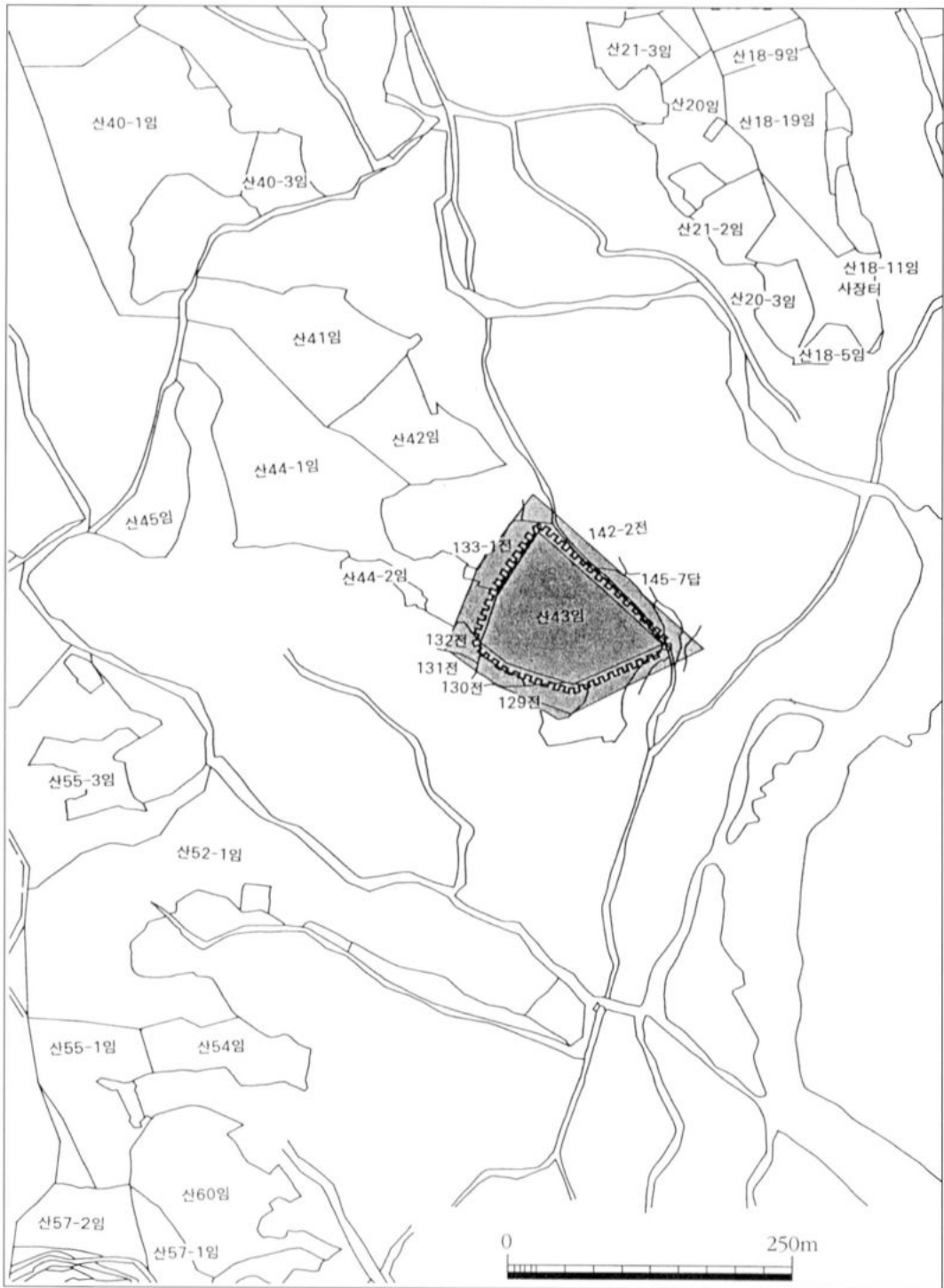
성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낮아지는 경사면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북동벽이 낮아 삼태기 모양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계곡을 형성한 것은 아니고, 단을 이루며 낮아진다. 성벽의 길이는 북동벽이 가장 길어서 성벽 상부에서의 길이가 126m이고, 남동벽이 짧아 56m, 서북벽이 85m, 서남벽이 82m이어서 전체의 둘레는 성벽 상부를 따라 켜 값(대략 성벽의 중간 안쪽이 된다)이 대략 350m에 달한다. 이 규모는 토성으로서서는 작은 규모에 속한다. 따라서 『高麗史』의 기록에서 “처인부



[도면 2] 처인성 부근 고지도 (대동여지도)



[도면 3] 처인성 부근 지형도 (1: 5,000)



[도면 4] 처인성 부근 임야도

곡의 작은성(小城)"이라 표현한 것과는 걸 맞는 듯하다.

당초 이 성벽들 가운데 남서벽과 동남벽이 수축 내지 보수되었다. 남서벽의 경우 문 터처럼 낮은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실측 도면이 있으며(지표조사보고서 참조), 현재는 북동벽의 남쪽 가장자리로 치우쳐서 통행하는 좁은 길이 나 있다.

성내에는 많은 민묘가 있었으나 많은 수가 이장되고 현재는 2기의 민묘가 서쪽 모서리 쪽에 남아 있고, 군데군데에 예비군용의 구덩이가 파여져 있었으며, 이중 5개가 남아 있다(도면 5).

성내는 서반부가 높고 동반부 쪽으로 낮아지며, 낮아진 곳의 중앙에 방대형의 약간 높은 대지가 있다. 이 곳에 민묘가 있었던 때문에 조성된 듯하다. 성내의 경사가 단을 이룬 곳과 동북벽의 북측으로 사태에 의한 훼손부가 있다.

성밖의 남쪽 경사면 아래에는 성벽을 배경으로 삼아 민묘 5기가 한 구역을 이루고 있으며, 동남벽 외측에는 처인성대침기념비가 설치되어 있다(사진 4).

3. 시굴조사의 내용

(1) 조사 경과

이번의 조사는 1999년 8월 23일 용인시와 시굴조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8월 26일부터 예비 작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우천(雨天)으로 늦어져, 8월 31일부터 성의 전체를 10m 사방으로 그리드를 설치하였다.

9월 6일(월)에 이르러서야 개토제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서남 성벽의 옛 문터라 여겨지고, 후에 보수된 성벽부분을 기점으로 성벽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굴 구덩을 설정하고 동북향 직선으로 연장되는 선을 설정하여 10m를 띄우고 하나씩 시굴하기로 하여 4개의 구역을 선정하고, 동북벽 가까운 시굴 구덩(시굴구덩 99-4)에서 직각으로 방향을 북향하여 10m를 띄워 하나의 시굴 구덩을 설치하여 모두 5개 구역을 선정하였다. 하나의 구덩은 사방 10m씩으로 100㎡를 단위로 비교적 넓게 시굴 구덩을 설정하였다.

우천일이 많고, 중간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작업의 진도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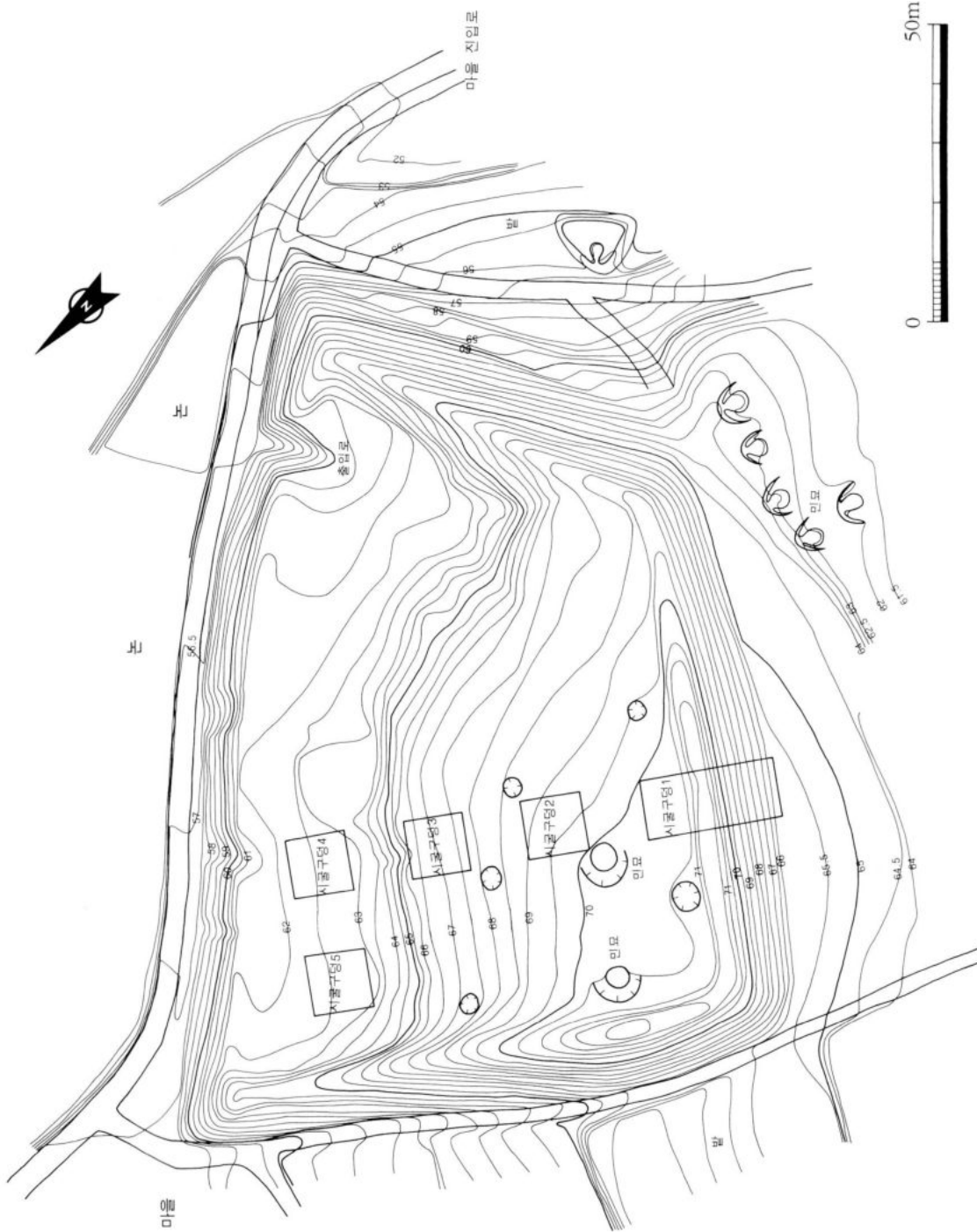
당초 약 4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했으나, 우천일이 많아 부득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조사는 10월 20일 자문위원회의 겸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고(사진 44~47), 나머지 실측과 촬영, 원상복구를 마치고 철수하였다(사진 48~50).

당초 예상과는 달리 유구는 성벽과 관련된 시굴구덩 99-1에서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시굴구덩 99-4에서 다시 복잡한 양상이 나타났으나, 다른 시굴구덩은 특별한 유구가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벽의 축조에 관련된 내용은 주로 시굴구덩 99-1, 성내의 복잡한 경영과 생활상은 시굴구덩 99-4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시굴구덩 99-2와 99-3은 높은 대지 쪽이고, 시굴구덩 99-4와 99-5는 낮은 대지 쪽이었으므로, 주로 낮은 지대에 유수가 매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서남벽 성벽 확인과 성문 터 시굴 구덩 [도면 5~12, 사진 5~31]

서남벽의 성벽을 확인하기 위한 구역은 해발 높이가 가장 높은 부분의 남단에 해당되며, 능선의 줄기를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한 듯이 보이는 지역이다.

시굴 구덩은 성벽을 절단하되, 중앙에 성벽 진행 방향으로 60cm의 너비로 두둑을 남기었다. 성벽의 보수공사로 인한 단절부가 나타나고, 새로 성벽을 높인 토층과 원래의 성벽을 이룬 토층이 확인



[도면 5] 처인성 등고선 및 시굴구덩 위치도

히 구분되어 나타났다. 이하 조사된 부분의 유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조사 구덩이는 당초 시굴구덩 99-1로 이름하였다. 성벽의 내측 한계선 부분은 생토면 위에 솟을 포함한 생활문화면이 있으며, 성벽 진행 방향을 따라 안쪽으로 작은 할석으로 만든 경계선이 일부 노출되었다. 이 할석열이 성벽의 축조와 관계된 것인지, 성벽 축조 이전의 생활문화면과 관계된 것인지는 토층의 잔존 상태가 불확실한 만큼 불명확하다.

처음에는 너비 10m 길이 10m의 구역을 성벽 안쪽으로 설정하고, 다시 성벽 외측 경사면으로 연장하여 너비 약 5m, 길이 9.5m의 범위를 연장하였다. 즉 처음 설정된 구덩의 범위에서 외측으로는 남동쪽 절반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다시 남쪽으로 길이 2.5m, 너비 2.5m의 보조 구역을 설정하여 내부 기둥 구덩이를 확인을 하였다.

이러한 조사 구역은 이 구역의 [도면 6]과 같이 되었으며, 전체로 보면, 성벽 진행 방향으로의 독을 중심으로 내측과 외측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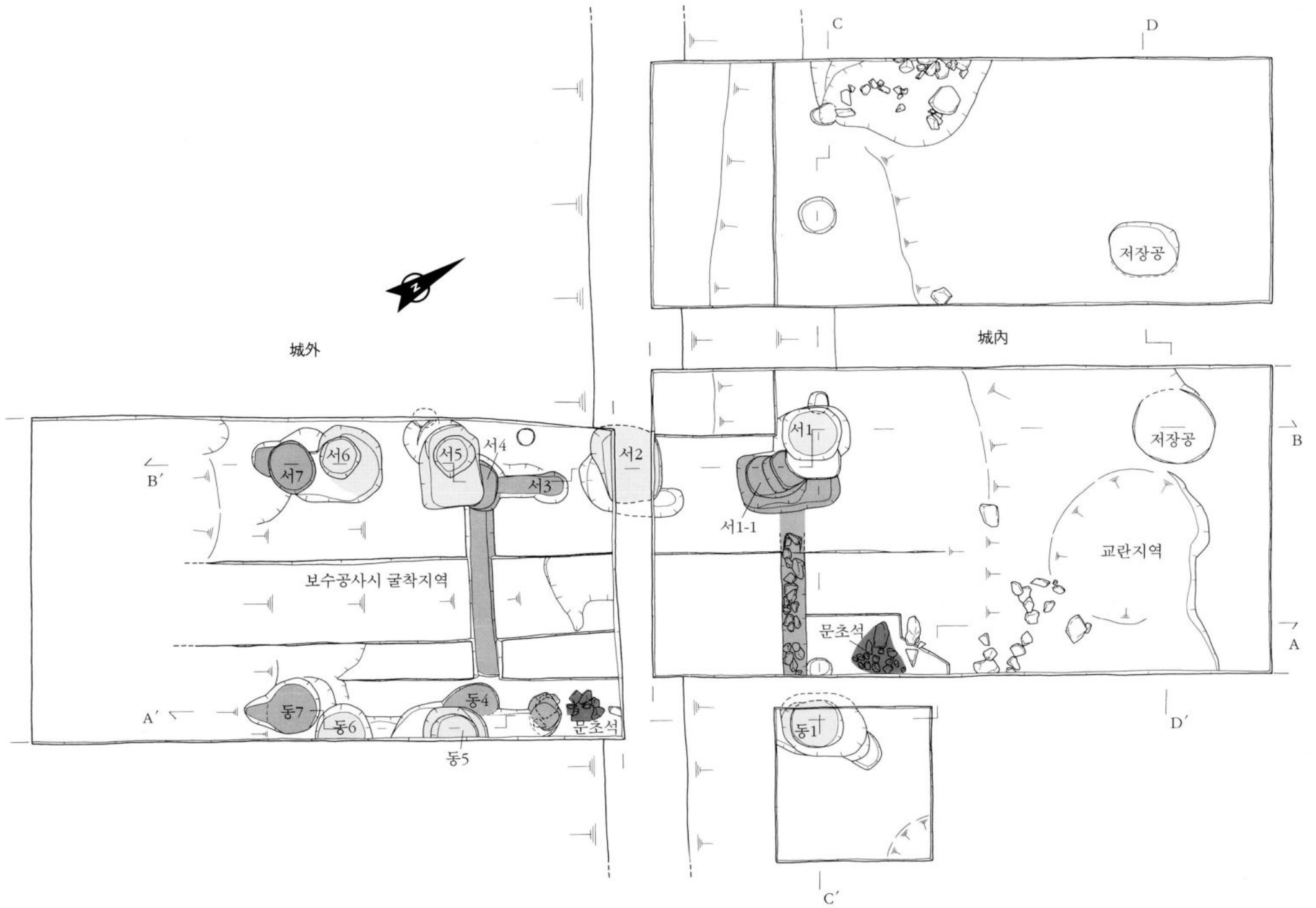
성벽 내측은 기둥 구덩이와 저장 구덩이, 석축 보조 벽체의 일부와 할석이 깔린 생활 면의 흔적이 있고, 외측으로는 기둥 구덩이와 기둥 구덩이 사이의 작은 溝가 있는데, 기둥 구덩이의 양상이 매우 복잡하여 단순하게 토루를 만든 것이 아니며, 또한 여러 차례의 기둥 구덩이가 중첩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성벽의 잔존 양상]

성벽은 판축 된 부분이 있고, 기둥 구덩이가 있으며,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귀틀용의 도랑 모양 구덩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측에 작게나마 석축 보조 벽체의 흔적이 있다.

[도면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둥 구덩이는 성벽 안쪽에서 큰 것 2개, 큰 것 2개의 옆에 있는 작은 것 2개, 성벽 진행 방향을 따라 이어지는 기둥 구덩이 2개가 있다. 밖으로는 안쪽의 큰 기둥 구덩이 2개에 대칭 되도록 큰 기둥 구덩이 2개, 안쪽과 바깥 기둥 구덩이 사이의 중간에 다시 큰 기둥 구덩이, 작은 기둥구덩이가 있다. 또 대칭 된 바깥 기둥 구덩이의 밖으로 연장되는 선상에 2개씩의 기둥 구덩이가 있다[사진 7·1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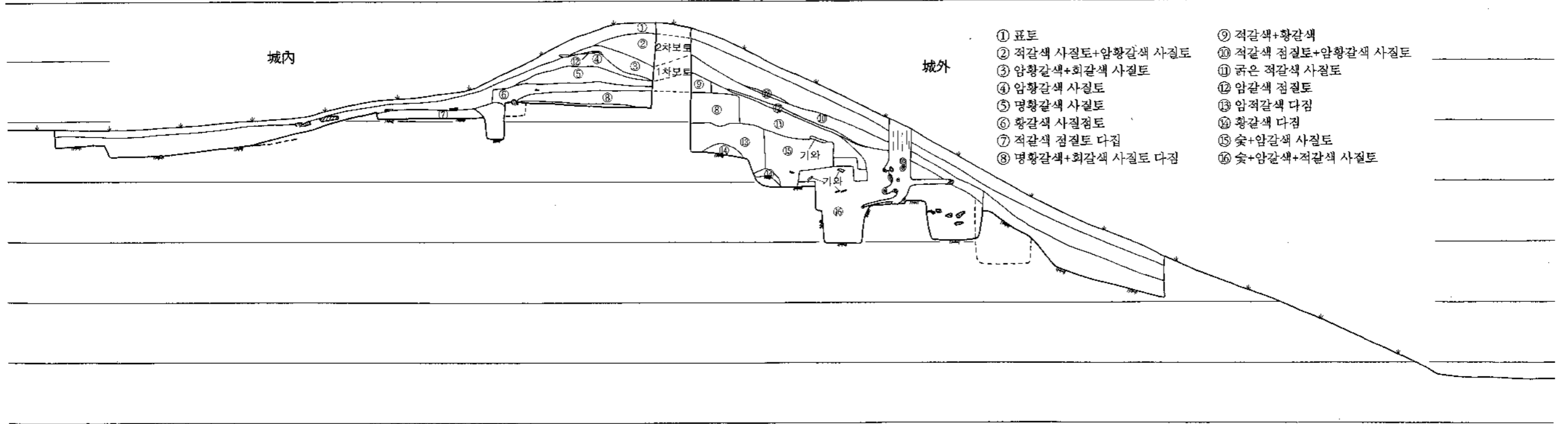
이처럼 대칭 된 기둥 구덩이는 이 부분이 성벽으로 만들어진 경우와 문으로 만들어진 경우의 두 가지 양상 가운데 하나라 여겨지며, 기둥 구덩이의 양상만으로 보면 성벽 진행 방향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한 기둥구덩이 사이에 4m 이상의 구간에서 기둥구덩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시설이 남지 않아서 이 구간이 문 터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1970년도 보수)에 폐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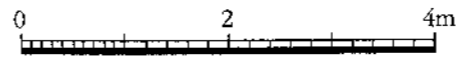
[도면 6] 처인성 남문지 시굴구덩이 유구 평면도

이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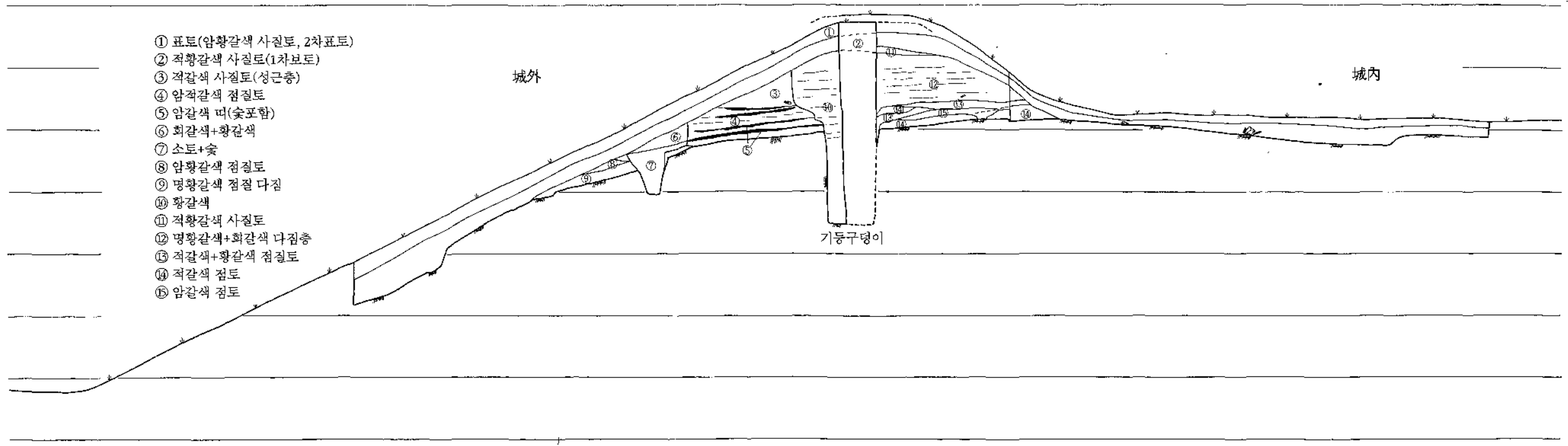
- ① 표토
- ② 적갈색 사질토+암황갈색 사질토
- ③ 암황갈색+회갈색 사질토
- ④ 암황갈색 사질토
- ⑤ 명황갈색 사질토
- ⑥ 황갈색 사질점토
- ⑦ 적갈색 점질토 다짐
- ⑧ 명황갈색+회갈색 사질토 다짐
- ⑨ 적갈색+황갈색
- ⑩ 적갈색 점질토+암황갈색 사질토
- ⑪ 굵은 적갈색 사질토
- ⑫ 암갈색 점질토
- ⑬ 암적갈색 다짐
- ⑭ 황갈색 다짐
- ⑮ 숯+암갈색 사질토
- ⑯ 숯+암갈색+적갈색 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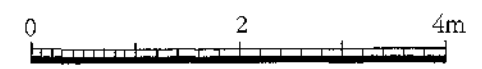
[도면 7] 처인성 남문지 동측 축벽 토층 구성도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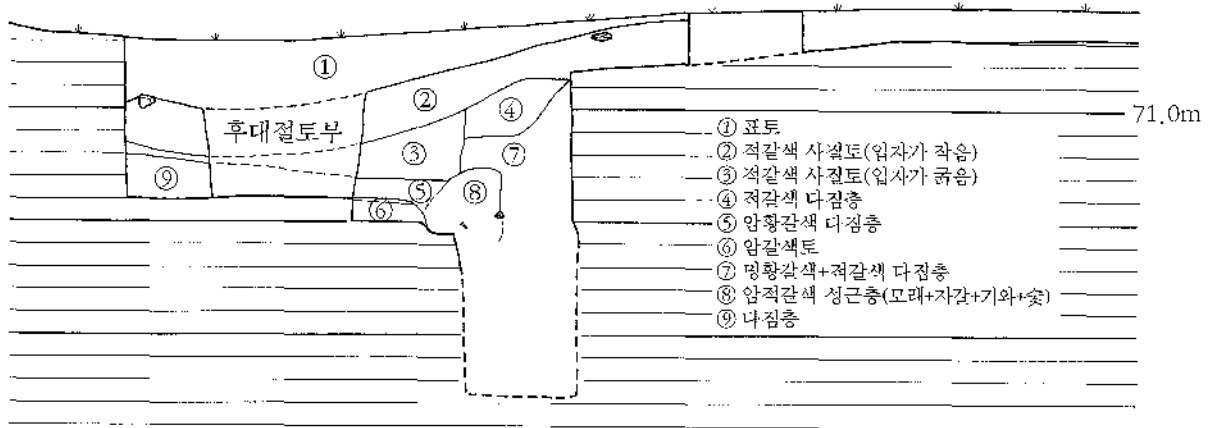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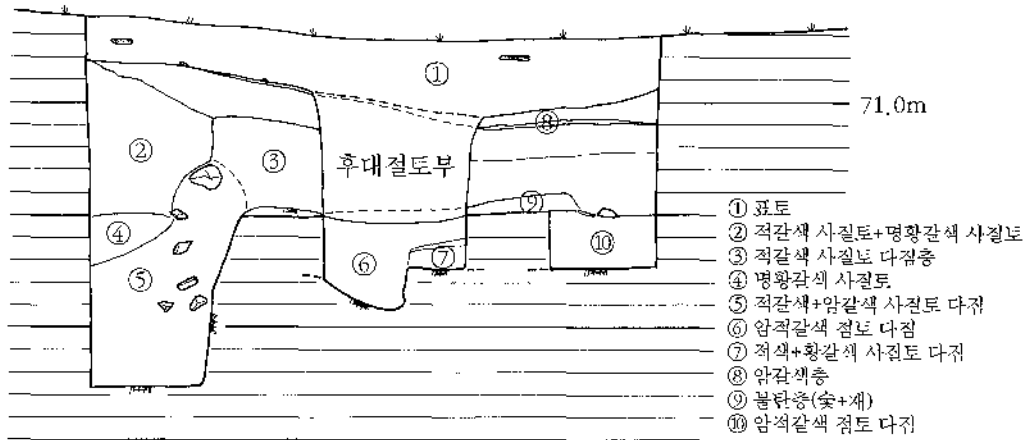
- ① 표토(암황갈색 사질토, 2차표토)
- ② 적황갈색 사질토(1차보토)
- ③ 적갈색 사질토(성근층)
- ④ 암적갈색 점질토
- ⑤ 암갈색 띠(숯포함)
- ⑥ 회갈색+황갈색
- ⑦ 소토+숯
- ⑧ 암황갈색 점질토
- ⑨ 명황갈색 점질 다짐
- ⑩ 황갈색
- ⑪ 적황갈색 사질토
- ⑫ 명황갈색+회갈색 다짐층
- ⑬ 적갈색+황갈색 점질토
- ⑭ 적갈색 점토
- ⑮ 암갈색 점토



[도면 8] 처인성 남문지 서측 축벽 토층 구성도

여

백



[도면 9] 처인성 남문지 성벽 진행방향 종단면 토층도

단절부 양측에 남은 판축 상태로 보아 최후에 남아 있었던 이 부분의 양상은 판축 된 성벽 그 자체였다.[도면 9, 사진 10·11]

즉, 최후에 남은 판축 성벽은 [도면 9]에서 보면 분명히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다. 먼저 동쪽 단면에서는 표토 아래에 2차와 1차에 걸친 覆土의 토층이 있으며, 그 아래로 5개의 토층이 확인된다. 이 토층은 맨 아래의 생토면 위에 외측으로 보이는 황갈색 다진 위의 암적갈색 다짐층이 있어 최초의 축벽이며, 그 위의 명황갈색 사질토와 회갈색 사질토의 교대다짐 층이 성벽 기저로 축조된 암갈색 사질토 위에 있으며, 다시 그 위의 층위와 구분된다. 이 아래쪽의 두 다짐층 위에는 기와 조각이 포함된 황갈색 사질점토층이다. 따라서 최초의 층위는 성벽 위가 평탄하게 만든 것이며 최대 너비가 4.5m 규모인 셈이다. 이것은 바깥에서 기와가 섞인 다짐 층이 덮여 있어서 바깥 기둥 층위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서쪽 단면에서는 밖으로 남은 1차 축조의 성벽이 있고, 중심부와 그 안쪽이 2차 축조로 나타나 있다. 2차 축조부의 성벽 너비는 최대 3.7m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동쪽 단면에서는 평탄층 위로 있는 3번째 층위의 성벽 너비 3.7m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최후에 축조된 성벽은 깊은 기둥구덩이와는 관련이 적은 것이며, 이와 관련된 것은 작은 기둥구덩이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성벽의 축조는 [도면 9]를 통해 알 수 있다. 깊은 기둥 구덩이를 경계로 하여 다짐층이 달라지는 수직 방향의 토층이 확실히 구분된다. 깊은 기둥 구덩이와 최초의 다짐층 사이에 교란된 층위는 바로 물이 빠지던 층위로서 암적갈색을 띠는 성근 모래와 자갈이 포함되고 기와조각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숲이 포함되어 있다. 이 층위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경사진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 나간 사실을 알려주며, 이후 이 위에 암황색 다짐층과 적갈색 층위로 벽체를 만들어 폐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후로 만들어진 성벽 이전에는 이곳이 문터였을 것임이 분명하며, 문터이기 때문에 후대에 이 부분을 메워버린 흔적이 있고, 다시 옛 문터라서 층장비로 좁게 파내어 임시로 문을 내었다가 1차와 2차의 복토를 하였던 것이다.

작은 기둥 구덩이 최후에 이 문터를 메워 축조한 것이라면, 그 이전의 성벽은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그 이전의 성벽과 관련된 유구는 이 구간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다만 문터를 이룬 開口部와 門口部の 흔적만 남아 있다. 이 흔적은 깊은 기둥 구덩이와 얇은 기둥 구덩이 및 도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開口部와 門口部]

城에서 城門을 만들기 위하여 좌우의 성벽을 단절시킨 부분을 開口部라 부르고, 이 개구부의 한도 내에서 문을 구성하여 문길(門道)을 이룬 부분을 門口部라 부른다. 토축의 성벽에서는 개구부와

문구부를 석축으로 보강한 것도 있으나, 토축 성벽 자체로 개구부를 이룬 경우도 있다. 개구부는 좌우 側壁이 있으며, 성벽을 축조하고 개구부를 만들기 위한 側壁을 구성하기 위한 기둥 구덩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개구부를 만든 다음에는 문구부를 만든다. 문구부는 성벽 안쪽에서 보아 밖으로 경사를 이루는 곳에 만드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문구부 안쪽의 빗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구부는 좌우의 長柱를 기본으로 하여 문설주(門楔柱)와 문짝(門扉)을 구성하며, 門樓를 갖추기도 한다.

이번에 조사한 이곳의 문터는 開口部를 구성한 기둥 구덩이와 문구부를 구성한 기둥구덩이가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門道の 外側을 보완한 시설의 기둥구덩이도 나타났다.

開口部는 너비 4.5m의 규모이고, 門口部는 너비 3.9m, 門道の 길이는 기둥 사이에 확인되는 것이 약 9m이다.

[開口部の 구조]

큰 규모의 기둥 구덩이는 안쪽 두 개 사이의 중심 사이 간격이 4.5m~4.8m이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는 남측에서 확인된 안팎의 기둥 구덩이 사이 간격이 5.8m, 북측에서는 5.7m가 되며, 북측의 경우 둘 사이에 하나의 기둥이 있어서 각기 2.9~3m, 2.7~2.8m의 간격을 이룬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이 부분은 중심 되는 성벽 사이에 중심 기둥이 있고, 거기서 각기 성벽 안쪽과 바깥에 기둥을 세운 것이 된다[도면 6]. 이 성벽 안쪽과 바깥의 기둥 사이는 곧 당초 축조된 성벽의 너비가 된다. 동시에 문을 만든 개구부에서 보다 넓은 성벽을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개구부 좌우 측벽의 너비가 된다.

이 성벽의 너비 외측에 다시 2개씩의 기둥 구덩이가 있다. 바깥 기둥에서 다시 외측 경사면 아래 1.8m의 지점, 그리고 다시 80~90cm의 간격을 둔 기둥 구덩이가 있다. 이들의 맨 바깥에 있는 기둥은 바깥 경사면 아래에서 두 기둥간의 성벽 진행 방향으로의 간격이 4.5m에서 3.9m로 좁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둥이 양쪽으로 대칭을 이룬 상태에서 보다 넓은 대칭 기둥들은 개구부를 형성한 문구부 측벽의 기둥 자리이고, 좁아져 대칭된 기둥 구덩이는 門口部를 형성한 기둥 구덩이가 된다.[도면 6, 사진 18·25]

이러한 문구부(門口部)를 이룬 부분은 안쪽 기둥에서 바깥의 門口部가 좁아진 기둥까지의 門道部 길이가 9m에 달하며, 이 가운데 판축된 부분의 길이(문구부 측벽의 길이)는 동남쪽 단면에서 6.3m까지로 확인되며, 그 외측으로는 하부에 다짐한 흔적이 확인된다.[도면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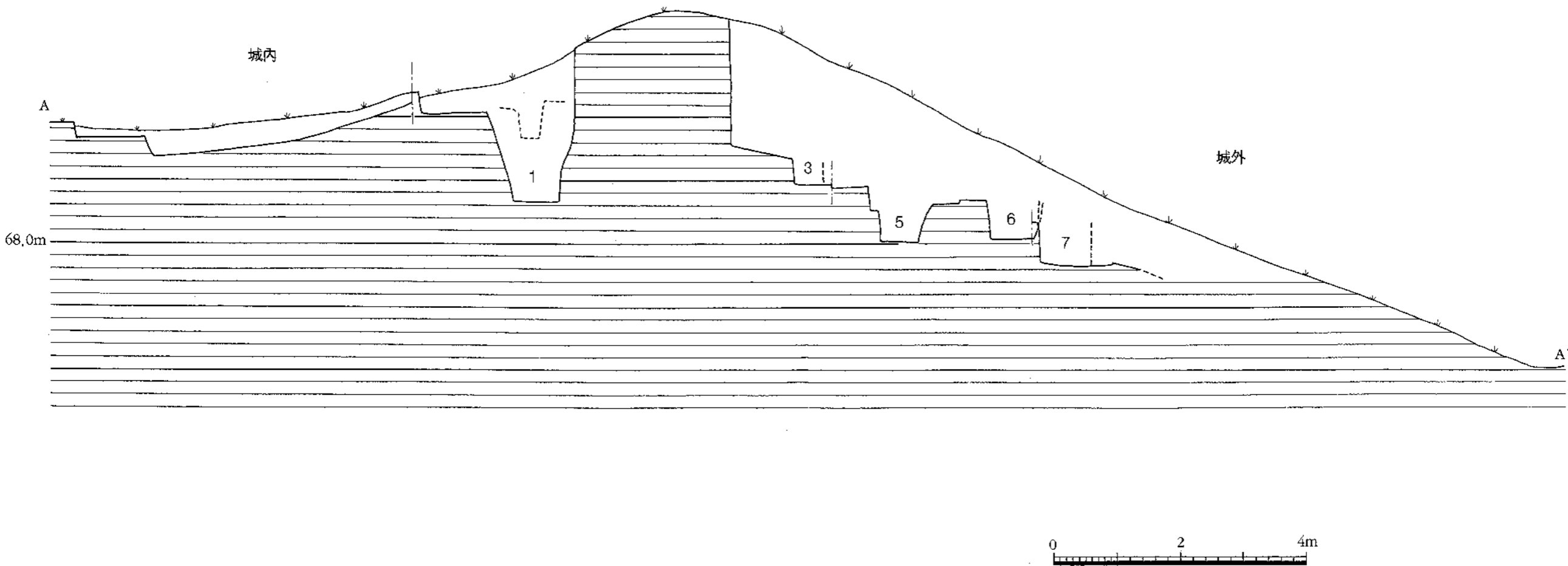
문구부라 여겨지는 부분의 성벽 내측으로는 평탄한 생토면(화강암 부식 암반의 식비레층) 위로 적갈색 내지 황갈색의 점질토 다짐층위가 20~15cm의 두께까지이며, 그 위에는 기와 등의 유분이 포함된 슷 포함 층위로 되어 있다. 이 층위가 최초의 생활면을 이룬 것이며, 이 층위의 바닥에 함석이 깔려 있는 부분과 낮게 溝를 이루고 함석이 일정한 범위에 축조된 바닥면의 일부가 남아 있다(사진 7·8·13·14·17). 함석이 깔려 있는 부분은 동측 기둥 쪽으로 치우친 부분이며, 함석은 큰 것이 길이 약 50~40cm, 너비 25cm 정도의 것이고, 작은 것은 어른의 주먹 크기에 불과한 것도 있으며, 성벽 안쪽으로 가면서 길이 4m, 너비 1.5m의 범위내에 걸친 부분에 주로 분포되고 있으나, 안쪽으로 갈수록 교란과 이동된 것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함석은 작은 건물외 초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나, 분포의 정형성은 없다.

안쪽 큰 기둥 구덩이 사이에는 너비 40cm의 작은 도랑을 이룬 상태에서 크기가 길이 20cm, 너비 15cm 정도의 함석을 메워 단단히 축조한 구조물의 흔적이 남아 있다(사진 13·14·23·24). 이 구조물은 기둥 사이의 기둥보다 성벽에 붙은 위치에 직선을 이루고 있다. 길이 2.3m까지 확인되었는데, 두 기둥 사이 성벽 안쪽 벽면의 아랫부분을 보강한 시설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석축의 작은 단장 흔적은 뺨은 방향으로 서측 기둥 구덩이 서측에서 확인된 관축 성벽의 안쪽 한계선과 직선을 이루어 연장선상 중앙을 포함하므로, 기둥 사이에 너비 40cm의 단장을 함석으로 쌓되 점질토를 이겨서 축조하였던 시설의 일부가 남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작은 단장은 곧 문구부의 내측 한계이다.

성벽 내측의 기둥 구덩이는 큰 것과 작은 것으로 구분된다(사진 7·8·19·20·22~24). 큰 것은 생토면 위의 다짐층에서 시작하여 굴착한 것으로서 이른바 계단식으로 굴착한 것이다(사진 20). 즉, 처음에 범위를 넓게 잡아서 T자 모양으로 일정한 깊이까지 파내고, 다시 범위를 좁혀가며 파내어 마지막 깊은 곳에 이르러 최종으로 깊이 파낸 것이며,

땅파기의 편의를 위하여 넓은 범위에서 차츰 깊어지며 좁은 범위만 깊게 판 것이다. 기둥이 세워진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깊은 발각 방향 내지 원형의 부분에 기둥이 세워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구덩이 전체가 매우 단단히 다져져 있음을 보아 기둥을 세운 나머지 공간의 크기를 다짐에 적당한 규모로 판 것임을 알 수 있다. 구덩이의 깊이는 굴착이 시작된 곳을 확인할 수 있는 층위로부터 최대 1.8~1.5m 나 되며, 일반적으로 1.2~0.9m는 육안으로 확인된다. 구덩이의 전체 범위는 서측의 것이 1.8m 사방이 되며, 동측의 것도 동일하나 기둥 구덩이 저부 가장 깊은 곳은 직경 약 75~8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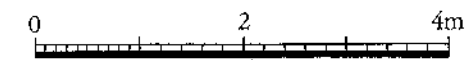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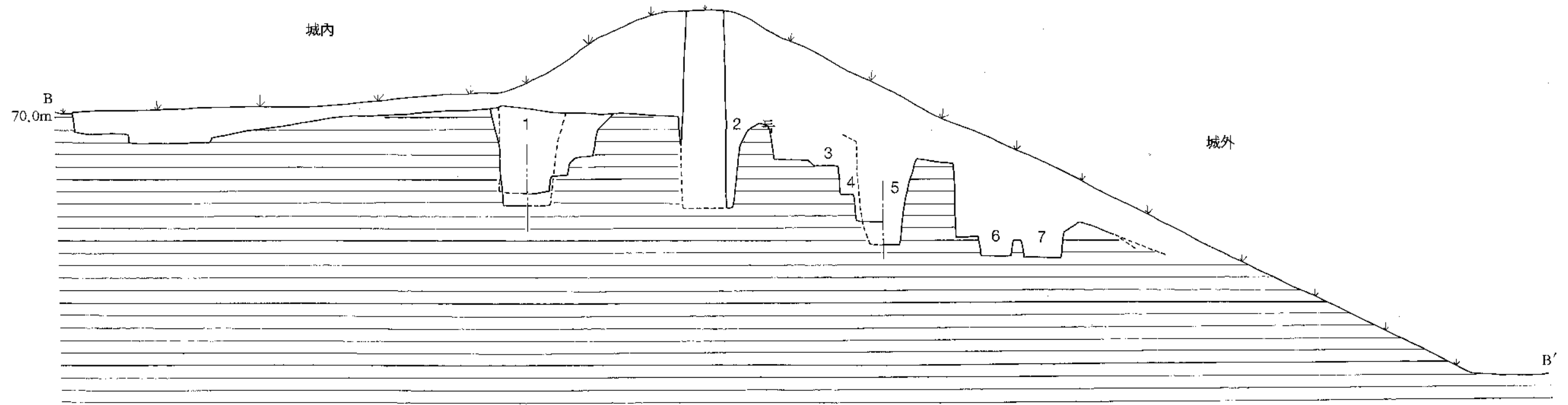
이 큰 기둥 구덩이의 옆에 작은 기둥 구덩이가 있다. 큰 기둥 구덩이의 서측에 치우쳐 직경 30~35cm, 깊이 40cm 내외이며, 이 두 작은 기둥을 연결한 연장선이 서쪽으로 이어진 곳에 직경 60cm, 깊이 40cm 규모의 둥근 구덩이가 있고, 다시 직경 35~40cm, 깊이 10~25cm의 기둥 구덩이가 있다



[도면 10] 처인성 남문지 단면 실측도(A--A')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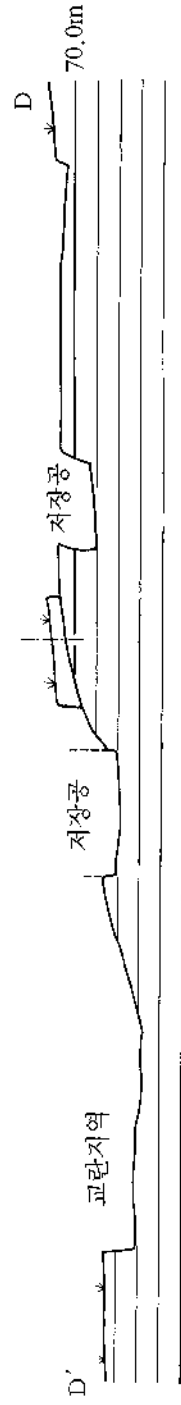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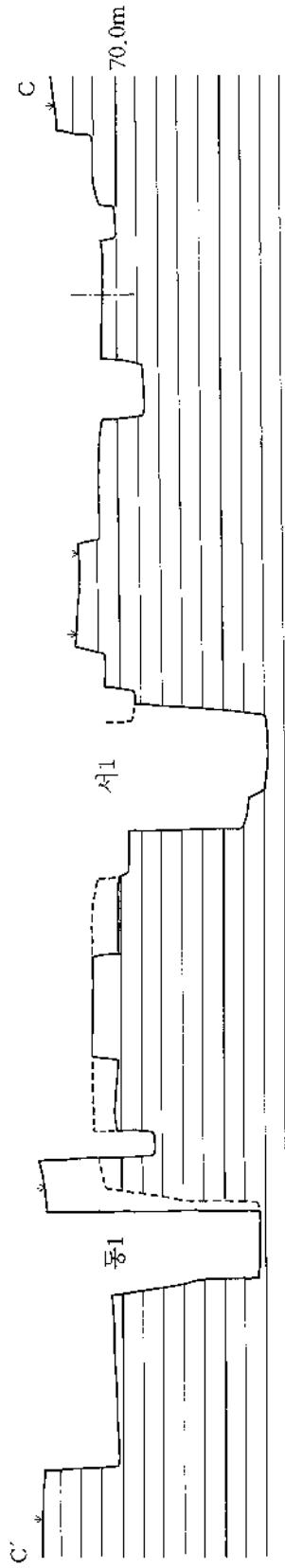
백



[도면 11] 처인성 남문지 단면 실측도(B-B')

여

백



[도면 12] 치인성 남문지 단면 실측도(C-C', D-D')

[사진 22·24]. 이 성벽 내측 한계선을 이루는 작은 기둥 구덩이들은 동측에서 서쪽으로 각기 중심 사이 간격이 4.2m, 3m, 1.5~1.7m가 되어 규칙성이 없으나, 성벽의 내측 한계선을 따라 열을 이루고 있음에서 성벽 축조에 필요한 버팀 기둥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성벽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에서는 기둥 구덩이 하나가 조사되었다(사진 20 좌측). 이 기둥 구덩이는 성벽 진행 방향으로 남긴 독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서측에서 하나를 확인하였을 뿐이며, 동측에도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위에 할석 구조가 있고, 두둑을 헐어낼 경우 성벽 유지가 어려워 지므로 하나만 확인한 것이다. 서측의 중심부 기둥 구덩이는 안쪽의 서쪽 기둥 구덩이에서 3m, 바깥쪽의 기둥 구덩이에서는 2.8m에 깊은 구덩이가 형성되었고, 구덩이의 굴착 방법은 동일하였다. 깊이가 1.5m이고 바닥에서의 규모는 직경 약 80cm로서 안쪽 기둥과 같은 규모로 되어 있다.

성벽의 중심에 있는 이 기둥 구덩이 외측으로 경사면을 이루기 시작하며, 외측 기둥 구덩이가 중첩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외측 기둥 구덩이는 크고 깊은 구덩이가 양쪽에 있고, 두 기둥 구덩이의 깊은 위치 중심간 간격은 4.5m로서 안쪽 기둥 구덩이 사이의 간격과 동일하다. 깊이는 약 1.5m이며 역시 계단식 굴착으로 만들었다. 위쪽에는 이 구덩이가 매몰될 당시 기와 조각들이 들어간 상태로 매우 단단히 다져진 상태였다.

이 외측 기둥 구덩이의 밖으로 다시 1.8m의 간격을 두고 기둥 구덩이 있다. 바닥의 상태가 경사가 느껴져 평탄한 말단 외연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 두 기둥 구덩이간 중심 간격은 역시 4.5m이다.[사진 18·25~30]

이처럼 개구부의 경우에는 안팎으로 모두 4개씩의 기둥 구덩이가 있으며, 이들은 동일한 너비인 4.5m씩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안쪽으로부터 밖으로는 1-2의 사이가 3m, 2-3의 사이가 3m, 3-4의 사이는 1.8m로서 30cm의 甓尺일 경우 각기 10尺, 10尺, 6尺의 간격이 된다.

이 개구부에서 1-2 사이는 평탄면이며, 2-3사이와 3-4 사이에 경사가 있다. 이러한 개구부에서 전체의 규모는 너비 4.5m(15尺), 길이 6m(20尺)의 측벽 밖에 별도로 1.8m(6尺) 규모의 너비를 더하여 개구부 측벽의 너비가 7.6m(26尺)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쪽 너비 6m의 부분에서 실제 잔존 벽의 너비를 뺀 60cm가 개구부 내측으로 연장되어 기저부를 이루고, 외측 1.8m의 너비만큼이 외측 성벽의 補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결국 개구부 측벽의 성벽은 아랫부분의 너비 7.8m(26尺)이고, 윗면의 너비가 5.4m(18尺)가 되도록 횡단면이 사다리꼴을 이루었던 성벽의 상태를 시사해주는 것이다. 성벽 외측면의 경사가 약 60도 내외였을 경우 성벽의 높이는 약 5m가 되는 구조가 되므로, 현재의 성벽 상면보다 약 1m 이상 높은 벽을 이루었다고 여겨진다.

[門口部の 구조]

기둥구덩이가 중첩된 곳에서 기둥 구덩이는 성벽 진행 방향을 따라 작은 도랑으로 연결되며, 동시에 안쪽을 향하여 기둥 구덩이가 하나씩 있어서 이 두 기둥 구덩이가 성벽의 횡단면을 따라 역시 작은 도랑으로 이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도면 6, 사진 17·18·25~27·29]

바깥 기둥 사이의 縱方向 도랑은 평균 너비 40cm이며 깊이는 다짐층 아래로는 50~60cm가 되며, 생토 면에서 아래로 판 깊이가 10~15cm가 된다. 바깥 기둥의 깊은 곳보다 안쪽에 위치한 얇은 곳의 등근 기둥자국 사이에 있으며, 그 간격은 橫方向의 도랑 중심 사이가 3.9m이다. 이것은 안쪽 큰 기둥 구덩이 사이보다 조금 밖으로 있는 얇은 기둥 구덩이 사이의 간격과 같으며, 안쪽 도랑의 석축 벽체와 나란한 방향으로 되어 있고, 안쪽과 바깥 두 도랑 사이의 중심간 거리는 4.8m 이다. 바깥 기둥 구덩이 종방향 도랑과 이어진 기둥구덩이에서 밖으로 각기 3m씩의 간격을 두고 마지막 기둥구덩이가 있다. 이 구조가 바로 문구부이다.

너비 4.5m의 개구부 안쪽에 바짝 붙어서 동쪽 측벽과 서쪽 측벽을 따라 5개 썩의 기둥 구덩이가 열을 이루어 있다. 이 가운데 각기 2번째에 해당하는 중심기둥 옆의 것은 자세히 확인된 것이 아니다[도면 6].

먼저 안쪽의 것은 깊은 개구부 기둥 구덩이로 들어가는 계단식 부분에 약 60cm의 깊이에 있는 것이다. 3번째의 것들은 약 50cm의 깊이로 4번째의 보다 큰 기둥 자욱(깊이 30~50cm)과 도랑으로 이어진 것들이다. 4번째의 것은 양쪽의 것이 성벽의 방향을 따라 너비 40cm의 도랑으로 이어져 있으며, 5번째의 것들은 4번째의 것에서 각기 3m씩 밖으로 내려가서 있다.

각각의 기둥 사이는 모두 문구부의 너비를 보여주는 3.9m이며, 안쪽에서 바깥으로는 2.4m, 1.2m, 1.2m, 3m씩의 거리를 두고 있다.

문구부 기둥에서 특별한 구조는 4번째 기둥 사이의 도랑과 3번 및 4번 기둥 사이의 종횡으로 이어진 도랑 유구이다. 이 도랑은 안쪽의 40cm 너비를 가진 양쪽 기둥사이의 작은 담장 흔적과 거의 나란하며, 4.8m의 간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3번 기둥에서 4번 기둥에 이르는 사이가 경사를 이룬 지면으로 되어 있는 점과 함께, 여기에 토친목(土襯木)을 밖아 지면을 평탄하게 만든 구조였음을 알려준다.

즉, 문구부의 경우 너비 3.9m, 길이 4.8m의 범위에 대하여 지반을 평탄히 하기 위하여 바깥에 경사면 보완용의 커다란 토친목을 대고, 이것이 밀려나지 않도록 안쪽으로 중앙에 또 다른 長柱를 세워 연결하였던 것이다. 이 구조 위에 아마도 문지방을 이루는 구조물이 건설되었을 것이다.

동측의 3번 문구부 장주 안쪽에는 직경 약 65cm의 초석 받침의 적심석이 일부 잔존되어 있었다.

이 적심석은 문터 안쪽 동측 기둥의 안쪽에 있는 호트러진 적심석 유구와의 거리가 4.8m이다. 이것이 장주와는 별도로 만들어진 문루를 세우기 위한 기둥 초석의 적심석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문은 문구부의 문도 내부에서 경사면을 평탄히 하는 구조로 만들고 그보다 약간 안쪽으로 별도의 초석을 가진 문루를 세웠던 것이 되며, 문루는 보다 안쪽으로 들어서 세워진 것으로 여겨진다.

맨 밖에 있는 기둥 구덩이는 매우 의외의 것이다. 門道가 이곳까지 이어진 상태로 추측되지만, 이 기둥의 외측은 보다 급경사이다. 門庭部가 경사면을 이룬 상태에서 여기에 별도의 기둥을 세운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이 기둥 구덩이는 위쪽에서 밖으로 약간 벌어진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버팀목이 밖으로 나가 시설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수레나 말을 타고 문을 통행할 경우 문터로 들어오는 어귀에 별도의 기둥이 마련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어떤 특수한 목적—혹시 계단처럼 된 별도의 목판으로 만든 板門을 달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일종의 梯橋를 시설한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성벽 내측 대지의 유구]

성벽 내측의 가장 서측의 기둥 구덩이에서 성벽 안쪽으로는 길이 약 2.5m, 너비 1.5m 이상의 범위가 10cm의 깊이로 파여진 내부에 할석이 집중 분포하고, 50cm 사방 규모의 주초 모양 큰 할석이 있어서 초석과 적심 유구로 여겨진다(도면 6). 이것을 초석으로 보면 동쪽으로 흩어진 비교적 규모가 있는 할석들과의 관계가 건물터의 유구일 가능성이 있다. 즉 이 초석에서 동쪽으로 열을 이룬 곳에 하나씩 분포한 할석과의 간격은 적심 중앙과 할석 사이가 각기 3.6m가 되는 等間隔이 되어 있어서 성벽 안쪽 높은 대지의 능선 줄기 상부를 따라 건물터가 있었던 흔적으로 여겨지며, 주변에서 기와 조각이 많이 수습되는 현상과도 관련될 수 있다.

성벽 안쪽의 대지는 불규칙한 구덩이가 낮게 파여진 곳이 있고, 둥근 모양의 저장 구덩이가 두 개 확인되었다. 저장 구덩으로 동측의 것은 지름 1.2~1.7m의 타원형으로 깊이가 10cm에 불과하고, 서측의 것은 길이 110cm, 너비 90cm, 깊이 30cm로 말각 장방형의 것이다. 이 두 구덩이 사이의 중심 간격은 3m인데, 일단 저장구덩이로 성격이 불분명하나, 기둥을 세우기 위한 적심 유구로 만들어진 것이 후에 돌이 부족한 이곳에서 할석이 반출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사진 31).

[성문 구조의 종합]

치인성의 남서쪽 벽에 존재하였던 이 문터는 남문터로 여겨지며, 가장 높은 위치에 시설된 문이었던 듯하다. 문은 남서쪽 성벽의 중간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지점이며, 좌우에 특별한 다른 시설물

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는 성벽일 뿐이나, 1970년 당시에 이곳에 소로가 만들어진 것을 이후 매움질 하였으므로 현재와 같이 성벽으로 되었다. 당시에는 성벽을 일부 포크레인으로 절단하여 통행로가 되었는데, 당시를 회고하는 사람들은 당초 다른 곳보다 낮아 소로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번의 시굴조사에서는 당초 문구부로 생각되는 곳을 성벽 단절면으로 설정하였다. 잔존 성벽의 정상부에는 성벽 진행 방향을 따라 너비 60cm의 독을 남기고 조사하였는데, 처음 표토를 제거하면서 최근에 이루어진 성벽 단절과 매운 흔적이 여실히 드러났다.

처음 이 종단면 내측에 대한 조사에서 바닥으로 사용된 생활면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문터로 사용된 흔적이 있고 불에 탄 흔적이 여실히 있었다. 이 바닥에서 나타난 기둥 구덩이는 규모가 크지 않으며, 문터를 후대에 매운 관측 작업을 위하여 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작은 기둥 구덩이 아래 층위로 다시 견고하게 다져진 아래 층위에서 보다 크고 깊은 기둥 구덩이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 기둥 구덩이를 중심으로 외부로 확대된 시굴 구덩이 굴착 작업을 실시하였다. 외부로 다져진 층위는 매우 견고하게 다져진 것이었으며, 기둥 구덩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을 때는 작은 기둥구덩이로부터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하게 사용하던 바닥층에 깊이 박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역시 내측의 얇고 작은 기둥 구덩과 관련된 것들로 판단하게 되었다.

견고히 다져진 아래 층위에서 보다 큰 기둥 구덩이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규모가 내측에서 조사된 것과 거의 같은 크기로 된 것임을 알게 되었으나, 기둥 구덩이가 중첩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성벽이 아님을 추정하게 되었다. 즉, 토축의 성벽을 보완 수축하기 위한 기둥 구덩이가 중첩된 경우에는 다져진 층위 위쪽에서 그 보완된 기둥을 파낸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는 개구부를 만든 기둥 구덩이와 문구부를 만든 기둥 구덩이가 나란히 시설된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유구에 맞는 판단으로 여겨졌다.

개구부의 측벽은 곧 성벽으로서 커다란 기둥구덩이가 관측 공법의 토루를 만들기 위한 거푸집의 버팀 기둥으로 세워진 것이며, 보조적인 기둥을 포함하여 성벽의 너비 6m를 기준하고, 1.5m의 너비를 하나의 작은 단위로 하였으며, 성벽 진행 방향으로는 3m를 한 구간으로 하여 역시 1.5m씩의 작은 구간을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30cm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자(尺)를 사용하여, 작은 구간은 5尺 단위, 큰 구간은 10척 단위로 하여, 성벽의 너비가 20尺을 기준으로 축조된 것이 당초의 성벽이었다. 여기에 경사가 급한 외측에는 1.2m(4尺)너비로 補築을 한 기둥 구덩이가 있는 것이 있으므로 성벽의 기초너비는 7.2m(24尺)이 된다. 이 경우 대략 높이는 바닥 너비의 절반 이상이 되므로 3.6m(12尺) 이상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성벽의 문을 만들기 위한 開口部는 너비 4.5m(15尺), 길이 6m(20尺)의 범위이며, 여기에 門口部는 너비 3.9m(13尺)으로 開口部의 너비에서 양쪽 각각 1尺씩이 좁아짐)이며, 門口部 바닥은 4.8m(16尺)으로 개구부 양쪽 끝에서 각각 2尺씩 짧음)의 길이에 걸쳐 평탄면을 조성하였다. 이 평탄면은 외측으로 경사진 중앙부 외측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측 문기둥 사이에 홈을 파서 土欄木을 문도 방향에 가로로 대었으며, 이 土欄木은 바깥 문기둥 안쪽 1.5m(5尺) 안쪽에 있는 문의 長柵을 세우고 거기서 바깥 문기둥까지 문도 방향에 나란히 縦土欄木을 대어 견고함을 더하였고, 그 흔적이 작은 도랑으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門道의 밖으로 3m(10尺)의 거리에 좌우로 또 다른 기둥 구덩이가 3.9m의 너비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門道의 門庭部를 별도의 차단장치로 보완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不明이다.

城壁의 構築에서 版築工法の 土築에서 성벽 외측의 경사면에 補築을 가하는 것은 삼국시대부터 있어 온 것이며, 통일신라와 고려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축조 기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보통 北朝 이래 唐尺으로 잘 알려진 30cm의 단위자가 사용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문으로 만들어 사용한 시기는 숫과 함께 출토된 기와들이 주로 고려시대에 유행한 어골문 계통의 것이란 점에서 일단 고려시대에 사용되고 불탄 것으로 여겨지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수 있다. 즉,

- 동측 단면상에는 성벽의 안쪽 경계면이 수직으로 짧게 나타난다. 성벽 진행 방향으로 남아있는 담장처럼 된 활석렬은 이 성벽 한계선의 안으로 들어가 있다.

- 중앙의 두둑에 나타나는 토층은 중앙에 함몰부가 있다. 이 함몰부는 성벽 보수시에 포크레인으로 바닥까지 확인하기 위하여 굴토된 것이며, 130cm의 너비이다. 양측으로는 바닥에 작은 활석이 일부 포함된 위로 다짐된 토층이 있다. 이 다짐토는 석비레와 일부 황갈색 내지 적갈색의 점토가 포함된 층위로서 성벽 다짐층이다. 위로는 얇게 보수공사 이전의 표토층이 있는데, 이 표토층의 위로 80~90cm의 두께가 보수된 토층이다. 따라서 보수공사 이전 이 부분은 좌우측 성벽 높이보다 60cm 정도가 움푹 들어간 상태였던 것을 알 수 있고, 이곳을 후문, 혹은 남문터로 생각하였다가, 중장비로 성벽을 일부 절단하여 성벽 토층이 나오자 문터가 아니라 생각하고 메워 보수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 이 성벽 절단부의 단면을 보면, 구룡의 자연 생토면은 바깥으로 경사를 이루며, 경사면 위쪽으로 성벽과 나란한 방향으로 홈을 만들었다. 이 홈과 성벽 안쪽의 판축토 경계선까지는 약 5.7m의 너비이며, 기초 부분은 되도록 평탄면을 유지하도록 생토면을 정리하고, 중심토루는 4.2m의 너비로 밝은 황갈색 사질토와 회갈색 사질토 및 숫을 포함한 적갈색 점질토로 다짐하였다. 이 부분은 현재 50~60cm의 두께까지 외측에 남아 있다. 이 부분이 문터를 메워서 축조한 성벽의 너비를 대략 알려준다.

이 중심 토루의 외측으로 1.4m의 구간은 굵은 적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연은 바닥에 흙이 파여져 있다. 흙이 파여진 외연과 내측의 한계까지의 성벽 두께는 6m가 된다. 그 외측으로 완만한 경사면을 테라스상으로 둔 다음, 다시 외측 하부로 보다 급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 이러한 구조는 성벽 단면부의 서측 단면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서측 단면에서는 생토층을 파고 만든 흙이 70cm 이상의 깊이로 파여지고, 여기서 성벽의 안쪽으로 155cm까지 생토면 위에 생토 다짐층이 구분되며, 그 아래의 적갈색 점질토가 생토 위를 다진 층위이다. 중심 토루를 이루는 부분은 조밀한 판축 다짐층으로 성벽의 안쪽까지 4.2m의 너비를 가진다.

· 결국 처인성의 남서쪽 성벽은 생토층을 정지하되 바닥에 불탄 층위가 있어서 당초부터 문화층이 존재한 윗면을 이용하여 토루를 축성한 듯하다. 토루는 안쪽 한계선에서 4.2m의 너비로 축조되고, 그 외측으로는 생토면에 너비 20~55cm의 흙을 파고 이 흙의 안쪽을 성벽, 혹은 외피 축토를 한 것으로서 성벽의 너비는 최대 6m가 된다.

성벽 한계선의 안쪽으로는 특수한 시설은 없으며, 불규칙한 기둥 구멍이 있다. 이 기둥 구멍들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개구부로 판단되는 기둥 구멍이 5箇가 중심간 450cm 간격으로 대칭을 이루며 성벽방향과 직교하고 있다. 각 기둥 구멍은 직경 80~90cm, 깊이 150~170cm로 당시의 문화층과 생토층을 계단상으로 굴착하였다. 또한 각 기둥 구멍이는 바로 옆에 보조기둥을 둔 것처럼 보여지며, 길이 방향으로의 기둥 구멍이의 간격은 안쪽의 3箇는 약 300cm이며, 성벽 외하단의 경사면에 있는 기둥 구멍 2箇는 바로 붙어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개구부는 너비 4.5m, 길이 약 9m로 굴림주의 형태로 기둥을 세워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3) 성내 유구 확인 시굴 구덩

성내의 유구 확인 시굴 구덩은 성벽 확인 구덩의 북쪽 끝에서 10m를 띄워서 사방 10m의 범위를 99-2, 그로부터 다시 10m를 띄우고 99-3, 또다시 10m를 띄우고 99-4 시굴 구덩을 작업하고, 99-4에서 서쪽으로 10m를 띄워서 사방 10m의 범위까지 99-5 시굴 구역으로 하였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지형은 차츰 낮아지며, 99-2 시굴구덩은 거의 평탄면이며 유구가 검출되지 않고 바로 표토 아래 생토 면이었다. 99-3은 경사면, 99-4와 99-5는 성내의 북쪽편 낮은 평지에 해당된다. 이하 각 시굴 구덩별 유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99-2 시굴구덩]

여기에서는 표토 아래에 아무런 유구가 없으며, 생토면이 거의 평탄면을 유지한다. [도면 5, 사진 32]

[99-3 시굴구덩]

이 구덩도 가로 세로 각기 10m 규모이며, 능선 대지에서 북동향으로 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북동향 중간에서 V자 모양으로 골을 형성하여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표토인 적갈색 점질토 아래에 흑갈색 점질토인 유물 포함층이 약 20cm~50cm로 불규칙한 깊이로 있으며, 아래는 생토면이다. 생토면은 경사를 이루며, 이 중 동북쪽 한쪽에 치우쳐서 둥근 구덩이 하나 마련되었다. 이 둥근 구덩은 지름 1.1m의 규모로 타원형이고, 깊이가 20~50cm 규모이다. 내부는 작은 할석과 도기편 및 기와편이 들어 있어서, 저장공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도면 5·13~15, 사진 33~38).

구덩이의 깊이로 보아서는 일정한 범위를 파내고 적심을 만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구덩이 속의 매물상태로 보아 어골분의 기와류가 많아 이 성이 영위되던 초기의 것은 아닌 듯하다. 일부가 벽면에 의해 잘리어진 상태로 조사를 마쳤으므로, 이와 관련되는 유구가 동쪽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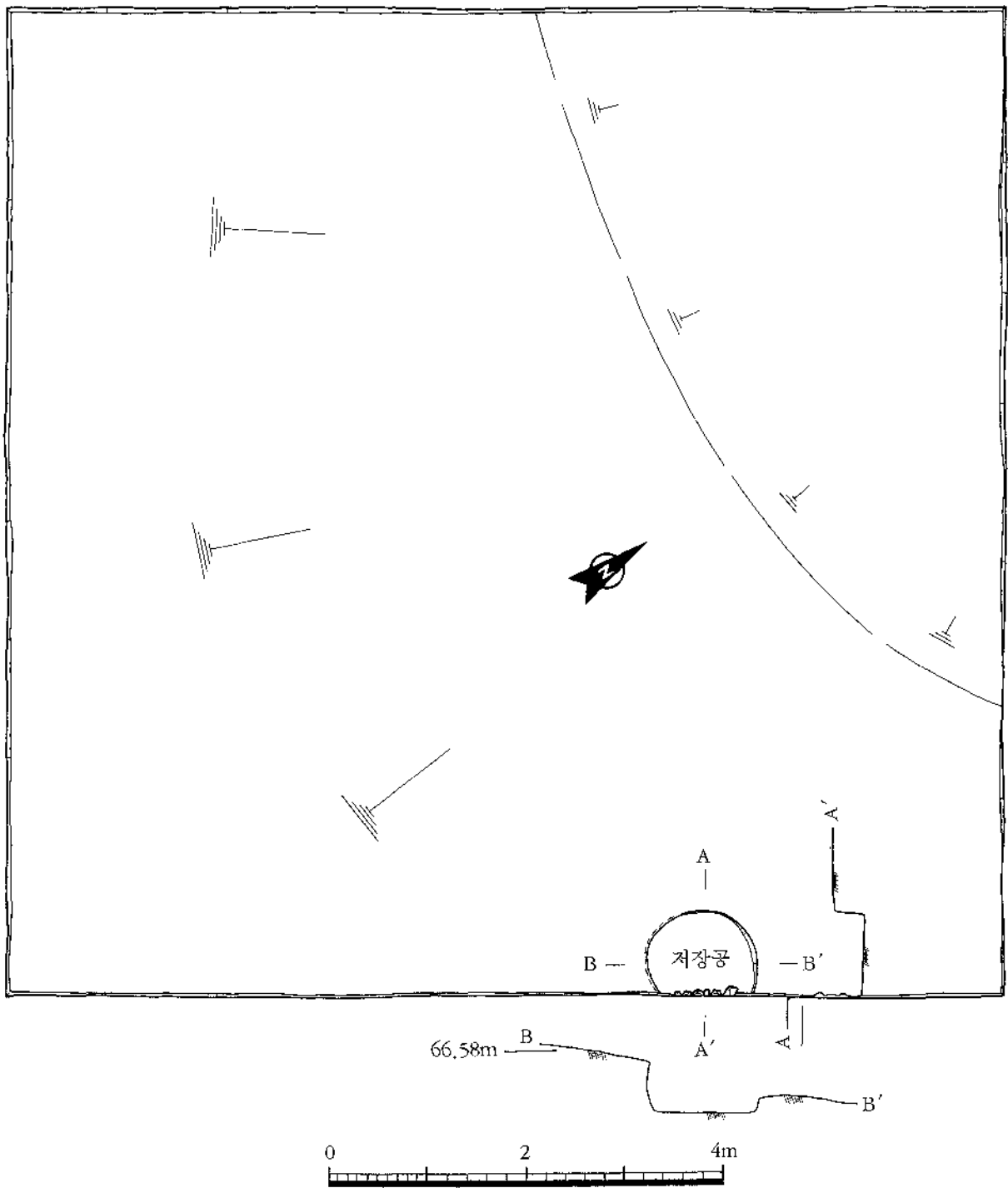
이곳에서는 四趾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도기편이 출토되었다.

북쪽 모서리 쪽으로는 급한 경사면을 이루며 단이 저서 낮아진다. 낮아지는 단의 아래로는 약 1.5m의 깊이에서 두께 60cm 정도가 암황갈색 점질토의 다짐층이 있고, 그 위로 암갈색 점질토가 층위를 이루며, 이 층위에 기와 조각과 도기편이 할석과 섞여 있다. 이런 양상으로 보아 단일 시기에 매몰된 것이 아닌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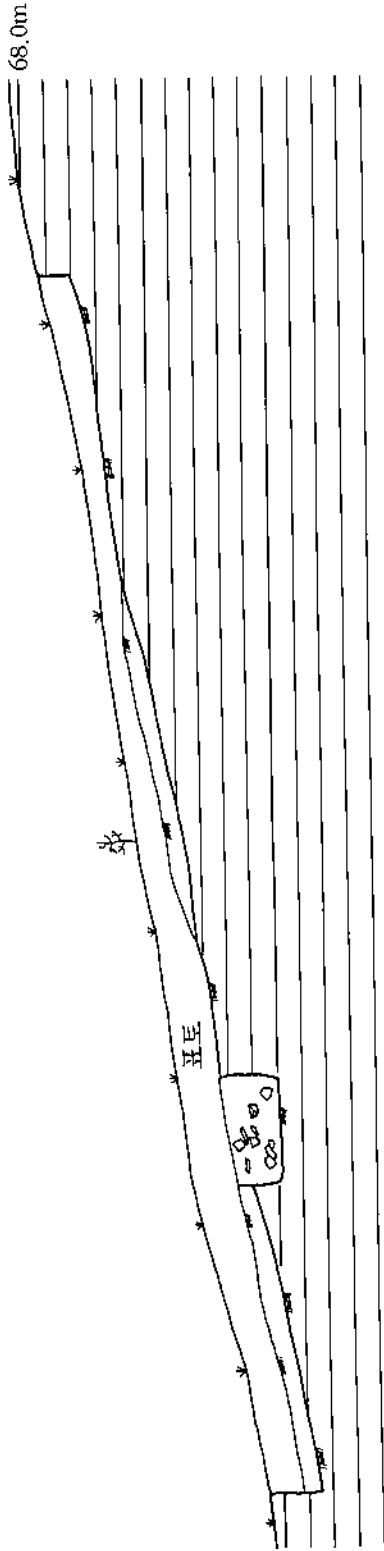
[99-4 시굴구덩]

이 구덩이는 동북쪽 벽에 인접한 낮은 대지를 이룬 부분에 해당된다(도면 5·16~20, 사진 39~41). 사방 10m의 규모이며, 바닥층에서는 표토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경사가 급경사를 이룬 지형으로 나타난다. 즉 표토에서는 남쪽에서 북향하여 10m의 구간에서 약 80cm~1m 정도로 낮아진 상태이나, 표토 아래는 매우 불규칙한 깊이로 층위가 이루어진 양상을 보이며, 특히 동북쪽 성벽이 있다고 여겨지는 근접부위에 이르러서는 2m 이상 깊이가 깊은 곳에 유구의 흔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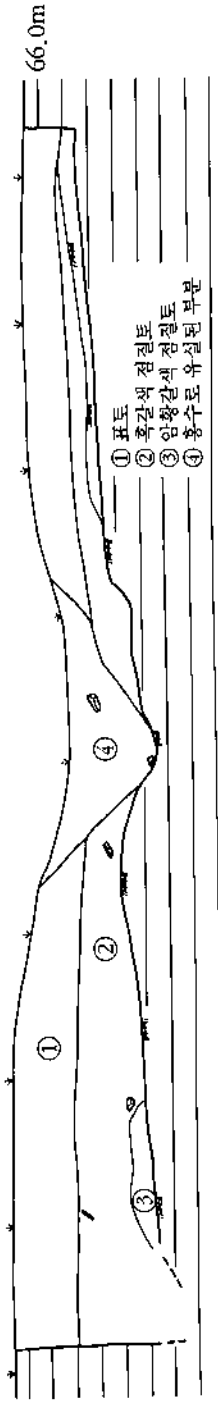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대략 30~60cm의 두께로 표토가 있고, 그 아래로 기와와 도기편이 많이 포함된 교



[도면 13] 처인성 99-3 시굴구덩 평면 및 저장구덩 단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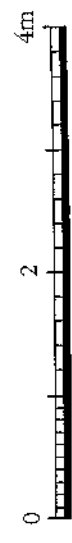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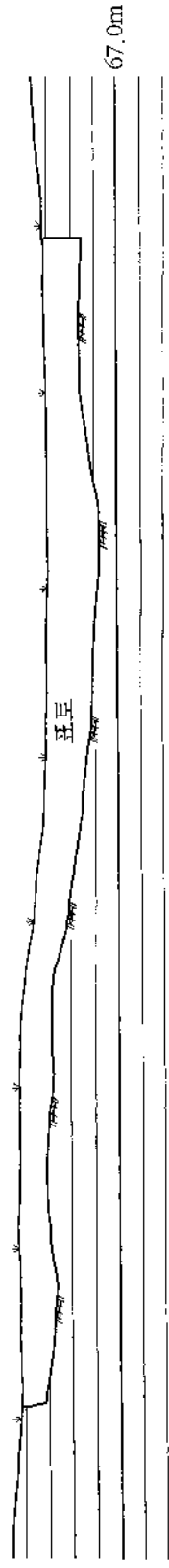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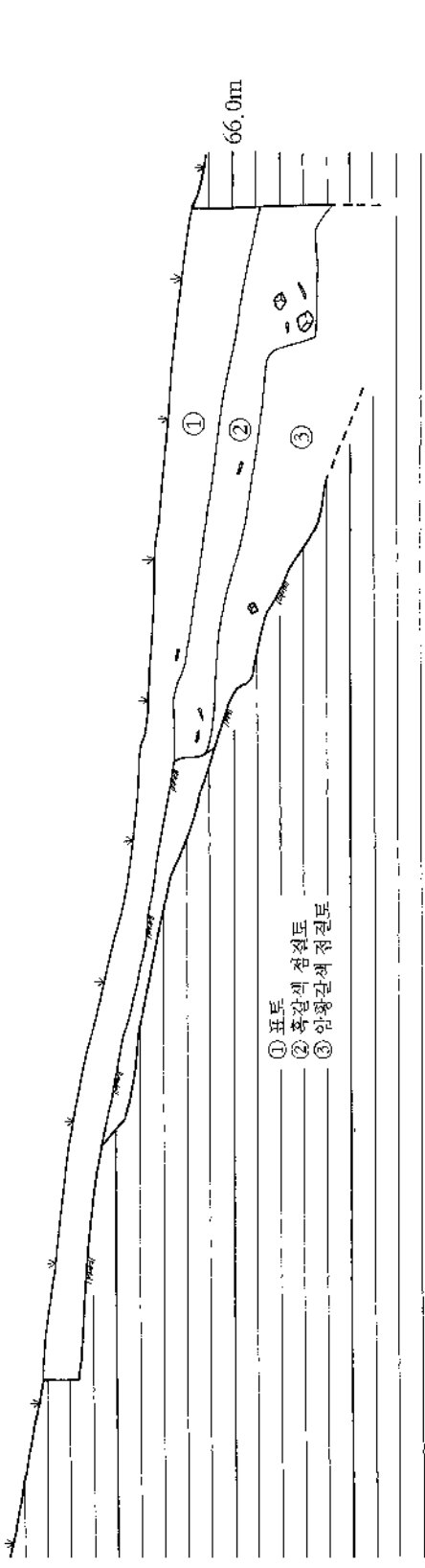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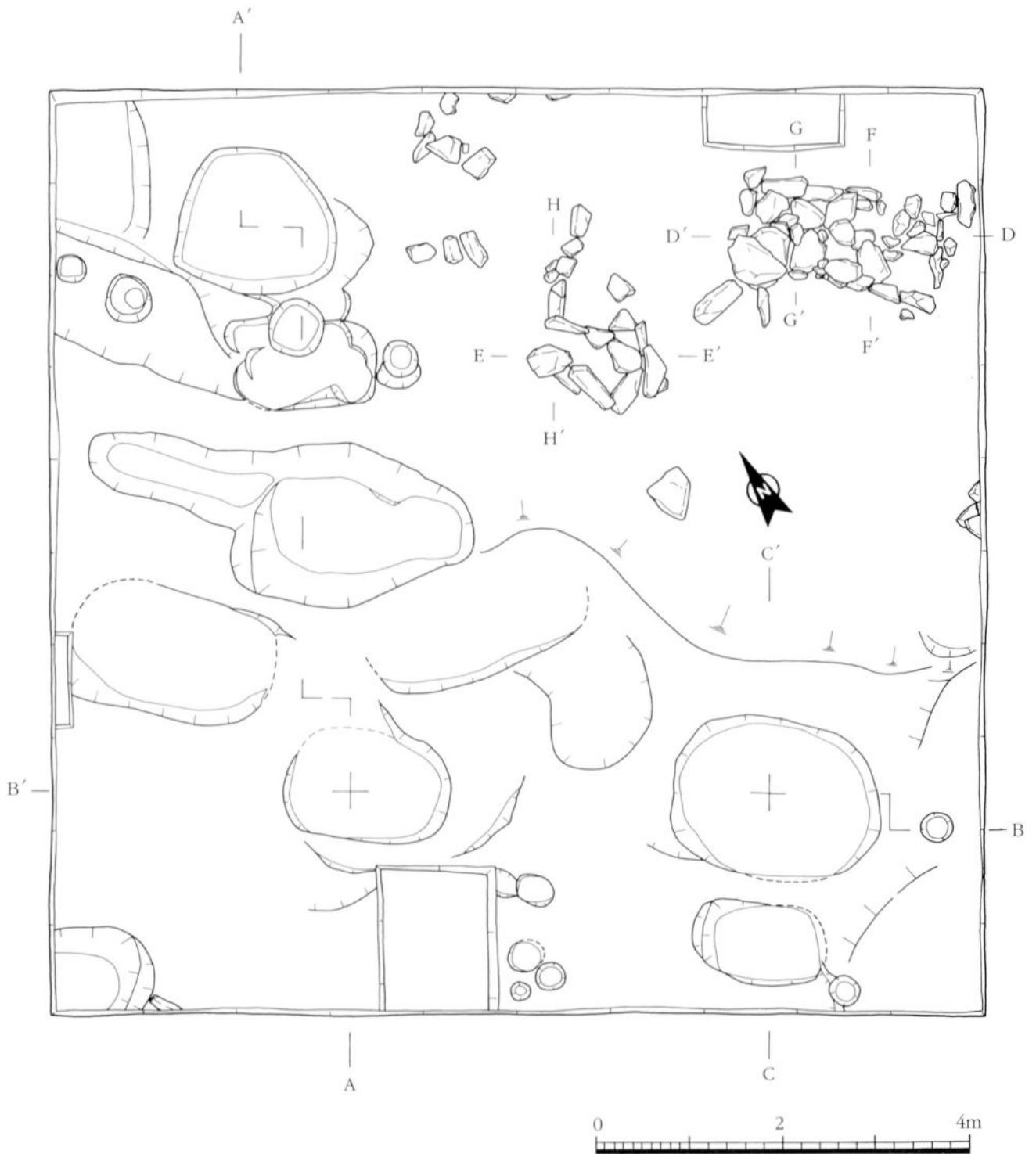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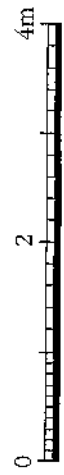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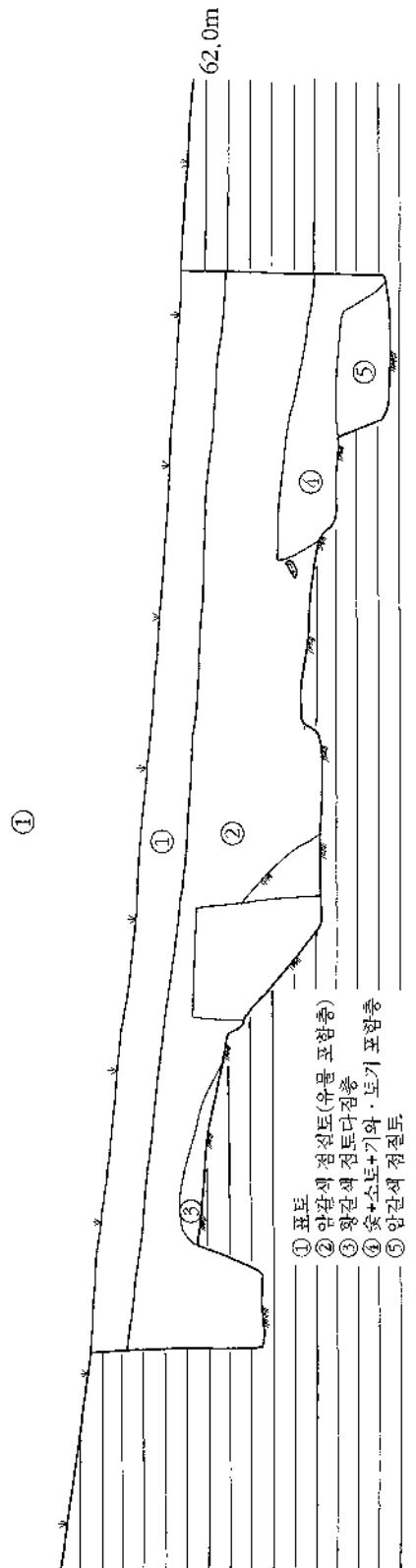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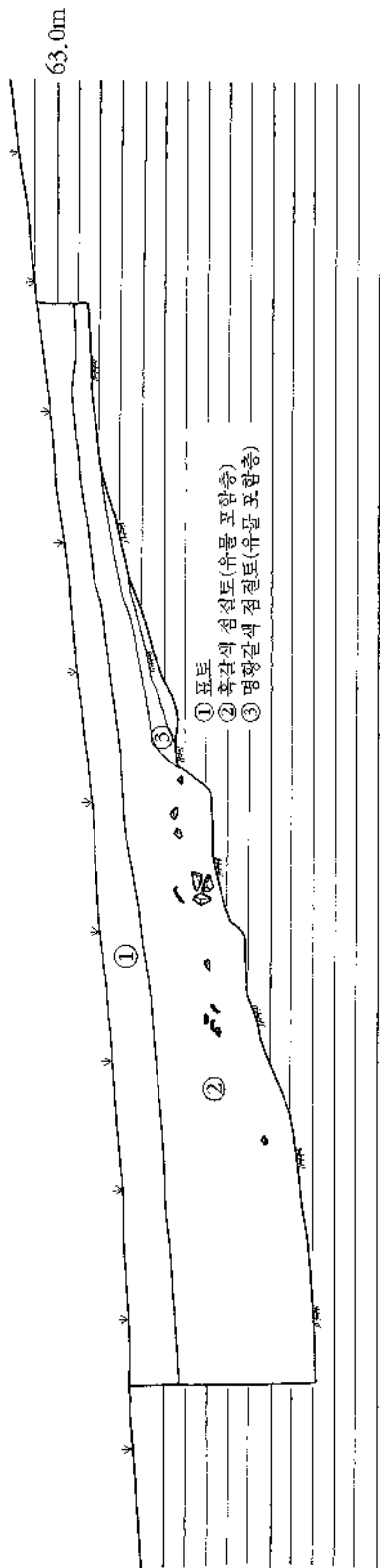
[도면 14] 처인성 99-3 시굴구덩 동벽 및 북벽 토층 단면 식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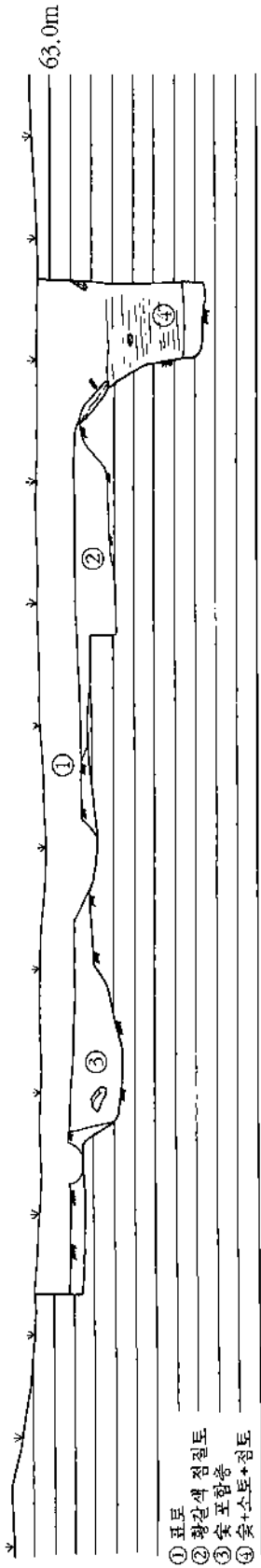
[도면 15] 처인성 99-3 시굴구덩 서벽 및 남북 토층 단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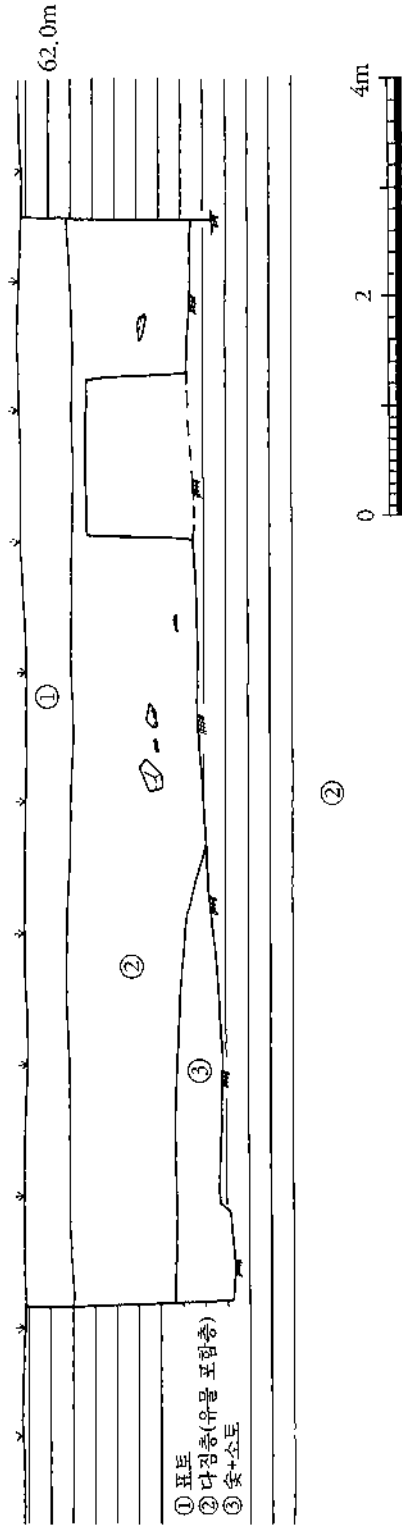
[도면 16] 처인성 99-4 시굴구덩 평면 실측도



[도면 17] 처인성 99-4 시굴구덩이 동벽 및 서벽 토층 단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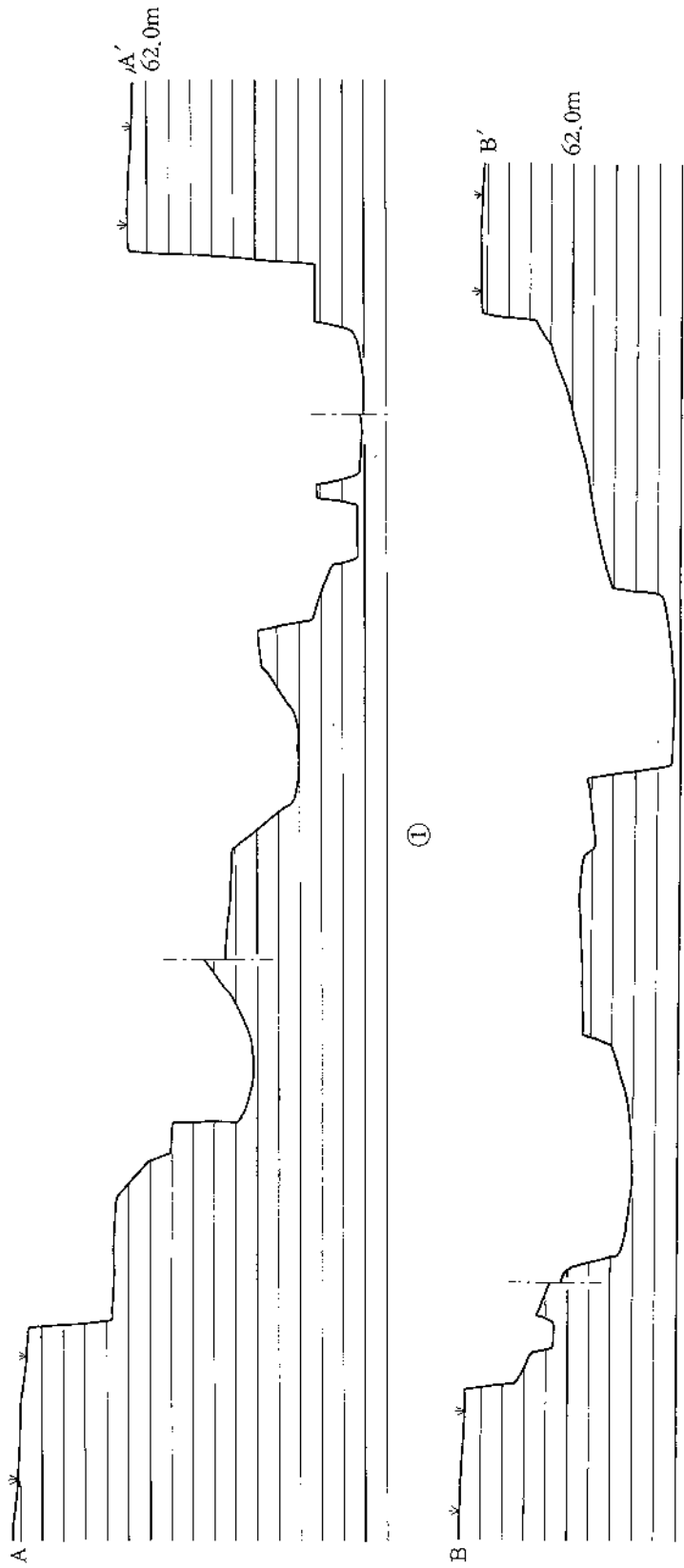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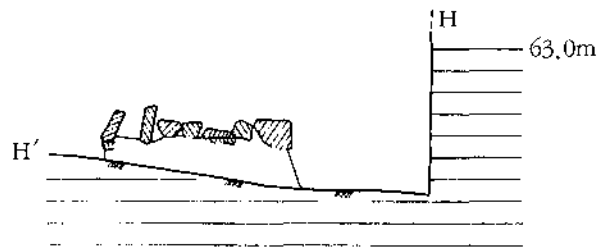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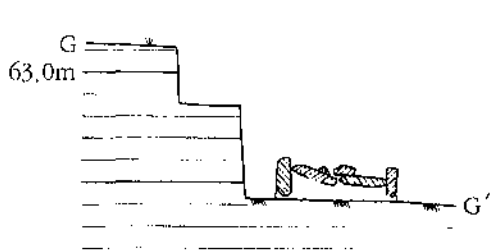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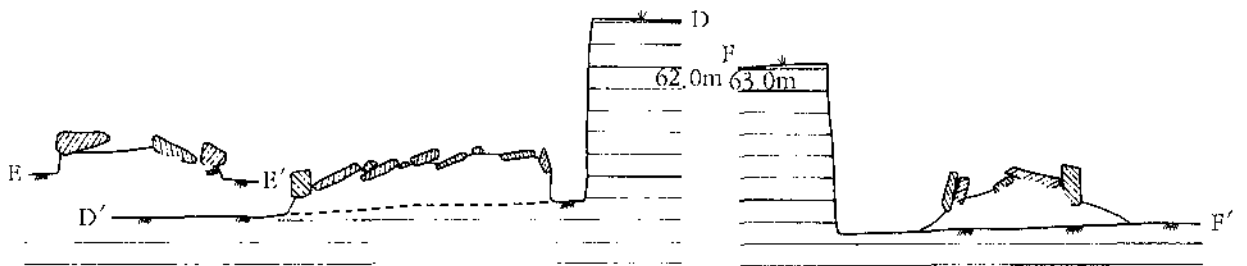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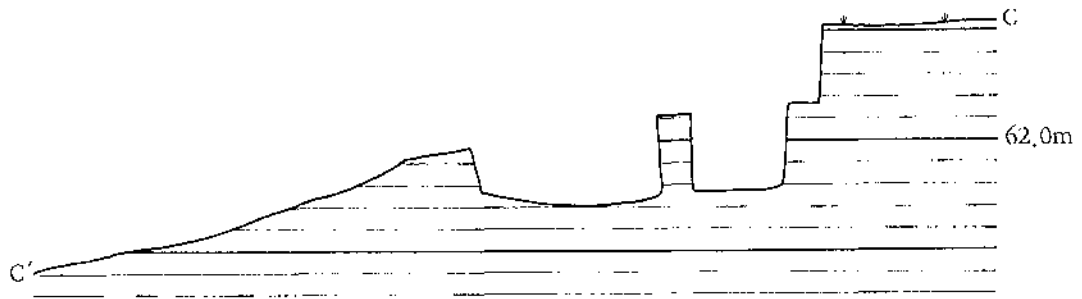


②

[도면 18] 처인성 99-4 시굴구덩 남벽 및 북벽 토층 단면 실측도



[도면 19] 처인성 99-4 시굴구덩 단면 실측도(A-A' · B-B')



[도면 20] 처인성 99-4 시굴구덩 구들유구 단면 실측도

란층이다. 보다 낮은 곳에서는 할석들이 무질서하게 함몰되어 있다. 경사면 부분에는 경사 윗쪽인 서쪽을 향하여 두 개의 숲이 포함된 층위가 있고, 불에 탄 흔적도 있어서 민가, 혹은 특수한 용도의 구들 구조들이 마련된 흔적이 있다. 유물층은 통일신라 후기의 도기편을 포함하여 고려시대의 도기와 기와편이 뒤엉킨 상태로 매몰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사면편병류와 기와, 철제 대도(鐵製 大刀)에 끼웠던 칼코덩이(鐮)가 출토되었다.

이 구덩이에서 나타난 유구는 단을 이룬 서측의 높은 지역과 동측의 낮은 지역이 이어지는 구덩이 유구들과 기둥 구덩이 유구가 있고, 남동측으로 치우쳐 많은 양의 할석이 불규칙하게 파묻힌 아래서 나타난 장방형의 구들 유구가 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낮아지는 지형을 따라 기둥 구덩이는 3개의 群을 형성하지만 규칙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남동쪽 모서리의 경우 직경 30cm 내외의 기둥구덩이 2개가 2m의 간격을 두고 깊이 64cm와 25cm의 규모로 나타났는데, 이 기둥구덩이의 서측 것에서 서쪽으로 중심간 거리 3.1~3.2m의 곳에 역시 직경 30cm, 깊이 20cm의 기둥구덩이가 있고, 그 서측에 바짝 붙어서 3개의 기둥구덩이가 있다. 남측의 것이 가장 작아 직경 20cm이고 깊이 17cm, 다음은 직경 36cm, 깊이 40cm, 다음은 직경 30~40cm의 타원형으로 깊이 30cm이다. 이들 4개의 기둥구덩이가 1.5m의 범위 내에 있어서 규칙성은 없다 이처럼 5개의 기둥 구덩이가 비교적 높은 위치의 단 위에 있다. 이 기둥구덩이 사이에는 발각 방형의 구덩이가 2개 있으며, 남쪽의 작은 것은 길이 1.2~1.4m, 너비 80~90cm의 규모로 동서 방향으로 길며, 깊이가 약 80cm로서 바닥으로 약간 넓은 형태이다. 그 북측의 것은 동서 방향의 길이 2.1m, 남북 방향의 너비 1.7m로 보다 크나 깊이는 42~90cm로서 작은 것에 비하여 얇게 파여진 것이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경사면을 따라 생토 바닥을 이처럼 대체로 지형을 따라 동서 방향이 길쭉한 구덩이를 만든 유구는 7개가 더 있다. 그만큼 조밀한 분포를 보이는 것은 전체적으로 서굴구덩이 내에서 동반부 가장 낮은 곳에서는 할석으로 만든 구들이 분포할 뿐이다. 약간의 평탄면과 단을 이룬 경사면을 따라 조밀한 유구들은 저장용 구덩이도 있을 것이지만, 내부에 숲이 많이 포함된 것도 있다. 뚜렷한 시설이 내부에 없이 평탄면을 따라 길다란 형태로 최대 길이가 2.2m, 너비 1.4m 정도의 규모가 2개, 보다 작아 길이 1.6m, 너비 1.2m 의 것이 있다. 가장 낮은 곳의 것은 사다리꼴 평면으로 약 1.6m의 길이가 되며 깊이는 평균 50cm가 된다. 이 가장 낮은 곳의 구덩이 남쪽으로 복잡하게 여러 차레 만든 기둥구덩이와 4개의 뚜렷한 모습의 기둥구덩이가 있으나, 이들도 규칙성이 없다. 규칙성이 없는 이유는 이들 구덩이 위로 시설되었을 어떤 시설물들이 경사면에서 지속된 시대로 보다 낮은 곳으로 이동된 탓으로 여겨지며, 불을 땀 흔적이 있는 것이 있음을 보아 家屋 유구의 바닥이 남

은 것으로 여겨진다(도면 16, 사진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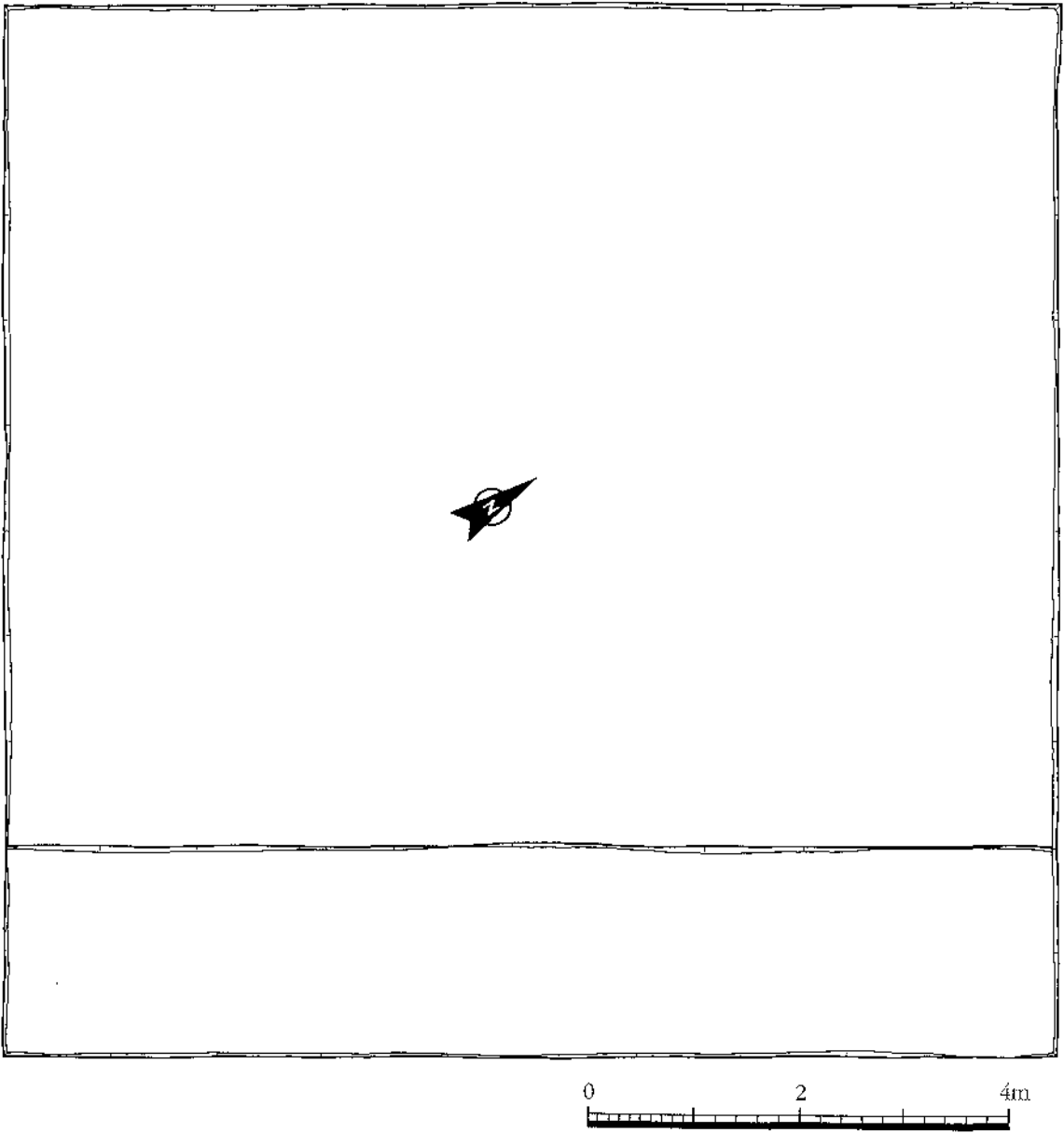
북쪽의 깊은 위치에서는 많은 양의 퇴적된 교란층을 들어내고 겨우 구들로 여겨지는 유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퇴적층에서는 할석과 기와 조각 및 도토기 조각이 어지럽게 포함되어 있었다. 구들 모양의 유구는 동서 6.2m, 남북 3.5m의 범위 내에 흩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실제로는 할석의 분포 범위에 해당하며, 구들 모양의 유구 자체는 길이 약 3m, 너비 2m의 범위 부분과 2.5m, 1.5m의 부분으로 2개가 있다(도면 21, 사진 41).

먼저 북동쪽 모서리에 치우친 곳의 큰 것은 방향이 북서-동남 방향의 구들이며, 보다 서쪽의 것은 같은 방향의 좁은 구들과 거기서 거의 직각으로 방향을 바꾸어 서남-북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할석으로 열을 이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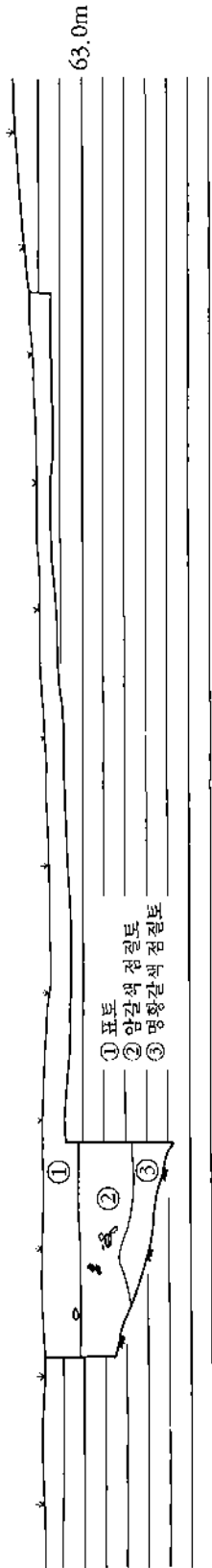
앞의 것은 할석을 세운 상태에서 板狀割石이 덮여 있는데, 서쪽과 동쪽으로 열을 지어 판상할석을 세우고 위에 역시 판상할석을 덮었던 것으로 구들 내부의 너비는 90cm가 된다. 북서쪽에서 낮았던 것이 남동쪽으로 가면서 높아진 형태이다.

뒤의 것은 잔존 부분이 보다 작게 남았는데, 동서 방향으로 좁은 溝 모양의 부분과 열을 이룬 할석으로 덮인 부분이 있다. 남쪽에 30cm 너비의 溝가 판상할석을 세워 만든 것이고, 북쪽으로 열을 이룬 부분이 있고, 동쪽으로 1.5m 너비의 할석이 흩어진 부분은 양쪽에 할석을 세운 것이 무너진 경우 1.2m 너비의 구들을 만든 것이 붕괴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너비 1.2m나 되는 규모의 구들은 일반 民家の 것으로서는 너무 큰 것이 된다. 따라서 이것은 특수한 생산물과 관련된 구들일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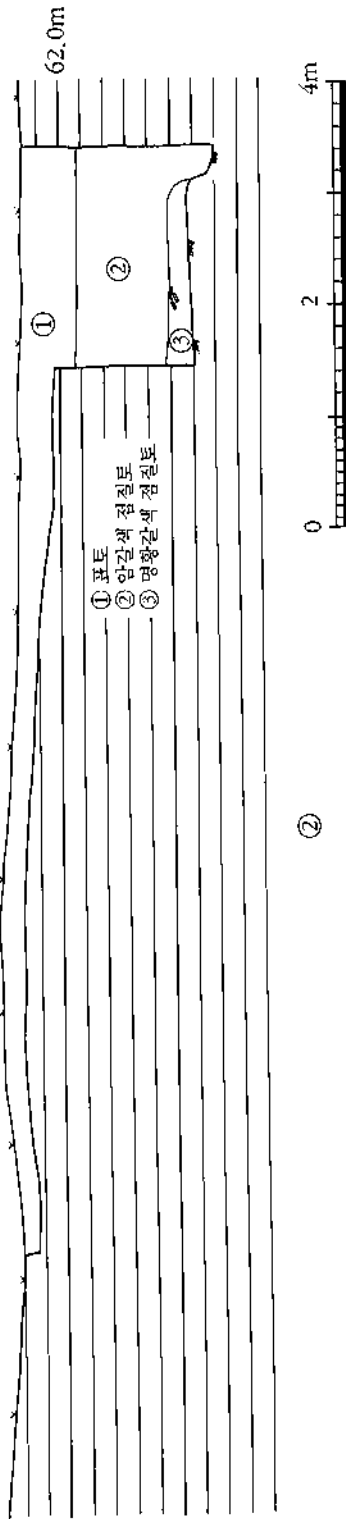
99-4 시굴구덩이에서의 매몰 층위는 생토층에 마련된 저장 구덩이와 용도가 자세하지 않은 말각 방형 내지 타원형의 구덩이 유구 위로 숯과 燒土, 그리고 점토가 혼합된 층위가 유물 포함층이 되며, 표토인 암황갈색 점질토가 평균 30~40cm의 두께로 덮고 있다. 유물 포함층에서의 유물의 cfhx 양상은 매우 교란된 상태를 보여준다. 생토면에서의 굴곡이 매우 심하여 남쪽의 높은 위치 단면에서도 서측 끝에서는 표토층 위에서 1.6m의 깊이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숯이 깔린 층위가 1.4m 아래에 약 10cm의 두께로 나타난다. 비체로 맨 아래의 깊은 층위에서 숯과 소토가 포함된 암갈색 점질 토층이 되고, 위로 황갈색 점질 토층이 있는 곳과 곧바로 표토로 이어지는 부분이 교차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지세가 낮은 쪽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사태가 진행된 결과로 보이며, 경영이 멈춘 시점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도면 21] 처인성 99-5 시굴구덩 평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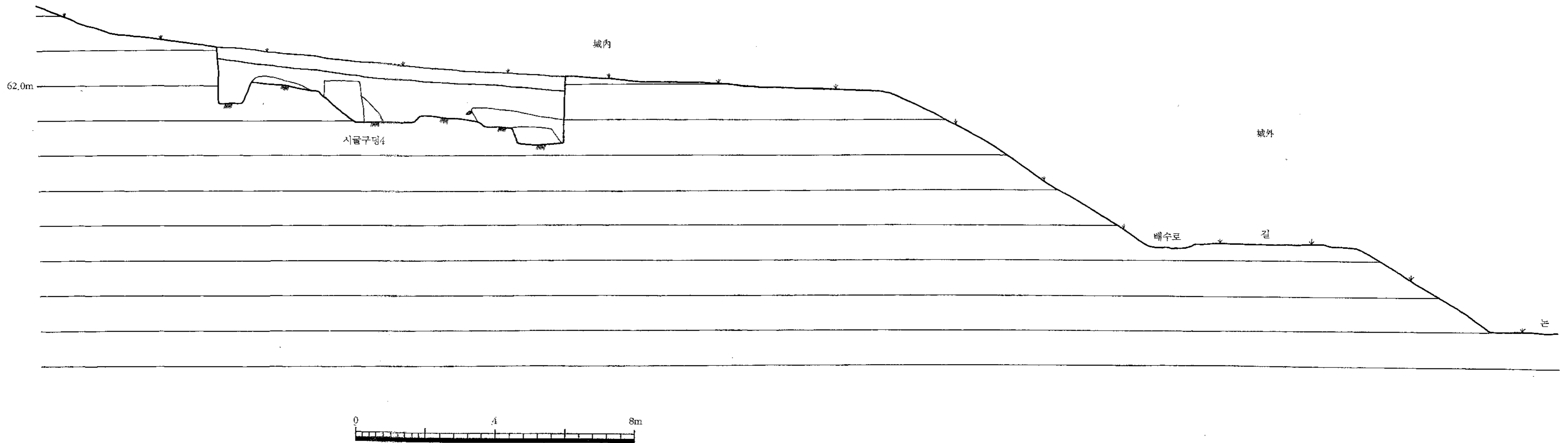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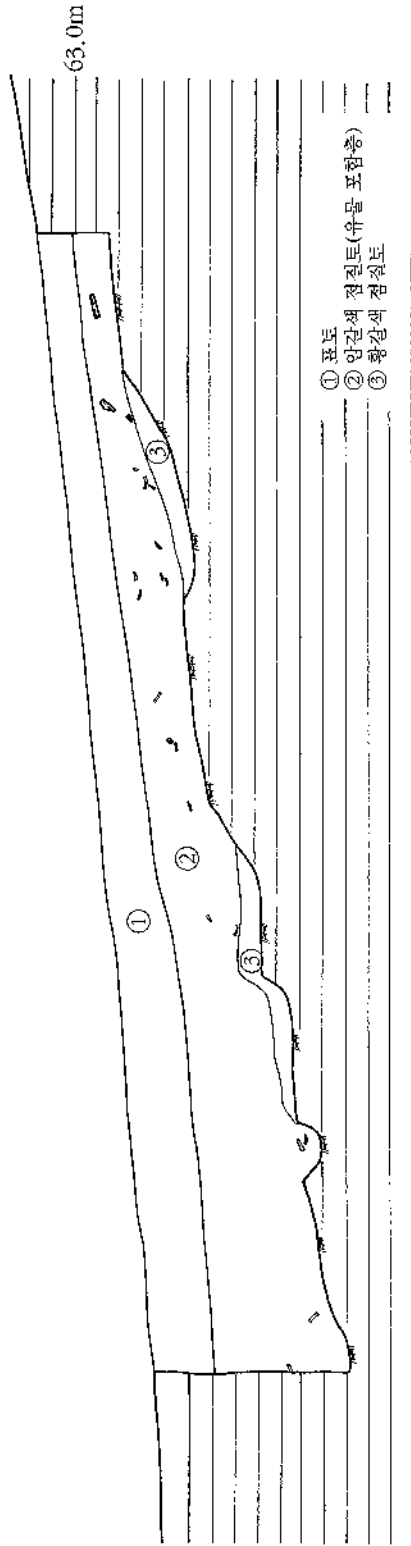
[도면 22] 처인성 99-5 시굴구덩 남벽 및 북벽 토층도



[도면 24] 처인성 북쪽 성내 및 성외 단면도

여

백



[도면 23] 처인성 99-5 시굴구덩 등벽 토층도

[99-5 시굴구덩]

이 시굴구덩은 99-4 시굴구덩과 동서방향으로 나란하며, 낮은 부분의 퇴적상태를 알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도면 5·22·23, 사진 42·43].

이 시굴구덩에서도 표토 아래로 두터운 교란 유물층이 있다. 이곳에서는 동쪽의 약 2m의 구간만에 깊이 굴착하여 생토층을 확인하였다. 유물의 상태는 99-4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도면 18~20·사진 27

지반인 생토층 위로 평균 약 40cm 두께의 암황갈색 점질토층이 기와를 포함한 1차 유구 층위가 되며, 그 위로는 60~80cm의 두께에 달하는 두터운 암갈색 점질토층이다. 이 층위가 유물 조각을 포함한 매물층위로, 위의 표토인 암황갈색 점질토는 20~50cm의 두께가 된다. 표토 층위에서 유물의 포함이 적은 것은 이 층위가 경작지로 활용되면서 지속적으로 유물을 주워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북벽과 그 외부]

성의 내부에서 크게 남부와 북부가 단을 이루어 높은 대지에서 낮은 대지로 경사르 이룬 후 성벽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 외측으로 도로가 나 있다. 성내 단을 이룬 곳은 평균 20도의 경사를 이루면서 낮아져, 99-4 시굴구덩에서 가장 낮아진다.

남쪽 성벽 남문지 부근에서 가장 높은 성벽 위의 해발고도는 72m 내외이며, 성벽 외측 아래는 66.5m~65.3m 정도여서 남쪽 성벽은 외측에서 보아 5.5m~6.7m의 높이로 보이지만, 성벽 안쪽에서는 해발 70.4m로서 안쪽에서 성벽의 높이는 1.6m의 높이가 된다.

성내 남쪽의 높은 대지에서 북향하여 낮아져 99-3 시굴구덩 남측에서 68m가 되므로 여기까지는 평탄하다. 99-3 시굴구덩에서 경사가 시작되어 99-4 시굴구덩의 북쪽 6.4m의 지점까지에 이르러 61.5m가 되므로 36.4m의 거리에서 6.5m가 낮아진 것이다.

99-4 시굴구덩 북쪽 끝에서 6.4m에 이르러 성벽의 바깥 면을 이루며 급한 경사면이 시작된다. 이 경사면은 평균 30도의 경사각을 이루며, 7m의 너비에서 61.2m로부터 57.2m까지 낮아져 4m의 높이 차이를 보여준다. 성벽 상단으로 여겨지는 외측 모서리 위에서 도로까지의 높이가 평균 4.2~4.5m가 된다. 도로는 성벽 쪽으로 작게 側溝를 가지고 있는데, 측구의 너비는 약 1m이고, 깊이는 10cm에 불과하다.

도로의 너비는 3.5m이고 북측으로 1.2m의 路邊 평지를 둔 다음 눈으로 낮아진다. 눈으로 낮아지는 두께 높이가 2.2m나 된다. 이처럼 북쪽 성벽 외측은 층단을 이룬 듯이 낮아지고 있다[도면 24].

4. 출토 유물

이번 시굴조사에서는 예상외로 좁은 범위에서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정리와 철기 유물 일부의 보존처리 때문에 보고서가 늦어진 한 원인이 되었다. 각 시굴구덩이에 차이가 크지 않으나, 앞으로의 발굴조사를 예상하여 별도로 정리하였다.

(1) 시굴구덩 1·2 출토유물

[土陶磁器類]

· □緣部片 [도면 25-①, 사진 51-①]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표면은 일부 흑갈색의 自然釉가 흘러 있으며, 기심은 암자색(暗紫色)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세사립이 비교적 다량 혼입되었다. 경부는 'C'字形으로 內彎하며, 구연부는 경부에서 부드럽게 이어지며 외반하고 있다. 구연단은 외측하단부가 각이 지게 조정되었다. 외면에는 문양이 시문 되지 않았으며, 내면의 동체상부에서 경부로 이어지는 부분은 접합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6.5cm, 복원 입지름 14.0cm.

· □緣部片 [도면 25-②, 사진 51-②]

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벽에 기포가 형성되어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하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세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구연부는 內彎하는 경부에서 수평으로 짧게 외반하며, 구연 외하단의 접합부분은 소성시 일부 벌어짐 현상이 일어났다. 경부의 중간부에는 2~3줄의 음각 횡침선을 들렸다.

잔존 높이 5.0cm, 복원 입지름 15.2cm.

· □緣部片 [도면 25-③, 사진 51-③]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구연부는 외반하는 경부의 상단에서 직립하며 盤口狀을 이루고 있으며, 구연부 외측하단은 길게 右下向으로 돌출되어 있다. 구연부의 외면은 2줄의 낮은 돌대가 돌아가고 있다.

잔존 높이 3.0cm, 복원 입지름 11.2cm.

· 口緣部片 [도면 25-④, 사진 51-④]

자배기류의 구연부편이며, 회갈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표면은 전체적으로 마모되었다. 태토는 사립과 토기부스러기가 혼입된 니질태토(泥質胎土)이다. 구연부는 동체상단에서 곧바로 짧게 수평 외반하고 있으며, 구연 외하부가 도톰하게 처리되었다. 동체의 기벽이 상당히 얇다.

잔존 높이 5.3cm, 복원 입지름 37.5cm.

· 口緣部片 [도면 25-⑤, 사진 51-⑤]

자배기류의 구연부편이다. 회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표면은 전체적으로 마모되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니질태토이다. 잔존한 동체 상부는 맛있게 外攣하며, 구연부는 동체상단에서 곧바로 짧게 꺾어 외반시키고, 끝을 아래로 꺾어 붙여 외하단이 날카롭게 돌출되어 있다. 내면의 동체상단에는 2줄의 폭이 넓고, 깊이가 얇은 홈이 돌아가고 있다.

잔존 높이 5.2cm, 복원 입지름 29.6cm.

· 口緣部片 [도면 25-⑥, 사진 사진 51-⑥]

자배기류의 구연부편이다. 표면이 전체적으로 마모되어 황갈색을 띠고 있으며, 기심은 흑색을 띠고 있다.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정선된 니질태토로 세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잔존한 동체상부는 약간 맛있게 외반하며, 구연부는 동체상단에서 곧바로 수평으로 짧게 외반하고 있고, 구연 외하부는 약간 도톰하게 처리되었다. 표면의 일부 마모가 되지 않은 부분은 적색을 띠고 있다.

잔존 높이 3.5cm, 복원 입지름 31.4cm.

· 口緣部片 [도면 25-⑦, 사진 51-⑦]

자배기류의 구연부편으로 흑색을 띠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하게 이루어져 회갈색을 띠고 있다.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니질태토이다. 구연부는 동체상단에서 곧바로 꺾어 외반하여 三角狀으로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x' 선문이 음각으로 시문되었으며, 내면은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11.0×7.0×0.6cm,

· 四面扁瓶片 [도면 25-⑧, 사진 51-⑧]

저부와 동체의 일부가 잔존하고 있다. 경질소성품으로 바깥쪽으로 1/3은 회청색을 띠며, 그 안쪽

으로 2/3는 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니질태토로 세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평저인 저부의 평면형태는 圓形이며, 동체는 四面을 이루도록 점토띠 쌓기 수법에 의하여 성형되어 위로 올라가고 있다. 내저면은 물손질 누름조정되었으며, 동체 내면에는 점토띠를 쌓아 올린 흔적이 또렷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12.5cm, 바닥지름 12.5cm.

· 白磁片 [도면 25-⑨, 사진 51-⑨]

白磁의 저부편으로 전면에 걸쳐 푸른색조의 유약이 施釉되었다. 器底部의 굽은 낮으며, 굽 안쪽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내저면과 외저면은 다량의 굽은 사립이 흡착되어 있다.

잔존 높이 2.2cm 굽지름 4.0cm.

· 白磁片 [도면 25-⑩, 사진 52-①]

白磁의 저부편으로 전면에 걸쳐 푸른색조의 유약이 施釉되었으며, 釉水裂이 이루어져 있다. 굽은 전체적으로 결실되었는데, 외면은 내경하게 내려와 접지면에 이르고 접지면은 수평이며, 굽안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器外面의 하부는 각이 지게 깎기 조정되었으며, 내저면은 오목하게 圓心을 이루고 있고, 內底面에서 동체로 올라가는 경계부에서 낮은 원각을 이룬후 곡면을 이루며 위로 올라가고 있다. 내저면에는 점토비집 받침흔적이 남아 있으며, 외저면과 동체외면의 하부에는 일부 불개 산화되었다.

잔존 높이 4.3cm, 복원 굽지름 5.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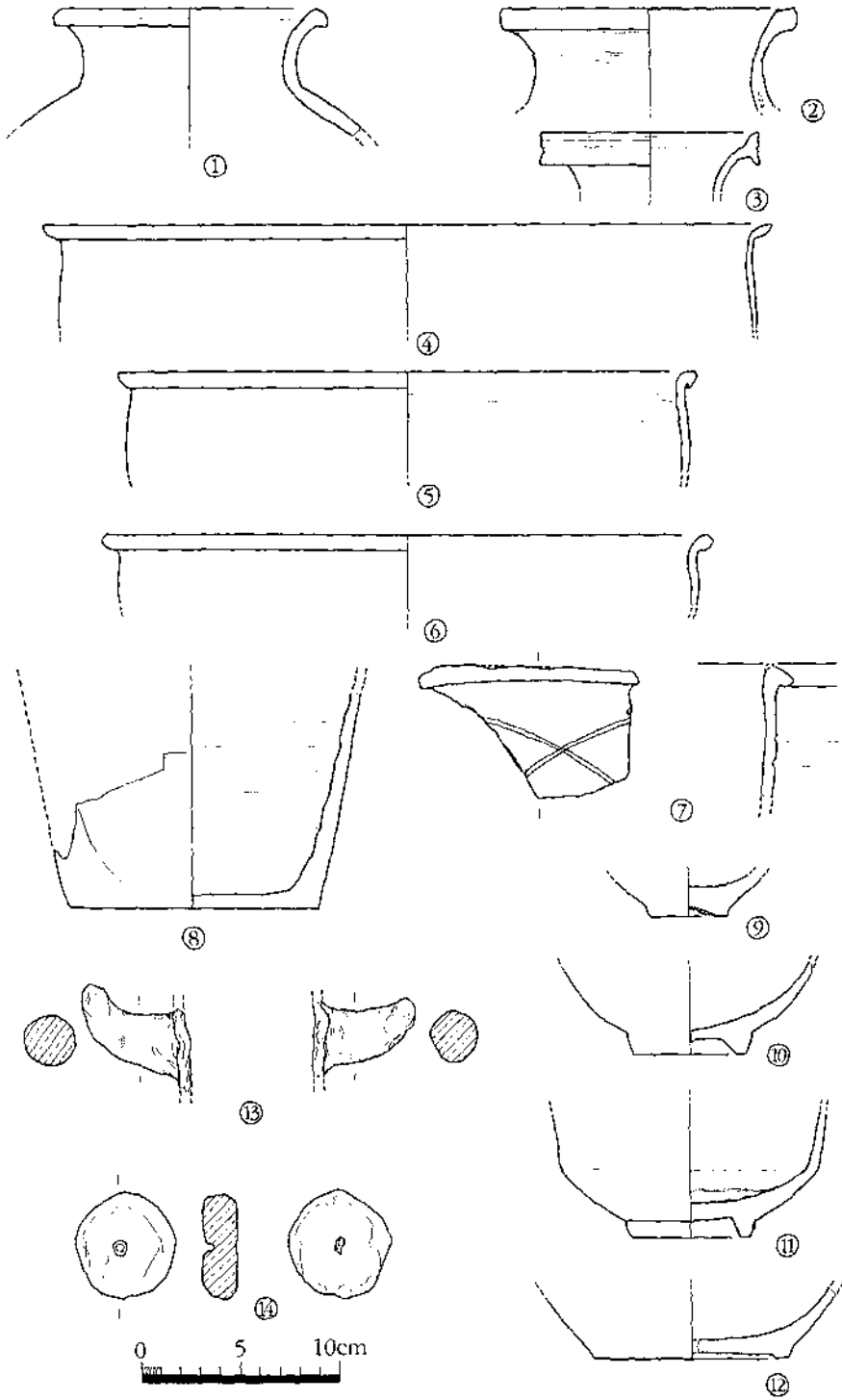
· 白磁片 [도면 25-⑫, 사진 52-②]

저부와 동체의 일부가 잔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짙은 회색조의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내저부와 굽 안쪽은 일부 갈색을 띠고 있다. 동체는 하부에서 급격히 꺾여 올라가고 있으며, 외면의 정면상태는 약간 조잡한 편이다. 굽은 단면 사다리꼴로 접지면이 좁으며, 굽 안쪽의 외저면은 편평하다. 내저면과 굽에는 모래가 다량 흡착되어 있다.

잔존 높이 6.3cm, 복원 굽지름 6.0cm.

· 白磁片 [도면 25-⑬, 사진 52-③]

저부의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내면은 회갈색, 외면은 짙은 회녹색의 유조를 띠고



[도면 25] 처인성 사굴구덩 1·2 출토 도토기·자기류

있다. 굽은 단면 사다리꼴의 낮은 굽으로 접지면이 넓으며, 굽 안쪽의 외저면은 편평한 편이다. 내저면의 가장자리는 점토빛을 받침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높이 3.6cm, 복원 굽지름 11.0cm,

· 쇠뿔손잡이片 [도면 25-④, 사진 52-④·⑤]

시굴구덩 2에서 출토된 것으로 흑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단단하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었으며,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손잡이의 단면은 원형에 가깝고, 끝으로 가면서 굽기 얇아지며, 위로 들린 형태이다. 끝 부분이 약간 결실되었으며, 동체와의 접합면은 갈색을 띠고 있다.

左 : 길이 5.6cm, 중심부 지름 2.6cm, 右 : 길이 5.3cm, 중심부 지름 2.6cm.

[기와類 및 圓盤形 瓦製品]

· 圓盤形 瓦製品 [도면 25-⑤, 사진 52-⑥]

시굴구덩 2에서 출토된 것으로 기와를 둥근 형태로 갈아서 만든 제품으로 용도는 불명이다. 회청색을 띠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한쪽 면의 중앙에는 직경 0.3~0.6cm, 깊이 0.5cm의 구멍이 파여져 있으며, 외연은 거칠게 다듬어졌다.

지름 5.4cm, 두께 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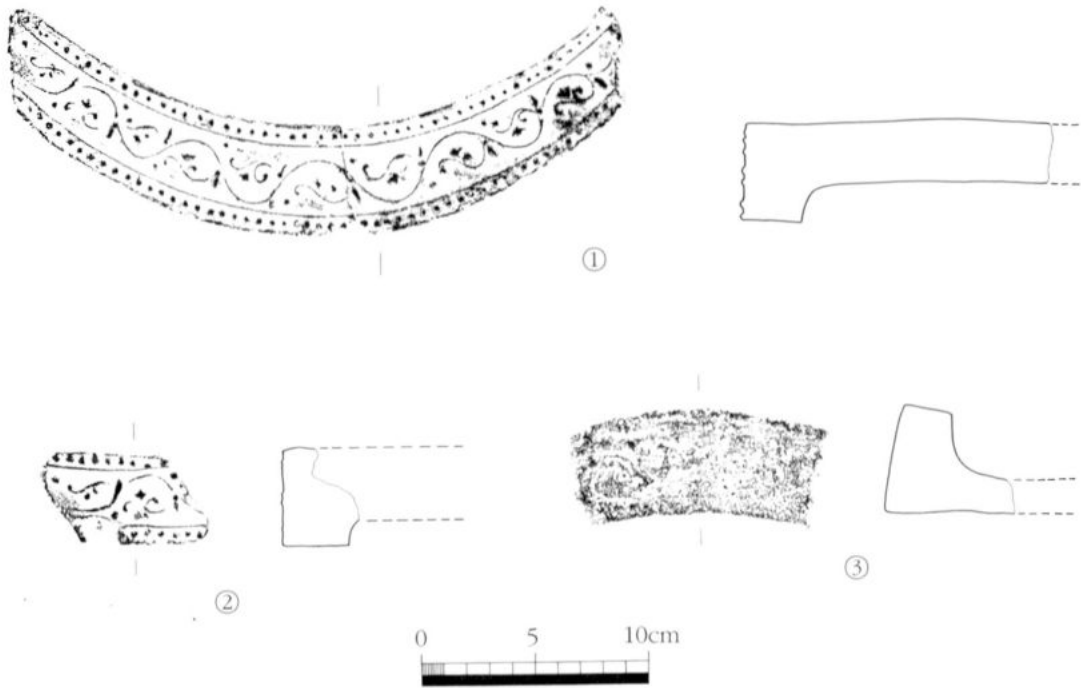
· 암막새片 [도면 26-①, 사진 53-①]

회청색을 띠는 암막새편으로 소성정도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드림부는 직각으로 꺾여 있으며, 端部의 외면에는 바깥쪽으로 連珠文이 돌아가고 그 바로 안쪽으로 가는 돌대를 돌린 후 돌대 안쪽으로 唐草文을 浮彫하였다. 이면은 가는 포목흔이 잔존하고 있으며, 단부 쪽으로는 문질러 정면하였다. 측면은 전면에 걸쳐 여러 번 깎아 조정하였다.

잔존길이 13.5cm, 너비 27.9cm, 두께 2.7cm.

· 암막새片 [도면 26-②, 사진 53-②]

암막색의 端部만이 잔존하고 있다. 회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연질에 가깝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드림부는 직각으로 꺾여 있으며, 端部의 외면에는 바깥쪽으로 連珠文이 돌아가고 그 바로 안쪽으로 가는 돌대를 돌린 후 돌대 안쪽으로 唐草文을 浮彫하였다. 잔존한 한쪽 측면은 전면에 걸쳐 여러 번 깎아 조정하였다.



[도면 26]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 암막새기와

6.0×4.0×3.4cm,

· 암막새片 [도면 26-③, 사진 53-③]

회녹색을 띠는 연질소성품으로 표면은 전체적으로 마모되었다. 태토는 사립과 기와부스러기가 다량 혼입되었다. 드림새는 약간 예각으로 꺾여 있으며, 단부의 외면에는 唐草文을 배운 흔적이 희미하게 잔존하고 있다.

잔존길이 5.7cm, 잔존너비 13.0cm, 두께 1.6cm.

· 圓盤形 瓦製品 [도면 27-①, 사진 54-①]

암기와와의 파편을 둥근 형태로 거칠게 다듬어 만든 것으로 용도는 불명이다. 원래의 기와는 적갈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에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한쪽 면에는 포목흔(布目痕)이 남아있다.

7.5×7.3×1.85cm.

· 수키와片 [도면 27-②, 사진 54-②]

미구기와편이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배면은 무문이며, 단부 가까이에 이르러 단을 지며 언강부를 이루고 있다. 언강의 배면과 단부면은 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분할 흔은 안쪽에서 살짝 그어 분할하였다. 이면은 포목흔이 남아있다.

10.0×9.7×2.7cm

· 수키와片 [도면 27-③, 사진 54-③]

회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배면은 약간 각이 지게 조정되었으며, 右下向의 線條文이 타날되었다. 이면은 포목흔이 뚜렷하며, 포목을 잇대어 연결한 흔적이 종방향으로 나 있다. 端部는 물손질 정면되었으며, 잔존한 한쪽 측면의 분할은 안쪽에서 1/2정도를 와도로 그어 분할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단부 쪽으로 가면서 폭이 좁혀들고 있다.

15.5×10.0×1.4cm.

· 수키와片 [도면 27-④, 사진 54-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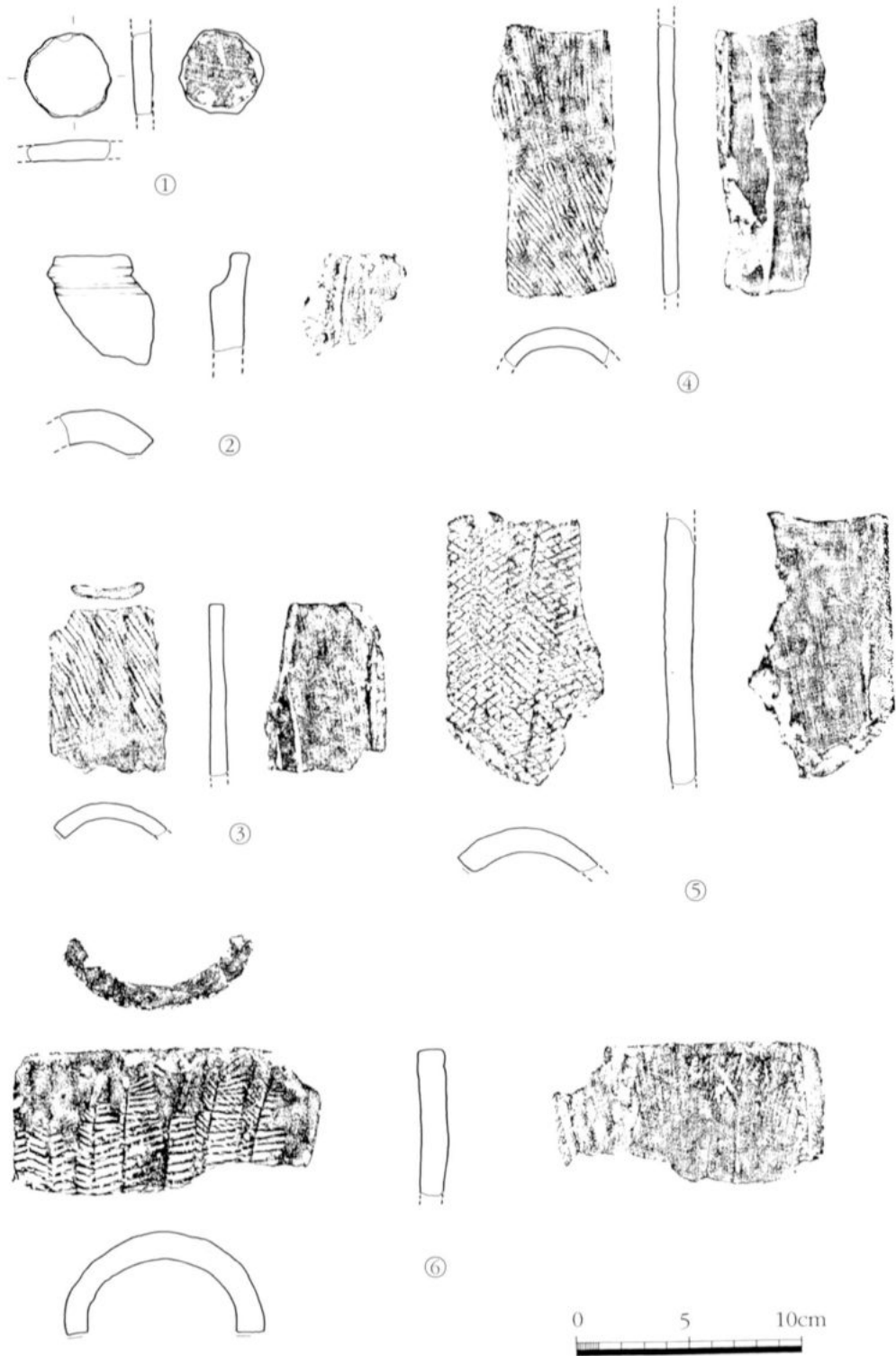
회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다량의 세사립과 장식 등 굵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배면은 平行樹枝文이 타날되었으며, 단부 가까이는 鼓板으로 문질러 문양을 정면하였다. 이면은 포목흔이 남아 있으며, 단부에서 1cm 정도 안쪽으로는 거칠게 정면하여 포목흔을 지워버렸다. 단부는 와도로 깎아 매끈하게 조정하였으며, 측면의 분할은 한쪽은 안쪽에서, 한쪽은 바깥쪽에서 2/3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14.9×10.5×1.6cm.

· 수키와片 [도면 27-⑤, 사진 54-⑤]

회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과 기와 부스러기가 혼입된 점토이다. 배면은 線條文이 중복 타날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鼓板(鼓板)으로 문질러 정면하였다. 이면은 포목흔이 뚜렷하며, 포목을 잇대어 연결한 흔적이 종방향으로 길게 나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은 분할은 안쪽에서 1/3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14.4×13.0×2.4cm.



[도면 27]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 수키와

· 수키와片 [도면 27-⑥, 사진 54-⑥]

회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다량의 사립과 기와 부스러기가 혼입된 점토이다. 배면은 장판에 의하여 문살무늬가 중복 타날되었으며, 이면은 울이 약간 굵은 포목흔이 남아 있다. 잔존한 측면의 분할은 거의 전면에 걸쳐 와도로 그어 분할하였으며, 이면 쪽으로는 한번 더 다듬었다.

18.5×13.0×2.3cm.

· 암키와片 [도면 28-①, 사진 55-①]

회청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경질에 가깝다. 태토는 다량의 세석립과 굵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배면은 右下向의 선조문을 타날한 후 단부 쪽은 2번에 걸쳐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단부면은 매끈하게 물손질 정면하였다.

13.4×8.3×1.8cm.

· 암키와片 [도면 28-②, 사진 55-②]

갈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연질에 가깝다. 태토는 세석립과 기와 부스러기가 혼입된 점토이다. 배면은 右下向으로 線條文이 타날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남아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분할은 안쪽에서 1/2 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17.5×15.9×1.4cm.

· 암키와片 [도면 28-③, 사진 55-③]

적갈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연질에 가깝다. 태토는 장석, 석영 등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배면은 太線의 線條文이 타날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과 황으로 얇은 흠이 형성되어 있다.

16.2×12.7×2.5cm.

· 암키와片 [도면 28-④, 사진 55-④]

전체적으로 표면이 마모되어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잔존한 부분은 회흑색을 띠고 있다. 입자가 손에 물어날 정도로 연질소성품이며,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고운 니질의 점토이다. 배면은 폭 4cm 정도의 지그재그 형태로 단사선문(短斜線文)을 새긴 고관으로 연속적으로 타날하였다. 이면은 마모가 심하게 이루어졌으나 부분적으로 포목흔이 잔존하고 있으며, 한쪽 측면 쪽으로는 분할 선 흠이 보이고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분할은 안쪽에서 1/3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22.0×13.9×2.2cm,

· 암키와片 [도면 28-⑤, 사진 55-⑤]

적갈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연질에 가깝다. 태토는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배면은 太線의 平行線條文을 타날한 후 일부는 정면하였다.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으며, 종방향으로 흠이 형성되어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분할은 안쪽에서 살짝 그어 분할하였다.

15.4×14.4×2.8cm,

· 암키와片 [도면 28-⑥, 사진 56-①]

표면은 흑색을 띠고 있으며, 마모된 부분은 갈색을 띠고 있다. 소성정도는 연질이며, 태토는 석립과 기와 부스러기가 혼입된 점토이다. 배면은 문살분이 타날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은 전면에 걸쳐 그어 분할하였다.

16.2×7.8×3.0cm,

· 암키와片 [도면 28-⑦, 사진 56-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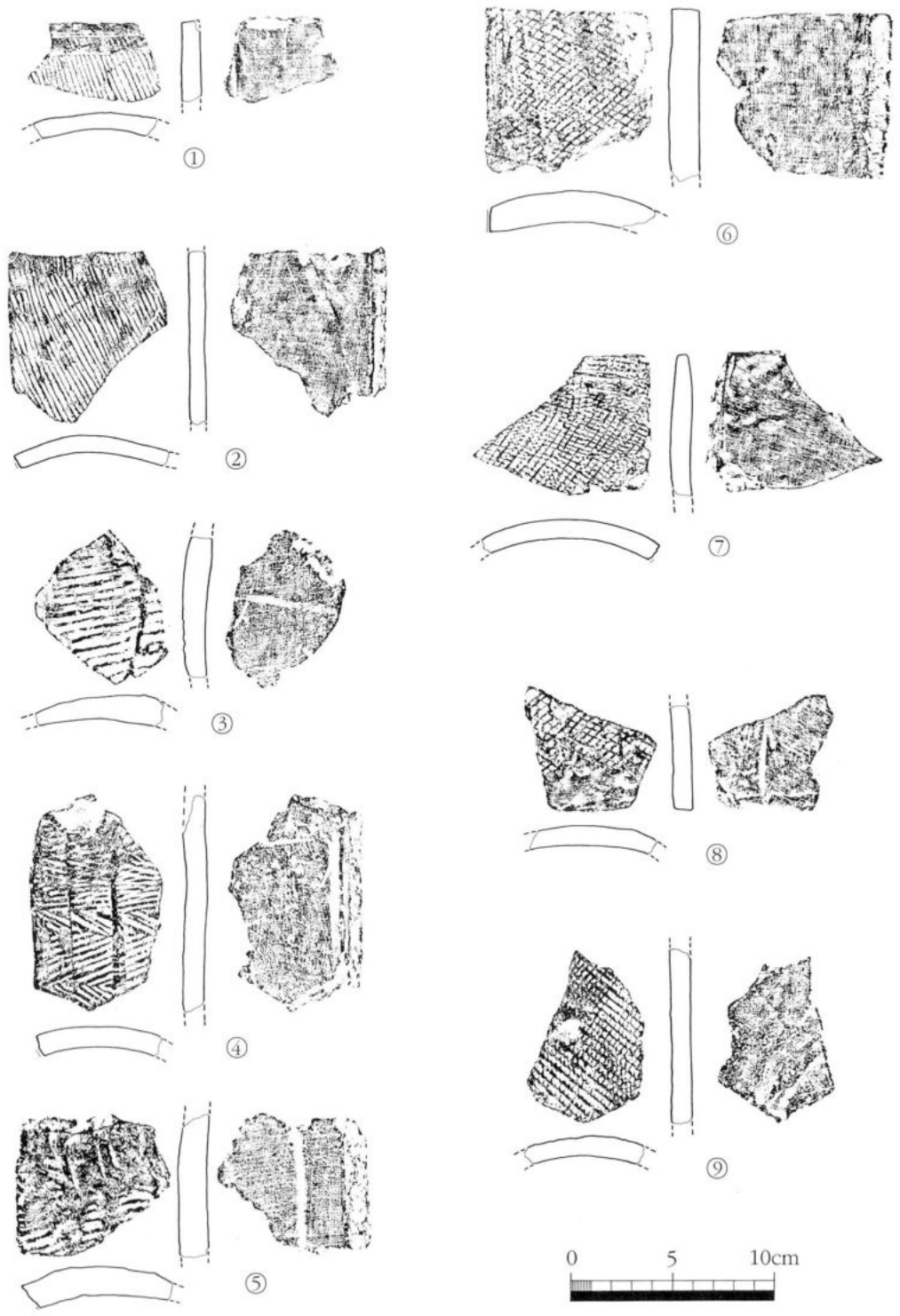
회흑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연질에 가깝다. 태토는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배면은 문살문을 타날하고 단부 쪽은 부분적으로 정면하였다.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으며, 右下向의 사선방향으로 가는 침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래쪽으로 오면서 침선간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단부 안쪽으로는 손누름 흔적과 포목흔을 문질러 정면하였다. 端部는 물손질 조정하였으며, 잔존한 한쪽 측면의 분할은 안쪽에서 살짝 그어 분할하였다.

17.2×15.8×2.0cm,

· 암키와片 [도면 28-⑧, 사진 56-③]

표면은 흑색을 띠고 있으며, 마모와 박리가 이루어진 부분은 암황갈색을 띠고 있다. 소성정도는 연질이며,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니질의 점토이다. 배면은 문살문을 타날한 후 단부쪽으로는 고판으로 문질러 정면하였으며, 이면은 포목흔과 빗질흔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 端部面은 와도로 그어 조정하였다.

14.1×13.7×1.7cm,



[도면 28]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 암키와

· 암키와片 [도면 28-⑨, 사진 56-④]

회색을 띠는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배면은 문살문이 타날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모가 이루어졌다.

13.1×8.0×2.0cm,

· 암키와片 [도면 29-①, 사진 56-⑤]

회청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경질에 가깝다. 태토는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배면은 魚骨文을 타날한 후 전체적으로 정면하였으며, 이면은 포목흔과 빗질흔과 같은 흔적이 보이고 있으며, 단부 쪽으로는 단부 내면조정이 이루어졌다. 端部面은 와도로 매끈하게 그어 조정하였으며, 잔존한 한쪽 측면의 분할은 안쪽에서 살짝 그어 분할하였다.

28.6×31.6×2.1cm,

· 암키와片 [도면 29-②, 사진 57-①·④]

회청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경질에 가깝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배면은 斜線의 線條文을 중복 타날한 후 端部쪽은 거칠게 문질러 정면하였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으며, 단부에서 2cm 안쪽까지는 정면되었다. 端部面은 오목하게 조정되었으며, 잔존한 한쪽 측면은 안쪽에서 살짝 그어 분할하였다.

12.4×12.5×1.6cm,

· 암키와片 [도면 29-③, 사진 57-②·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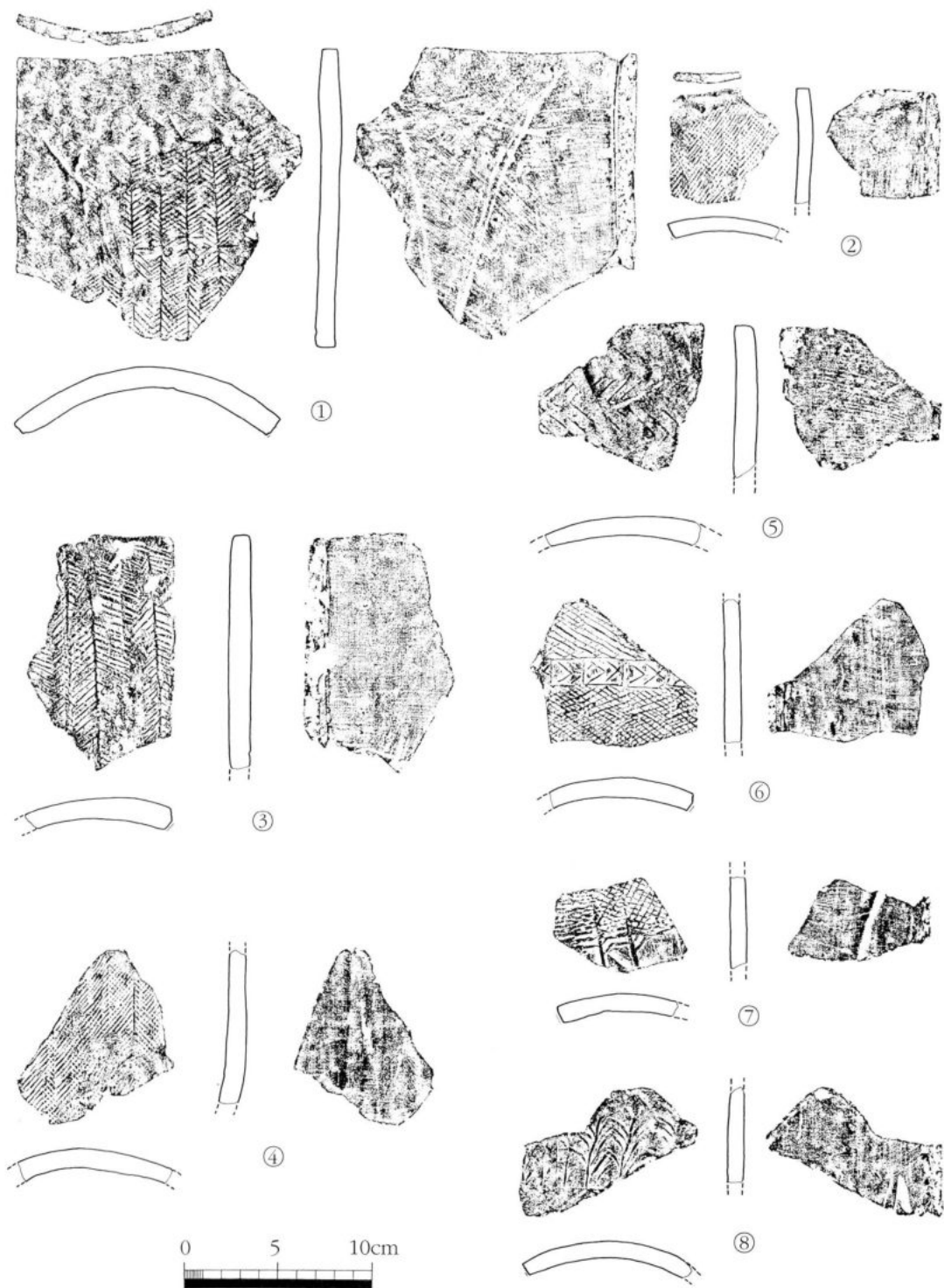
회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연질에 가깝고, 태토는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배면은 폭5.5cm 정도의 고관을 이용해서 魚骨文을 타날하였으며, 端部쪽은 약간 경사지게 조정하였다.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분할은 안쪽에서 1/3 정도를 그어 분할하였다.

15.8×25.9×2.6cm,

· 암키와片 [도면 29-④, 사진 57-③·⑥]

회청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경질에 가깝다. 태토는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배면은 魚骨文을 중복 타날 한 후 일부는 고관으로 문질러 정면하였다.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다.

16.6×20.0×2.1cm,



[도면 29]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 암키와

· 암키와片 [도면 29-⑤, 사진 58-①]

흑색을 띠는 연질소성품으로 표면이 마모된 부분은 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굵은 장석, 석영 등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배면은 횡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지그재그문을 타날하였으며, 단부에서 5.2cm정도 안쪽까지는 정면하였다. 이면은 포목흔과 빗질흔과 같은 흔적이 보이고 있으며, 端部는 수직이 되게 조정하였다.

17.0×17.6×2.2cm,

· 암키와片 [도면 29-⑥, 사진 58-②]

회청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경질에 가깝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은 문살문과 횡방향으로 장방형의 틀안에 << 形의 분양을 새긴 복합문을 시문하였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분할은 안쪽에서 1/2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17.3×16.0×1.9cm,

· 암키와片 [도면 29-⑦, 사진 58-③]

회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경질에 가깝다. 태토는 석영, 장석 등 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배면은 문살문이 시문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樹枝文도 보이고 있다.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으며, 사선방향으로 홈이 나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분할은 안쪽에서 1/2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14.3×10.3×1.9cm,

· 암키와片 [도면 29-⑧, 사진 58-④]

회흑색을 띠는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배면은 草文이 시문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분할은 안쪽에서 살짝 그어 분할하였다.

18.4×16.5×1.9cm,

(2) 시굴구덩 3 출토유물

[土陶器類]

· 口緣部片 [도면 30-①, 사진 사진 59-①]

대형 용의 구연부편으로 회청색 경질소성품이며, 기심은 암자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경부는 길게 외반하며 올라가다 급격히 외반되어 구연부가 아래로 늘어져 있다. 경부의 외면은 횡침선을 돌리고 그 안에 음각 波狀文을 조잡하게 시문하였는데, 맨 윗 부분은 파상문을 중복되게 시문하였으며, 아래로 내려오면서 반원에 가깝게 파상문의 형태가 간략화되고 있다.

잔존 높이 10.3cm, 복원 입지름 44.5cm.

· 口緣部片 [도면 30-②, 사진 59-②]

회흑색을 띠는 정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경부는 부드럽게 외반하여 올라가 구연부로 이어지고 있다. 구연부 외하부는 약간 외만하게 곡면을 이루고 있으며, 구연단 안쪽으로는 낮게 단이 지도록 조정되었다. 경부의 외면은 횡침선을 6~7줄 조잡하게 돌렸다.

잔존 높이 5.6cm, 복원 입지름 22.2cm

· 四足器片 [도면 30-③, 사진 59-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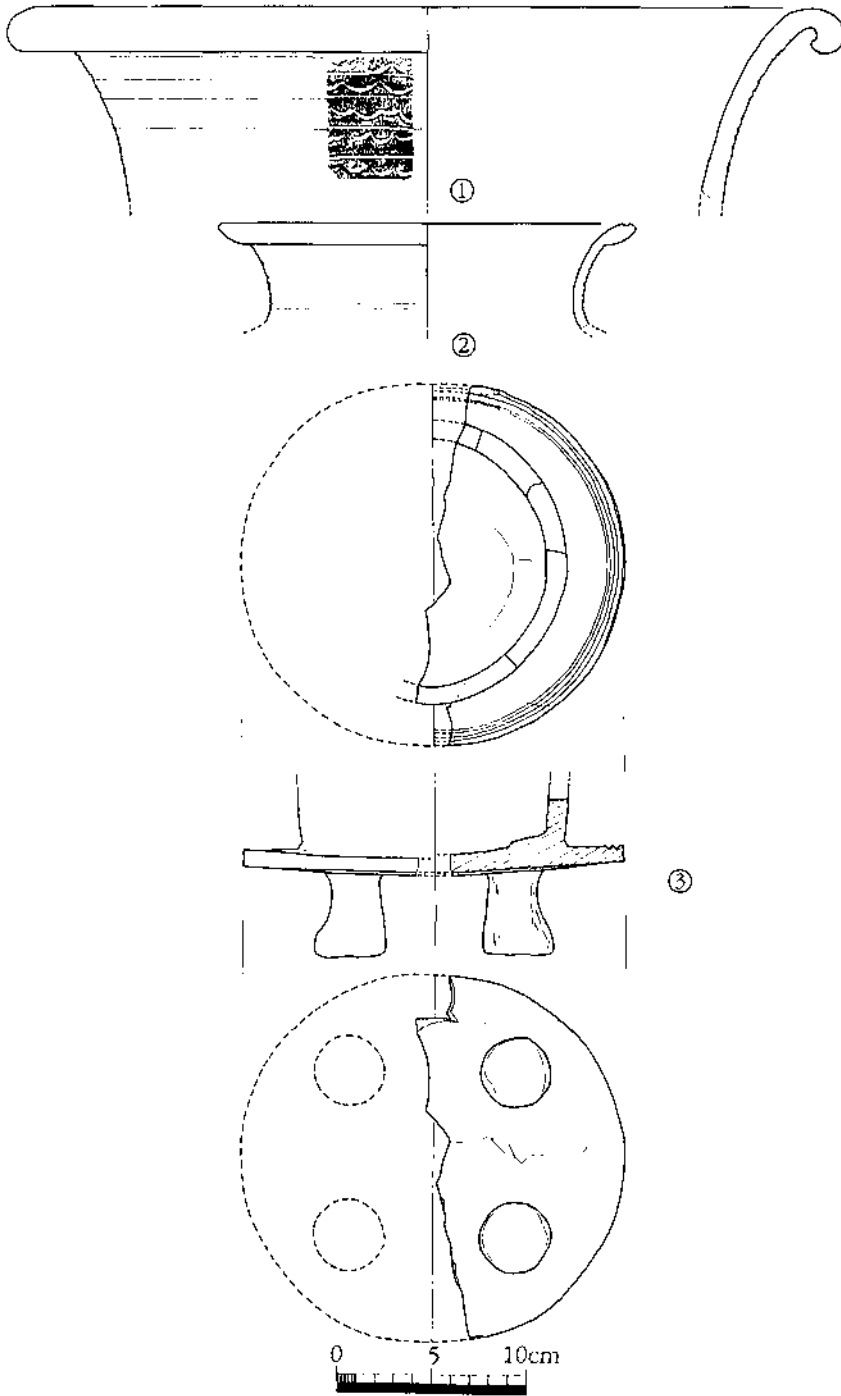
저부에 4개의 다리가 대칭으로 달린 鼎形의 四足器片으로 현재는 다리 2개와 동체의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다. 회청색의 정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원형의 板에 위로 외경하게 올라가는 동체를 접합시켰으며, 아래에는 4개의 다리를 방형이 되게 접합시켰다. 원형의 판은 외연의 안쪽으로 2중의 원을 음각으로 돌렸으며, 단부는 약간 오목하게 조정하였다. 圓板위의 동체는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는데, 2곳에 짝아 오려낸 흔적이 있으며, 내면은 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한 2개의 다리의 형태는 접지면으로 내려오면서 외측으로 벌어져 안정감을 주고 있다. 벼루의 편으로 여겨진다.

잔존 높이 9.2cm, 圓板 복원지름 20.4cm, 다리 높이 4.5cm.

· 口緣部片 [도면 31-①, 사진 60-①]

회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표면의 마모가 심하며, 태토는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동체상단에서 곧바로 수평으로 외반하고 있으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는 급격히 축약되며 내려가고 있다.

잔존 높이 4.6cm, 복원 입지름 26.5cm.



[도면 30] 처인성 사굴구덩 3 출토 도토기 구연부·사족기편

· 口緣部片 [도면 31-②, 사진 60-②]

회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표면의 마모가 심하며,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구연부로 올라가면서 기벽은 두꺼워지고 있으며, 내면의 구연부 아래로 흠이 들어가 동체와 구연부가 구분되고 있다. 구연부의 외측으로는 삼각상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다.

잔존 높이 7.8cm.

· 口緣部片 [도면 31-③, 사진 60-③]

회색의 연질소성품으로 기심은 흑색을 띠고 있다. 표면의 마모가 심하며,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직립하는 동체에서 그대로 이어지는데, 내면의 구연부 하단으로는 오목한 흠이 들어가 동체와 구분되고 있으며, 구연부 외측은 삼각상으로 돌출되게 처리하였다.

잔존 높이 9.5cm.

· 底部片 [도면 31-④, 사진 60-④]

회색의 연질소성품으로 기심은 흑색을 띠고 있으며, 표면의 마모가 심하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평저로 동체는 저부에서 외경하며 올라가며, 동체의 내면은 점토 띠를 쌓아 올려 성형한 흔적이 뚜렷하다. 외면의 저부 가까이 2줄의 침선이 들어가고 있다.

잔존 높이 4.8cm, 복원 바닥지름 23.0cm.

· 손잡이片 [도면 31-⑤, 사진 60-⑤]

가로띠 손잡이의 편으로 회색의 연질소성품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횡단면은 밋밋하게 弧狀으로 구부러져 있으며, 중간부의 외면은 종방향으로 약간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표면의 마모가 심하다.

11.0×4.7×0.5~0.7cm.

[石器類]

· 손잡이 달린 그릇片 [도면 31-⑥, 사진 60-⑥]

남석제의 손잡이 달린 그릇편으로 동체와 구연, 손잡이의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다. 전체적인 그릇의 형태는 컵형으로 동 최대경은 동 상부에 있으며, 구연부는 내경하고 있다. 器外面은 동체와 구연의 경계부에서 2줄의 횡침선을 돌렸으며, 횡침선의 바로 아래인 동체의 상부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다. 손잡이는 端部쪽이 결실된 상태로, 단면이 8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윗면보다 아랫면이 좁다. 또한 단부쪽으로 가면서 크기가 체감하고 있으며, 약간 위로 향하고 있다. 손잡이의 아래인 동체 중 하부에 다시 2줄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있으며, 그 아래의 동체하부에 1줄의 깊은 횡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잔존 높이 10.9cm, 복원 입지름 10.8cm.

· 石製 뚜껑片 [도면 31-⑦, 사진 60-⑦]

납석제의 뚜껑편으로 가장자리의 일부분이 결실되었다. 원반형으로 윗면은 볼록한데 외연 가까이 이르러 단을 지고 있으며, 아랫면은 수평을 이루고 있다. 중앙에는 1.2cm의 구멍이 수직으로 뚫어져 있는데 아래 부분의 구멍 가장자리는 사선방향으로 깎기 조정되었다.

지름 5.2cm, 높이 1.5cm.

[磁器類]

· 靑磁片 [도면 31-⑧, 사진 60-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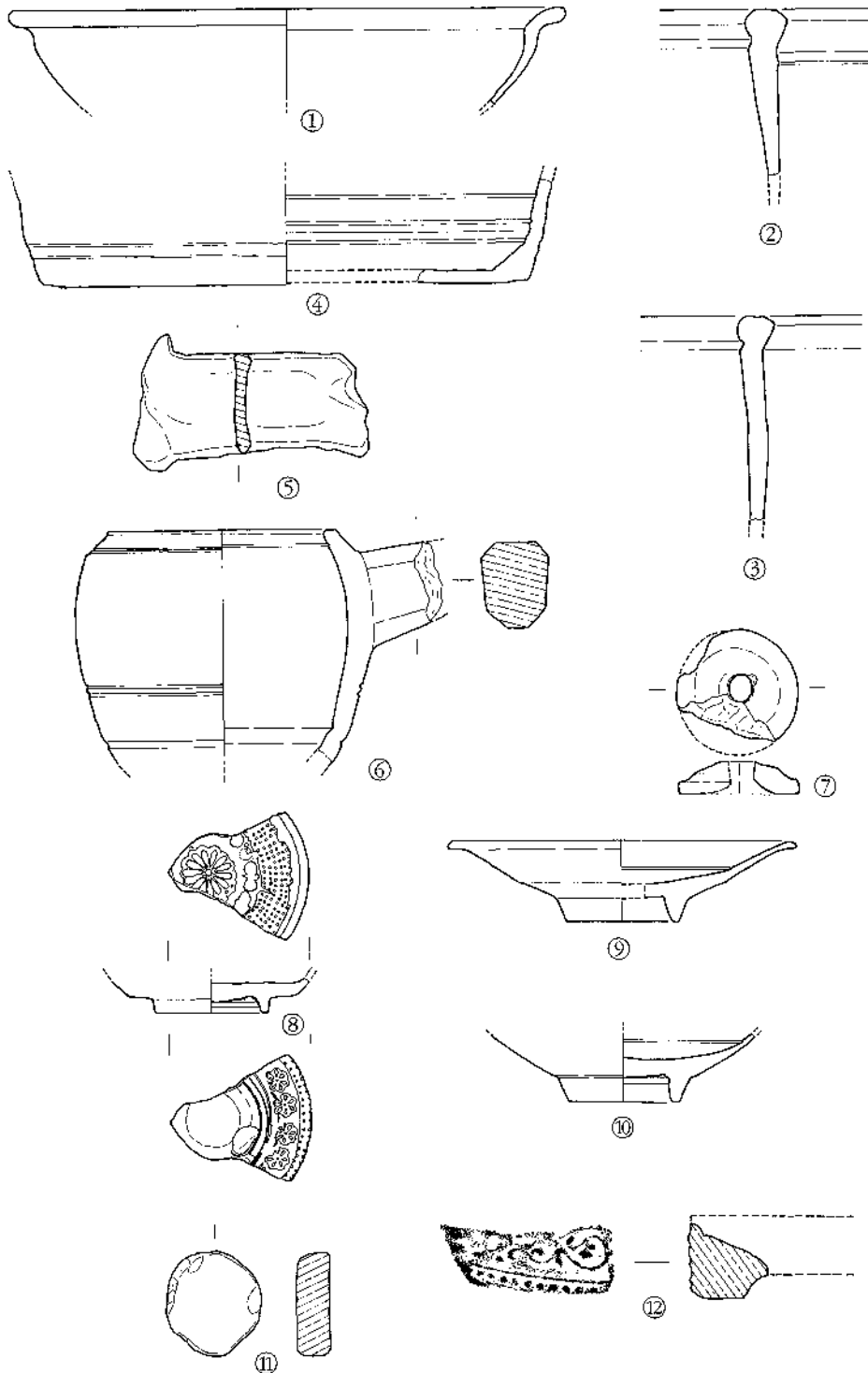
저부의 일부분만이 잔존하고 있다. 저부는 수평을 이루며, 기벽은 꺾여 사선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내저면은 중앙에 국화문을 시문하고 그 밖으로는 連珠文과 點列文을 시문하였는데, 시문기법은 음각으로 문양을 새기고 백토를 밀어넣었다. 저부의 외면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국화문을 연속으로 시문하였으며, 그 위로는 點列文을 시문한 것이 일부 잔존하고 있다. 굽은 수직으로 내려와 접지면에 이르고 있으며, 굽의 외면으로는 포물선을 연속으로 시문하였다. 굽 안쪽으로는 점토비짐 받침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1.6cm, 굽지름 5.4cm.

· 白磁片 [도면 31-⑨, 사진 61-①]

접시편으로 굽에서 구연부에 이르기까지 일부분만이 잔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푸른빛이 감도는 백색의 유약이 전체적으로 시유되었다. 굽은 높으며, 외면이 내경하여 접지면에 이르고 있고, 단면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다. 내저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낮은 원각을 이루고 있다. 기벽은 사선방향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크게 외반하고 있다.

높이 3.9cm, 복원 입지름 16.2cm, 복원 굽지름 5.4cm.



[도면 31] 처인성 시굴구덩 3 출토 도토기·석기·자기·기와류

· 白磁片 [도면 31-⑩, 사진 61-②]

대접편으로 굽과 저부의 일부가 잔존하고 있다. 내면에만 약간 푸른빛이 감도는 유백색의 유약이 거칠게 시유되어 있다. 굽은 높으며, 외면이 내경하여 접지면에 이르고 있고, 단면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다. 굽 안쪽의 가장자리로는 오목한 홈이 형성되게 조정하였다. 내저면은 완만한 곡면을 이루고 있으며, 원각을 이루고 있다.

잔존 높이 3.3cm, 복원 굽지름 5.4cm.

[기와류]

· 圓盤形 瓦製品 [도면 31-⑪, 사진 61-③]

회색의 연질소성품인 기와편을 이용하여 등근형태로 다듬어 만든 것이다. 용도는 불명이다. 지름 4.8cm, 두께 1.6cm.

· 암막새 기와편 [도면 31-⑫, 사진 61-④]

단부의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다. 회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단부 면에는 외연에 連珠文과 가는 돌대를 두르고 그 안에 唐草文을 浮彫하였다.

7.5×3.7cm.

(3) 시굴구덩 4 출토유물

[土陶器類]

· 扁瓶片 [도면 32-①, 사진 62-①]

口緣部와 胴體상부의 일부분만이 잔존하고 있다. 회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頸部는 內斡하며, 구연부는 수평으로 짧게 외반하고 있다. 구연단의 외면은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구연단 안쪽으로는 오목한 홈이 돌아가고 있다. 점토띠 쌓기 수법으로 성형되었으며, 구연부와 경부, 어깨부분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무문이며, 기심은 갈색을 띠고 있다.

잔존 높이 11.2cm, 복원 입지름 11.8cm.

· 扁瓶片 [도면 32-②, 사진 62-②]

口緣部와 胴體상부의 일부분만이 잔존하고 있다.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과 경부, 어깨부분에는 짙은 녹색의 자연유가 흐르고 있다. 경부는 內彎하며, 구연부는 수평으로 짧게 외반하고 있다. 어깨부가 끝나는 경계에는 1條의 낮은 침선을 돌렸다.

잔존 높이 8.1cm, 복원 입지름 12.4cm.

· 口緣部片 [도면 32-③, 사진 62-③]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직립하는 경부는 동체 상부에서 약간 단을지며 안쪽으로 축약되어 올라가고 있으며, 수평으로 외반하는 구연부는 외하단이 안쪽으로 약간 들출되어 있다. 구연부와 경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6.3cm, 복원 입지름 15.0cm.

· 口緣部片 [도면 32-④, 사진 62-④]

경질소성품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와 경부, 동체 상부에는 부분적으로 자연유가 흐른 흔적이 있고, 기벽에는 소성시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구연부는 내면의 경우 경부와의 구분 없이 그대로 이어져 외반하고 있으며, 외면은 수평에 가깝게 짧게 꺾여 경부와의 구분을 이루고 있다. 점토띠 쌓기 수법에 의하여 성형되었다.

잔존 높이 5.9cm, 복원 입지름 15.0cm.

· 口緣部片 [도면 32-⑤, 사진 62-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와 경부에는 부분적으로 흑갈색의 자연유가 흐르고 있으며, 기벽에는 소성과정에서 기포가 형성된 부분이 있다. 경부는 외경하다 상단에서 외반도가 커지고 있으며, 짧게 수평으로 꺾여 외반하는 외하부가 둥글게 돌출되어 있다.

잔존 높이 4.9cm, 복원 입지름 20.0cm.

· 口緣部片 [도면 32-⑥, 사진 62-⑥]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경부는 약간 內彎하고 있으며, 구연부는 수평으로 짧게 외반하고 있다. 경부와 구연부의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3.6cm, 복원 입지름 11.4cm.

· 口緣部片 [도면 32-⑦, 사진 62-⑦]

경질소성품으로 표면에는 흑녹색의 자연유가 흐르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경부는 부드럽게 외반하고 있으며, 구연부는 수평으로 짧게 꺾여 외반하고 있다. 구연단 안쪽으로는 낮은 턱이 돌아가고 있으며, 경부의 내면에는 점토띠 쌓기 수법에 의해 성형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5.25cm, 복원 입지름 17.2cm.

· 口緣部片 [도면 32-⑧, 사진 62-⑧]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외반하는 경부의 중간부는 기벽이 약간 外彎하고 있으며, 구연부는 수평으로 짧게 외반하고 있는데, 구연단 안쪽으로 얇은 홈이 돌아가고 있다.

잔존 높이 4.5cm, 복원 입지름 15.1cm

· 口緣部片 [도면 32-⑨, 사진 62-⑨]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자주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아주 정선된 점토이다. 직립하는 경부에는 2條의 침선이 돌아가고 있으며, 구연부는 짧게 수평으로 외반하고 있다. 구연단의 안쪽으로는 단이 지게 조정되었다.

잔존 높이 3.4cm, 복원 입지름 1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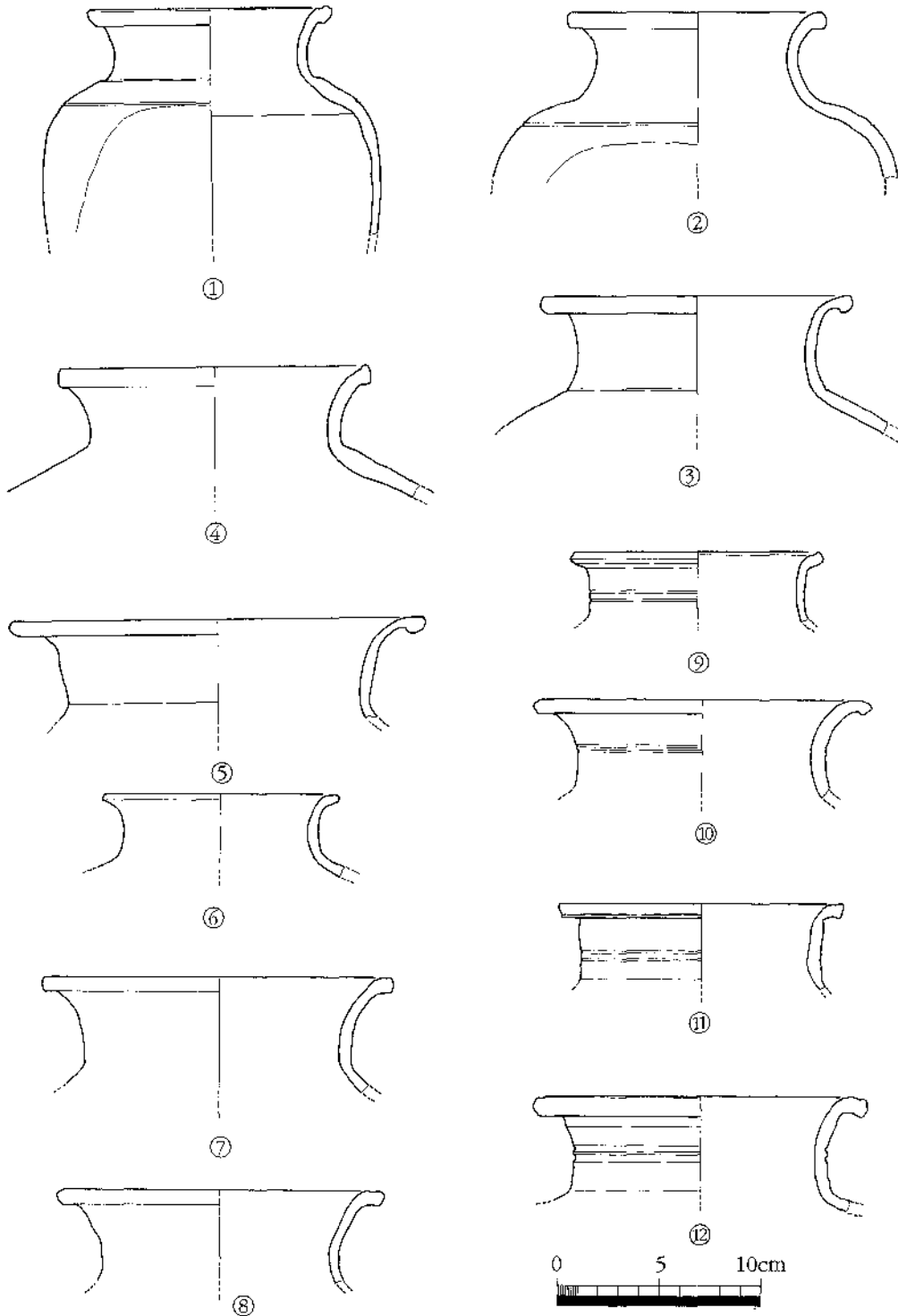
· 口緣部片 [도면 32-⑩, 사진 62-⑩]

회흑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자주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외반하는 경부에서 그대로 이어지며 수평으로 외반하고 있으며, 구연 외하단이 안쪽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다. 경부의 중간부에는 1-2條의 횡침선이 돌려져 있다.

잔존 높이 4.4cm, 복원 입지름 15.8cm.

· 口緣部片 [도면 32-⑪, 사진 62-⑪]

회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직립하는 경부의 중간부에는 1-2條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있으며, 구연부는 수평으로 짧게 외반하고 있는데, 구연단의 안쪽으로는 얇은 홈이 돌아가고 있으며, 외하부에도 회미하게 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구연부와 경부의 내



[도면 32] 처인성 시골구덩 4 출토 도자기 구연부편

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4.2cm, 복원 입지름 14.1cm.

· 口緣部片 [도면 32-②, 사진 63-①]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경부는 직립에 가까우며, 중간부에 2條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구연부는 수평에 가깝게 외반하고 있는데, 구연단으로 가면서 약간 아래로 쳐져 있다. 구연단 안쪽으로는 흠이 돌아가고 있으며, 외하단이 아래로 약간 등글게 돌출되어 있다.

잔존 높이 5.5cm, 복원 입지름 16.4cm.

· 口緣部片 [도면 33-①, 사진 63-②]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자주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경부는 길게 외반하여 구연부로 이어지고 있으며, 구연단의 안쪽으로는 턱이 지게 조정되었고, 외하단이 날카롭게 안쪽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다.

잔존 높이 9.0cm, 복원 입지름 15.8cm.

· 口緣部片 [도면 33-②, 사진 63-③]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크게 외반하여 끝을 안쪽으로 꺾어 붙여 마무리하여 외하단부가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경부에는 단선 波狀文을 조잡하게 3줄을 음각으로 시문하였다. 구연단의 안쪽으로는 약간의 턱이 지고 있다.

잔존 높이 4.9cm, 복원 입지름 25.6cm.

· 口緣部片 [도면 33-③, 사진 63-④]

회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비교적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짧게 수평으로 외반하고 있으며, 구연단 안쪽으로 턱이 지고 있고, 외하단이 약간 아래로 돌출되어 있다. 경부는 비교적 길게 직립하고 있으며, 외면으로는 위쪽으로 태선의 陰刻波狀文을 시문하였고, 그 아래로 3條의 조잡한 陰刻波狀文을 시문하였다.

잔존 높이 8.1cm, 복원 입지름 23.0cm.

· □緣部片 [도면 33-④, 사진 63-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끝을 밖으로 등글게 말아 붙였으며, 약간 아래로 늘어져 있다. 구연단 안쪽으로는 얇은 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경부는 길게 외반하고 있는데, 외면으로 4條의 陰刻單線波狀文을 시문하고 그 사이에 3條의 침선을 돌려 구획하고 있다.

잔존 높이 7.0cm, 복원 입지름 22.4cm.

· □緣部片 [도면 33-⑤, 사진 63-⑥]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사립이 거의 혼입되지 않은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수평으로 짧게 외반하고 있는데, 下部가 도톰하게 아래로 돌출되어 있으며, 구연단 안쪽으로는 낮게 턱이 지고 있다. 경부는 비교적 길게 외경하고 있으며, 외면으로 3條의 陰刻單線波狀文을 시문하였는데, 그 사이에 2條의 침선을 돌려 구획하고 있다.

잔존 높이 7.0cm, 복원 입지름 22.4cm.

· □緣部片 [도면 33-⑥, 사진 63-⑦]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사립이 거의 혼입되지 않은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짧게 수평으로 외반하고 있는데, 下部가 아래로 도톰하게 돌출되어 있으며, 구연단 안쪽으로는 낮게 턱이 지고 있다. 경부는 비교적 길게 외경하고 있으며, 외면으로 3條의 陰刻單線波狀文을 시문하였는데, 그 사이에 2條의 침선을 돌려 구획하고 있다.

잔존 높이 7.0cm, 복원 입지름 24.0cm.

· □緣部片 [도면 33-⑦, 사진 63-⑧]

瓶의 □緣部片이다. 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표면이 매끄러우며, 윤이 나고 있다. 구연부는 盤口狀으로 직립하고 있으며, 경부는 짧게 직립하고 있다.

잔존 높이 2.6cm, 입지름 3.7cm.

· □緣部片 [도면 33-⑧, 사진 63-⑨]

瓶의 □緣部片이다. 회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사립이 거의 혼입되지 않은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수평으로 크게 외반하고 있는데, 외면은 2단으로 단을 지

게 조정하였다. 경부는 짧고 좁게 직립하고 있는데, 외면으로 부분적으로 短線의 음각선이 그어져 있다.

잔존 높이 3.7cm, 입지름 5.4cm,

· 口緣部片 [도면 33-⑨, 사진 64-①]

瓶의 口緣部片이다.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십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口緣部는 盤口狀을 이루고 있는데, 내경 하단 밖으로 꺾여 올라가 마무리되었으며, 아래로 돌출된 부분은 끝으로 가면서 외측으로 反轉하고 있다. 경부는 중간부가 잘룩한 형태로, 횡침선이 돌려져 있다.

잔존 높이 3.0cm, 복원 입지름 8.2cm,

· 口緣部片 [도면 33-⑩, 사진 64-②]

瓶의 口緣部片이다. 회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외반하는 경부에서 외측이 직립하며 盤口狀을 이루고 있으며, 구연부의 외면은 얇은 흙을 3條 둘러고 있다. 경부의 중간에는 3條의 침선이 돌려져 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면이 거칠다.

잔존 높이 6.0cm, 복원 입지름 12.4cm,

· 口緣部片 [도면 33-⑪, 사진 64-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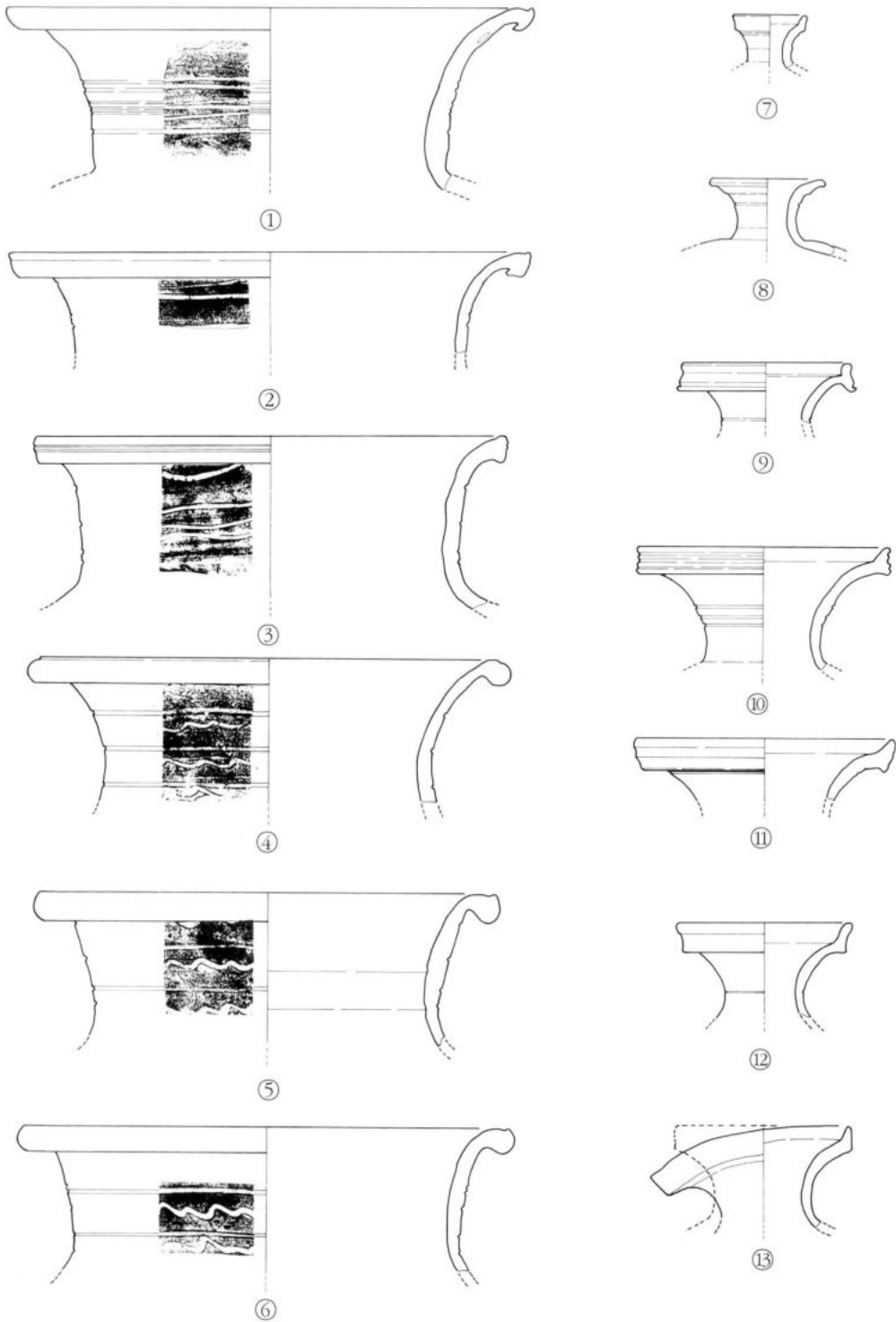
瓶의 口緣部片이다. 회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외반하는 경부에서 짧게 위로 꺾여 올라가 盤口狀을 이루고 있으며, 외면으로 얇은 흙을 돌려 굴곡을 이루고 있고, 외하단부가 아래로 약간 돌출되어 있다. 경부의 상단에는 2條의 침선을 조잡하게 들렸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면이 거칠다.

잔존 높이 3.1cm, 복원 입지름 12.8cm,

· 口緣部片 [도면 33-⑫, 사진 64-④]

瓶의 口緣部片이다. 회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외반하는 경부에서 위로 꺾여 올라가 盤口狀을 이루고 있는데, 외면이 약간 오목하게 조정되었다. 경부의 잘룩한 부분에는 가는 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잔존 높이 4.7cm, 복원 입지름 8.6cm,



[도면 33]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 도토기 구연부편

· 口緣部片 [도면 33-⑬, 사진 64-⑤]

瓶의 口緣部片이다. 회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일부분이 소성과정에서 일그러져 있는데, 盤口狀을 이루고 있으며, 경부의 외면에는 물손질 조정흔이 남아 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사립 등이 흡착되어 있어 면이 거칠다.

잔존 높이 5.0cm, 입지름 8.4cm.

· 口緣部片 [도면 34-①, 사진 64-⑥]

大形甕의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경부에서 밖으로 크게 꺾여 아래로 늘어져 있으며, 하단부가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경부는 길게 외반하고 있으며, 單線波狀文이 조잡하게 중복 시문되었으며, 그 아래로 단면 삼각상의 침선문이 둘러져 있다. 경부의 내면으로는 점토띠 쌓기 성형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잔존 높이 5.0cm, 복원 입지름 37.0cm.

· 口緣部片 [도면 34-②, 사진 64-⑦]

大形甕의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경부에서 밖으로 꺾여 아래로 늘어져 있으며, 끝으로 가면서 가늘어지고 있다. 경부는 길게 외반하고 있는데, 2條의 침선과 2條의 單線波狀文이 조잡하게 시문되었다. 경부의 내면으로는 점토띠 쌓기 성형흔이 남아 있는데, 점토띠의 폭은 3.2cm 정도이다.

잔존 높이 8.9cm, 복원 입지름 36.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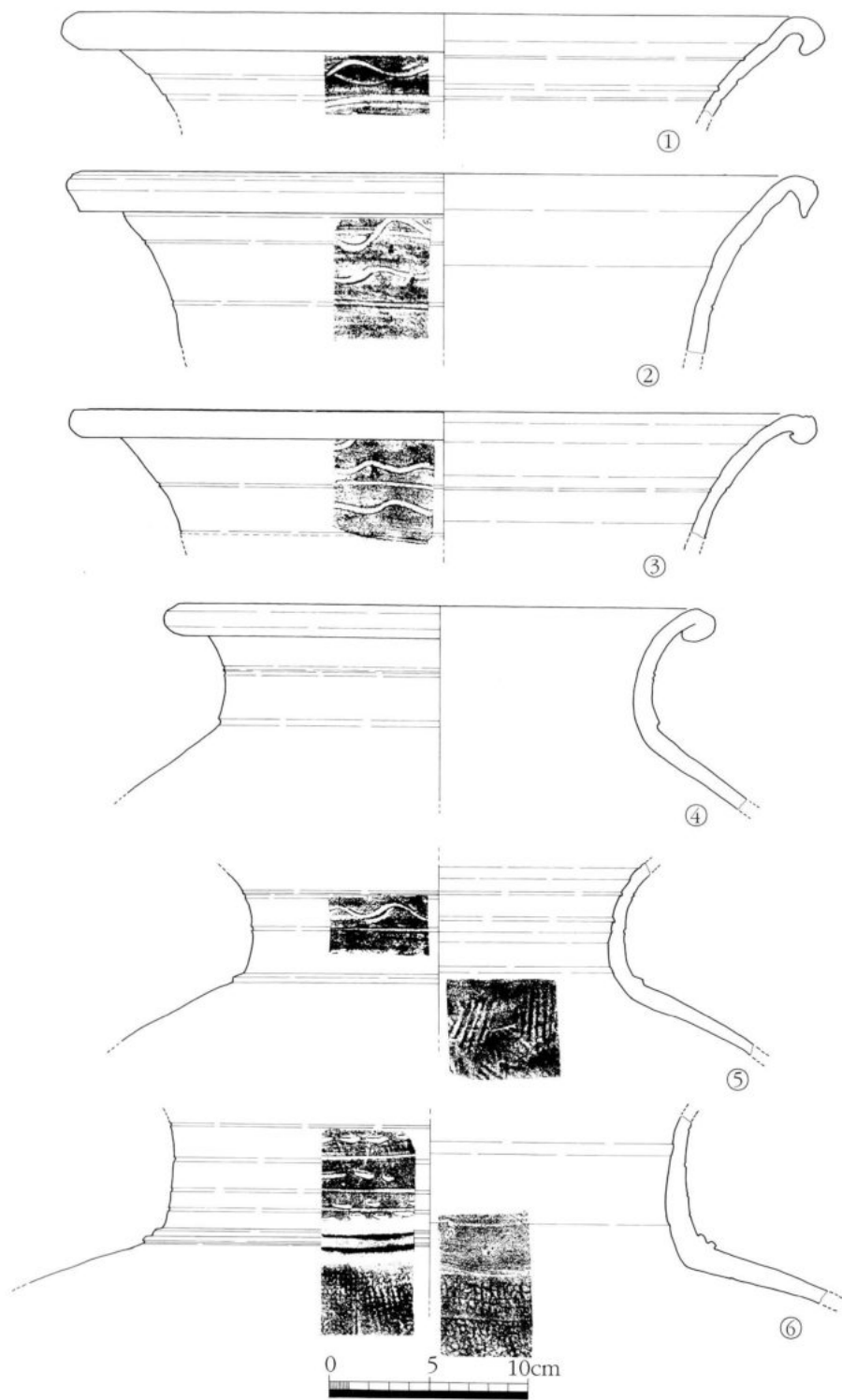
· 口緣部片 [도면 34-③, 사진 64-⑧]

大形甕의 구연부편이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를 띠고 있으며,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경부에서 밖으로 짧게 꺾여 안쪽으로 말아 붙였으며, 외하단부가 안쪽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다. 구연단의 안쪽으로는 약간 오목하게 조정되었다. 경부는 길게 외반하고 있으며, 외면에 3條의 單線波狀文과 2條의 침선을 시문하였다

잔존 높이 6.2cm, 복원 입지름 37.4cm.

· 口緣部片 [도면 34-④, 사진 64-⑨]

大形甕의 口緣部에서 肩部까지 일부가 잔존한 片이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를 띠고 있으며,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경부의 상단에서 밖으로 꺾여 경부



[도면 34]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 도토기 구연부편

상단의 외측으로 말아 붙였다. 외반하는 경부의 중간으로는 2條의 침선이 둘러져 있으며, 경부의 하단으로는 단을 지며 견부로 이어지고 있다. 견부의 내면으로는 점토풀쌩기 성형흔과 內拍子흔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9.6cm, 복원 입지름 6.5cm.

· 頸部片 [도면 34-⑤, 사진 65-①]

大形甕의 頸部和 肩部의 일부가 잔존한 片이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며,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頸部는 약간 內彎한 형태로 외면에는 상하로 2條의 單線波狀文을 시문하였으며, 그 사이로 침선을 1條 둘러쌌다. 경부와 견부의 경계부에는 단면 사각형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고 있다. 내면에는 점토풀쌩기흔이 뚜렷하며, 견부에는 內拍子흔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9.6cm.

· 頸部片 [도면 34-⑥, 사진 65-②]

大形甕의 頸部和 肩部의 일부가 잔존한 片이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직립하는 경부는 點列文을 4條 조잡하게 시문하였으며, 그 사이로 4條의 침선을 돌려 구획하고 있다. 경부와 견부의 경계부에는 2條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고 있다. 肩部의 외면에는 細格子文을 타날한 후 정면하였다. 내면은 경부에 점토풀쌩기흔이 남아 있으며, 견부에는 內拍子흔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9.3cm.

· 四面扁瓶 [도면 35-①, 사진 65-③]

頸部이상이 결실되었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원형의 점토판 위에 점토풀쌩기 올려 성형하였다. 외면은 무문이며, 내면은 물손질 정면흔적과 손누름 흔적이 보이고 있다.

잔존 높이 21.0cm, 바닥 지름 12.0cm.

· 四面扁瓶 [도면 35-②, 사진 65-④]

胴上部이상이 결실되었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원형의 점토판 위에 점토풀쌩기 올려 성형한 것으로 내면에는

테쌓기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동체의 외면은 무문으로 木理조정흔이 보이고 있으며, 하단부에는 가는 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잔존 높이 21.1cm 바닥 지름 10.2cm.

· 四面扁瓶 [도면 35-③, 사진 65-⑤]

胴上部이상이 결실되었다. 경질소성품으로 내면은 회청색, 기심은 暗紫色, 외면은 흑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사립이 거의 혼입되지 않은 정선된 점토이다. 원형의 점토관을 바닥으로 하여 그 위에 점토띠를 쌓아 올려 성형한 것으로 내면에는 테쌓기 흔적이 뚜렷하다. 외면은 自然釉가 흘러 온 이 나고 있는데, 격자문을 타날 한 후 정면하였다. 바닥면은 소성과정에서 일그러져 있다.

잔존 높이 14.9cm, 바닥 지름 13.0cm.

· 四面扁瓶 [도면 35-④, 사진 65-⑥]

胴上部이상이 결실되었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원형의 점토관을 바닥으로 하여 그 위에 점토띠를 쌓아 올려 성형한 것으로 내면에는 테쌓기 흔적이 뚜렷하며 저부와 접합부는 손누름조정하여 접합을 강화하였다.

잔존 높이 16.9cm, 바닥 지름 10.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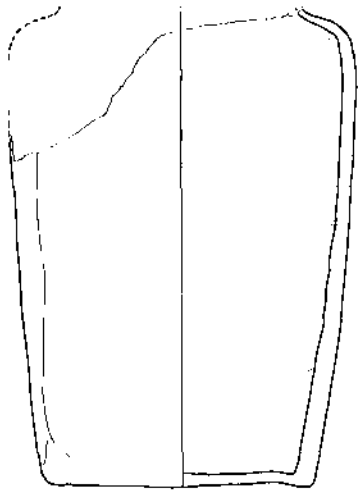
· 四面扁瓶 [도면 35-⑤, 사진 65-⑦]

胴上部이상이 결실되었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원형의 점토관을 바닥으로 하여 그 위에 점토띠를 쌓아 올려 성형한 것으로 내면은 테쌓기 흔적이 뚜렷하며, 외면은 정면되어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내저면의 가장자리로는 회전누름조정하여 접합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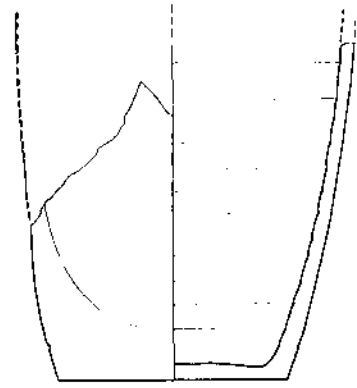
잔존 높이 14.0cm, 바닥 지름 14.2cm.

· 四面扁瓶片 [도면 35-⑥, 사진 65-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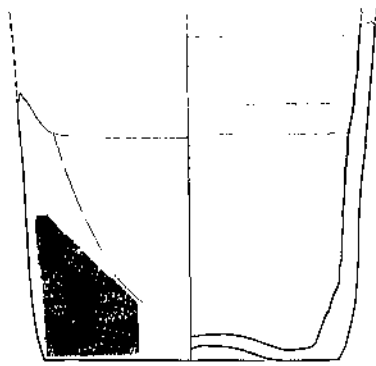
동체의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를 띠고 있으며,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점토띠 쌓기수법에 의해 성형된 것으로 내면은 흔적이 뚜렷하며, 외면은 정면하였으며, 횡침선이 조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肩部에는 흑녹색의 自然釉가 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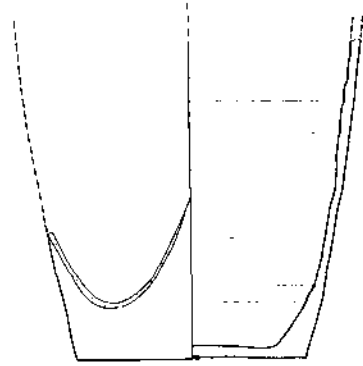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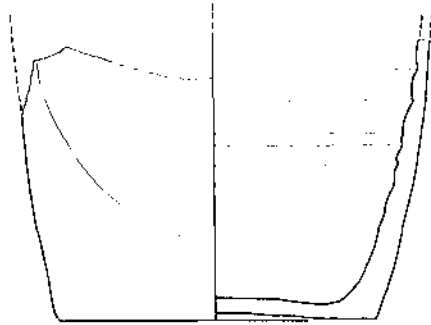
②



③



④



⑤



⑥



[도면 35]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 사면편병

잔존 높이 13.5cm.

· 土器片 [도면 36-①, 사진 66-①]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암자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瓶의 胴上部편으로 보여지는데, 기벽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외면으로는 위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1條, 2條, 3條의 陰刻橫線을 들리고 있다. 내면으로는 회전물손질 흔적과 위로 올라가면서 좁혀들어 주름진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2.95cm.

· 뚜껑편 [도면 36-②, 사진 66-②]

회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蓋身은 외경하며 내려와 구연부에 이르러 안쪽으로 직각으로 꺾여 구연부를 이루고 있다. 蓋身의 외면은 위로부터 1條, 2條, 1條, 1條의 陰刻橫線을 돌렸으며, 구연부의 외면은 3條의 얇은 陰刻橫線을 돌려 글곡이 형성되어 있다.

잔존 높이 3.1cm, 복원 입지름 18.0cm.

· 瓶片 [도면 36-③, 사진 66-③]

頸部와 胴上部의 일부가 잔존한 편이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외면은 태토 속의 사립이 녹아 나와 회색에 흰 반점이 얼룩져 있다. 외면의 경부와 견부의 경계부는 날카롭게 들대가 돌아가고 있으며, 내면은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보이고 있으며, 견부에서 경부로 좁아져 올라가면서 주름이 형성되어 있다.

잔존 높이 8.35cm.

· 扁瓶片 [도면 36-④, 사진 66-④]

頸部와 胴上部의 일부가 잔존한 편이다.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동체는 한쪽만이 납작하게 눌러져 있으며, 上部에 2條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경부는 짧고 좁은 형태로 중간부에 1條의 횡침선이 돌려져 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으며, 경부로 좁혀져 올라가면서 주름져 있다.

잔존 높이 4.8cm.

· 瓶片 [도면 36-⑤, 사진 66-⑤]

瓶의 胴中部이상이 결선되었다. 회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자주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동체는 菱形으로 납작하며, 하단부에 2條의 돌대가 돌아가고 있다. 저부에는 환형의 굽이 부착되어 있는데, 끝으로 가면서 외측으로 벌어져 있고, 굽 안쪽으로는 단이 지고 있다. 내면은 소성과정에서 기포가 형성되어있으며, 점토띠를 쌓아 올린 흔적이 뚜렷하다.

잔존 높이 3.8cm, 동최대경 12.9cm, 굽지름 5.7cm.

· 底部片 [도면 36-⑥, 사진 66-⑥]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점토띠를 쌓아 올려 성형한 것으로 내면은 그 흔적이 뚜렷하다. 외면은 무문으로 동체 하단부는 木槌조정되었다. 저부에는 낮은 환형의 굽이 부착되어 있는데, 굽의 외면은 외경하여 내려와 접지면에 이르고 있다.

잔존 높이 4.6cm, 굽지름 6.7cm.

· 底部片 [도면 36-⑦, 사진 66-⑦]

회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경질에 가깝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粗質의 점토이다. 동체는 점토띠를 쌓아 올려 성형하여 내면은 그 흔적이 뚜렷하다. 저부에는 환형의 굽이 부착되어 있는데 접지면 가까이에 이르러 외면이 외측으로 돌출되어 있다.

잔존 높이 2.6cm, 복원 굽지름 9.6cm.

· 底部片 [도면 36-⑧, 사진 66-⑧]

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내저면은 비교적 편평하며, 외저면은 오목하게 파여 있어 굽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잔존 높이 1.5cm, 바닥지름 6.8cm.

· 底部片 [도면 36-⑨, 사진 66-⑨]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벽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어서 소성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저부에는 환형의 굽이 부착되어 있는데, 외경하며 접지면에 이르고 있다.

잔존 높이 3.6cm, 복원 굽지름 6.0cm.

· 底部片 [도면 36-⑩, 사진 66-⑩]

회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경질에 가깝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내저면은 편평하며, 외저면은 약간 볼록한 형태이다. 저부에는 환형의 굽이 부착되어 있는데, 비교적 높으며, 외경하며 접지면에 이르고 있다. 굽의 외면에는 2條의 單線波狀文이 돌려져 있다. 굽 안쪽으로는 회전물손질 조정되었다.

잔존 높이 2.3cm, 복원 굽지름 7.8cm.

· 底部片 [도면 36-⑪, 사진 66-⑪]

질은 회색을 띠는 경질소성품으로 기벽에는 기포가 형성되어 있어 소성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잔존한 동체의 한쪽 부분은 납작하게 눌러져 있으며, 저부에는 환형의 낮은 굽이 부착되어 있다.

잔존 높이 1.9cm, 굽지름 5.0cm.

· 底部片 [도면 36-⑫, 사진 67-①]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저부는 평저이며, 내외면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2.5cm, 복원 바닥지름 8.0cm.

· 底部片 [도면 36-⑬, 사진 67-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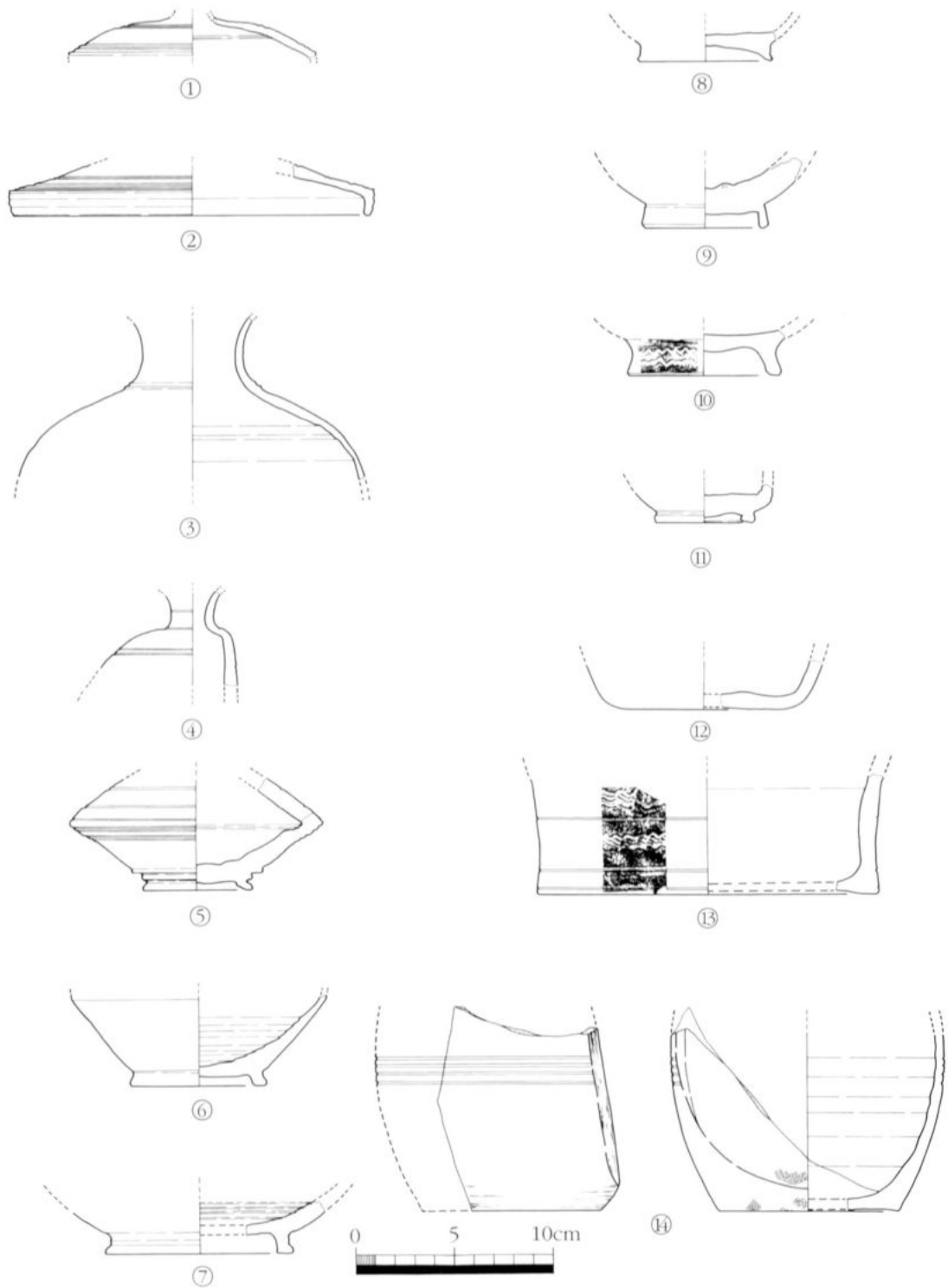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잔존한 동체의 외면에는 음각의 횡선을 돌려 구획한 후 그 안에 複線의 波狀文을 정교하게 시문하였다.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의 내면으로는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뚜렷하다.

잔존 높이 6.1cm, 복원 바닥지름 17.2cm.

· 扁瓶片 [도면 36-⑭, 사진 67-③]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점토끼를 쌓아올려 성형하여 내면에는 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동체의 한쪽 면은 납작하게 눌러 면을 이루고 있다. 동체의 중간부에는 4條의 음각선을 횡으로 돌렸으며, 하단부는 격자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잔존 높이 10.4cm, 복원 바닥지름 9.0cm.



[도면 36]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뚜껑·자기·병·편병류

· 瓶片 [도면 37-①, 사진 67-④]

동체상부의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자주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肩部는 비교적 수평으로 벌어진 후 급격히 축약되어 내려가고 있다. 건부의 외측 경계로는 圓圈이 음각으로 돌려져 있으며, 그 아래의 동체외면으로는 종방향의 點列文이 연속으로 시문되어 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으며, 건부에서 정부로 좁혀져 올라가면서 주름이 형성되어 있다.

잔존 높이 3.1cm, 동최대경 11.8cm.

· 瓶片 [도면 37-②, 사진 67-⑤]

동체상부의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자주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肩部는 수평으로 벌어진 후 급격히 축약되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건부의 외측 경계로는 圓圈을 음각으로 돌리고, 그 아래로 종방향의 點列文을 정교하게 시문하였다.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2.2cm, 동최대경 12.5cm.

· 瓶片 [도면 37-③, 사진 67-⑥]

頸部와 동체상부의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자주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肩部는 수평으로 벌어진 후 급격히 축약되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건부의 외측 경계로는 圓圈을 음각으로 돌리고, 그 아래로 종방향의 點列文을 정교하게 시문하였다. 건부는 짧고 좁은 형태로 중간부에 2條의 음각 횡선을 돌렸다.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으며, 건부에서 정부로 좁혀져 올라가면서 주름이 형성되어 있다.

잔존 높이 4.1cm, 동최대경 9.7cm.

· 瓶片 [도면 37-④, 사진 67-⑦]

頸部 이상이 결실되었다. 흑회색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肩部는 수평으로 벌어진 후 급격히 축약되며 저부로 내려가고 있다. 건부의 아래로는 동체 하단에 이르기까지 左上 右下로 주름무늬를 정교하게 시문하였는데, 주름무늬의 사이로는 가는 횡선이 조밀히 이어지고 있다. 저부에는 낮은 환형의 굽이 부착되어 있는데, 외경하며 접지면에 이르고 있다.

잔존 높이 6.2cm, 복원 굵지름 4.3cm.

· 底部片 [도면 37-⑤, 사진 67-⑧]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잔존한 동체의 외면으로는 左上 右下로 주름무늬를 정교하게 시문하였는데, 주름무늬의 사이로는 가는 횡선이 조밀히 이어지고 있다. 저부에는 낮은 환형의 굽이 부착되어 있는데, 외경하며 접지면에 이르고 있다.

잔존 높이 2.1cm, 복원 굵지름 2.6cm.

· 底部片 [도면 37-⑥, 사진 67-⑨]

회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잔존한 동체의 외면으로는 종방향으로 단면 삼각상의 주름무늬가 시문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돌대를 돌려 저부와 구분하고 있다. 저부에는 낮은 굽이 달려 있는데, 대부분 결실되었으며, 굽안쪽의 외저면 가장자리로는 1-2條의 음각선을 돌렸다.

잔존 높이 5.5cm, 추정 굵지름 8.6cm.

· 底部片 [도면 37-⑦, 사진 67-⑩]

회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내면은 회청색을 띠고 있다. 잔존한 동체의 외면으로는 종방향의 點列文을 연속으로 시문한 후 일부 문양을 지웠다. 내면의 동체하단과 저부로는 점토를 잇대어 저부와 동체하단의 접합을 보강하였다. 저부에는 낮은 환형의 굽이 달려 있다.

잔존 높이 4.7cm, 복원 굵지름 1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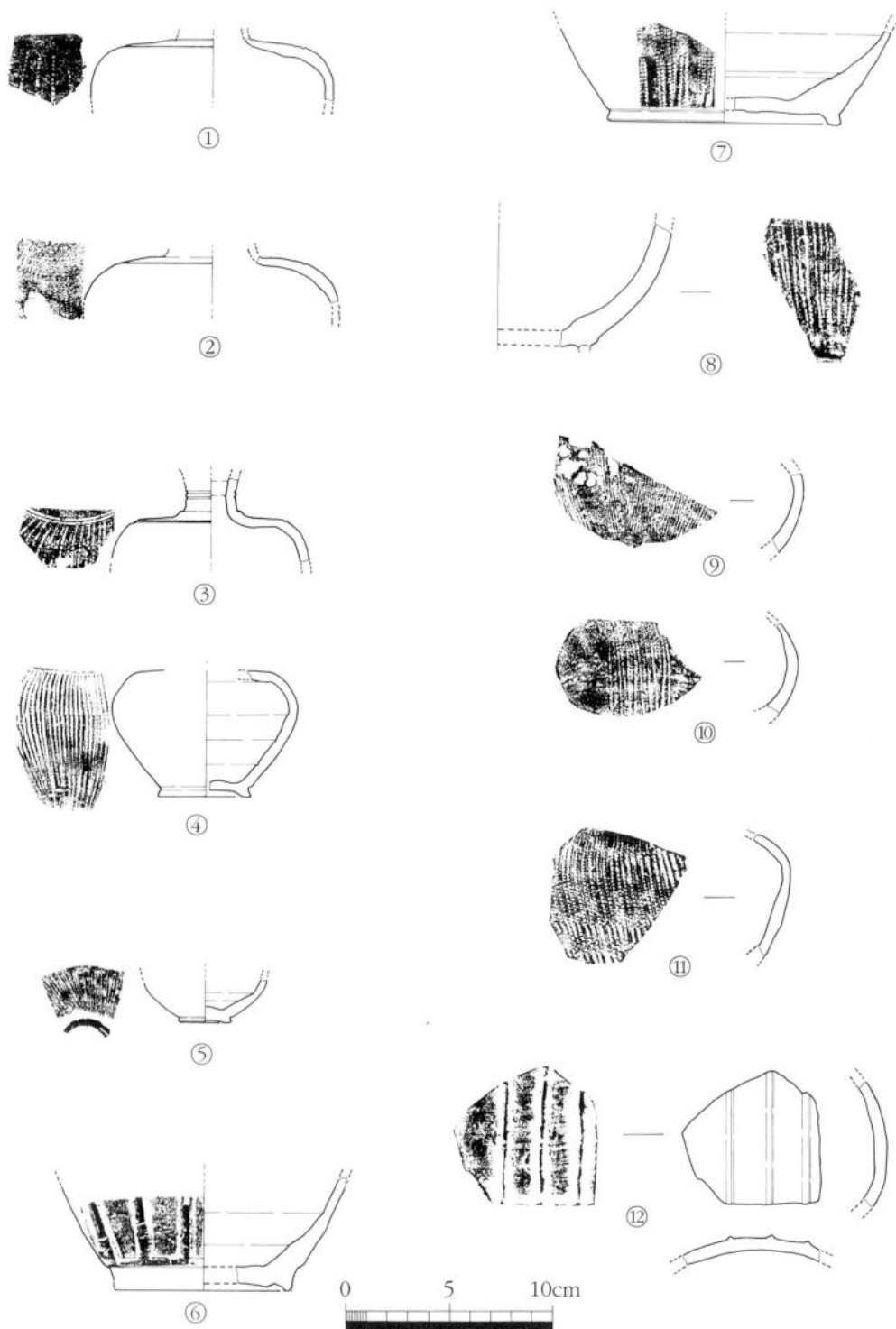
· 底部片 [도면 37-⑧, 사진 67-⑪]

회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잔존한 동체의 외면으로는 종방향으로 點列文을 시문하였으며,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저부에는 굽이 부착된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6.0cm.

· 胴體片 [도면 37-⑨, 사진 68-①]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세사립이 비교적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잔존한 동체의 외면으로 종방



[도면 37]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병 · 주름무늬병편

향으로 주름무늬를 조잡하게 시문하였다.

7.4×5.1×0.5~0.7cm.

· 胴體片 [도면 37-⑩, 사진 68-②]

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잔존한 동체의 외면으로 종방향으로 點列文을 시문하였다.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7.0×4.5×0.3~0.7cm.

· 胴體片 [도면 37-⑪, 사진 68-③]

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극히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잔존한 동체의 외면으로 종방향으로 점열문(點列文)을 조밀히 시문하였으며,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6.5×5.9×0.3~0.7cm.

· 胴體片 [도면 37-⑬, 사진 68-④]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잔존한 동체의 외면으로는 종방향으로 단면 삼각상의 주름무늬를 시문하였으며,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6.7×6.5×0.5~0.6cm.

· 底部片 [도면 38-①, 사진 68-⑤]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비교적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동체는 점토띠를 쌓아 올려 성형하여 내면에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며, 저부는 평저이다. 무문이다.

잔존 높이 3.9cm, 바닥지름 6.2cm.

· 底部片 [도면 38-②, 사진 68-⑥]

회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동체는 점토띠를 쌓아 올려 성형하였으며, 내저면은 회전 누름조정하였다. 저부는 평저이다.

잔존 높이 3.2cm, 복원 바닥지름 11.6cm.

· 扁瓶片 [도면 38-③, 사진 68-⑦]

저부와 동체의 일부가 잔존하고 있다. 흑회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갈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동체는 점토띠를 쌓아 올려 성형하여 내면에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며,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의 외면은 木理조정흔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6.85cm, 바닥지름 17.8cm.

· 底部片 [도면 38-④, 사진 68-⑧]

회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중심부는 회청색 그 외측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잔존한 동체의 외면은 격자문을 타날한 후 부분적으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은 격자문의 內拍子흔이 남아 있다. 내저면의 가장자리로는 방사상으로 木理로 붉은 흔적이 있다. 평저이다.

잔존 높이 13.4cm, 바닥지름 22.2cm.

· 底部片 [도면 38-⑤, 사진 68-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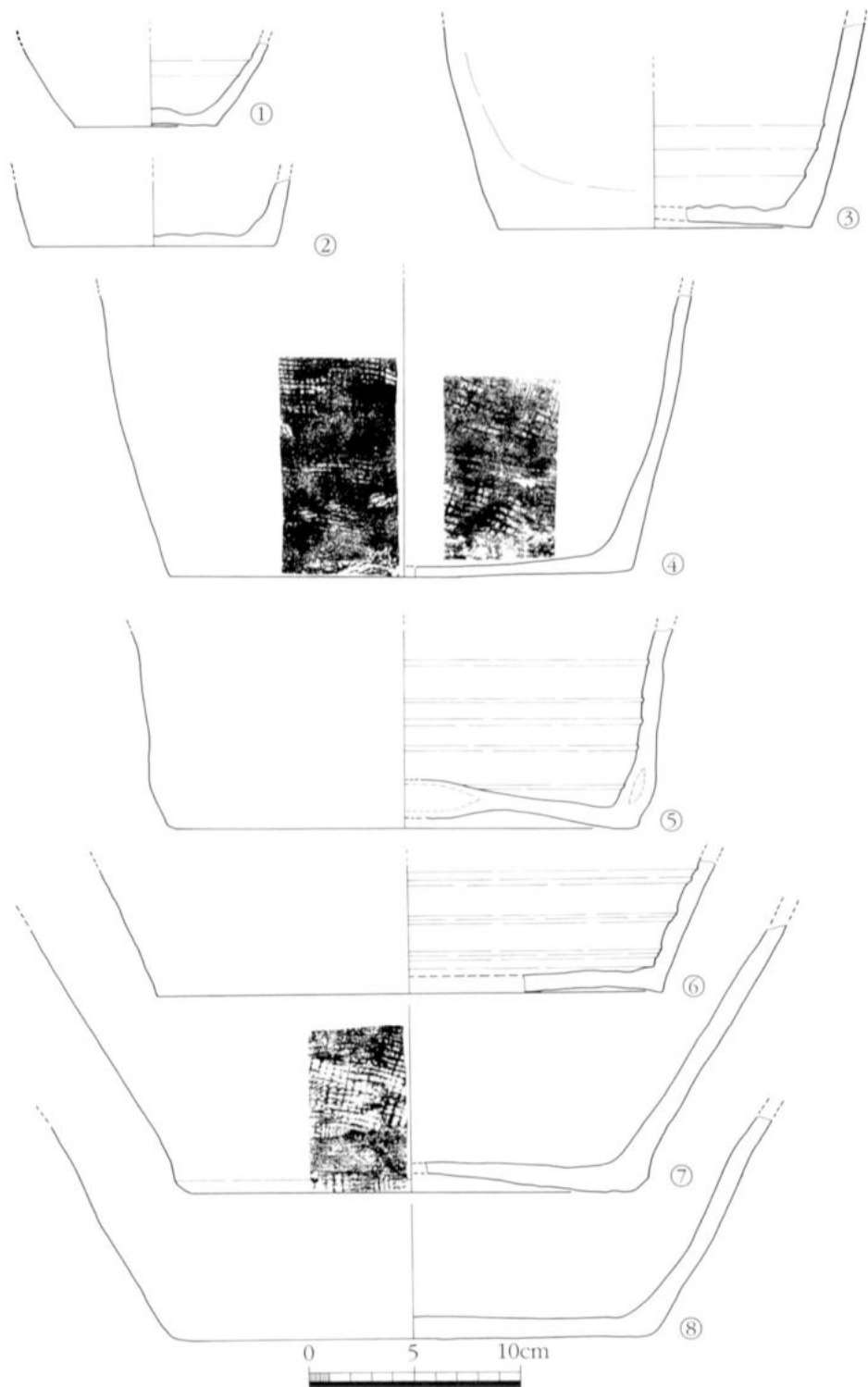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동체는 점토띠를 쌓아 올려 성형하여 내면에 그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기벽은 소성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틈이 벌어져 소성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동체의 외면으로는 흑색의 自然釉가 흘러 내렸다. 동체의 내면은 內拍子흔이 남아 있다. 평저이다.

잔존 높이 9.5cm, 복원 바닥지름 22.6cm.

· 底部片 [도면 38-⑥, 사진 69-①]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동체는 점토띠를 쌓아 올려 성형하여 내면에 그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외저면으로는 흑갈색의 自然釉가 흐른 흔적이 남아 있다. 평저이다.

잔존 높이 6.2cm, 복원 바닥지름 24.2cm.



[도면 38]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저부편

· 底部片 [도면 38-⑦, 사진 69-②]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동체는 외면으로 격자문을 타날 한 후 胴下部 이상으로는 木理로 문질러 문양을 지웠으며, 내면에는 內拍子흔적이 남아 있다. 평저로 바닥면이 거칠게 조정되었다.

잔존 높이 12.65cm, 복원 바닥지름 21.0cm.

· 底部片 [도면 38-⑧, 사진 69-③]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동체의 외면은 거칠게 木理조정되었으며, 동체하단과 저부의 연결부는 누름조정을 하여 접합을 강화하였다. 동체의 내면으로는 內拍子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평저이다.

잔존 높이 10.3cm, 복원 바닥지름 23.0cm.

· 胴體部片 [도면 39-①, 사진 69-④]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잔존한 동체의 외면으로는 2줄의 낮은 돌대가 돌아가고 있으며, 細格子文으로 보이는 타날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동체의 내면에는 외면 보다 큰 격자문의 內拍子흔이 뚜렷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12.5cm, 기벽 두께 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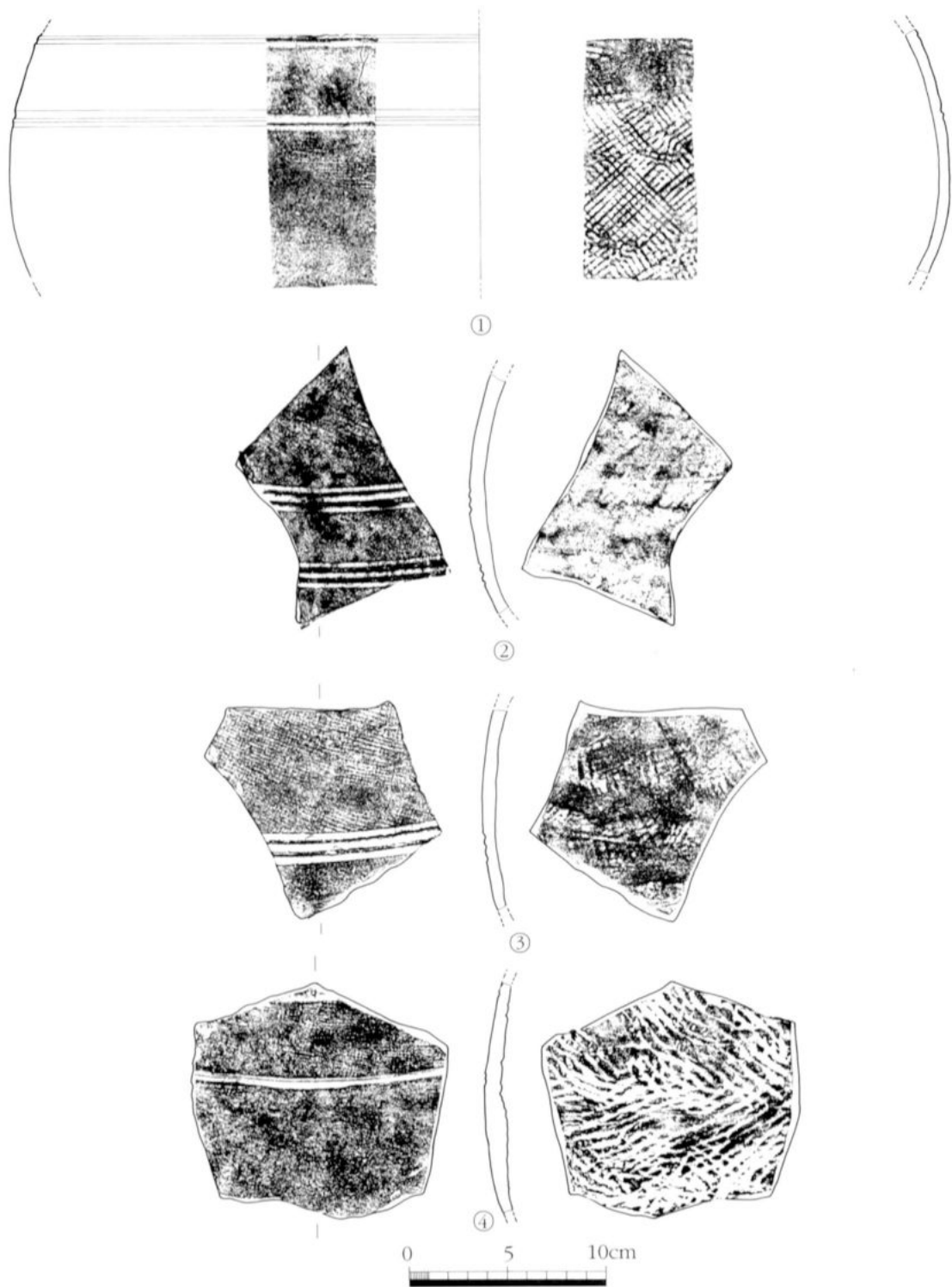
· 胴體部片 [도면 39-②, 사진 69-⑤]

회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외면은 흰점으로 얼룩져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잔존한 동체의 외면으로는 2.6cm 간격으로 3줄의 횡침선으로 돌려 마치 2줄의 돌대를 돌린 것처럼 보이고 있으며, 내면으로는 內拍子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7.5×14.0×0.7~1.0cm.

· 胴體部片 [도면 39-③, 사진 70-①]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동체의 외면으로는 細格子문을 타날하고 부분적으로 정면하였으며, 3줄의 횡침선을 돌린 것이 남아 있다. 내면으로는 內拍子흔이 남아 있다.



[도면 39]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 동체부편

12.5×10.0×0.8cm,

· 胴體部片 [도면 39-④, 사진 70-②]

회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부분적으로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동체의 외면으로는 4cm 간격으로 횡침선이 1줄 돌아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무문으로 정면하였다. 내면으로는 內拍子흔이 굵고 깊게 남아 있다.

13.2×11.75×0.6~1.0cm,

· 胴體部片 [도면 40-①, 사진 70-③]

회색의 경질소성품으로 器外面은 自然釉가 탈락되어 흰 斑點이 얼룩져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동체의 외면은 3.0cm 간격으로 1줄의 날카로운 들대가 돌아가고 있으며, 내면은 內拍子흔이 남아 있다.

18.2×11.3×0.8~0.7cm,

· 胴體部片 [도면 40-②, 사진 70-④]

암회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器外面은 細線의 종집 선문을 타날하고 부분적으로 면을 정면하였으며, 3.0cm 간격으로 1줄의 덧띠를 들렸으며, 器內面으로는 內拍子흔이 남아 있다.

11.0×12.7×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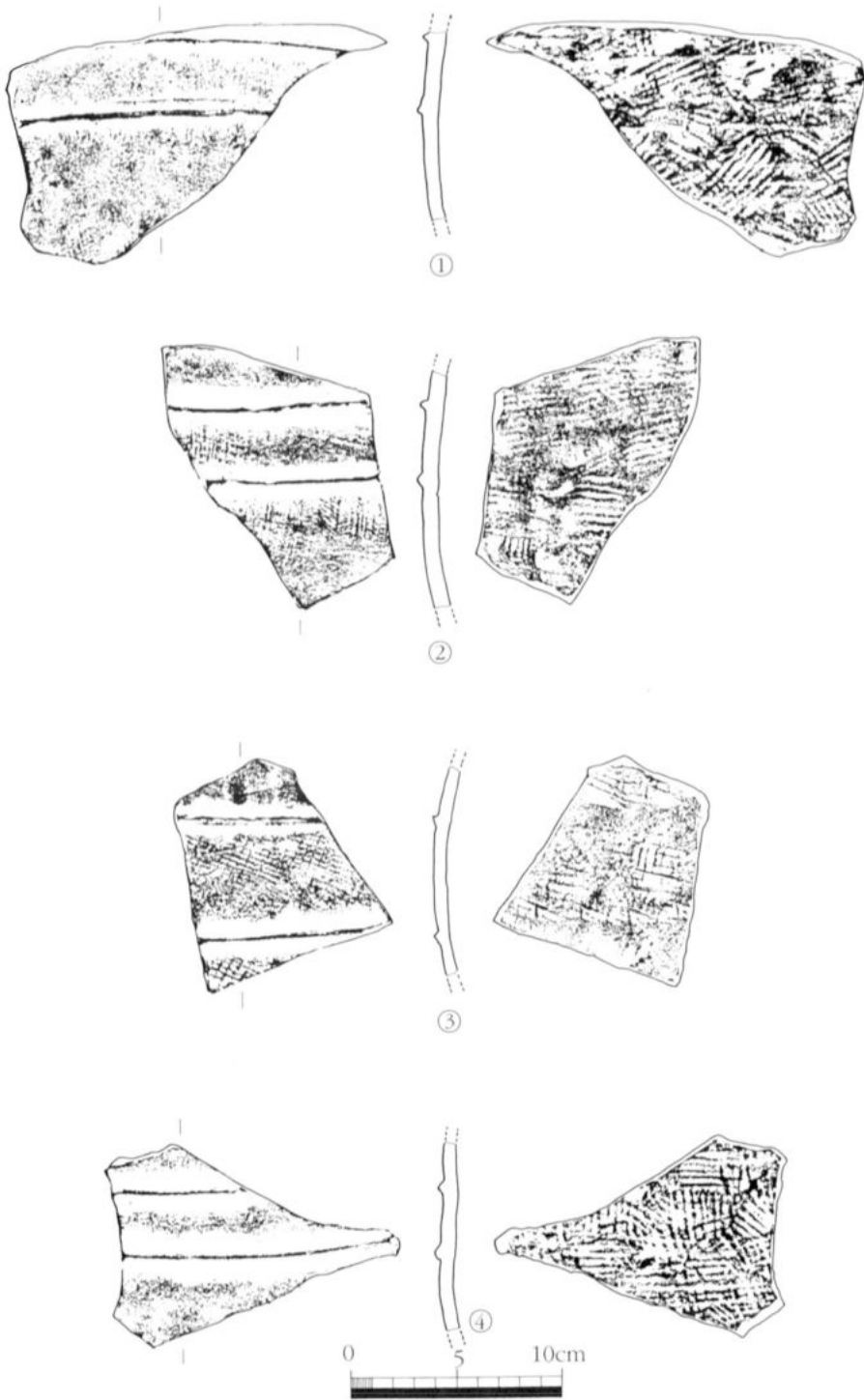
· 胴體部片 [도면 40-③, 사진 71-①]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器外面은 格子文을 타날 한 후 부분적으로 정면하였으며, 5.0cm 간격으로 단면 삼각형의 덧띠를 1줄씩 들렸다. 器內面은 격자문의 內拍子흔이 보이고 있다.

10.3×11.1×0.5~0.6cm,

· 胴體部片 [도면 40-④, 사진 71-②]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器外面은 2.2cm간격으로 단면 삼각형의 덧띠를 1줄씩 돌렸으며, 器內面은 內拍子흔 뚜렷하다.



[도면 40]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 동체부편

14.0×9.9×0.6~0.7cm.

· 胴體部片 [도면 41-①, 사진 71-③]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器外面은 格子文을 타날하였으며, 3.0cm 간격으로 단면 삼각형의 덧띠가 1줄씩 돌아가고 있다. 器內面은 內拍子흔이 뚜렷하다.

9.0×7.8×0.6~0.7cm.

· 胴體部片 [도면 41-②, 사진 71-④]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器外面은 格子文으로 보이는 문양을 타날한 후 부분적으로 정면하였으며, 3.5cm 간격으로 덧띠를 1줄씩 돌렸다. 器內面 內拍子흔이 뚜렷하다.

13.0×9.3×0.6~0.8cm.

· 胴體部片 [도면 41-③, 사진 71-⑤]

회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器外面은 격자문을 타날하고 문양을 부분적으로 정면하였으며, 2.0cm 정도의 간격으로 단면 삼각형의 덧띠를 1줄씩 돌렸다. 器內面은 외면보다 선이 굵고 격자의 크기가 큰 격자문의 內拍子흔이 보이고 있다.

5.95×11.35×0.7~0.9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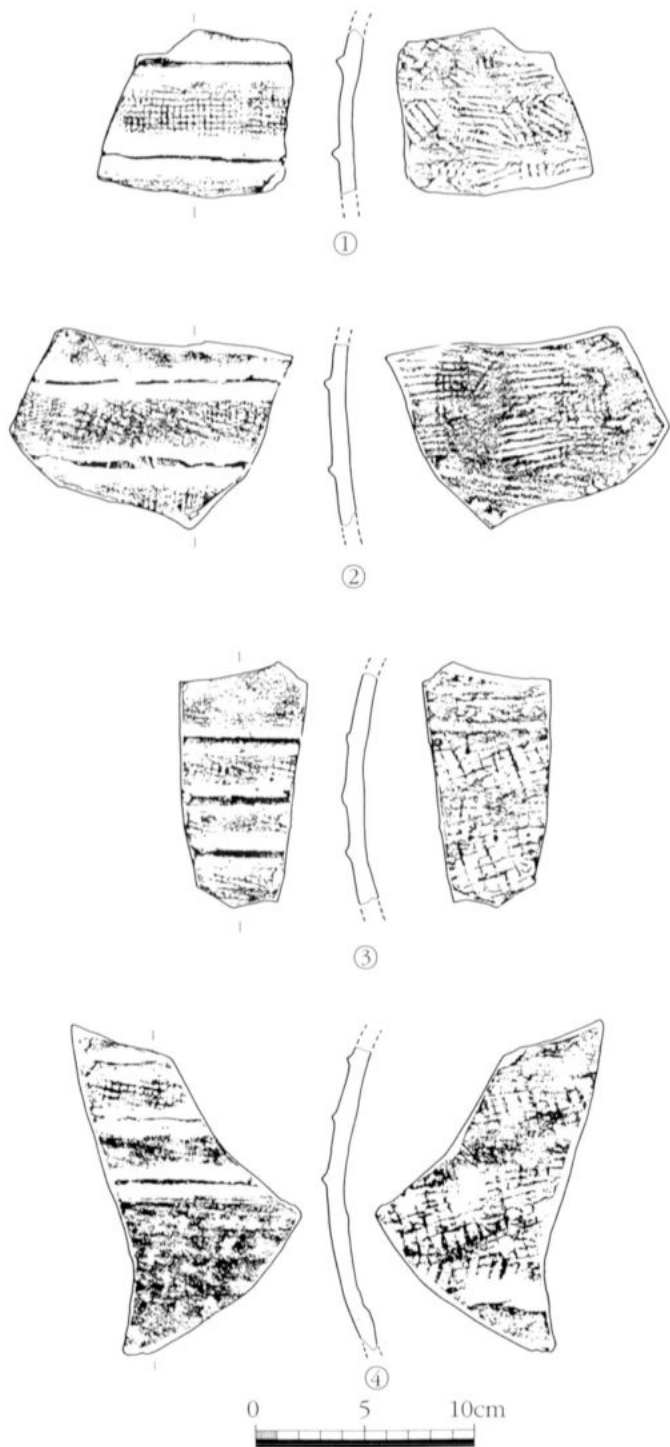
· 胴體部片 [도면 41-④, 사진 71-⑥]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器外面은 격자문을 타날한 후 부분적으로 정면하였으며, 2.2cm의 간격으로 단면 삼각형의 덧띠를 1줄씩 돌렸다. 器內面은 格子文의 內拍子흔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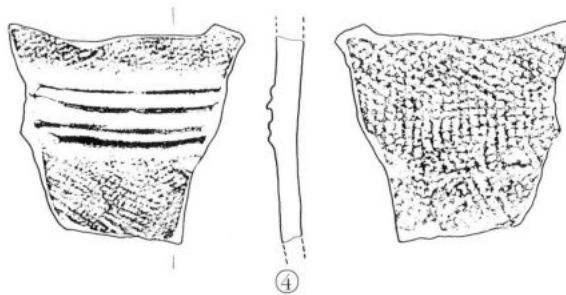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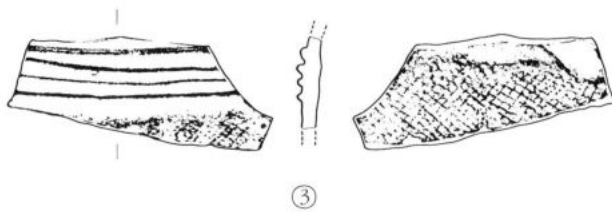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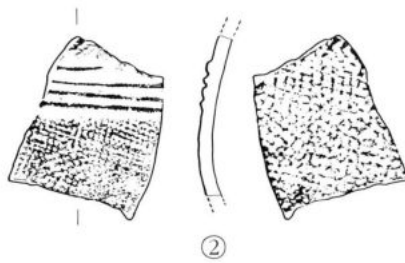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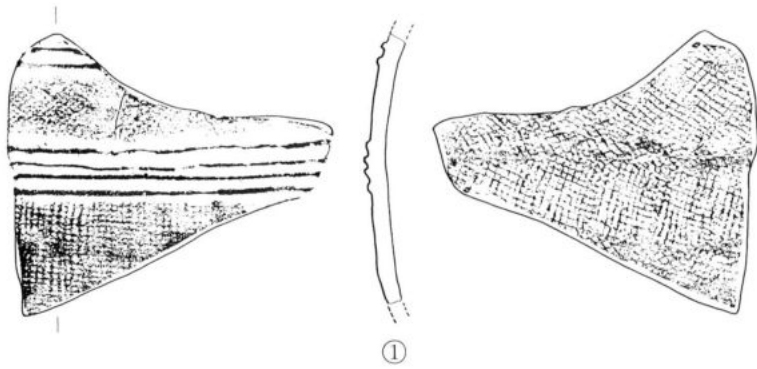
14.25×8.3×0.7~0.9cm.

· 胴體部片 [도면 42-①, 사진 72-①]

회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器外面은 格子文을 타날한 후 부분적으로 정면하였으며, 3.5cm 간격으로 4줄 1組의 덧띠를 돌렸다. 器內面은 格子文의 內拍子흔이 남아 있다.



[도면 41]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 동체부편



[도면 42]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 동체부편

14.0×12.9×0.8cm.

· 胴體部片 [도면 42-②, 사진 72-②]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십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기외면은 細格子文을 타날한 후 부분적으로 정면하였으며, 4줄 1組의 덧띠가 잔존하고 있다. 器內面은 외면보다 격자의 크기가 큰 격자문의 內拍子흔이 보이고 있다.

6.5×7.4×0.65cm.

· 胴體部片 [도면 42-③, 사진 72-③]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십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器外面은 4줄 1組의 덧띠가 돌아간 것이 잔존하고 있으며, 器內面은 格子文의 內拍子흔이 남아 있다.

12.15×4.1×0.6~0.7cm.

· 胴體部片 [도면 42-④, 사진 72-④]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십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器外面은 格子文을 타날한 후 부분적으로 문양을 정면하였으며, 0.6cm 간격으로 2줄 1組의 덧띠를 돌린 것이 잔존하고 있다. 器內面은 외면보다 크기가 큰 格子文의 內拍子흔이 남아 있다.

11.0×10.0×0.9~1.25cm.

· 口緣部片 [도면 43-①, 사진 73-①]

질그릇의 口緣部편이다. 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泥質의 정선된 점토이다. 경부는 짧게 직립하며,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여 구연단을 둥글게 처리하였다. 표면에는 전체적으로 흑색 슬립이 입혀져 있으며, 슬립이 벗겨진 부분은 회색을 띠고 있다.

잔존 높이 4.6cm, 복원 입지름 12.0cm.

· 口緣部片 [도면 43-②, 사진 73-②]

회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연질에 가깝고, 태토는 泥質의 정선된 점토이다. 경부는 짧게 내경하며 구연부는 경부에서 짧게 꺾여 외반하고 있다. 경부와 구연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3.7cm, 복원 입지름 16.4cm.

· □緣部片 [도면 43-③, 사진 73-③]

회갈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짧게 직립하는 경부에서 외측으로 돌출되듯이 짧게 꺾여 외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표면이 마모되어 정면수법과 문양은 확인할 수가 없다.

잔존 높이 6.0cm, 복원 입지름 18.0cm.

· □緣部片 [도면 43-④, 사진 73-④]

암갈색의 연질소성품으로 내면은 흑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경부 없이 동체상단에서 짧게 꺾여 외반하고 있으며, 구연 上面이 수평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외면은 마모가 이루어졌으며, 내면은 점토티 쌓기 성형흔이 보이고 있고, 동체상부까지 회전물손질 정면흔적이 보이고 있다.

잔존 높이 4.25cm, 복원 입지름 20.0cm.

· □緣部片 [도면 43-⑤, 사진 73-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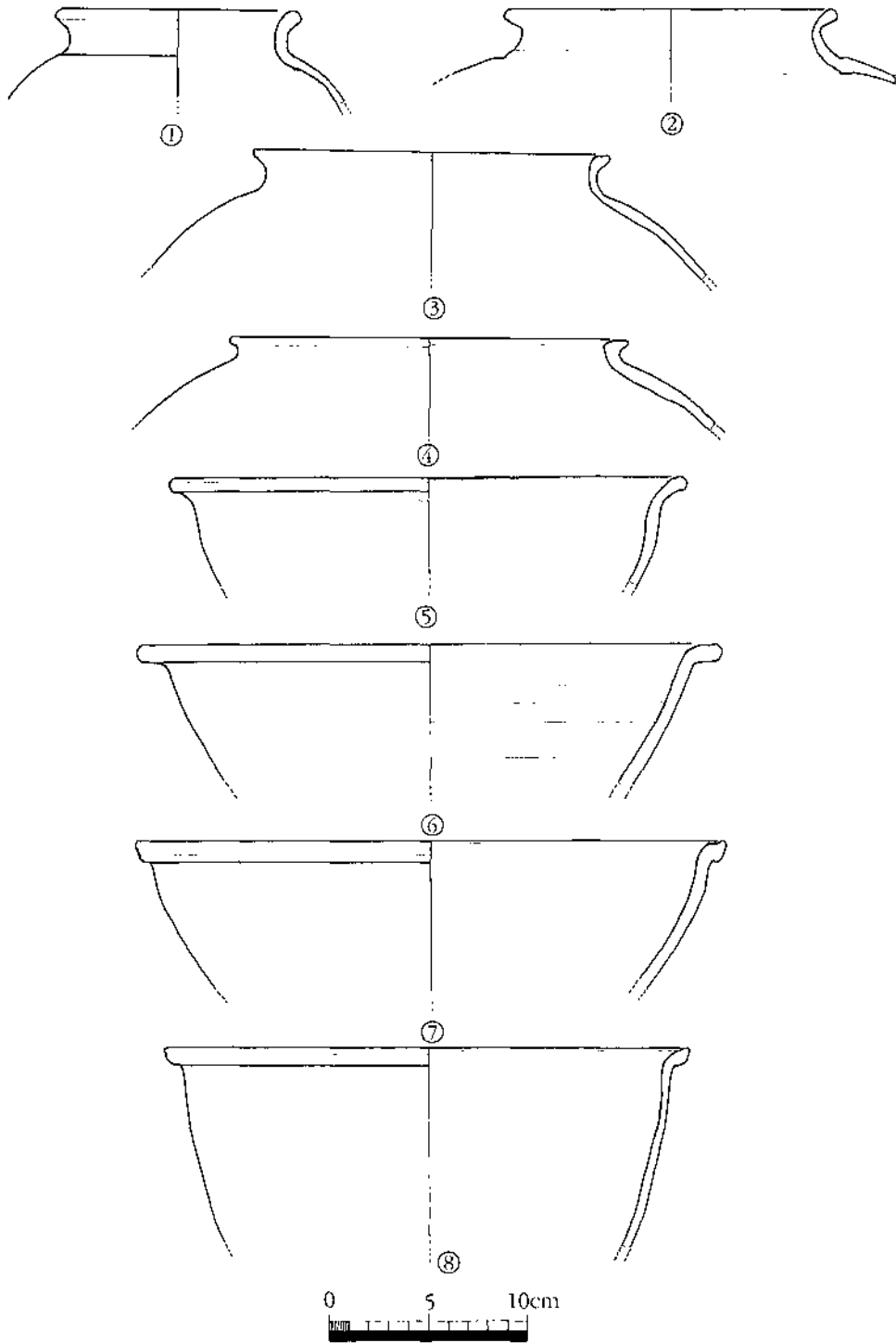
흑갈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경질에 가깝고,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구연부에서 동체상단까지의 전체적인 器形은 'S' 字形을 이루고 있으며, 구연 외하단은 단을 지게 조정되었다. 전체적으로 器內外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5.6cm, 복원 입지름 23.0cm.

· □緣部片 [도면 43-⑥, 사진 73-⑥]

연질성품으로 태토는 泥質의 정선된 점토이다. 器外面은 전체적으로 마모가 이루어져 회갈색을 띠고 있으며, 器內面은 마모되지 않은 부분은 흑색을 띠고 있다. 구연부는 동체상단에서 수평으로 외반하고 있으며, 구연단 안쪽으로는 턱이 지게 조정되었다. 기내면은 점토티 쌓기 성형흔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7.5cm, 복원 입지름 30.0cm.



[도면 43]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 구연부편

· □緣部片 [도면 43-⑦, 사진 73-⑦]

갈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동체상단에서 짧게 꺾여 외반하고 있는데, 구연단 안쪽으로는 턱이 지고 있으며, 외하단은 약간 돌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표면이 마모되었다.

잔존 높이 7.5cm, 복원 입지름 30.0cm.

· □緣部片 [도면 43-⑧, 사진 73-⑧]

질은 회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경질에 가깝고,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동체상단에서 짧게 수평으로 외반하고 있으며, 구연단 안쪽으로는 약간의 턱이 지고 있다. 器内外面은 회전 물손질 정면흔이 보이고 있다.

잔존 높이 10.0cm, 복원 입지름 26.3cm.

· □緣部片 [도면 44-①, 사진 73-⑨]

회색의 연질소성품으로 소성정도는 양호하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동체상단에서 곧바로 수평으로 꺾여 외반하여 아래로 꺾어 붙였다. 구연부와 동체상부의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4.0cm, 복원 입지름 47.6cm.

· □緣部片 [도면 44-②, 사진 73-⑩]

암갈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동체상단에서 수평으로 외반시킨 후 다시 아래로 꺾어 붙여 마무리하였으며, 구연단 안쪽으로는 턱이지게 조정되었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하게 이루어졌으며, 내면은 점토피를 쌓아 올린 흔적이 보이고 있다.

잔존 높이 6.0cm, 복원 입지름 40.2cm.

· □緣部片 [도면 44-③, 사진 74-①]

연질소성품으로 표면은 전체적으로 흑색 슬립이 입혀져 흑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동체상단에서 수평으로 외반시킨 후 다시 아래로 꺾어 붙여 마무리하여 구연 외하단이 삼각상으로 돌출되어 있다. 잔존한 胴上部의 내면으로는 점토피를 쌓아 올려

성형한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5.4cm, 복원 입지름 35.0cm.

· 口緣部片 [도면 44-④, 사진 74-②]

회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동체 상단에서 수평으로 외반시킨 후 다시 아래로 꺾어 붙여 마무리하여 구연 외하단이 날카롭게 들출되어 있다. 器內面은 점토띠를 쌓아 올려 성형한 흔적이 일부 보이고 있으며, 구연부와 잔존한 동체상부의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9.3cm, 복원 입지름 32.8cm.

· 口緣部片 [도면 44-⑤, 사진 74-③]

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약간 좁혀들며 올라가는 동체상단에서 수평으로 짧게 외반하고 있는데, 구연단 중간으로는 가는 횡침선이 돌아가고 있으며, 구연단 안쪽으로는 약간 턱이 지게 조정되었다. 부분적으로 器內外面은 마모가 이루어졌으며, 器外面의 상단에는 가는 횡침선이 1줄 돌아가고 있다.

잔존 높이 7.5cm, 복원 입지름 29.4cm.

· 口緣部片 [도면 44-⑥, 사진 74-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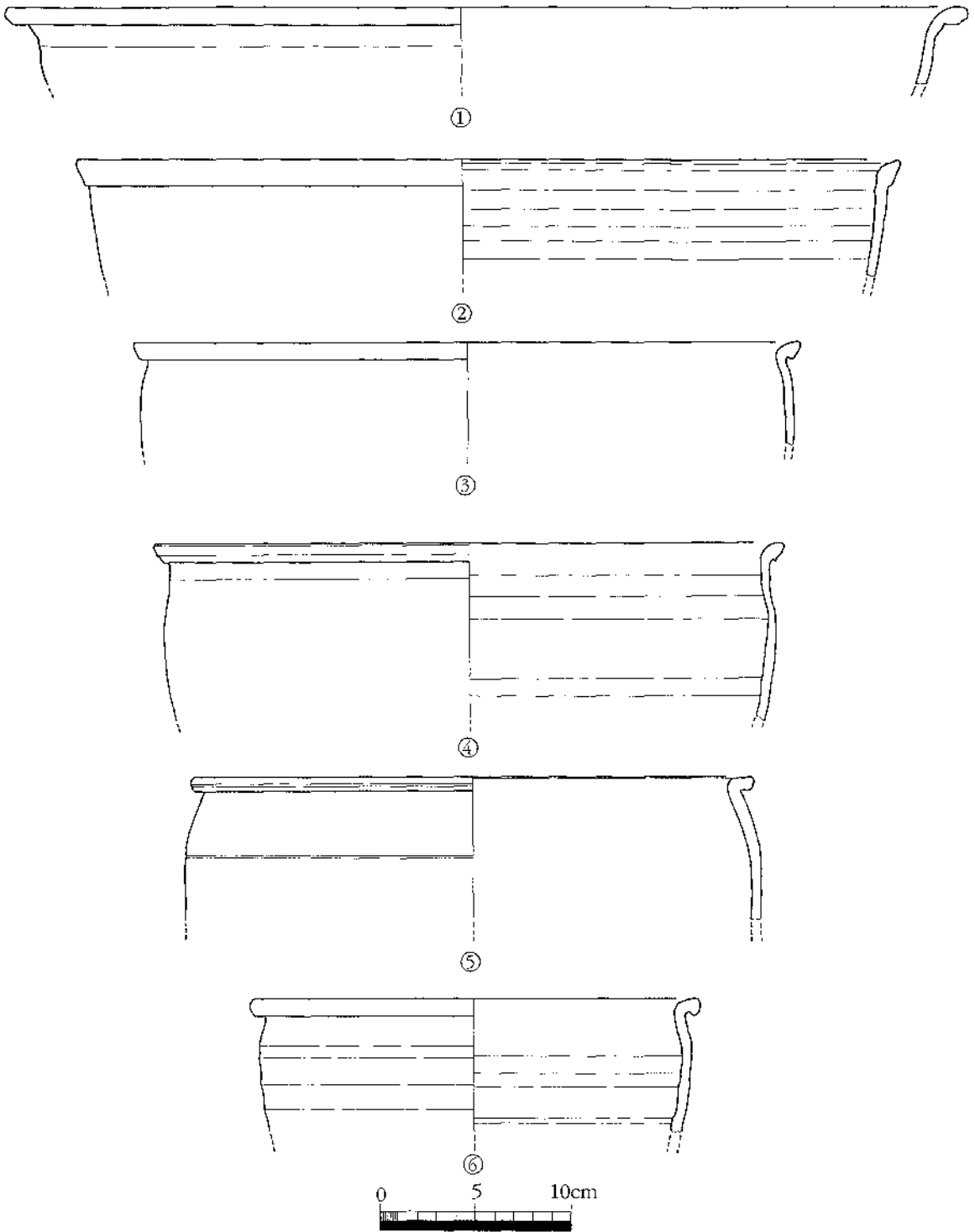
황갈색의 연질소성품으로 소성정도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동체상부는 약간 外彎하며, 구연부는 동체상단에서 수평으로 짧게 외반시킨 후 끝을 아래로 늘어트려 마무리하였다. 기벽은 점토띠를 쌓아올려 성형한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7.0cm, 복원 입지름 23.6cm.

· 口緣部片 [도면 45-①, 사진 74-⑤]

연질소성품으로 표면은 전체적으로 흑색 슬립이 입혀져 흑색을 띠고 있으며, 슬립이 벗겨진 부분은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동체상단에서 짧게 외반시킨 후 다시 안쪽으로 꺾어 붙여 마무리하였으며, 구연부와 잔존한 胴上部의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5.35cm, 복원 입지름 36.4cm.



[도면 44]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 구연부편

· 口緣部片 [도면 45-②, 사진 74-⑥]

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정선된 泥質의 점토이다. 구연부는 동체 상단에서 짧게 수평으로 외반시킨 후 다시 안쪽으로 꺾어 붙여 마무리하였다. 잔존한 동체 상부의 외면은 횡방향으로 회전 木理조정을 하여 정면하였다.

잔존 높이 5.3cm, 복원 입지름 38.0cm.

· 口緣部片 [도면 45-③, 사진 74-⑦]

연질소성품으로 외측으로부터 흑색, 회색, 흑색을 띠고 있어, 표면의 마모가 이루어진 부분은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니질의 점토이다. 구연부는 동체상단에서 곧바로 외반시킨 후 다시 아래로 꺾어 붙여 마무리하였다.

잔존 높이 5.0cm, 복원 입지름 30.0cm.

· 口緣部片 [도면 45-④, 사진 74-⑧]

연질소성품으로 외측에서 안쪽으로 흑색, 회색, 흑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泥質의 정선된 점토이다. 器外面은 전체적으로 마모가 이루어져 회색을 띠고 있다. 胴上部는 안쪽으로 좁혀들며 올라가고 있으며, 구연부는 동체상단에서 수평에 가깝게 외반시킨 후 다시 아래로 꺾어 붙여 마무리하였다.

잔존 높이 5.0cm, 입지름 3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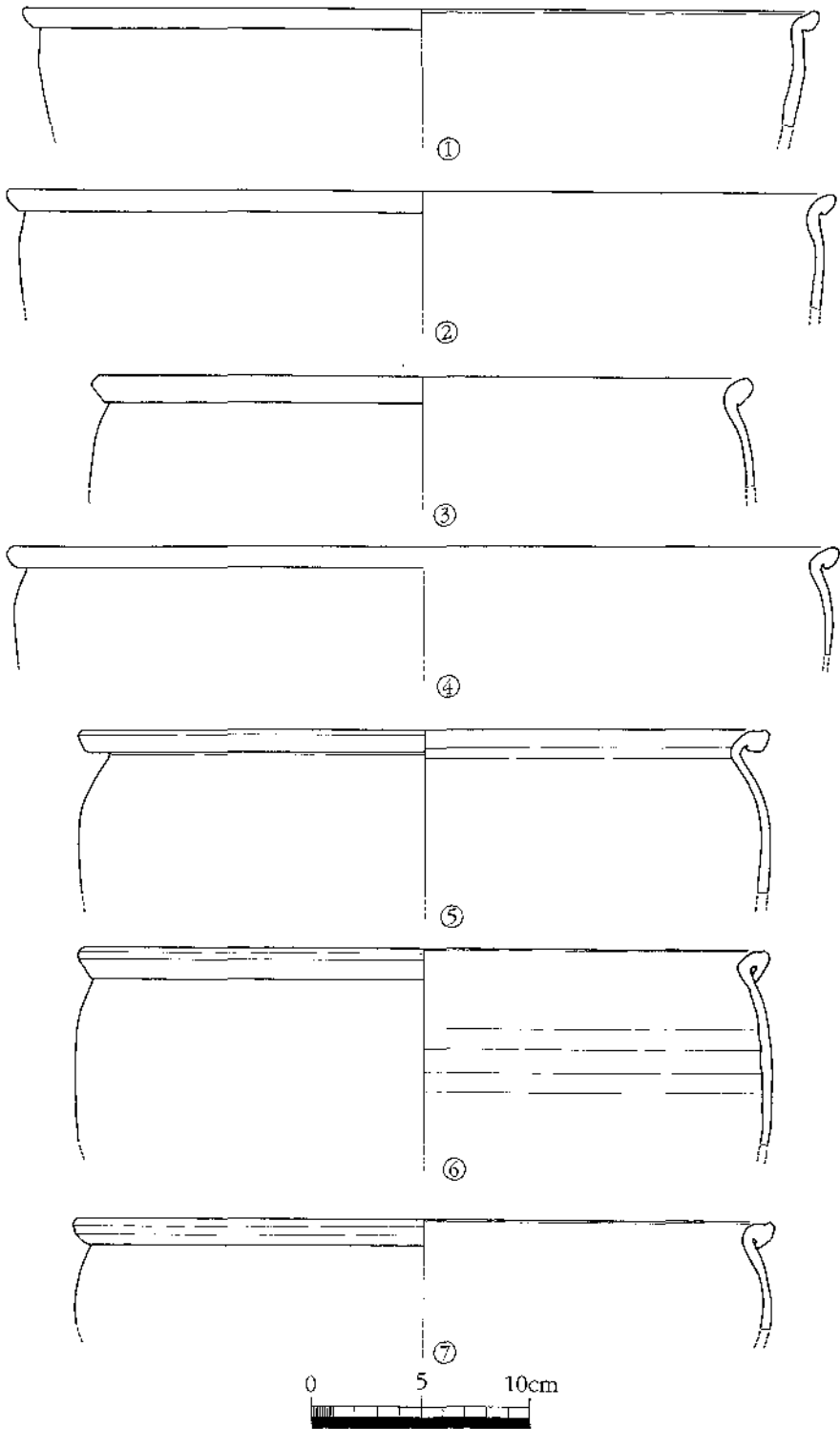
· 口緣部片 [도면 45-⑤, 사진 74-⑨]

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슬립이 벗겨진 부분은 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세사립과 토기 부스러기가 혼입된 점토이다. 동체상부는 안쪽으로 좁혀들며 올라가고 있으며, 구연부는 동체 상단에서 짧게 수평으로 외반시킨 후 다시 안쪽으로 꺾어 붙여 마무리하였다.

잔존 높이 7.5cm, 복원 입지름 31.6cm.

· 口緣部片 [도면 45-⑥, 사진 74-⑩]

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표면은 전체적으로 마모되어 암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세사립과 토기 부스러기가 혼입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동체 상단에서 짧게 수평으로 외반시킨 후 다시 안쪽으로 꺾어 붙여 마무리하여 삼각상을 이루고 있으며, 중간부에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잔존한 동체 상부



[도면 45] 처인성 99-4 시골구덩 출토 도토기 구연부편

의 내면으로는 점토띠를 쌓아올려 성형한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9.0cm, 복원 입지름 32.0cm.

· 口緣部片 [도면 45-⑦, 사진 74-⑩]

회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안쪽으로 좁혀드는 동체 상단에서 짧게 수평으로 외반시킨 후 다시 안쪽으로 꺾어 마무리하여 구연부 안쪽으로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구연부와 잔존한 동체상부의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4.95cm, 복원 입지름 32.3cm.

· 平底 둥이片 [도면 46-①, 사진 75-①]

회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평저로 기벽은 점토띠를 쌓아 올려 성형하였으며, 구연부는 내경하게 처리되었으며, 안쪽으로 끝이 약간 돌출되어 있다. 평저로 구연부와 器内外面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높이 8.3cm, 복원 입지름 27.2cm, 복원 바닥지름 21.0cm.

· 底部片 [도면 46-②, 사진 75-②]

회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표면이 마모된 부분은 회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정선된 泥質의 점토이다. 평저이며, 기벽은 점토띠를 쌓아올려 성형하였다. 器内面의 저부와 동체하단의 연결부는 점토를 덧붙여 회전 누름 조정하였다.

잔존 높이 8.0cm, 바닥지름 11.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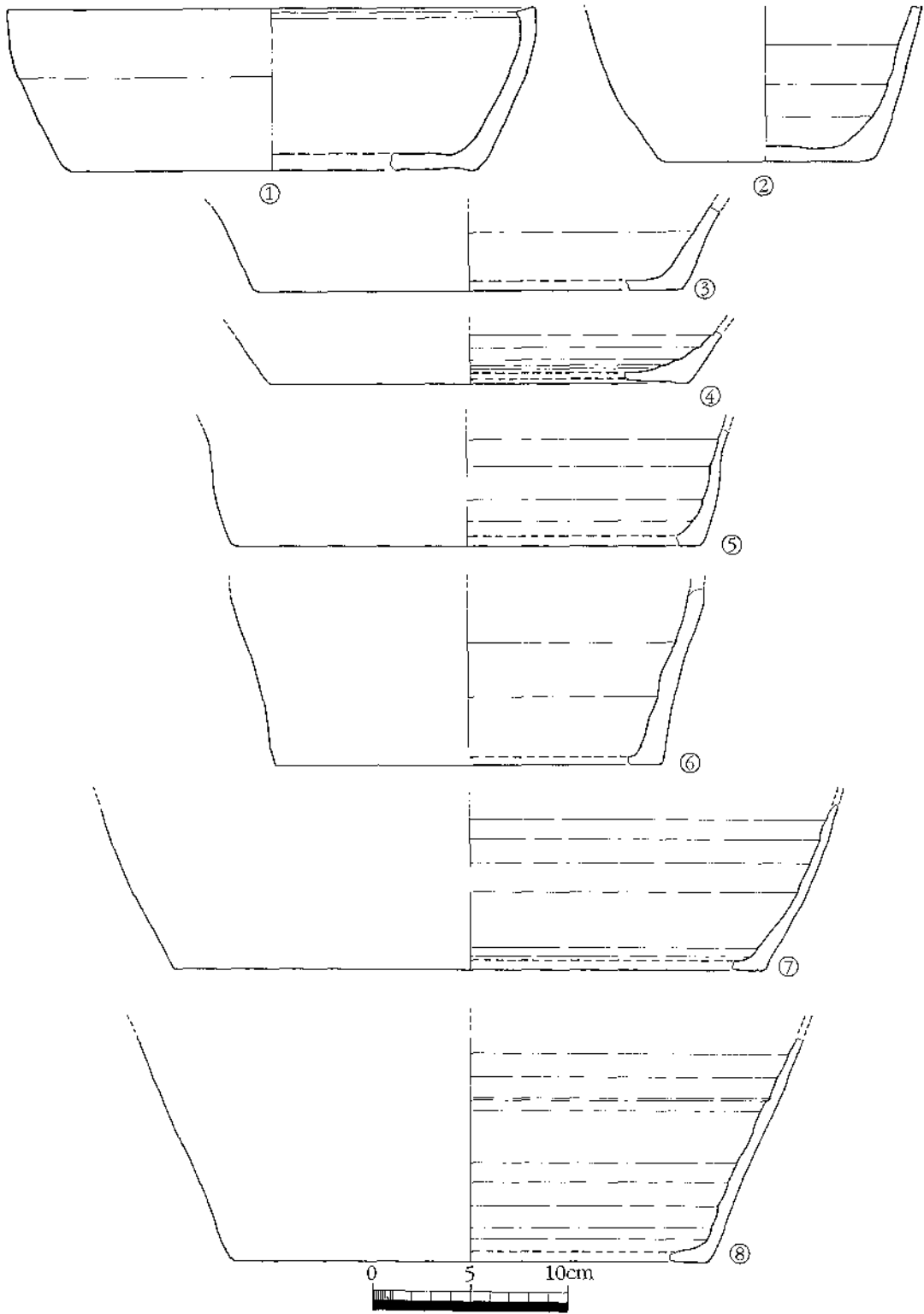
· 底部片 [도면 46-③, 사진 75-③]

연질소성품으로 외측으로부터 안쪽으로 흑색, 회색, 흑색을 띠고 있는데, 표면은 전체적으로 마모되어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니질의 정선된 점토이다. 저부는 평저이며, 기벽은 점토띠를 쌓아올려 성형하였다.

잔존 높이 4.0cm, 복원 바닥지름 22.2cm.

· 底部片 [도면 46-④, 사진 75-④]

회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표면이 마모된 부분은 회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정선된 泥質의 점토



[도면 46]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 저부편

이다. 평저이며, 기벽은 점토띠를 쌓아올려 성형하였다.

잔존 높이 2.7cm, 바닥지름 22.6cm.

· 底部片 [도면 46-⑤, 사진 75-⑤]

회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저부는 평저이며, 기벽은 외경하게 점토띠를 쌓아올려 성형하였다. 잔존한 器內面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흔적이 보이고 있다.

잔존 높이 6.0cm, 복원 바닥지름 24.0cm.

· 底部片 [도면 46-⑥, 사진 75-⑥]

회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기심은 흑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니질의 정선된 점토이다. 저부는 평저이며, 기벽은 점토띠를 쌓아올려 성형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성형상태가 조잡하고, 기벽 내외면의 정면도 木槌로 조잡하게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9.0cm, 복원 바닥지름 20.0cm.

· 底部片 [도면 46-⑦, 사진 75-⑦]

회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표면이 마모된 부분은 회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평저이며, 기벽은 점토띠를 쌓아올려 성형하였다. 동체하단과 저부의 연결부는 안팎으로 점토를 덧댄 흔적이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표면의 마모가 심하게 이루어졌다.

잔존 높이 8.6cm, 복원 바닥지름 30.6cm.

· 底部片 [도면 46-⑧, 사진 75-⑧]

회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니질의 점토이다. 저부는 평저이며, 기벽은 외경하며 올라가고 있는데, 점토띠를 쌓아올려 성형하였다. 器外面은 무문이며, 器內面은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보이고 있다.

잔존 높이 11.5cm 복원 바닥지름 24.4cm.

· 異形上器 底部片 [도면 47-①, 사진 76-①]

회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평저인 저부의 중앙에는 직경 5.0cm의 원형 구멍이 투공되어 있다. 기벽은 저부에서 원통형으로 직립하며 올라가고 있는데,

두 부분에 방형의 透窓을 낸 흔적이 잔존하고 있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마모가 이루어졌으며, 기벽의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6.5cm 바닥지름 17.0cm.

· 底部片 [도면 47-②, 사진 76-②]

시루의 저부편이다. 회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저부는 평저로 가장자리로는 방형에 가까운 구멍이 투공된 흔적이 있다. 기벽은 외경하며 올라가고 있으며,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5.75cm, 복원 바닥지름 24.0cm.

· 底部片 [도면 47-③, 사진 76-③]

회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저부는 평저로 가장자리로는 방형에 가까운 구멍이 투공된 흔적이 잔존하고 있다. 기벽은 직립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다.

잔존 높이 3.3cm, 복원 바닥지름 26.0cm.

· 底部片 [도면 47-④, 사진 76-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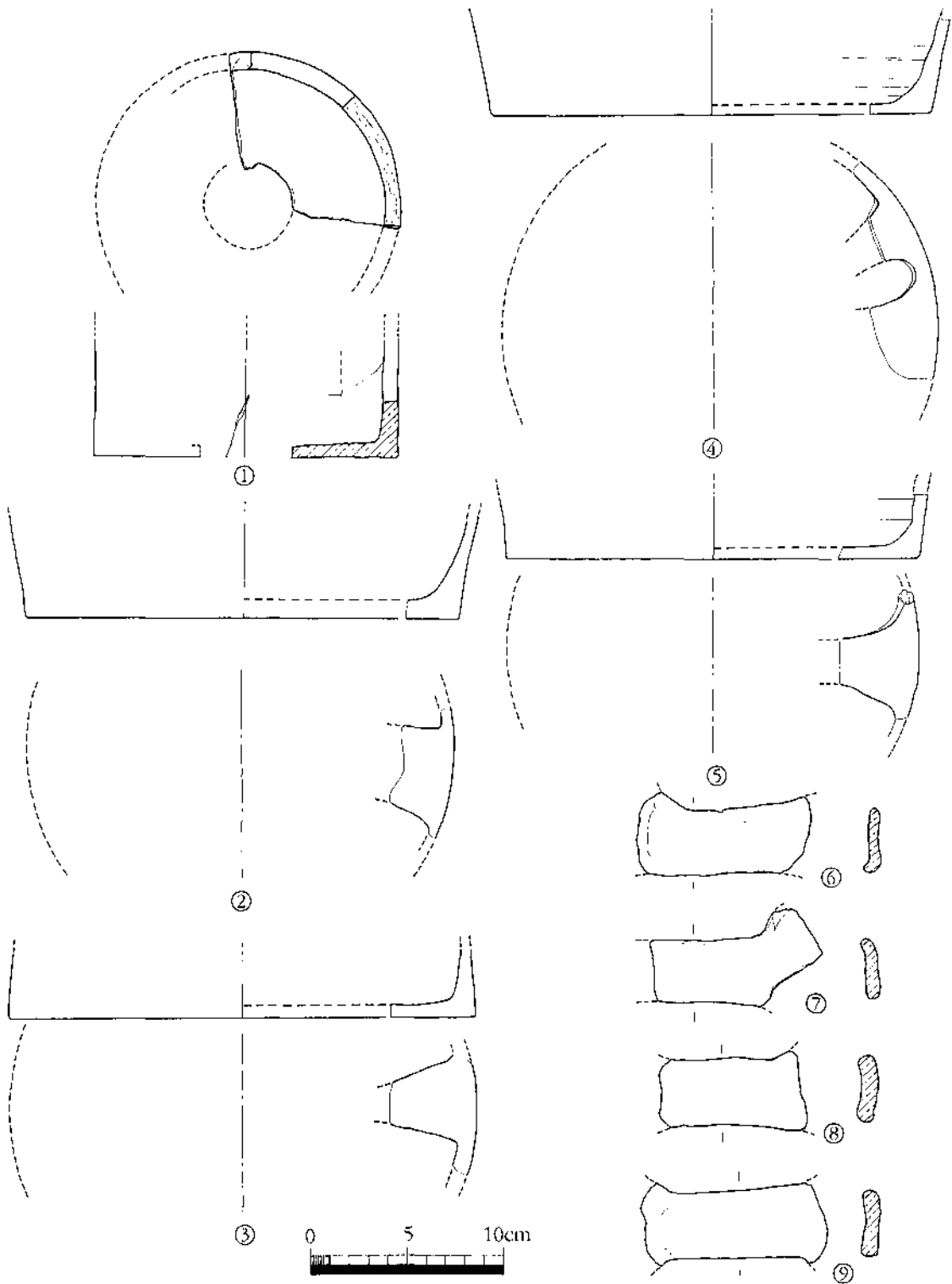
시루의 저부편이다. 회백색의 연질소성품으로 기심은 흑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니질의 정선된 점토이다. 잔존한 저부의 가장자리로는 방형과 타원형에 가까운 구멍이 투공된 흔적이 잔존하고 있다. 기벽은 외경하며 올라가고 있는데, 내면에 점토띠를 쌓아올린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5.2cm, 복원 바닥지름 24.6cm.

· 底部片 [도면 47-⑤, 사진 76-⑤]

시루의 저부편이다. 황갈색의 연질소성품으로 기심은 부분적으로 흑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泥質의 점토이다. 저부는 평저로 가장자리로는 발각방형에 가까운 구멍이 투공된 흔적이 잔존하고 있다. 기벽은 약간 외경하며 올라가고 있는데, 내면의 하단부로는 점토띠를 쌓아 올린 흔적이 남아 있으며,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보이고 있다.

잔존 높이 3.55cm, 복원 바닥지름 23.0cm.



[도면 47]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 저부편·손잡이편

· 把手片 [도면 47-⑥~⑨, 사진 76-⑥⑦⑧⑨]

가로띠 손잡이 편들이다. 회흑색 내지 흑색(도면⑧)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장방형의 점토띠를 弧狀으로 구부려 기벽에 부착시킨 형태로 폭이 전체적으로 일정하여, 양쪽 측면이 밖으로 약간 접힌 형태이다.

⑥ 9.6×3.5×0.5~0.7cm, ⑦ 9.5×3.35×0.6~0.8cm, ⑧ 8.2×3.65×0.8~1.0cm

⑨ 10.5×3.7×0.7~0.9cm.

· 土器 뚜껑편 [도면 48-①, 사진 77-①]

토기 뚜껑의 꼭지부분만이 잔존하고 있다. 회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뚜껑의 중앙부에는 위로 볼록한 원형의 단추형 꼭지가 부착되어 있다.

3.7×1.6cm.

[磁器類]

· 白磁 底部片 [도면 48-②, 사진 77-②]

저부와 기벽의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는 대접편이다. 표면은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감도는 유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釉氷裂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벽은 곡면을 이루고 있으며, 굽은 수직굽의 형태에 가까운데, 접지면이 대부분 결실되었다.

잔존 높이 5.0cm, 복원 굽지름 7.4cm.

[石器類]

· 蠟石製 뚜껑 [도면 48-③, 사진 77-③]

회색의 납석을 가공하여 만든 뚜껑이다. 샷갓형으로 外緣의 일부만이 결실되었다. 중앙부에는 직경 0.9cm의 구멍이 투공되어 있으며, 외면의 중간부에는 2줄의 가는 圓圈을 음각으로 돌렸다. 외연의 안쪽으로는 단을 지어 드림 턱을 마련하였다.

높이 2.9cm, 직경 8.5cm.

· 蠟石製 鉢片 [도면 48-④, 사진 77-④]

회흑색의 납석을 가공하여 만든 평저鉢편이다. 동체는 외면이 약간 볼록하게 마련하였으며, 상

단에서 오목하게 홈이 지도록 마연하여 구연부와 구분하고 있다. 동체의 중간부로는 가는 음각의 횡선을 2줄 돌렸다.

높이 4.55cm, 복원 입지름 7.8cm, 복원 바닥지름 8.4cm.

· 砥石 [도면 48-⑤, 사진 77-⑤]

한쪽 부분이 결실된 파손품이다. 전면을 사용하였으며, 한쪽면에는 날카로운 철기를 갈아 오목한 홈이 형성되어 있다. 암질은 砂巖계이다.

19.5×4.4×3.5cm.

· 砥石 [도면 48-⑥, 사진 77-⑥]

일부분이 결실된 파손품으로 한쪽면을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면은 중앙에 능이 형성되어 있다. 암질은 砂巖계이다.

9.75×5.45×4.6cm

· 砥石 [도면 48-⑦, 사진 77-⑦]

납작한 장방형의 형태로 일부분이 결실된 파손품이다. 넓은 한쪽 면과 양 측면에 사용에 의한 마모흔적이 뚜렷하다. 암질은 砂巖계이다.

12.0×5.5×2.0cm

· 砥石 [도면 48-⑧, 사진 77-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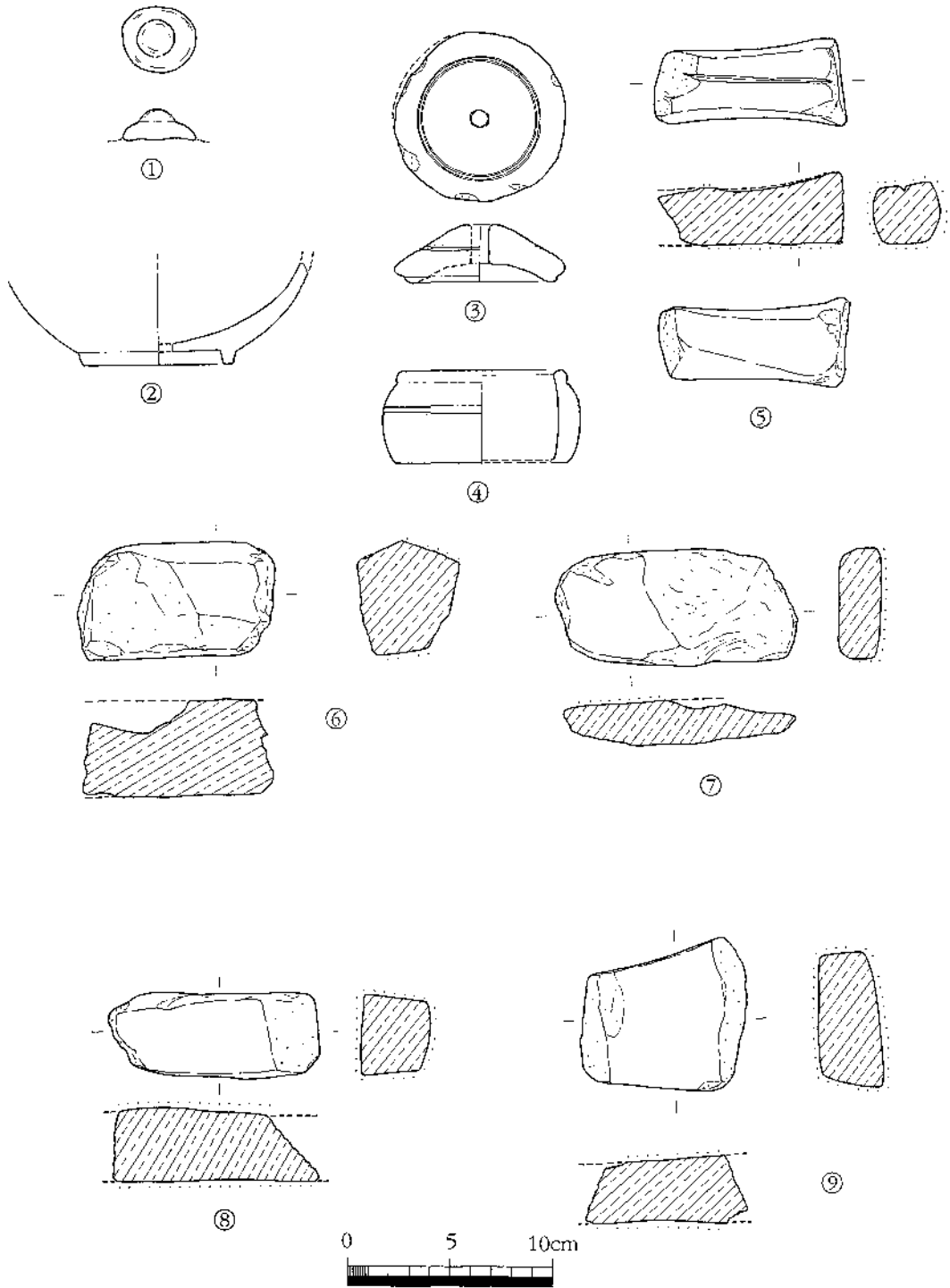
일부분이 결실된 파손품으로 표면은 회백색을 띠며 단면은 사각형이다. 4면을 사용하여 마모흔이 뚜렷하다. 암질은 砂巖계이다.

10.5×4.0×3.6cm.

· 砥石 [도면 48-⑨, 사진 77-⑨]

일부분만이 잔존한 지석편으로 4면을 사용하여 마모흔이 뚜렷하며, 양 측면은 잘록하게 내만하고 있다. 회흑색을 띠며, 암질은 砂巖계이다.

8.35×6.4×3.1cm



[도면 48] 처안성 99-4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백자 및 석기류

[鐵器類]

· 鐵製大刀 [도면 49-①, 사진 78-①·②]

철의 산화로 부식이 심하며, 선단부와 刃部 및 등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身部는 선단부쪽으로 가면서 폭이 체감하고 있으며, 등대는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鐔部和 鞆는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鐔部の 형태는 타원형이다. 身部단면은 등대에서 인부 쪽으로 1/2정도는 장방형을 이루다가 인부 쪽으로는 삼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柄部단면은 장방형이다.

잔존 길이 61.7cm, 身部: 잔존 길이 49.5cm, 너비 3.0~3.5cm, 등대 최대두께 0.5cm

· 鐵鏃 [도면 49-②, 사진 78-③]

蛇頭形 鐵鏃으로 부식이 심하며, 莖部 이하가 결실되었다. 축신부는 단면 원형으로 축두부로 가면서 굽기가 체감하고 있으며, 축두 단면은 능형이다.

잔존길이 7.5cm.

· 鐔部 [도면 49-③, 사진 78-④]

철의 산화로 부식이 심하며, 外緣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타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중앙에 장방형의 구멍(3.0×0.6cm)이 투공 되어있다.

8.8×6.0×0.5cm.

· 鐵刀子 [도면 49-④, 사진 78-⑤]

刀子편으로 先端部和 莖部の 일부가 결실되었다. 등대는 경부와 신부가 일직선상을 이루고 있으나 인부 쪽은 둔각을 이루고 있다. 身部는 선단부 쪽으로 가면서 폭이 체감하고 있으며, 身部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莖部단면은 장방형이다.

잔존 길이 6.3cm, 身部 최대너비 0.9cm, 등대두께 0.4cm.

· 鐵刀子 [도면 49-⑤, 사진 78-⑥]

刀子편으로 부식이 심하며, 先端部和 莖部の 일부가 결실되었다. 身部는 단면 이등변삼각형으로 선단부 쪽으로 가면서 폭이 좁아지고 있으며, 刃部는 莖部쪽으로 사용에 의해 약간 內彎하게 마모되었다. 경부는 신부에서 축약되어 끝으로 가면서 폭이 좁아지고 있다. 莖部단면은 장방형이다. 경부와 신부의 구분은 인부 쪽에서 경계부가 들출 되어 구분이 뚜렷하다.

잔존 길이 6.5cm, 身部 최대너비 1.1cm, 등대 두께 0.5cm.

· 鐵製바늘(針) [도면 49-⑥, 사진 78-⑦]

鐵製로 부식이 심하다. 身部는 단면 원형으로 선단부로 가면서 굵기가 체감하여 끝을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耳部는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중앙에 작은 구멍이 투공 되어 있다.

길이 11.4cm, 두께 0.3~0.4cm.

· 針形 鐵器 [도면 49-⑦, 사진 78-⑧]

철의 산화로 부식이 심하다. 단면 사각형으로 중간부가 가장 두꺼우며, 양쪽으로 가면서 두께가 체감하여 끝을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단조품이다. 이 유물은 당초 철촉으로 보아 국가귀족 신고를 위한 유물 카드를 작성하였으나, 보존 처리 후에 보니 철촉이라기 보다는 바늘일 가능성이 짙다.

길이 13.0cm, 최대두께 0.5cm.

· 鐵釘 [도면 49-⑧~⑫, 사진 78-⑨~⑬]

철의 산화로 부식이 심하다. 단면 사각형으로 선단부로 가면서 폭과 두께가 축약되어 끝을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민머리로 머리부분이 잔존한 (도면 ⑨~⑫)은 타격에 의해 뭉그러져 있으며, 대부분 사용에 의하여 휘어져 있다. (도면 ⑩~⑫)은 머리부분이 절실되었다.

도면의 ⑧은 사진의 78-⑨인데, 처음엔 철촉으로 오인하여 유물 카드가 작성되었으나, 보존 처리 후에 살펴보니 못으로 여겨진다.

[도면 49-⑧, 사진 ⑨] 길이 13.2cm, 최대두께 1.0cm.

[도면 49-⑨, 사진 ⑩] 길이 10.0cm, 최대두께 0.8cm.

[도면 49-⑩, 사진 ⑪] 길이 10.0cm, 최대두께 0.7cm.

[도면 49-⑪, 사진 ⑫] 길이 8.0cm, 최대두께 0.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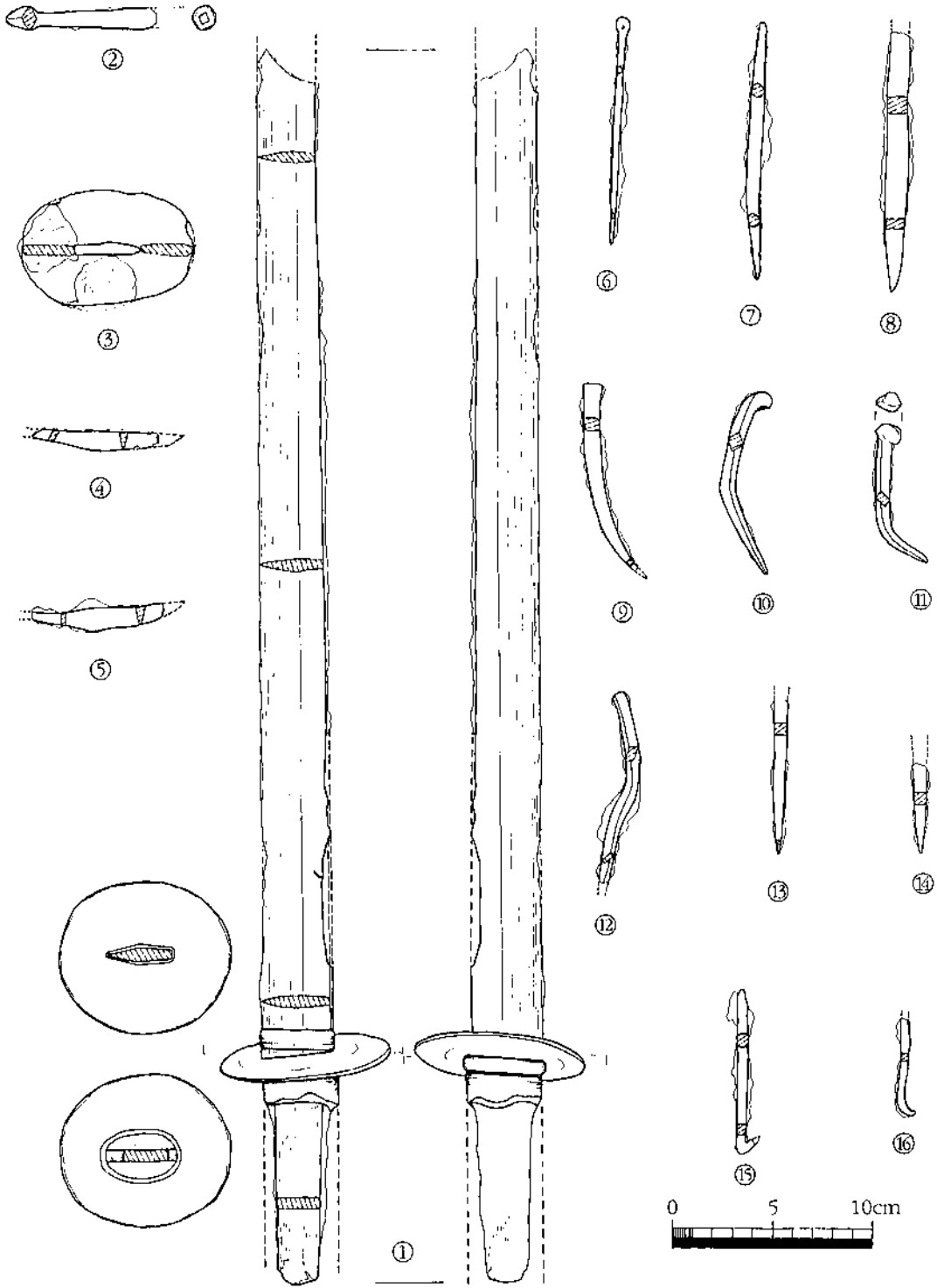
[도면 49-⑫, 사진 ⑬] 길이 10.0cm, 최대두께 0.4cm.

[도면 49-⑬, 사진 ⑭] 잔존길이 7.7cm, 최대두께 0.6cm.

[도면 49-⑭, 사진 ⑮] 잔존길이 4.5cm, 최대두께 0.5cm.

[도면 49-⑮, 사진 ⑯] 잔존길이 8.2cm, 최대두께 0.5cm.

[도면 49-⑯, 사진 ⑰] 잔존길이 5.0cm, 최대두께 0.4cm.



[도면 49] 처인성 99-4 시굴구덩 출토 철기류

· 쇠숯뚜껑片 [도면 50-①, 사진 79-①]

주조품으로 부식이 심하며, 절반이상이 결실되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圓盤形으로 外緣이 외경하며 돌출 되어 안쪽으로 턱이 지고 있다. 중앙부에는 꼭지형 손잡이 부착되어 있다.

추정지름 23.8cm, 두께 0.4~0.7cm.

· 鐵器片 [도면 50-②, 사진 79-②]

쇠숯의 구연부편으로 보이는 것으로 주조품이며 부식이 심하다. 구연부는 몸체에서 안쪽으로 약간의 턱을 지며 내경 되게 올라가고 있으며, 구연단은 직선으로 처리되었다.

잔존 높이 6.4cm, 복원 입지름 21.0cm, 기벽두께 0.8cm.

· 쇠숯片 [도면 50-③, 사진 79-③]

쇠숯의 구연부편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주조품이며 부식이 심하다. 잔존한 몸체 상단은 내경하며, 외면에 횡방향으로 침선을 돌려 굴곡이 형성되어 있다. 구연부는 몸체상단에서 안쪽으로 약간의 턱을 지며 내경하게 올라가고 있으며, 구연단은 외측으로 약간 돌출되어 끝을 뚱뚱하게 처리하였다.

잔존 높이 4.0cm, 복원 입지름 18.4cm.

· 鐵器片 [도면 50-④, 사진 79-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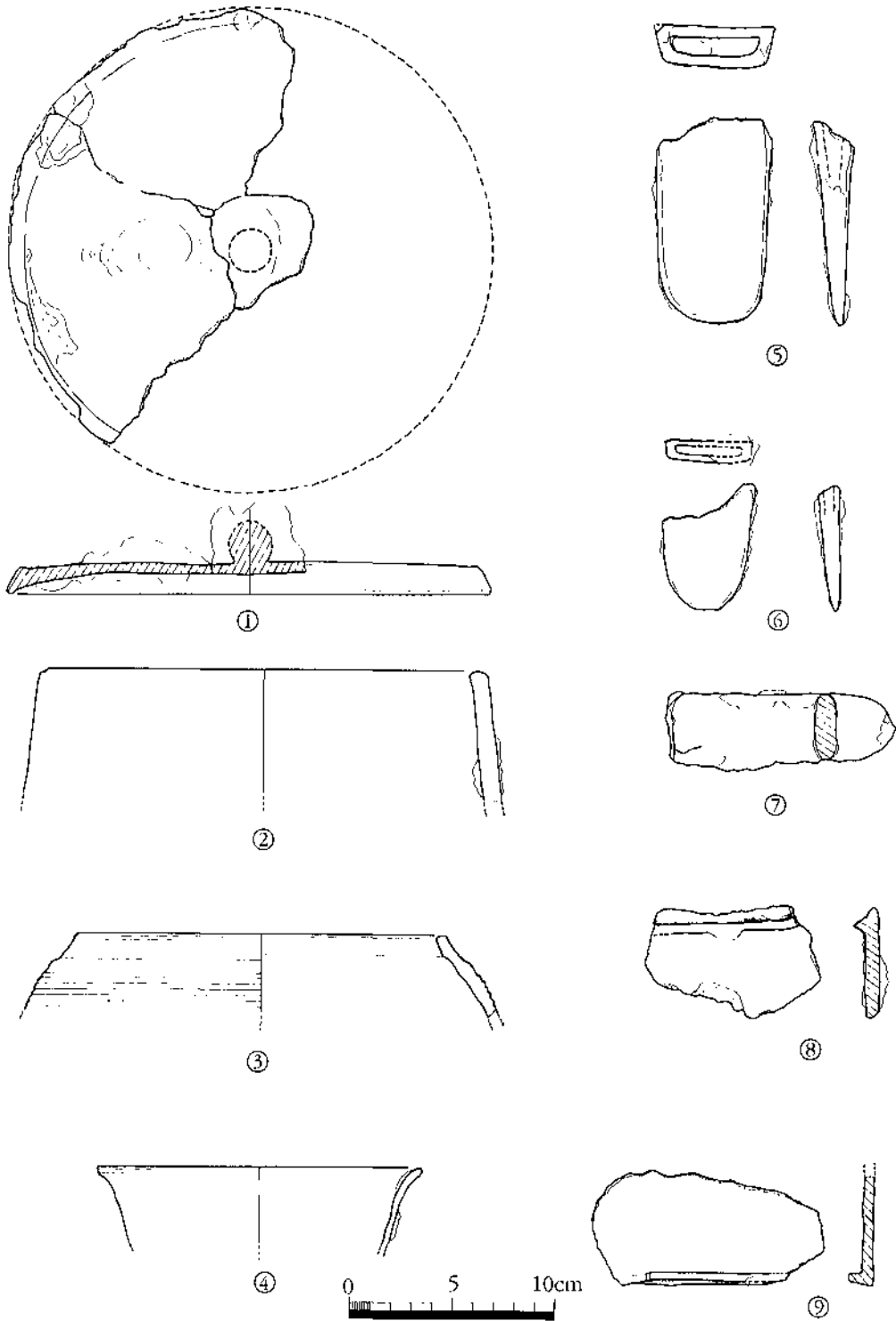
鐵製 그릇의 구연부편으로 주조품이며 부식이 심하다. 기벽이 상당히 얇으며, 몸체는 외경하며 올라가다 구연부에 이르러 외반하고 있다.

잔존 높이 3.7cm, 복원 입지름 16.0cm.

· 따비片 [도면 50-⑤, 사진 80-①]

몸체의 선단부 쪽 일부만이 잔존한 편이다. 주조품으로 부식이 심하다. 몸체는 단면 梯形으로 위쪽이 좁고 아래쪽이 넓은 형태이며, 선단부 쪽으로 가면서 폭이 좁아지며 선단부는 부드럽게 弧狀으로 처리하였다.

10.0×6.0cm.



[도면 50] 처인성 99-5 시굴구덩 출토 철기류

· 따비片 [도면 50-⑥, 사진 80-②]

선단부 쪽 일부만이 잔존한 편으로 주조품이며 부식이 심하다. 몸체의 선단부 쪽 단면은 장방형에 가까우며, 선단부 쪽으로 가면서 폭이 좁아서 끝을 弧狀으로 처리하고 있다.

6.2×4.5cm

· 未詳鐵器 [도면 50-⑦, 사진 80-③]

철의 산화로 부식이 심하다. 전체적인 형태는 선단부는 弧狀의 곡선을 이루고 있고 반대쪽 端部는 방형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폭은 일정하며 단면은 扁橢圓形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따비와 유사하나, 鑿部가 없다.

길이 11.9cm, 너비 4.4cm, 두께 1.0cm.

· 鐵器片 [도면 50-⑧, 사진 80-④]

따비편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하다. 밑면은 편평하며, 잔존한 측면은 밑면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내경하게 사선방향을 하고 있다. 주조품이다.

5.6×8.7×0.7cm.

· 鐵器片 [도면 50-⑨, 사진 80-⑤]

따비편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하다. 밑면은 편평하며, 잔존한 한쪽 측면은 약간 내경하게 예각으로 꺾여 올라가고 있다. 주조품이다.

11.5×5.5×0.5cm.

[기와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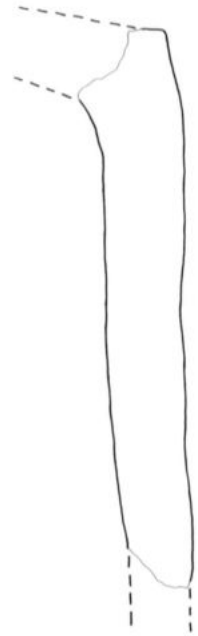
· 암막새片 [도면 51-①, 사진 81-①]

드림새의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다. 드림부는 둔각으로 꺾여 있으며, 端部の 외면에는 3.4cm간격으로 폭이 일정하게 양각선문을 돌리고 그 안쪽에 당초문을 시문하였다. 양각 선문과 外緣 사이에는 連珠文을 시문하였다. 회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과 瓦片 부스러기가 혼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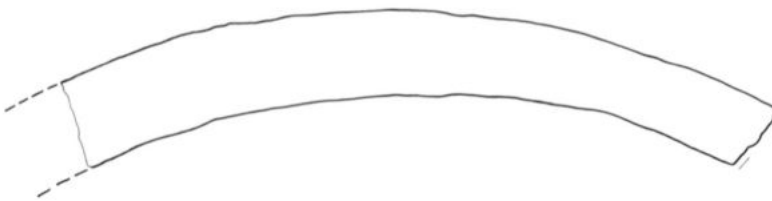
드림새 : 잔존 길이 21.4cm, 높이 4.4cm.



①



②



[도면 51] 처인성 99-5 시굴구덩 출토 암막새

· 암막새片 [도면 51-②, 사진 81-②]

평와의 단부 쪽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다. 배면은 線條文을 시문하고 부분적으로 문양을 지웠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차례 그어져 있다. 단부에는 드림부가 연결되었던 흔적이 잔존하고 있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16.4×20.0×2.5cm.

· 埴塼 [도면 52-①, 사진 82-①]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부분적으로 흑색을 띠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12.0×10.5×6.2cm.

· 수키와片 [도면 52-②, 사진 82-②]

마구기와편으로 연장부분이 약간 남아 있다. 회흑색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배면은 마모가 심하여 문양의 시문을 확인할 수가 없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뚜렷이 남아 있다.

27.0×13.5×1.5cm.

· 수키와片 [도면 52-③, 사진 82-③]

회색을 띠며 소성 정도는 양호하다. 배면은 右下向의 선조문이 시문되고, 이면에는 포목흔이 뚜렷하다. 측면의 와도흔은 모두 안쪽에서 바깥을 향하여 그어졌다.

11.0×12.5×1.2~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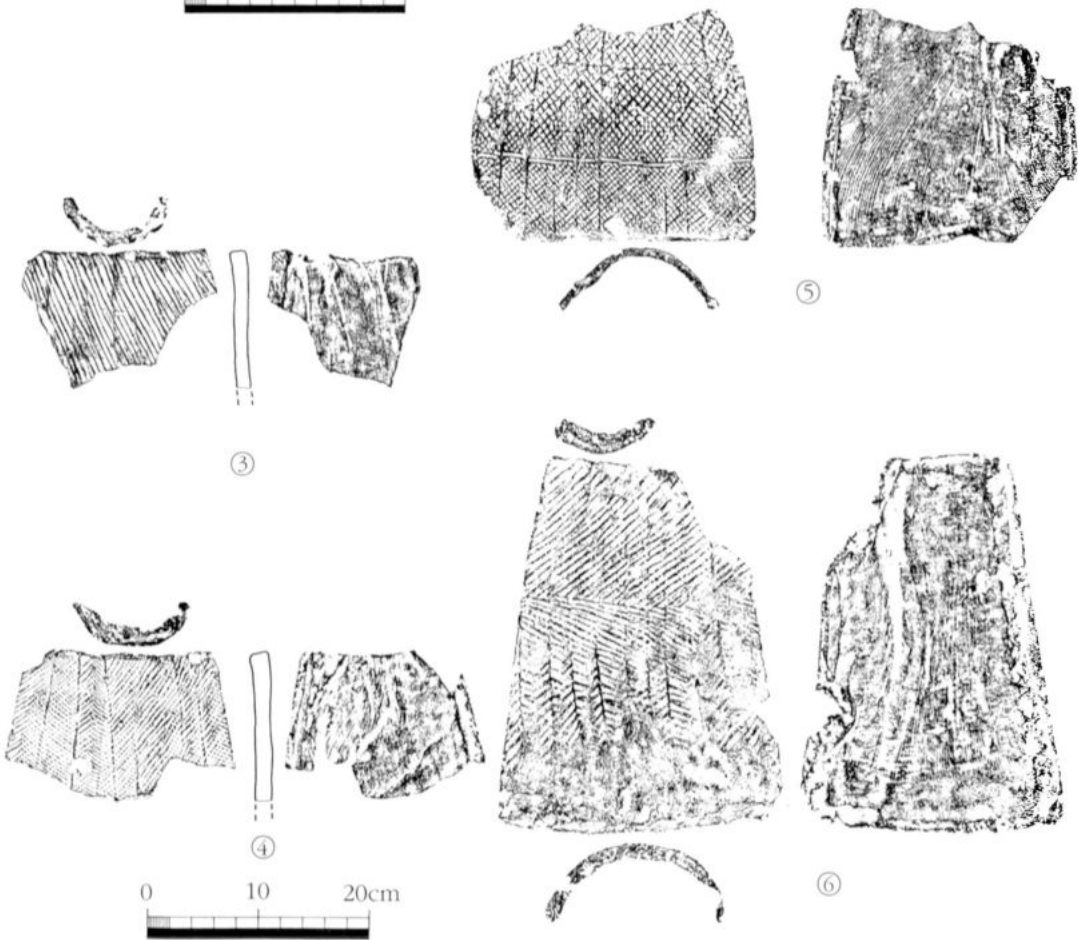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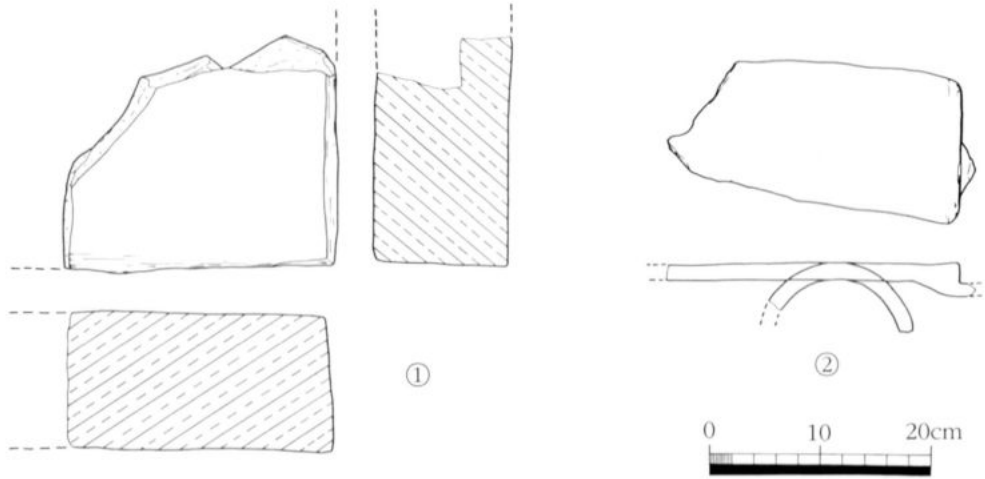
· 수키와片 [도면 52-④, 사진 82-④]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굵은 석립이 혼입되었다. 배면은 어골문이 중복되어 시문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남아 있다. 측면의 와도흔은 양쪽 모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2정도 매끈하게 그어 분리하였다. 단부의 면은 거칠게 정면하였다.

13.7×12.5×1.6cm.

· 수키와片 [도면 52-⑤, 사진 83-①]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세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배면에는 격자문에 횡



[도면 52] 처인성 99-5 시굴구덩 출토 전·수키와

선이 그어진 문양을 시문하였고, 이면은 포목문과 그 위에 빗질흔 같은 흔적이 보이고 있다. 측면의 와도흔은 모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어져 있다.

16.0×21.5×1.5cm

· 수키와 [도면 52-⑥, 사진 83-②]

토수기화로 한쪽단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에는 굵은 장식 알갱이와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배면은 어골문과 방향을 달리한 사선문이 시문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과 포목을 연결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측면의 와도흔은 한쪽은 안쪽에서 다른 한쪽은 바깥쪽에 그어져 있다. 폭이 넓은 단부쪽으로 배면과 이면은 거칠게 정면되었다.

34.5×16.0×2.3cm.

· 암키와 [도면 53-①, 사진 84-①]

한쪽 측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회흑색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배면은 무문이며, 이면은 비교적 울이 굵은 포목흔과 빗질흔 같은 흔적이 보이고 있고, 점토판을 접합한 흔적이 있다. 양쪽 측면의 와도흔은 모두 안쪽에서 살짝 그어져 있다. 단부면은 직선으로 매끈하게 처리되었으며, 한쪽은 단부 내면조정이 이루어졌다.

36.0×26.0×1.0~2.4cm.

· 암키와片 [도면 53-②, 사진 84-②]

질은 회색을 띠는 것으로 소성정도는 단단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배면은 선조문이 시문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1/2정도 그어져 있으며, 단부면은 약간 외경하게 조정되었다.

21.5×10.0×1.5cm.

· 암키와片 [도면 53-③, 사진 84-③]

질은 회색을 띠는 것으로 소성정도는 단단하며 태토는 다량의 사립과 와편 부스러기가 혼입되었다. 배면은 선조문이 시문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 위에 빗질흔 같은 흔적이 보이고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1/2정도 그어져 있다.

14.0×13.5×2.0~2.4cm.

· 암키와片 [도면 53-④, 사진 85-①]

질은 회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배면은 선조문을 시문하고 부분적으로 정면하였으며, 이면은 포목흔과 빗질흔 같은 흔적이 보이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종방향으로 정면되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1/2정도 그어져 있으며, 잔존한 한쪽 단부의 안쪽으로는 내면조정이 이루어져 있다.

32.5×18.0×1.4~2.0cm.

· 암키와片 [도면 53-⑤, 사진 85-②]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배면은 우상좌하 방향의 선조문이 시문되었으며, 한쪽 단부쪽으로는 매끈하게 정면되었다. 이면은 포목흔과 빗질흔 같은 흔적이 보이고 있고 부분적으로 정면되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1/2정도 그어져 있다.

34.5×19.0×2.0~2.3cm.

· 암키와片 [도면 53-⑥, 사진 86-①]

회흑색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니질태토이다. 배면은 횡선을 기준으로 선조문을 방향을 달리하여 시문하였으며, 이면은 포목흔과 빗질흔 같은 흔적이 보이고 있다. 한쪽 측면쪽에는 분할선 홈이 약간 남아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거의 전면에 걸쳐 그어져 있다.

20.0×17.5×1.8~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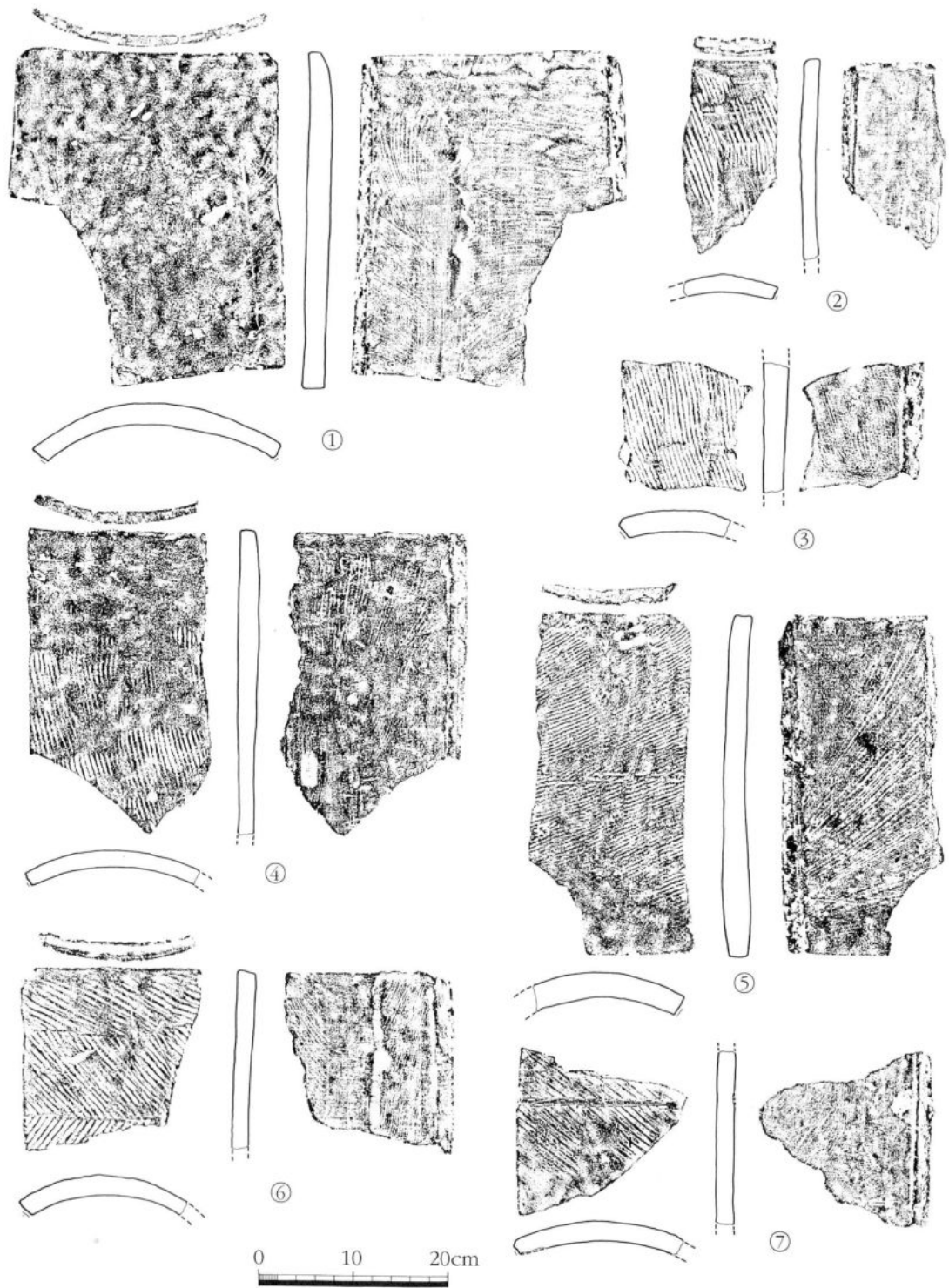
· 암키와片 [도면 53-⑦, 사진 86-②]

회흑색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다량의 사립이 혼입되었다. 배면은 사선방향으로 선조문이 시문되었으며, 횡선이 한 줄 잔존하고 있다.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으며, 한쪽 측면으로는 분할선 홈이 보이고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어져 있다.

19.0×17.5×1.5~2.0cm.

· 암키와片 [도면 54-①, 사진 86-③]

회갈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니질태토이다. 배면은 횡방향으로 선조문이 시문되었으며, 단부쪽으로는 면을 정면하였다. 이면은 마모가 심하게 이루어졌고 포목흔이



[도면 53] 처인성 99-5 시굴구덩 출토 암키와

보이고 있다.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어져 있다.

16.5×15.0×1.5~1.8cm.

· 암키와片 [도면 54-②, 사진 87-①]

회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경질에 가깝다. 태토는 장식 등 석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배면은 길이板에 의하여 선조문이 타날되었으며, 단부쪽으로는 정면되었다. 이면은 포목흔이 회미하게 보이고 있으며, 한쪽 단부는 약간의 내면조정이 이루어졌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어져 있다. 단부면은 한쪽은 직선으로 처리되었으며, 다른 한쪽은 약간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36.5×16.5×1.5~3.0cm.

· 암키와片 [도면 54-③, 사진 87-②]

회흑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배면은 선조문을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일부분이 교차되게 시문하였으며, 이면은 포목흔과 빗질흔 같은 흔적이 남아 있다.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3정도가 그어져 있다.

20.0×16.5×1.7~2.2cm.

· 암키와片 [도면 54-④, 사진 87-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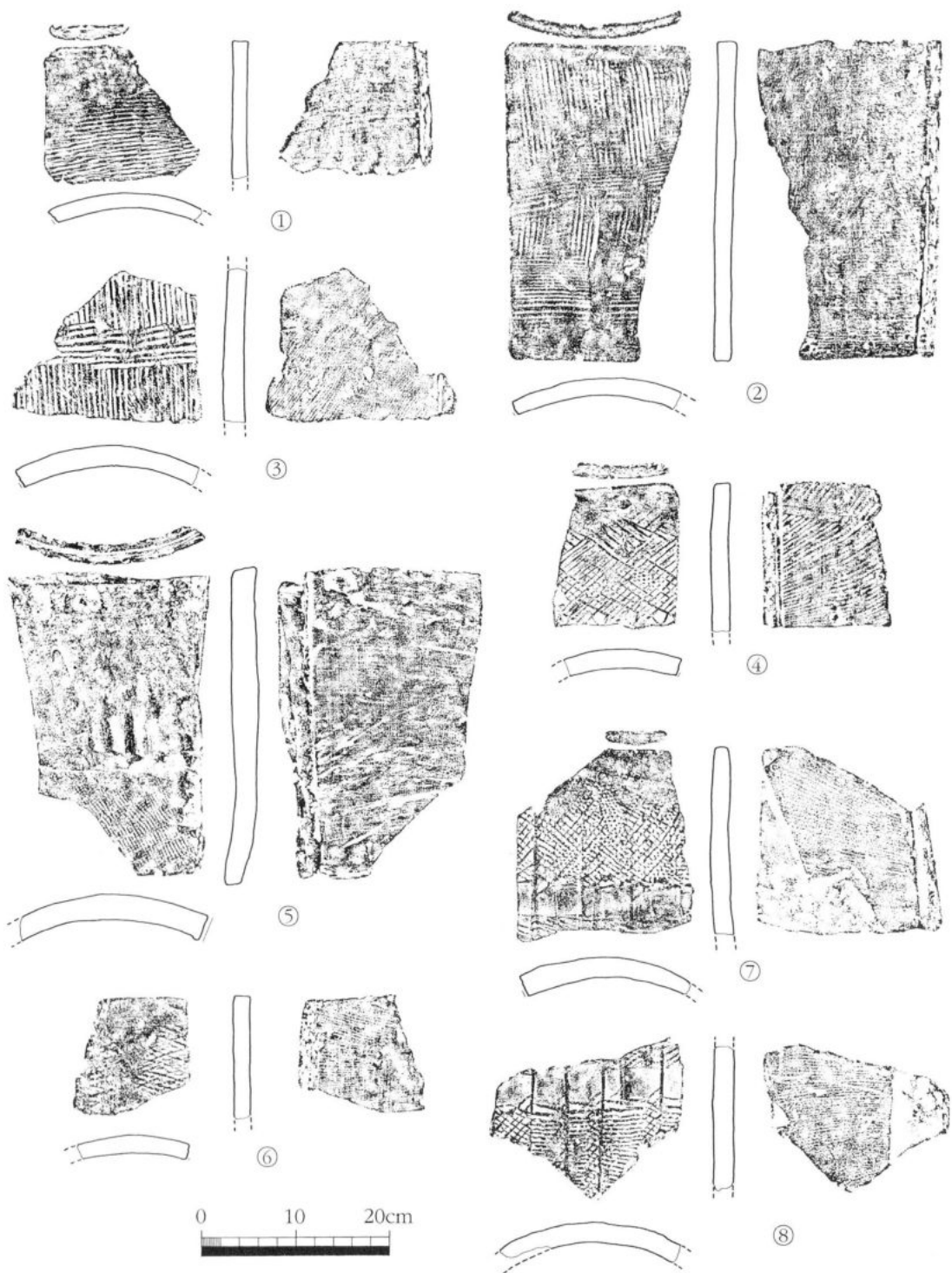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장식립 등 석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배면은 격자문이 시문되었으며, 단부쪽으로는 정면되었다. 이면은 포목흔과 빗질흔 같은 흔적이 보이고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어져 있다.

16.0×12.5×1.5~2.0cm.

· 암키와片 [도면 54-⑤, 사진 88-①]

회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배면은 세격자문이 시문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거칠게 표면을 정면하였다. 이면은 포목흔이 있으며,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거의 전면에 걸쳐 그어 분할한 후 다시 배면 쪽을 다듬었다.

33.0×20.0×1.5~2.5cm.



[도면 54] 처인성 99-5 시굴구덩 출토 암키와

· 암키와片 [도면 54-⑥, 사진 88-②]

회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단단하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배면은 사격자문을 타날한 후 부분적으로 정면하였으며, 이면은 포목흔과 빗질흔 같은 흔적이 보이고 있다.

12.0×13.0×1.4~1.8cm.

· 암키와片 [도면 54-⑦, 사진 89-①]

회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니질태토이다. 배면은 격자문이 시문되었으며, 鼓板의 흔적이 뚜렷하다. 이면은 탁락이 심하며, 빗질흔 같은 흔적이 보이고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3정도가 그어져 있다.

20.0×18.0×1.5~2.5cm.

· 암키와片 [도면 54-⑧, 사진 89-②]

회색을 띠는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니질태토이다. 배면은 평행 어골문과 부분적으로 격자문을 중복 타날하였으며, 이면은 포목흔과 횡방향의 빗질흔과 같은 흔적이 남아 있다.

19.0×15.0×2.0cm.

(4) 시굴구덩 5 출토유물

(土陶器類)

· 四面扁瓶 [도면 55-①, 사진 90-①]

동체의 1/3과 구연의 절반가량이 결실되었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세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기심은 부분적으로 暗紫色을 띠고 있다. 평저인 저부의 평면형태는 圓形이며, 동체는 四面을 이루도록 점토띠 쌓기 수법에 의하여 성형되어 위로 올라가 어깨에서 수평에 가깝게 급격히 축약되어 있고, 어깨의 외측으로는 횡침선이 한 줄 들어가고 있다. 경부는 짧게 외경하며, 구연부는 수평으로 짧게 외반하여 구연단을 둥글게 처리하였다. 구연단 안쪽으로 약간의 흠이 들어가고 있다. 경부와 구연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으며, 동체의 내면은 점토띠를 쌓아 올린 흔적과 물손질 정면흔이 있다.

높이 15.5cm, 복원 입지름 9.9cm, 바닥지름 9.9cm.

· □緣部片 [도면 55-②, 사진 90-②]

大形甕의 구연부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다. 회흑색 경질소성품으로 표면은 自然釉가 일부 형성되어 있으며,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세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頸部는 약간 외경하게 올라가다 부드럽게 외반하여 끝을 외측으로 말아 붙여 구연부를 이루고 있다. 경부의 외면으로는 횡침선이 조잡하게 3條가 돌아가고 있다. 경부와 구연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8.1cm, 복원 입지름 21.6cm.

· □緣部片 [도면 55-③, 사진 90-③]

회흑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頸部는 약간 내만하며, 구연부는 수평에 가깝게 짧게 외반하고 있다. 구연단 안쪽으로는 얇은 흙이 형성되어 있으며, 경부는 외면으로 2條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있고, 내면은 주름이 형성되어 있다. 경부와 구연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2.8cm, 복원 입지름 9.2cm.

· 胴體部片 [도면 55-④, 사진 90-④]

甕의 동체부편이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세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동체의 형태는 주판알 모양으로 납작하게 능형을 이루고 동상부이 외면으로는 중간부에 가는 圓圈을 돌리고 그 상하에 점열문을 연속으로 시문하였다. 동체의 내면은 점토띠를 쌓아 올리고 물소질 정면한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3.3cm, 복원 동최대경 13.0cm.

· 四面扁瓶片 [도면 55-⑤, 사진 90-⑤]

저부와 동체의 일부가 잔존하고 있다. 회흑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정선되었다. 평저인 저부의 평면형태는 圓形이며, 동체는 四面을 이루도록 점토띠 쌓기 수법에 의하여 성형되었다.

잔존 높이 13.0cm, 바닥지름 9.6cm.

· 底部片 [도면 55-⑥, 사진 90-⑥]

주름무늬 瓶의 저부편이다. 경질소성품으로 표면은 흑색으로 윤이나고 있으며, 태토는 정선되었다. 동체의 외면으로는 단면 삼각형에 가까운 덧띠가 종방향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그 하단으로는 2條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외저면의 가장자리로는 굽이 붙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기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2.8cm.

· 底部片 [도면 55-⑦, 사진 90-⑦]

주름무늬 瓶의 저부편이다. 짙은 회청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미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잔존한 동체의 외면으로는 종방향으로 간격이 좁은 선문이 시문되었으며, 선문사이에는 가는 횡선이 조밀히 시문되었다. 외저부에는 環形의 낮은 굽이 조잡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접지면이 비교적 넓다. 내저면은 도구로 조잡하게 흠을 내었다.

잔존 높이 4.2cm, 복원 굽지름 8.2cm.

· 底部片 [도면 55-⑧, 사진 91-①]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외저부에는 낮은 環形의 굽이 외경하여 지면에 이르고 있으며, 굽의 접지면은 상당히 좁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3.1cm, 복원 굽지름 8.5cm.

· 底部片 [도면 55-⑨, 사진 91-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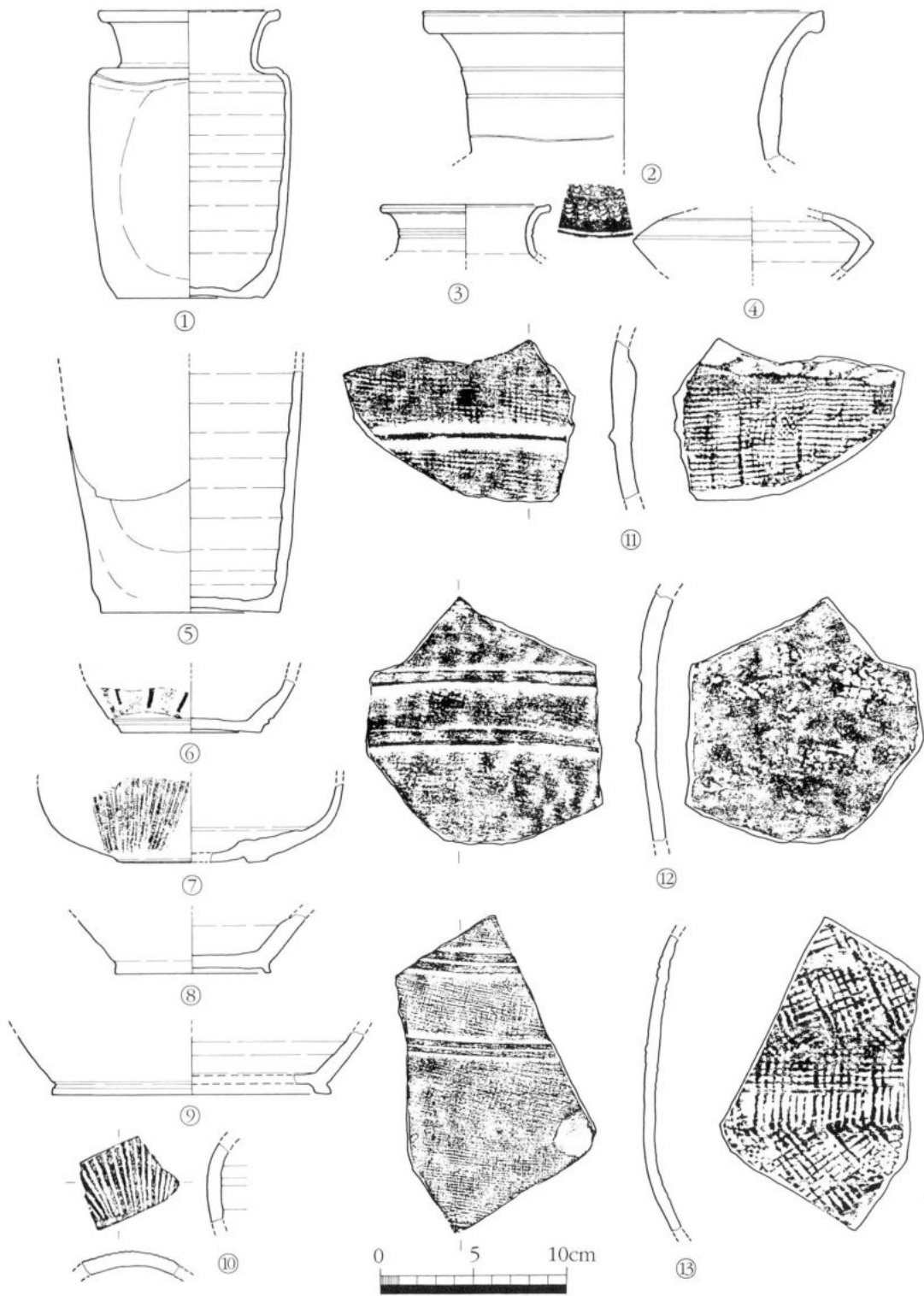
회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갈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정선되었다. 외저부에는 낮은 環形의 굽이 외경하여 접지면에 이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 높이 3.3cm, 복원 굽지름 15.0cm.

· 胴體部片 [도면 55-⑩, 사진 91-③]

주름무늬 瓶의 동체편이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외면에는 종방향으로 주름무늬가 형성되어 있으며, 내면은 물손질 정면되었다.

5.3×5.0×0.7cm.



[도면 55] 처인성 99-5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류

· 胴體部片 [도면 55-①, 사진 91-④]

大形甕의 동체편이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을 타날하고 부분적으로 정면하였으며, 단면 삼각형에 가까운 덧띠가 횡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내면은 격자의 内拍子흔이 있다.

12.5×8.5×0.9cm.

· 胴體部片 [도면 55-②, 사진 91-⑤]

大形甕의 동체부편이다. 암회색의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을 타날하고 전체적으로 정면하였으며, 단면 사각형의 낮은 덧띠가 2줄 돌아가고 있다. 내면은 車輪文의 내박자 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13.0×13.2×0.8~1.1cm.

· 胴體部片 [도면 55-③, 사진 91-⑥]

大形甕의 동체부편이다. 암흑색의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외면에는 세격자문을 타날하고 2줄이 1組로 낮은 돌대가 2줄 돌아가고 있다. 내면에는 太線의 格子文인 내박자흔이 뚜렷하다.

10.2×17.0×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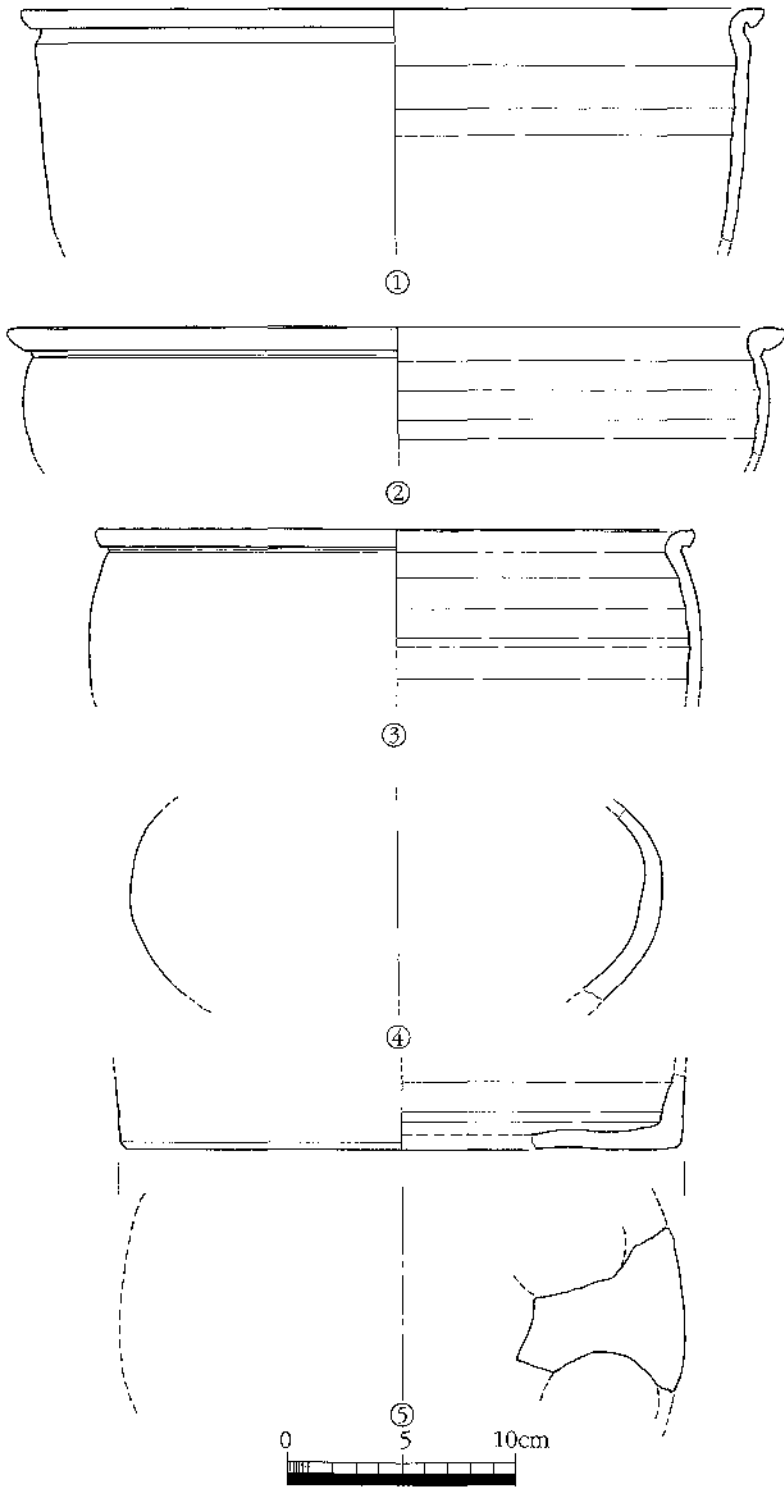
· 口緣部片 [도면 56-①, 사진 92-①]

자배기의 구연부편이다. 질은 회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니질태토이다. 동체는 약간 외경하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동체상단에서 약간 안쪽으로 내경하여 곧바로 짧게 수평으로 외반하고 있다. 구연단은 내경하게 직선으로 처리되었으며, 구연의 외하단은 삼각상으로 들출되었다. 동체의 내면은 점토티를 쌓아 올린 흔적이 뚜렷하다.

잔존 높이 10.2cm, 복원 입지름 33.0cm.

· 口緣部片 [도면 56-②, 사진 92-②]

자배기의 구연부편이다. 연질소성품으로 소성정도는 양호하며, 표면에는 흑색 슬립이 입혀져 있다. 태토는 정선된 니질 태토이다. 잔존한 동체상부는 약간 외반하여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頸部 없이 곧바로 수평으로 외반하여 끝을 외측하부로 꺾어 붙여 마무리 하였다. 동체 내면은 점토티를



[도면 56] 처인성 99-5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류

쌓아 올린 흔적이 뚜렷하다.

잔존 높이 5.7cm, 복원 입지름 34.6cm.

· 口緣部片 [도면 56-③, 사진 92-③]

자배기의 구연부편이다. 회백색을 띠며 소성정도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잔존한 동체상부는 약간 외반하게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구연부는 동체 상단에서 곧바로 짧게 수평으로 외반하고 있다. 구연단은 내경하게 직선으로 처리되었으며, 구연 외하단은 단면 삼각상으로 날카롭게 들출되어있다. 동체 내면은 점토띠를 쌓아올린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 높이 7.3cm, 복원 입지름 26.8cm.

· 胴體部片 [도면 56-④, 사진 92-④]

자배기의 동체부편이다. 질은 회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비교적다량 혼입된 니질 태토이다. 동체는 편구형으로 외면은 무문이며, 내면은 물손질 정면흔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8.5cm, 추정 동최대경 23.4cm.

· 시루片 [도면 56-⑤, 사진 92-⑤]

저부의 일부분이 잔존한 편이다. 표면은 흑갈색을 띠고, 기심은 흑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니질태토이며, 전체적으로 소성정도는 양호하다. 동체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적립하며, 평저인 저부에는 비교적 큰 원형의 구멍이 투공되어 있는데, 거의 결실되어 정확한 크기를 알 수가 없다.

잔존 높이 3.3cm, 복원 바닥지름 25.0cm.

· 손잡이片 [도면 57-①, 사진 92-⑥]

가로띠 손잡이의 편이다. 회색의 연질소성품으로 소성정도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가로띠의 폭은 일정하며, 양 측면이 외측으로 약간 휘어져 있다.

12.3×7.5×0.5~0.7cm.

· 土器片 [도면 57-②, 사진 92-⑦]

폭 2.9cm의 점토띠가 'U' 자상으로 구부러진 土器片으로 용도를 알 수가 없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기심은 暗紫色를 띠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점토띠의 외면은 횡

방향으로 4줄의 돌대를 장식하고 있다.

7.6×2.9×1.4cm

· 손잡이片 [도면 57-③, 사진 92-⑧]

동체에 붙은 손잡이의 殘片이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머랑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손잡이는 동체의 외면에 세로로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형태는 梯形이며, 동체와의 접합부 중간지점에 직경 0.6cm의 구멍이 투공되어 있다. 잔존한 동체의 외면에는 2줄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5.5×5.5×0.6~0.7cm.

[磁器類]

· 白磁片 [도면 57-④, 사진 93-①·④]

대접의 저부편이다. 전체적으로 푸른색조가 감도는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釉水裂이 이루어졌다. 내저면은 작은 圓心을 이루고 있고, 굽은 대마디굽이며, 굽의 접지면과 굽 안쪽으로는 모래받침 포개구이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 높이 3.2cm, 복원 굽지름 5.4cm.

· 白磁片 [도면 57-⑤, 사진 93-②·⑤]

대접의 저부편이다. 전체적으로 굽과 외저부를 제외한 전면에 유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다. 내저면은 편평하며 가장자리로 원각을 이루며, 잔존한 기벽은 曲面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굽은 대마디굽이며, 외저부는 중앙부가 볼록하다. 내저부에는 태토빛을 받침흔적이 남아있다.

잔존 높이 3.5cm, 복원 굽지름 5.6cm.

· 분청사기片 [도면 57-⑥, 사진 93-③·⑥]

대접의 저부편이다. 전체적으로 흑갈색을 띠고 있으며, 잔존한 기벽 내면의 하부에 귀얄기법에 의한 백토를 분장하였다. 굽은 낮은 대마디굽으로 굽 안쪽의 외저부는 편평하다. 내저면에는 원각선이 없으며, 굽의 접지면에는 모래가 흡착되어 있다.

잔존 높이 4.1cm, 복원 굽지름 5.6cm.

· 白磁片 [도면 57-⑦, 사진 94-①·③]

사발의 저부편이다. 전체적으로 붉은색조가 감도는 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다. 내저면은 원각을 이루지 않고 오목하며, 기벽은 하단부에서 약간 안쪽으로 꺾여 올라가고 있다. 굽은 오목굽이며 모래받침 포개구이하였다.

잔존 높이 4.5cm, 굽지름 5.6cm.

· 白磁片 [도면 57-⑧, 사진 94-②·④]

사발의 저부편이다. 전체적으로 푸른색조가 감도는 유약이 시유되었다. 내저면은 원각을 이룬 후 기벽이 외경하게 올라가고 있고, 굽은 높은 오목굽이다. 내저면과 굽에는 모래가 흡착되어있다.

잔존 높이 4.9cm, 굽지름 5.6cm.

[鐵器類]

· 鐵鉢 [도면 57-⑨, 사진 94-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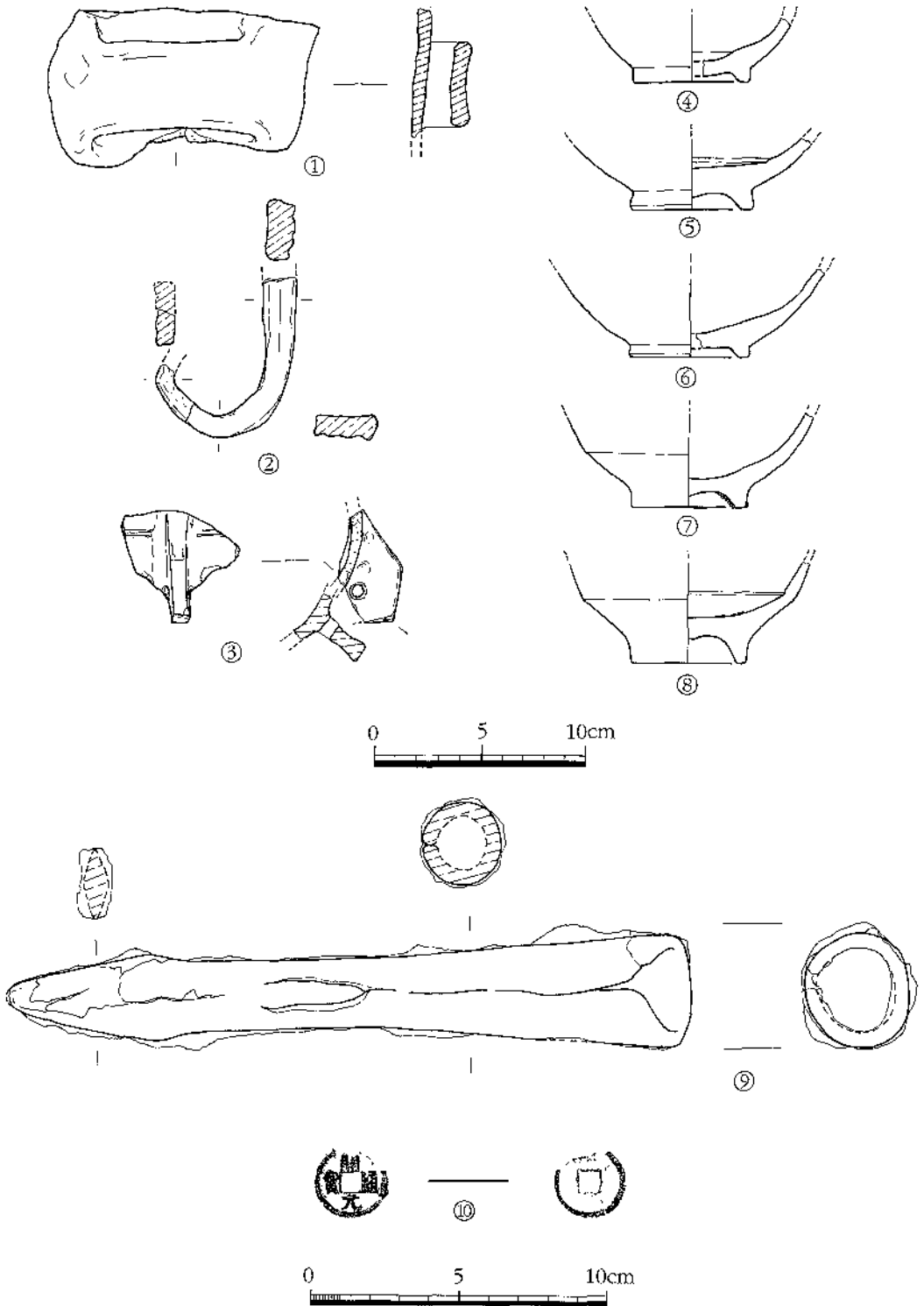
단조품으로 부식이 심하다. 봉부는 단면 능형으로 전체 길이에 비하여 길이가 짧으며, 釜部는 단면 원형으로 철판을 납작하게 편 후 원형으로 좁혀 양단을 단절하였다.

전체길이 22.85cm, 基部 직경 3.9cm.

· 開元通寶 [도면 57-⑩, 사진 94-⑥]

테두리 일부가 결실된 동전이다. 전면에는 해서이니 예서인지 불분명하나 對讀하도록 '開元通寶'라는 명문은 읽을 수 있다. 가운데에 0.6×0.6cm 크기의 내방곽이 투공되었으며, 주연은 중간 정도, 이면은 무문이다. 唐代의 것은 아닌 듯하고 고려 초기 주조의 것이라 여겨진다. 開元通寶는 대략 4종류가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빠른 것이 서기 621년이고, 다음이 肅宗로 845년, 다음은 南唐鑄로 960년이며, 고려에서 주조한 것은 穆宗 때(998~1009)로 알려져 있다. 정확히 이 가운데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다.

직경 : 2.5cm



[도면 57] 처인성 99-5 시굴구덩 출토 도토기·자기류·철기류

[기와類]

· 암막새편 [도면 58-①, 사진 95-①]

암막새의 드림새 일부가 잔존한 편이다. 드림새 외면은 외연을 따라 연자를 돌리고 그 바로 안쪽으로 간격이 일정하게 가는 양각선이 시문되었으며, 양각선 안쪽으로는 당초문을 시문하였다. 드림새는 동기와에서 직각을 이루고 있다.

드림새 : 잔존 너비 14.3cm, 높이 4.7cm.

· 치미기와편 [도면 58-②, 사진 95-②]

鰐尾의 잔편으로 보인다. 회흑색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한 면에는 太線의 文樣이 시문되었는데, 原形을 알 수 없다.

8.0×8.5×5.5cm.

· 수키와 [도면 59-①, 사진 96-①]

토수키와로 폭이 좁은 쪽의 端部 일부가 결실되었다. 배면은 부분적으로 脫落이 이루어졌는데, 線條文이 시문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며, 전면에 걸쳐 빗질흔 같은 흔적이 보이고 있다. 측면의 와도흔은 한쪽은 안에서 밖으로, 다른 한쪽은 밖에서 안으로 거의 전면에 걸쳐 잘려져 있다. 회흑색을 띠며,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소성정도는 양호하다.

35.5×17.0×1.2~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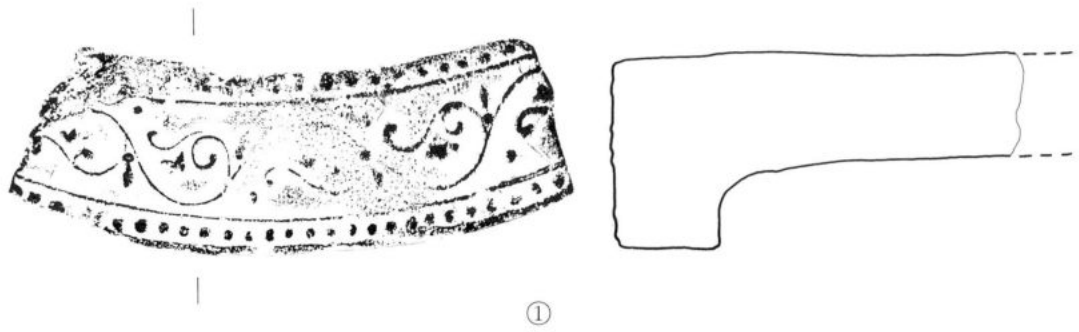
· 수키와 [도면 59-②, 사진 96-②]

토수키와로 端部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배면은 선조문을 타날한 후 부분적으로 跛板으로 문질러 문양을 지웠으며, 넓은 쪽의 단부 가까이는 문양을 지워 정면하였다.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으며, 포목을 이은 흔적이 종방향으로 나타나 있다. 측면의 와도흔은 양쪽 모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잘려 있다. 단부면은 수직으로 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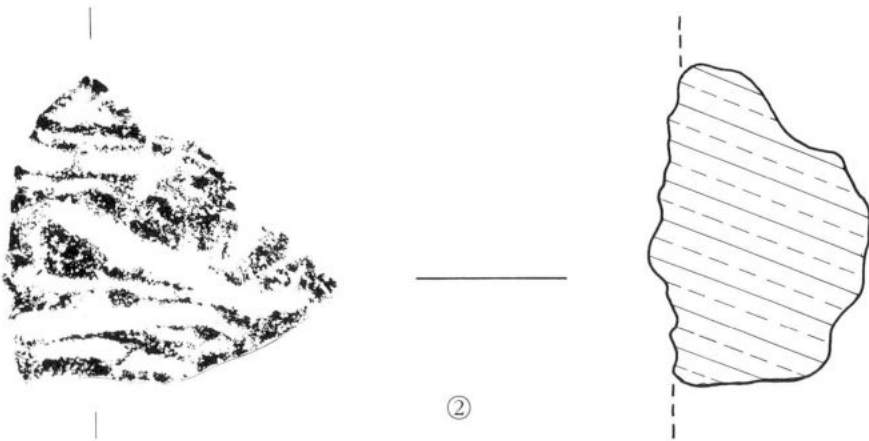
33.0×15.0×1.4~2.0cm.

· 수키와片 [도면 59-③, 사진 97-①]

회흑색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배면에는 어골문을 시문하고 한쪽 端部 쪽으로는 면을 정면하였다.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으며,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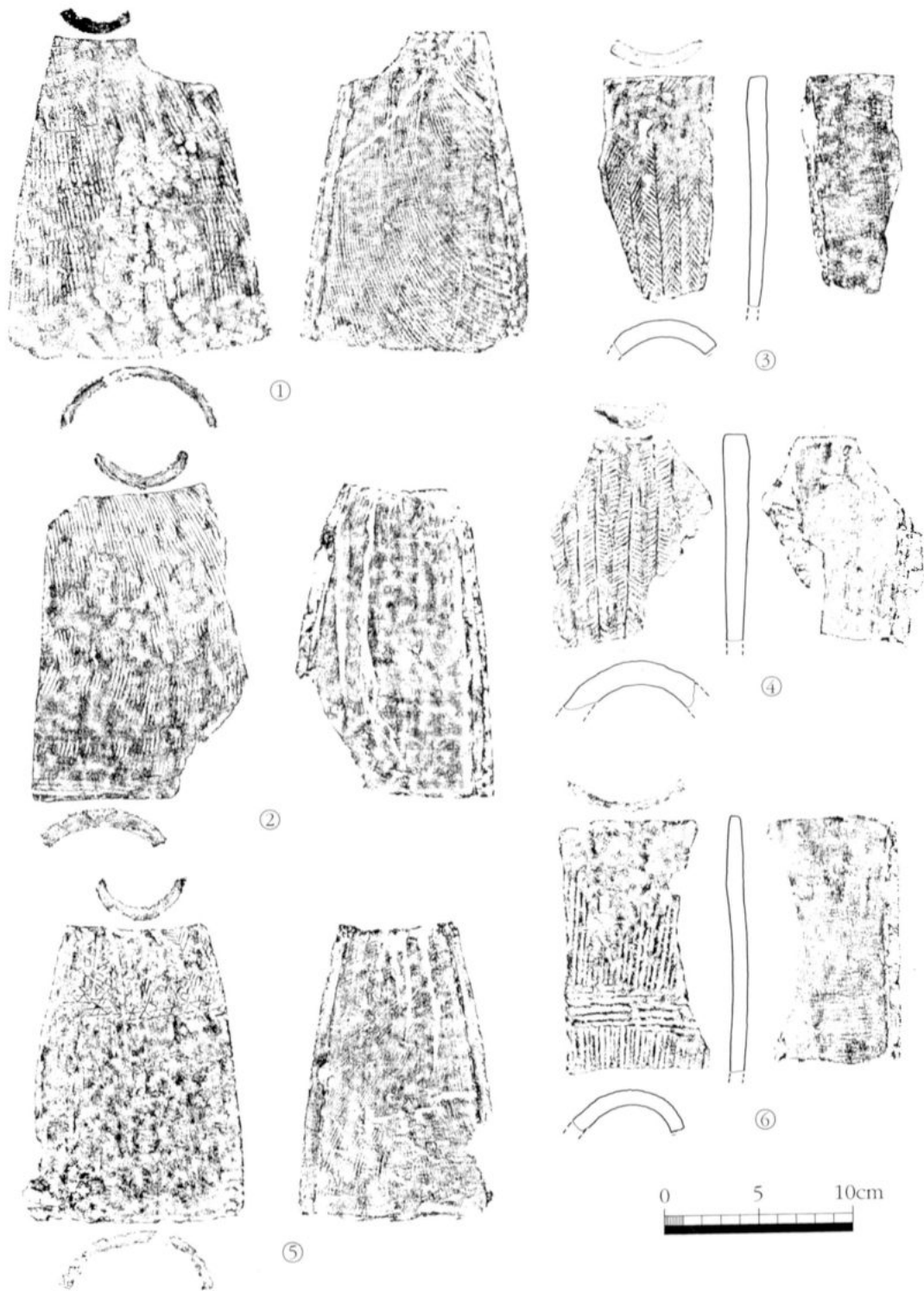
①



②



[도면 58] 처인성 99-5 시굴구덩 출토 암막새 · 치미



[도면 59] 처인성 99-5 시굴구덩 수키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잘려 있다. 端部면은 직선으로 매끈하게 처리되었다.

25.0×10.0×0.8~1.9cm.

· 수키와片 [도면 59-④, 사진 97-②]

회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지만 비교적 정선되었다. 배면은 어골문이 시문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1/3정도만 잘려져 있으며, 단부면은 직선으로 매끈하게 처리되었다.

22.0×14.5×1.5~2.5cm.

· 수키와 [도면 59-⑤, 사진 97-③]

토수키와이다.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배면에는 폭이 좁은 쪽의 1/3정도 일부에만 어골문+°의 복합문이 시문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과 빗질흔 같은 흔적이 보이고 있다. 측면의 와도흔은 모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잘려져 있다.

32.5×16.5×1.5~2.0cm.

· 수키와片 [도면 59-⑥, 사진 98-①]

황갈색의 연질소성품으로 소성정도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니질태토이다. 배면은 선조문을 縱橫으로 시문하였으며, 端部쪽으로는 면을 정면하였다.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으며,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4정도 잘려 있다. 단부면은 수직으로 처리되었으며, 端部 안쪽으로는 端部 內面調整이 이루어졌다.

27.0×12.0×1.0~1.7cm.

· 압키와片 [도면 60-①, 사진 99-①]

단부의 측면 일부가 결실되었다. 황색의 연질소성품으로 소성정도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배면은 선조문을 타날하고 부분적으로 정면하였으며, 한쪽 단부쪽으로는 가는 횡침선이 한 줄 그어져 있다. 이면은 전체적으로 면을 정면하여 포목흔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으며, 측면의 와도흔은 모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잘려져 있다.

37.0×30.0×1.5cm.

· 암키와片 [도면 60-②, 사진 99-②]

회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과 기와 부스러기가 혼입되었다. 배면에는 선조문이 시문되었으며, 단부쪽은 사선으로 조정되었다. 이면은 포목흔과 빗질흔 같은 흔적이 보이고 있으며,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잘려 있다. 잔존한 단부면은 직선으로 처리되었다.

26.0×16.0×2.3cm.

· 암키와片 [도면 60-③, 사진 99-③]

회청색을 띠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배면은 선조문을 시문하고 잔존한 端部쪽은 횡방향으로 정면하였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다. 소성정도는 단단하다.

17.5×17.5×1.5cm.

· 암키와片 [도면 60-④, 사진 100-①]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정선된 태토에 세사립과 굵은 석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배면은 어골문이 시문되었으며, 잔존한 한쪽 단부쪽은 횡방향으로 정면하였다.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으며,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5정도 잘려져 있다.

18.0×11.0×2.0cm.

· 암키와片 [도면 60-⑤, 사진 98-②]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배면에는 태선의 격자문이 중첩되어 시문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과 빗질흔 같은 흔적이 보이고 있으며, 단부 가까이에는 횡방향으로 포목을 와통에 묶은 흔적이 보이고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1/2정도 잘려져 있다. 단부면은 수직으로 처리되었다.

18.0×9.5×1.8cm.

· 암키와片 [도면 60-⑥, 사진 100-②]

암황색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비교적 다량 혼입되었다. 배면에는 사격자문이 시문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전면에 걸쳐 잘려져 있다.

22.0×13.0×1.7cm.

· 암키와片 [도면 60-⑦, 사진 100-③]

적갈색의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細粒의 와편 부스러기가 혼입된 정선된 니질태토이다. 배면은 太線의 격자문이 시문되었으며, 단부 쪽으로는 정면이 이루어졌다. 이면은 포목흔이 있으며, 단부 쪽으로는 거칠게 단부 내면조정이 넓게 이루어졌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2정도 잘려 있다. 단부면은 직선으로 매끈하게 처리되었다.

26.0×16.0×2.3cm.

· 암키와片 [도면 60-⑧, 사진 101-①·④]

암황갈색 연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니질태토이다. 배면은 태선의 격자문이 시문되었으며, 이면은 마모가 심하여 포목흔을 확인할 수가 없다. 잔존한 한쪽 측면으로는 분할선 홈이 보이고 있으며,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4정도 잘려 있다.

12.0×12.5×2.3cm.

· 암키와片 [도면 60-⑨, 사진 101-②·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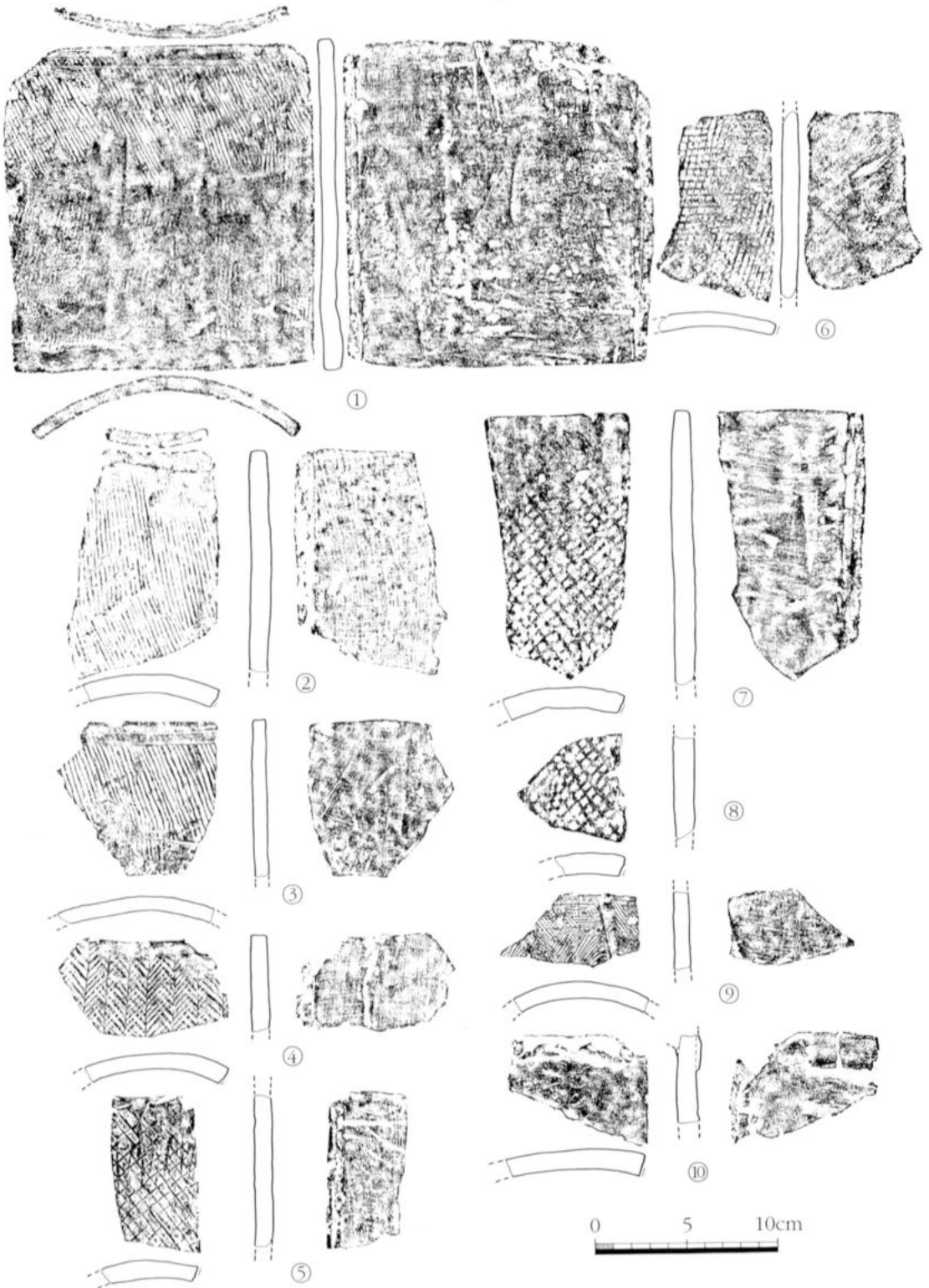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배면에는 선조문과 〃形 문양이 복합되어 시문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다. 이면은 포목흔이 보이고 있으며,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5정도 잘려져 있다.

15.0×9.0×1.8cm.

· 암키와片 [도면 60-⑩, 사진 101-③·⑥]

회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사립이 비교적 다량 혼입되었다. 배면의 단부 쪽으로는 드림새를 부착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이면은 울이 굵은 포목흔과 단부 쪽에는 점토를 덧댄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한 한쪽 측면의 와도흔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3정도 잘려져 있다.

16.0×12.0×2.5cm.



[도면 60] 처인성 99-5 시굴구덩 암키와

(5) 출토유물의 성격

[기와류]

기와류는 암막새 기와의 경우 유려한 당초문이 있고, 주변의 주대(周帶)를 낮고 좁게 구획하여 주대(珠帶)를 돌리고 唐草文을 부조한 것은 통일 신라 시대 양식의 우수한 작품이다. 그리고 수키와의 경우에는 도수기와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미구기와는 매우 드물다.

평기와와 문양은 대체로 선조문계가 우세하고 격자문과 이골문 등이 타날되었고, 이들 문양이 복합된 경우가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기와의 분할에서 양쪽 측면의 분할을 모두 안쪽에서 바깥으로 향하여 와도로 한번에 그어 쪼갠 수키와돌이 있어서, 통일신라시가 보편적으로 내외 교대로 분할된 양상과 비교되는 점이 있다.

암막새가 있으나, 숫막새가 찾아지지 않았다. 이들 기와가 이곳에서 생산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깨어진 상태로 보아 이곳에 있었던 건물에 사용되었던 기와로 보아 무방하다. 그렇다면, 이 성터에는 치미 조각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처럼 아름다운 문양으로 장식된 기와가 사용된 건물이 세워졌던 것이 되는바, 관아나 사찰이 아니어서 이러한 우수한 장식을 한 건물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성터는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시대에 걸쳐 처인부곡, 혹은 처인현으로서의 관청 건물이 세워져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기와의 출토량이 지표에서는 찾기 어려웠으나, 지하에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어서 건물은 여러 채가 있었을 것이 예상된다.

搏은 조각 하나가 수습되었을 뿐이나,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기와를 사용한 건물에搏까지 사용한 건물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와의 조각으로 등글게 깎아 만든 원반형의 소형 제품처럼 2차 사용의 유물도 있는데, 이는 구체적 용도를 아직 모르고 있다.

[土陶器類]

신라 후기의 대표적인 도기인 회색 내지 회청색 경질이고 대각(臺脚)이 알개 남은 것과, 점열문이 시문된 것, 목에 음각의 단선과상문을 시문한 대옹의 파편, 주름무늬 작은 병, 양각의 들대와 문살무늬가 시문된 대옹편이 있으며, 사각편병과 반구병(盤口瓶)편이 특징적으로 많다. 이들은 고려시대에도 이어지면서 유행한 듯하며, 그 구분이 어떤 것을 기준할 수 있는지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량의 액체나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대옹이 상대적으로 여러 개체가 존재하였으며, 동시에 시대

가 약간 앞서는 주름 무늬 병이 나오고, 사각 편병이 예상 외로 많은 점은 이곳, 혹은 주변에서 이러한 그릇을 생산하는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도록 한다. 동시에 자배기와 시루류가 있는 점은 생활 문화의 일면을 알려준다.

특히 사면 편병은 유난히 점토 띠를 테쌓기 하고 회진 물손질로 정면하여 동체부를 누른 것이며, 목이 좁아져 구연에서 盤口 형태를 취한 것과 같이 일정한 수법이 반영된 것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네 발이 달린 그릇 등의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통일신라 시기와 고려시기의 관아 유적들이 조사된 바가 없어 비교 분석이 어려운 실정에서 일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토도기의 손잡이는 쇠뿔 손잡이 1개와 나머지는 변형된 것 1점이 있고, 거의 가로띠 손잡이이다. 이 가로띠 손잡이는 삼국시대 고구려의 것과는 수법에서 차이가 있어서 橋板部 외연이 말리거나 둥글게 만들어지고 중간이 좁아진 것이다. 이러한 손잡이 그릇이 유행한 것은 고려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배기와 시루 등에서 손잡이가 붙은 상태의 출토품은 없으나, 항아리와 자배기류에 부착되었던 것임은 이들이 대부분 니질태토에 회흑색을 띤 것에서 추측할 수 있다.

[磁器類]

자기류는 고려 초기에 속하는 고급의 청자류는 적으며, 고려 말기와 조선시대에 유행한 백자류가 많은 수를 차지하나, 도기류에 비하여 출토 빈도는 낮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고려 전기에 이 지역은 자기 생활권이라기보다는 도기류를 주로하는 생활권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다. 청자편 한 점은 상감청자에 속하지만 품격이 낮은 것이며, 백자들은 대부분 모래 받침으로 구워낸 흔적이 있다. 아마도 백자는 조선 초기 이곳에 아직 甝습이 영위될 때의 것들이 아닐까 생각된다.

[石器類]

활석제 그릇과 뚜껑이 있는데, 도자기와 함께 당시 돌그릇이 성행한 한 증거이다. 이 밖에 석기는 주로 숫돌인데 여러 면을 사용한 것과 한쪽 면을 사용한 것이 있다. 결이 고운 것으로 사용 기간이 매우 긴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

[鐵器類]

화폐로는 개원통보(開元通寶)가 한 점 찾아졌을 뿐이나, 길고 투박한 바늘(針)이 보이고 있고, 鐵
鐵·鐵鈔·鐵製大刀와 같이 무기류가 있으며, 따비 등 농기구, 솔과 솔뚜껑 조각 등의 취사용, 쇠못
처럼 架構에 필요한 것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이곳 처인성 내부에서 의식주 생활이 영위
되는 한편, 무기를 갖추고 있었던 농경 방어취락으로서의 성격을 추측하게 한다.

이런 종류의 작은 邑城에 불과한 곳에 무기까지 갖추고 있었던 셈인데, 특히 철제이고 칼코맹이
(鐔)가 구리로 된 대도가 끝이 결실된 채로 찾아졌으며, 이와 유사한 칼에 부착된 철제의 칼코맹이
하나가 찾아졌다. 이들이 폐기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으나, 쇠 자체가 매우 높은 경제적 가치가 있었
던 시기에 비록 부러진 것이지만 버려진 것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따비 조
각이 나오는 것도 역시 그러한 성격이다. 즉, 농기구→병기로의 제작, 혹은 병기→농기구의 제작과
같은 과정을 이 성에서 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철모(창)는 삼국시대의 철모와 형식이 비슷한 것이 한 점 찾아졌다. 쇠 화살촉도 한 점 찾아졌다.
농기구류인 따비 날 편과 솔의 뚜껑 편 등도 있다. 이들이 단순히 성터의 폐기나 창고의 폐기에 의
하여 버려진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농기구를 모아 무기로 만드는 과정, 혹은 무기를 모아 다시 생
활과 생산 용구로 용도를 변경하는 어떤 과정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겪었을 것을 추
측하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된다.

동전으로 開元通寶 하나가 수습되었는데, 이것의 주조가 늦어도 11세기 초기에 해당되므로 간접
적으로 이 성과 관련된 연대로 볼 수 있다. 즉 개원통보의 초기 것은 7세기 전반이며, 다음이 845년
으로 9세기 중엽이 되는데, 이곳 처인성 출토의 유물은 대략 9세기의 유물이 매우 많은 량을 차지하
며, 다음으로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초반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유물이 많기 때문이다.

5. 시굴의 성과와 전망

이번 시굴을 통하여 처인성지에 대한 지표조사 수준의 이해로부터 많은 정보를 더하게 되었다.

첫째로는 처인성지는 순수한 토축의 성벽을 가진 것이며, 성벽은 자연 구릉 경사면을 최대한 살려 구릉 경사면의 뒷쪽에 중심 토루를 축조하고, 외면에 보축을 가한 방식으로 성벽을 구성하였음이 밝혀졌다.

둘째로 처인성은 이미 통일신라 후기에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려시기에 들어와서도 계속하여 더욱 많은 거주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이 확실하다. 성내의 경사면과 낮은 지대에는 당시의 구조물이 파괴되어 폐기된 유물이 매우 많이 포함된 층위가 교란된 채 존재하고 있다.

셋째로 이번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특히 코맹이가 붙은 철제대도와 철모는 이 성터가 전투와 관계된다는 사실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조선시대 초기까지 남아있던 군창에 보관된 것이었다면, 군창을 옮기거나 폐쇄하면서 다른 곳으로 반출되었을 것이다. 부러진 칼에 불과하고, 코맹이만 남은 것이지만, 이번에 출토된 유물은 창과 칼 및 화살촉이 찾아짐으로서 전투행위와 관련하여 땅속에 묻힌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유적, 특히 성터에서 실제로 발굴을 통하여 칼과 창이 출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서, 처인성 전투의 상징적 유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로는 이 작은 규모의 토루로서 막강한 위세의 몽고군을 대적하여 승리를 거두고 포로까지 많이 획득하였다면, 당시의 승리가 우연의 소치가 아니라, 고려 지방민의 전투능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고려 후기의 전투 양상이 대략 산성에서의 입보농성(立保籠城)으로 특징지어지고 있으나, 처인성의 전투는 이와 같은 산성을 이용한 전투와는 다른 양상으로서 별도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다섯째로는 다양하고 특징적인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인성지는 다양한 유물이 매장되어 있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특히 통일신라 양식의 암막새 기와는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이것이 성내에 있었을 건물의 위상을 대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많은 사각편병의 존재는 다른 성터들에 비하여 이 성터가 가지는 지역적 특징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유물들과 앞으로 밝혀질 유구들을 토대로 한다면 우리 역사상에 존재하였던 “부곡”(郚曲)의 실체를 밝히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의 시굴조사는 범위를 성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성내의 유구 분포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성내의 유구는 후대의 경작과 분묘 등으로 심히 훼손되어 있음이 밝혀진 셈이다. 마구 뒤섞인 두터운 유물층이 존재하는 것이 또한 확인되었다.

앞으로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한다면 넓은 범위에 걸쳐 성내에 남아 있을 수수께끼가 더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용인시와 경기도에서는 연차적인 발굴조사가 가능하도록 예산의 확보 등의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사적지로서의 국민 교육 현장으로 가꾸어 나가는 기본 계획의 수립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성터의 남문지 바닥으로 여겨진 숲 포함층에서 채취한 木炭의 탄소연대를 미국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에 있는 지오크론(Geochron)사에서 측정한 결과는 반감기 5,570년을 사용, 1950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640 ± 60 년의 년대로 측정되었다. 이는 서기 1310년을 기준으로 60년이 빠른 1250년에서 60년이 늦은 1370년까지의 연대 내에 해당한다. 이는 이 문터가 대략 고려 高宗末年과 元宗의 시기를 거쳐 공민왕 시기까지 이른바 元과의 관계가 밀접한 시기에 불에 타올 가능성이 95%의 확률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6. 참고자료

(1) 지도위원회 회의 안건

- 1) 처인성터 발굴을 년차적으로 시행하여 성내 주요 시설 유구를 확인하고, 성내 식수원의 확인과 잘못된 성벽의 보수를 원상대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 및 성벽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
- 2) 처인성을 국가 사적으로 승격 지정하여, 자라나는 청소년과 국민들의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보존하는 사적 공원화 사업의 필요성 문제.
- 3) 처인성 주변의 토지 구입과 주차장의 확보 문제.

(2) 지도위원회의 의견 요약

- 1) 처인성터의 연차적인 발굴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향후의 발굴에서는 북동쪽 성벽의 실체를 밝히고, 당초의 성내 모습대로 북동벽 안쪽을 발굴하고, 원상복구시 북동벽의 당초 높이대로 성내의 굴착토를 이용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 2) 처인성터의 국민교육장화는 필요한 사업이며, 이를 위하여 건너편에 있는 속칭 "사장터"까지를 포함하여 절대 훼손이 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인성지 보존에 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 문제를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 3) 주차장 부지는 무엇보다 먼저 당연히 확보되어야 한다.

(3) 용인 처인성지 시굴조사 결과에 대한 조사단의 의견

- 1)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 산43번지 일원에 있는 처인성지에 대하여 1999년 9월과 10월에 걸쳐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조사되었습니다.

① 처인성지는 둘레 약 350m의 구릉의 선단부를 이용한 토축 성벽을 구축한 것으로, 성벽은 서남쪽의 당초 문터였다가 보수된 곳을 조사하였다. 시굴 결과 성벽은 경사면을 이용하여 기등을 세우고 판축(版築)되었으며, 판축된 성벽은 중심토루의 너비가 4.3m이고, 현존한 성벽은 너비 5.6m~5.9m의 범위가 된다. 특히 문터로 여겨지는 부분은 거대한 규모의 기둥 구덩이 중심간 간격 4.7m로 대청을 이루며 존재하고 있어서, 초석이 없는 굴립주(掘立柱)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문구부의 길이는 9m에 달하였다고 판단된다.(이 부분은 당시 대략적인 일지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하여 수치에 차이가 있다. 이후 실측도면을 작성한 것에 의하여 보고서가 작성 되었다)

② 성의 내부 5개 지점에 10m 사방의 규모로 시굴구덩을 설정하여 조사한 바, 높은 위치에서는 표토 아래에 별다른 유구가 없으나, 낮은 위치는 생토면에 마련된 유구와 그 위로 20~100cm의 두께로 유물 포함층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유구와 유물층은 많이 교란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③ 시굴조사를 통하여 예상보다 많고,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당초문이 정교하게 베풀어진 암막새기와는 통일신라 후기까지 연대가 소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주름무늬 작은병과 단선파상문이 시문된 대옹편 등이 이시기와 관련된 유물로 여겨진다. 매우 특징적인 현상은 사각편병과 반구병의 파편이 매우 많이 출토되고 있다. 고급의 유물인 네발 달린 특수용도의 토기편이 출토되고, 개원통보·쇠술편, 철모(鐵鉢)·철제 따비편을 비롯하여 특히 쇠 화살촉과 유심철제대도(有鑿鐵製大刀)가 출토되어 이 성터가 가지는 성격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들과 함께 고려시대의 청자편과 숫돌편, 석제품 조각들이 다양한 유물상을 보여준다.

2) 금번의 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 처인성지의 보존과 정비를 위한 조사단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오니, 처인성지와 관련된 문화재 행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처인성지가 가지는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고자 내방하는 국내의 방문객을 위하여 가장 먼저 성터의 주변에 주차시설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까.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이곳을 찾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소형차의 주차공간마저도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의 확보는 처인성지의 바깥에서 문화재 보호구간인 50m의 거리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처인성지가 있는 능선 전체와 함께 몽고 원수 살리타이를 사살했다는 곳으로 "사장터"가 있으므로, 사장터가 있는 능선 전체까지 포함하여 충분한 공간을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을 보존함으로써 역사적 현장감이 손상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연차적인 토지 구입을 가능한 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

겨집니다.

③ 처인성지에 대하여는 지도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연차적인 발굴이 필요합니다. 향후의 발굴조사는 잔존된 성벽과 성문 등의 시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복원할 수 있도록 하되, 발굴의 시기와 연차적인 발굴의 범위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적인 발굴조사와 정비에는 성벽과 성문에 대하여 약 5년, 성내 유구에 대하여 약 5년 등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의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④ 처인성지와 관련된 주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김윤후와 처인성 싸움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⑤ 처인성지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 교통로마다 지사판이 보강 설치되어야 하겠습니까.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이 쉽게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신설도로나 이설도로를 개설하여 쉽게 찾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망됩니다.

⑥ 처인성지를 국가 사적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차적인 발굴조사와 병행하여 성벽의 원상대로의 복구 방안과 처인성 싸움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가능케 하는 연구가 병행된다면, 국가 사적으로 승격 지정에 유리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반시설과 역사성에 대한 보다 큰 여론의 환기가 요망된다고 생각됩니다.

⑦ 처인성지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협조를 통하여 위의 여러 가지 일들이 보다 손쉽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처인성지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공장의 입주 등에 대하여도 일정한 계획의 일정을 제시하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주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내고장 전통 지키기 운동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3) 이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본 연구소에서는 언제든지 처인성지와 관련하여 시굴조사와 지표조사를 담당한 기관으로서, 시굴조사와 지표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의견 제출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할 것입니다. 끝.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장

사진

여

백



[사진 1] 처인성 항공사진(남쪽에서)



[사진 2] 처인성 항공사진(북쪽에서)



[사진 3] 처인성 항공사진(서북쪽에서)



[사진 4] 처인성 표석 및 시굴조사 안내판



[사진 5] 처인성 남문지 외측 시굴 전 모습



[사진 6] 처인성 남문지 안쪽 시굴전 전경



[사진 7] 처인성 남문지 유구 전경(좌측이 성내)



[사진 8] 처인성 남문지 유구 전경(우측이 성내)



[사진 9] 처인성 남문지 중단면 토층 모습(성밖에서)



[사진 10] 처인성 남문지 성벽 중단면 토층 모습(성밖에서 서측 부분)



[사진 11] 처인성 남문지 성벽 기둥구덩과 토층 모습(성안에서 서측 부분)



[사진 12] 처인성 남문지 성내측 동측벽 판축 토층 모습



[사진 13] 처인성 남문지 성내측 바닥면 모습



[사진 14] 처인성 남문지 성내측 토층과 바닥 모습



[사진 15] 처인성 남문지 성외측 동측벽 토층 모습



[사진 16] 처인성 남문지 성외측 서측벽 토층 모습



[사진 17] 처인성 남문지 문터 바닥 잔존부 전경



[사진 18] 처인성 남문지 문터 외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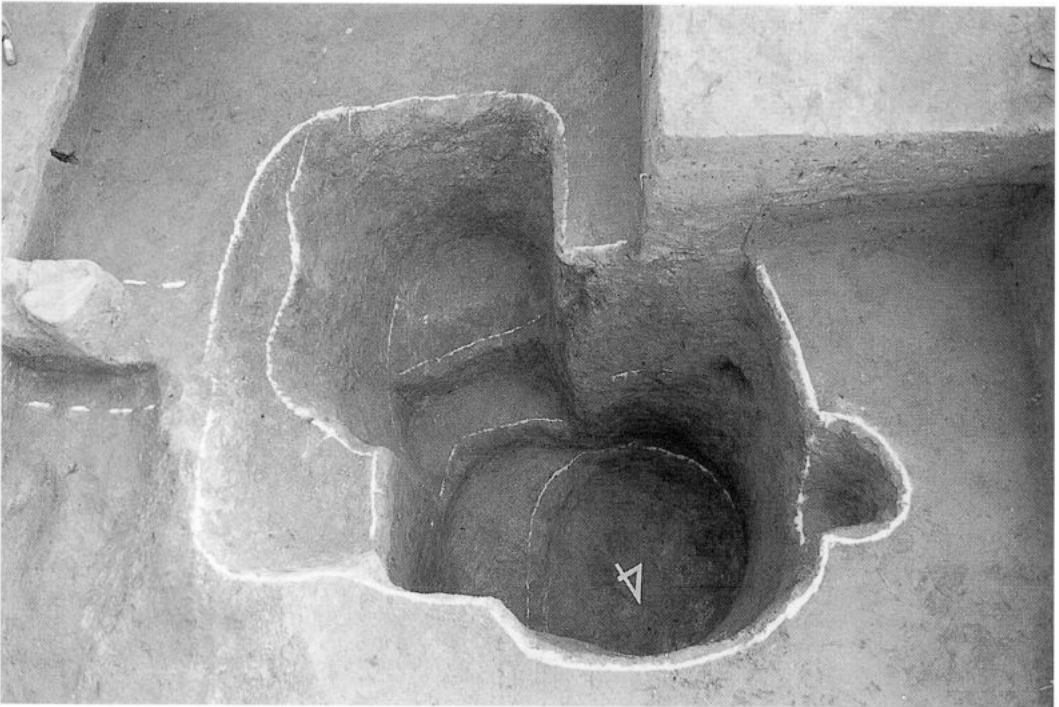
[사진 19] 처인성 남문지 내측 동쪽 판축용 기둥구덩 모습



[사진 20] 처인성 남문지 내측 서쪽 기둥구덩과 판축토루 모습



[사진 21] 처인성 남문지 내측 서쪽 기둥구덩과 중간 기둥 사이의 판축층 모습



[사진 22] 처인성 남문지 내측 서쪽 기둥구덩 세부 모습



[사진 23] 처인성 남문지 내측 동쪽 기둥구덩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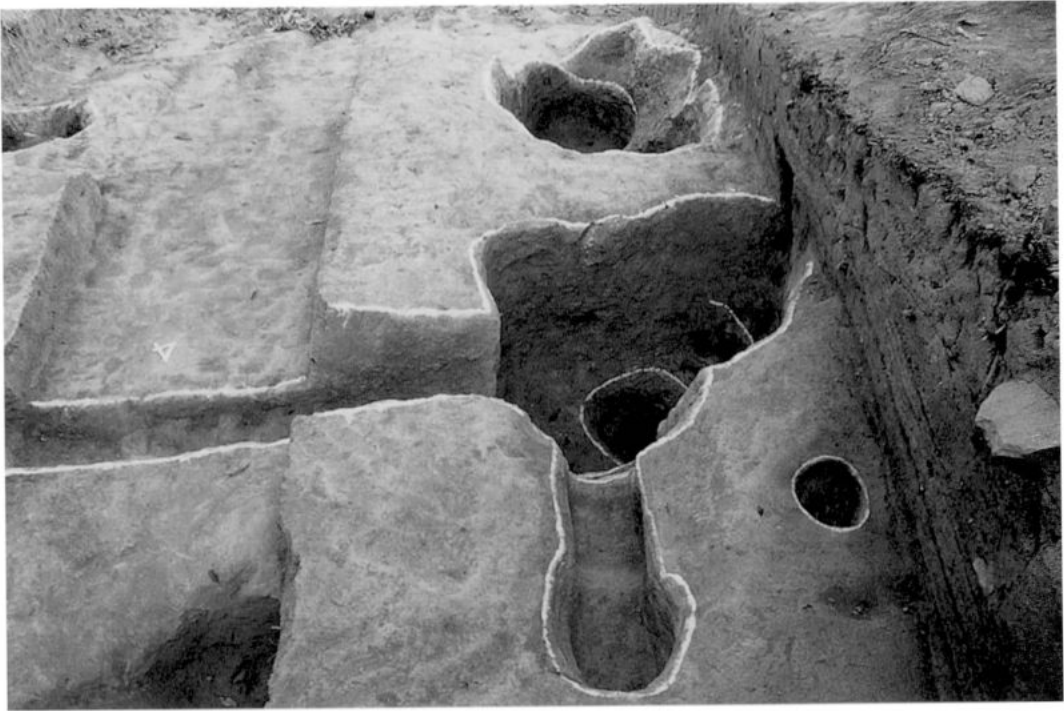
[사진 24] 처인성 남문지 내측 동쪽 판축용 기둥구덩과 내측 한계 담장 유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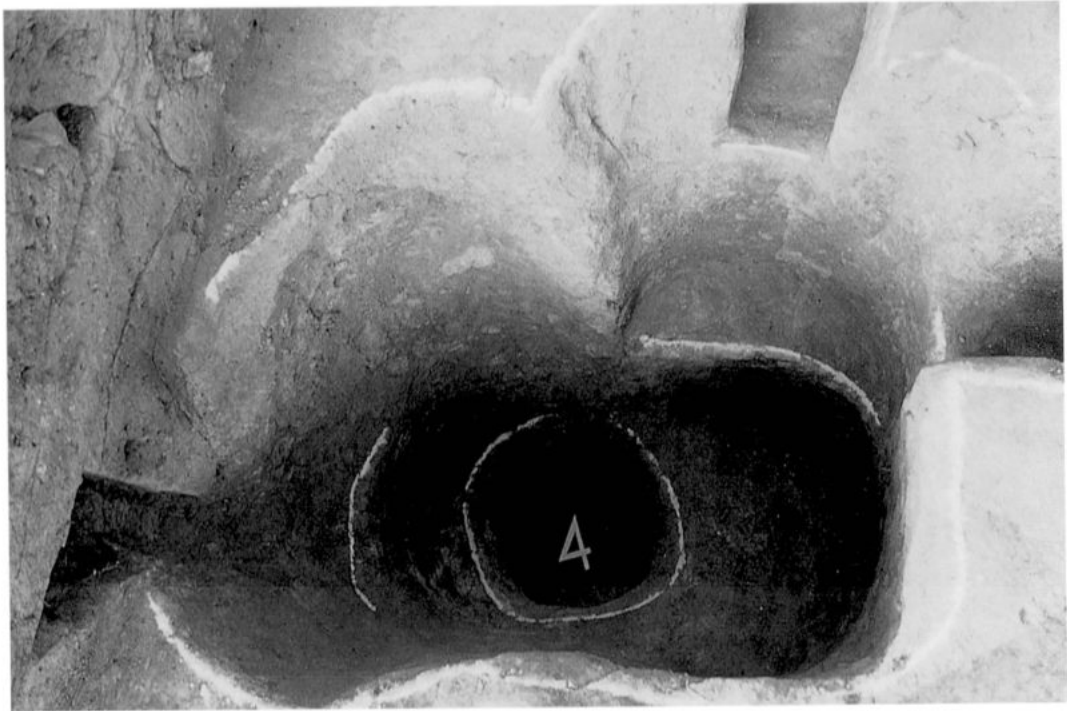
[사진 25] 처인성 남문지 바깥 기둥구덩 전경(성 안쪽에서 봄)



[사진 26] 처인성 남문지 바깥 기둥구덩 동측 부분 전경



[사진 27] 처인성 남문지 바깥 기둥구덩 서측 부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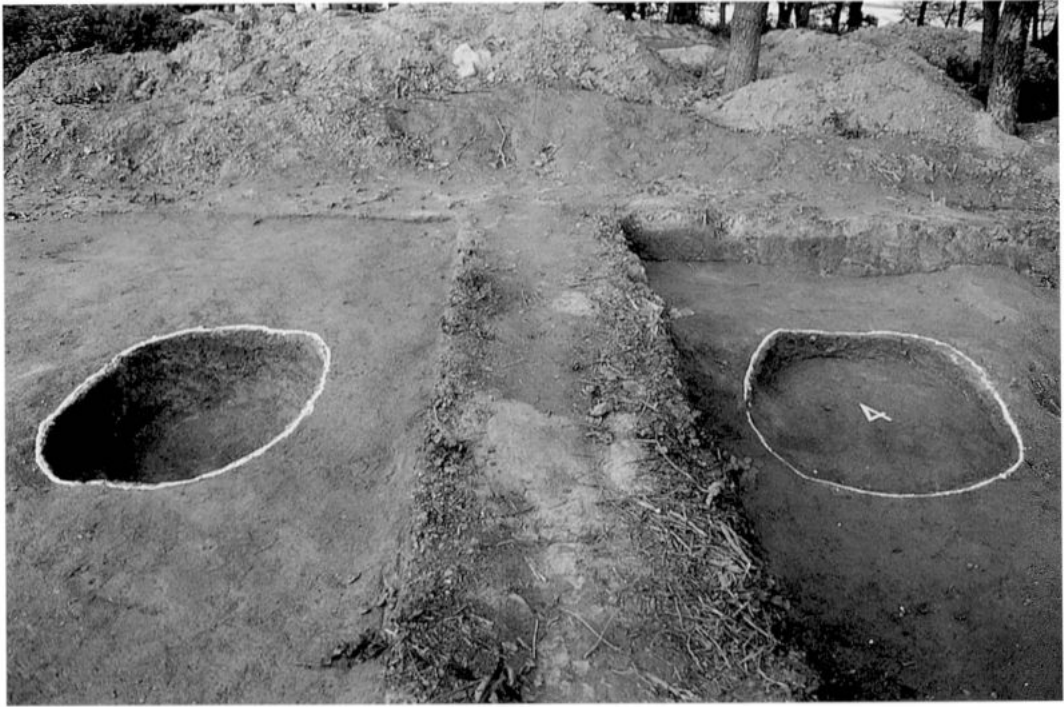
[사진 28] 처인성 남문지 바깥 동쪽 기둥구덩 세부 모습



[사진 29] 처인성 남문지 바깥 서쪽 기둥구덩 세부 모습



[사진 30] 처인성 남문지 문터 외측 기둥구덩 세부 모습



[사진 31] 처인성 남문지 안쪽 대지의 저장구덩 모습



[사진 32] 처인성 99-2 시굴구덩 전경(동쪽에서)



[사진 33] 처인성 99-3 시굴구덩 전경(남쪽에서)



[사진 34] 처인성 99-3 시굴구덩 전경(서쪽에서)



[사진 35] 처인성 99-3 시굴구덩 저장유구 전경



[사진 36] 처인성 99-3 시굴구덩 저장유구 세부 모습



[사진 37] 처인성 99-3 시굴구덩 북서쪽 토층 모습



[사진 38] 처인성 99-4 시굴구덩 동쪽 토층 모습



[사진 39] 처인성 99-4 시굴구덩 유구 전경(북쪽에서)



[사진 40] 처인성 99-4 시굴구덩 유구 전경(서쪽 높은 곳)



[사진 41] 처인성 99-4 시굴구덩이 고려시대 온돌유구 전경(동쪽에서)



[사진 42] 처인성 99-5 시굴구덩이 전경(남쪽에서)



[사진 43] 처인성 99-5 시굴구덩 서쪽 퇴적 토층 모습(동쪽에서)



[사진 44] 처인성 승첩기념 김윤후 추모제 거행 모습



[사진 45] 처인성 시굴조사 지도위원회 모습



[사진 46] 처인성 시굴조사 지도위원회 유물 공개 모습



[사진 47] 처인성 시굴조사 지도위원회 남문지 유구 관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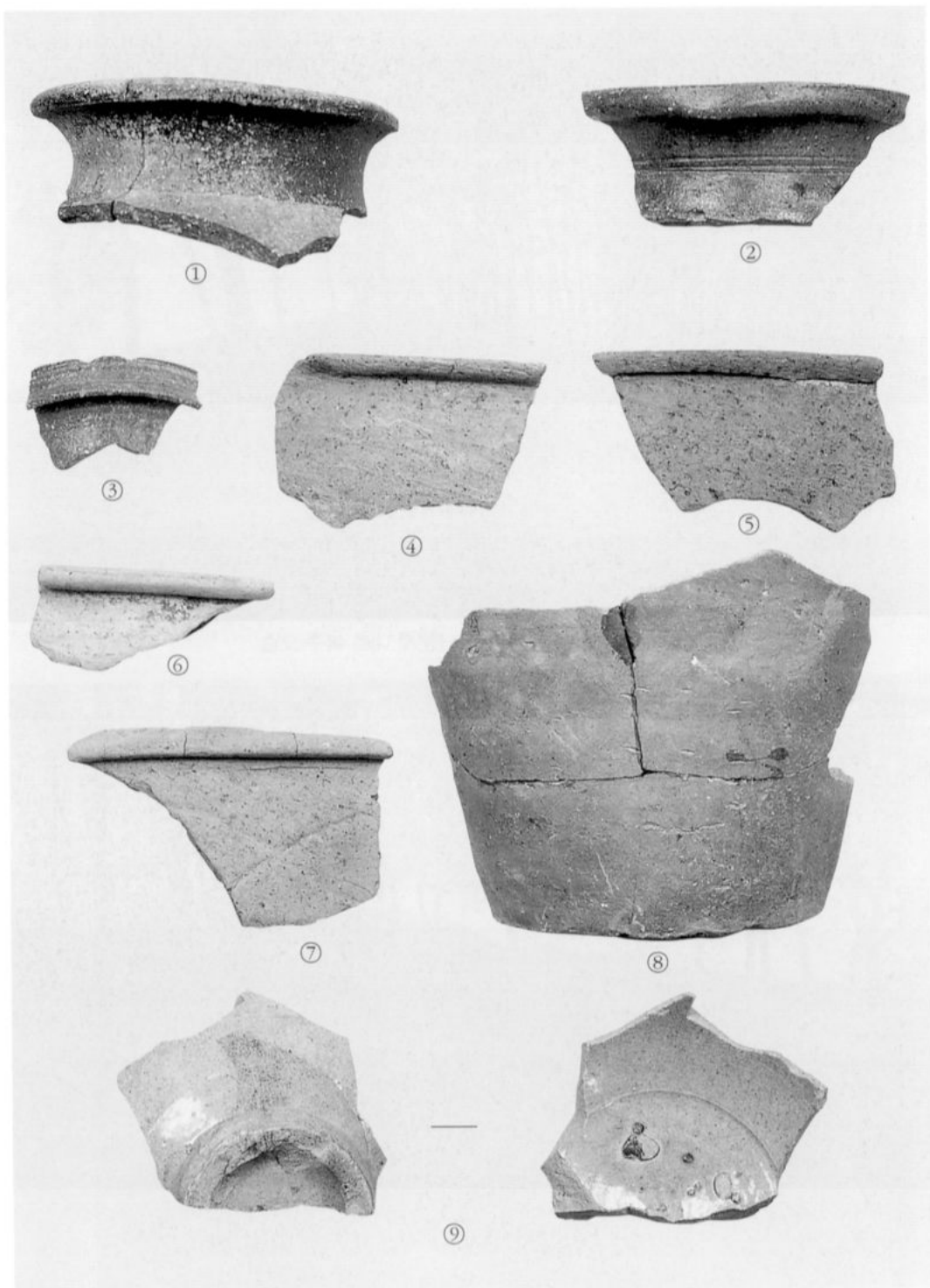
[사진 48] 처인성 시굴 후 남문지 외측 복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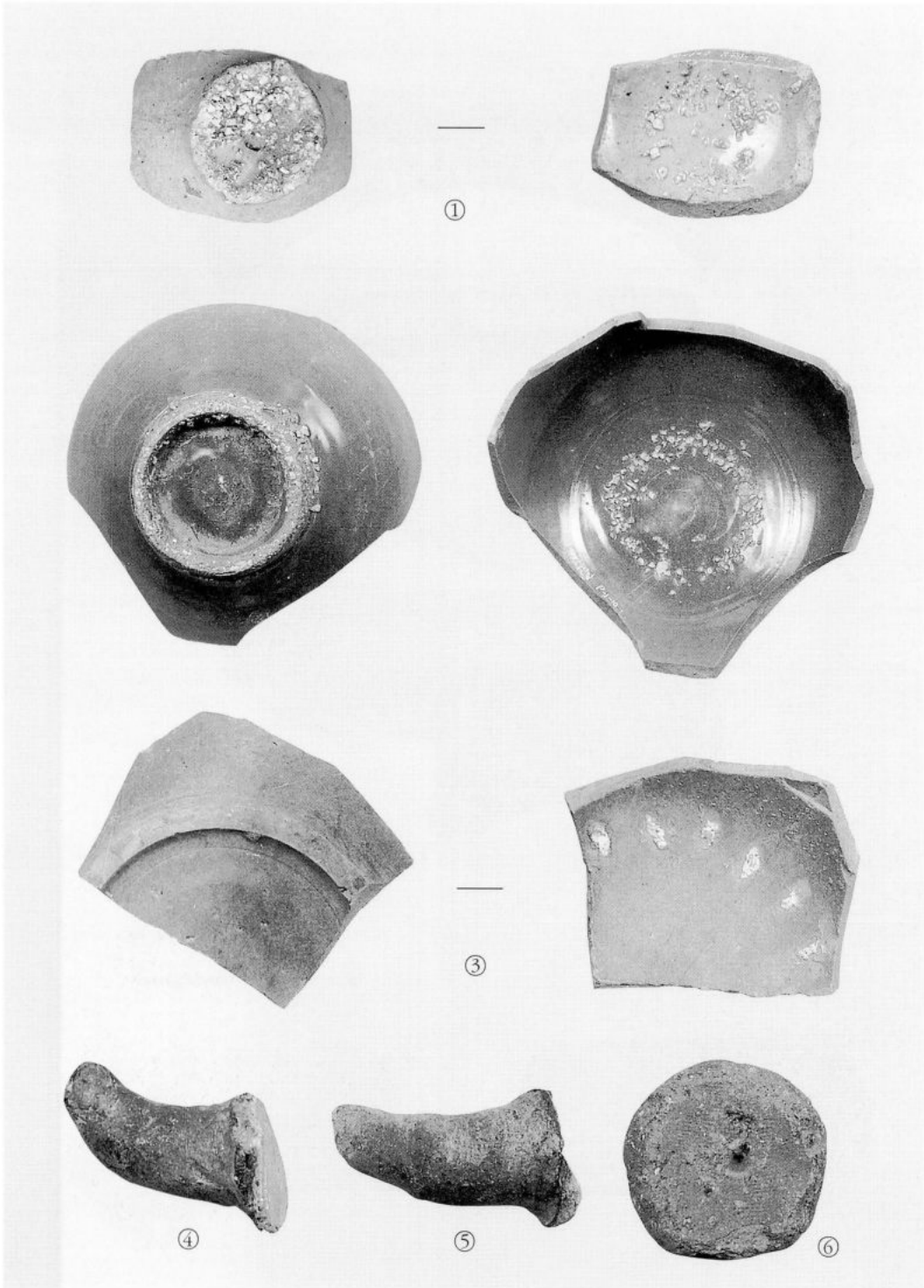
[사진 49] 처인성 시굴 후 남문지 내측 복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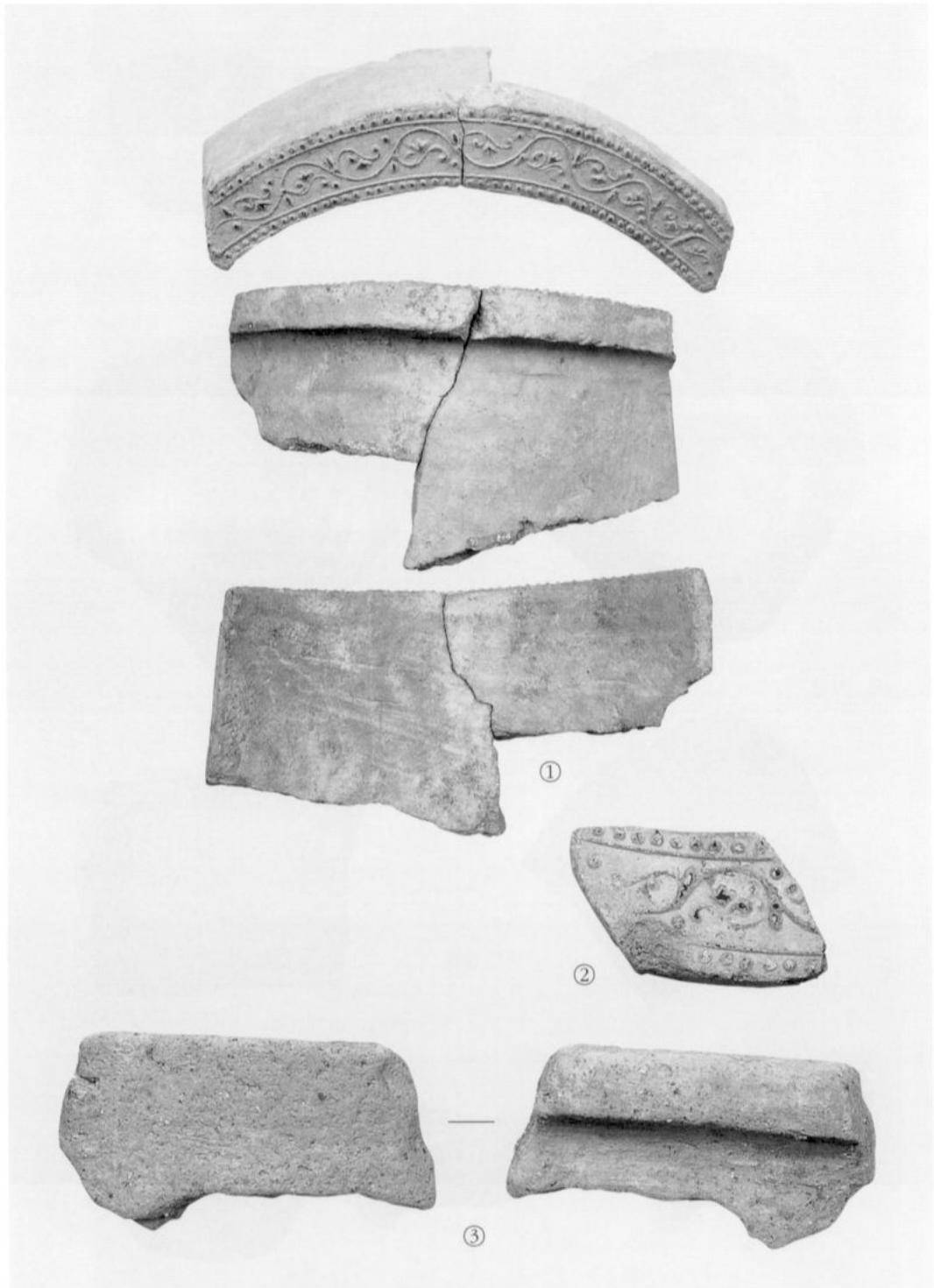
[사진 50] 처인성 시굴 후 내부 시굴구덩 복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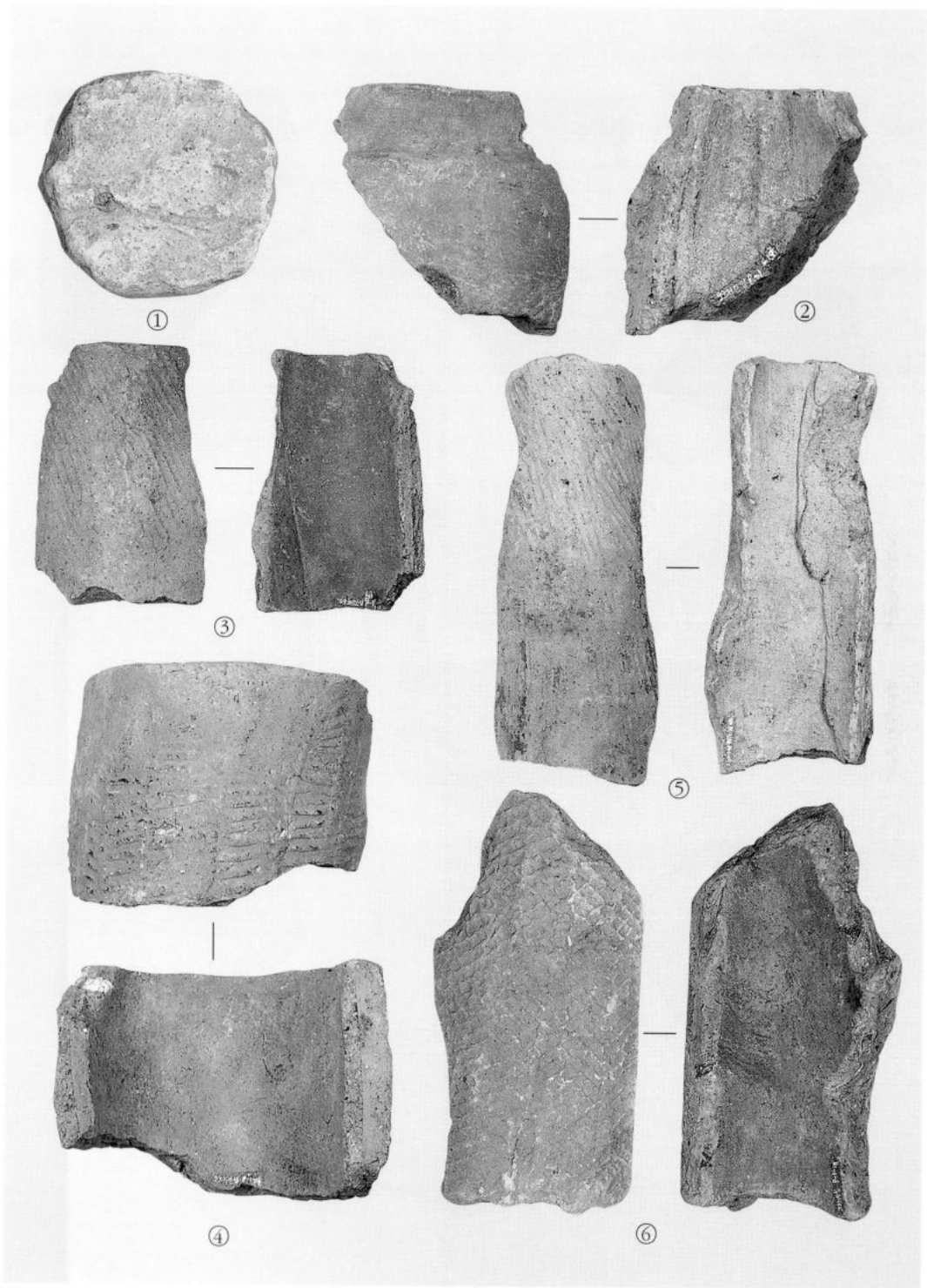
[사진 51]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유물 토도자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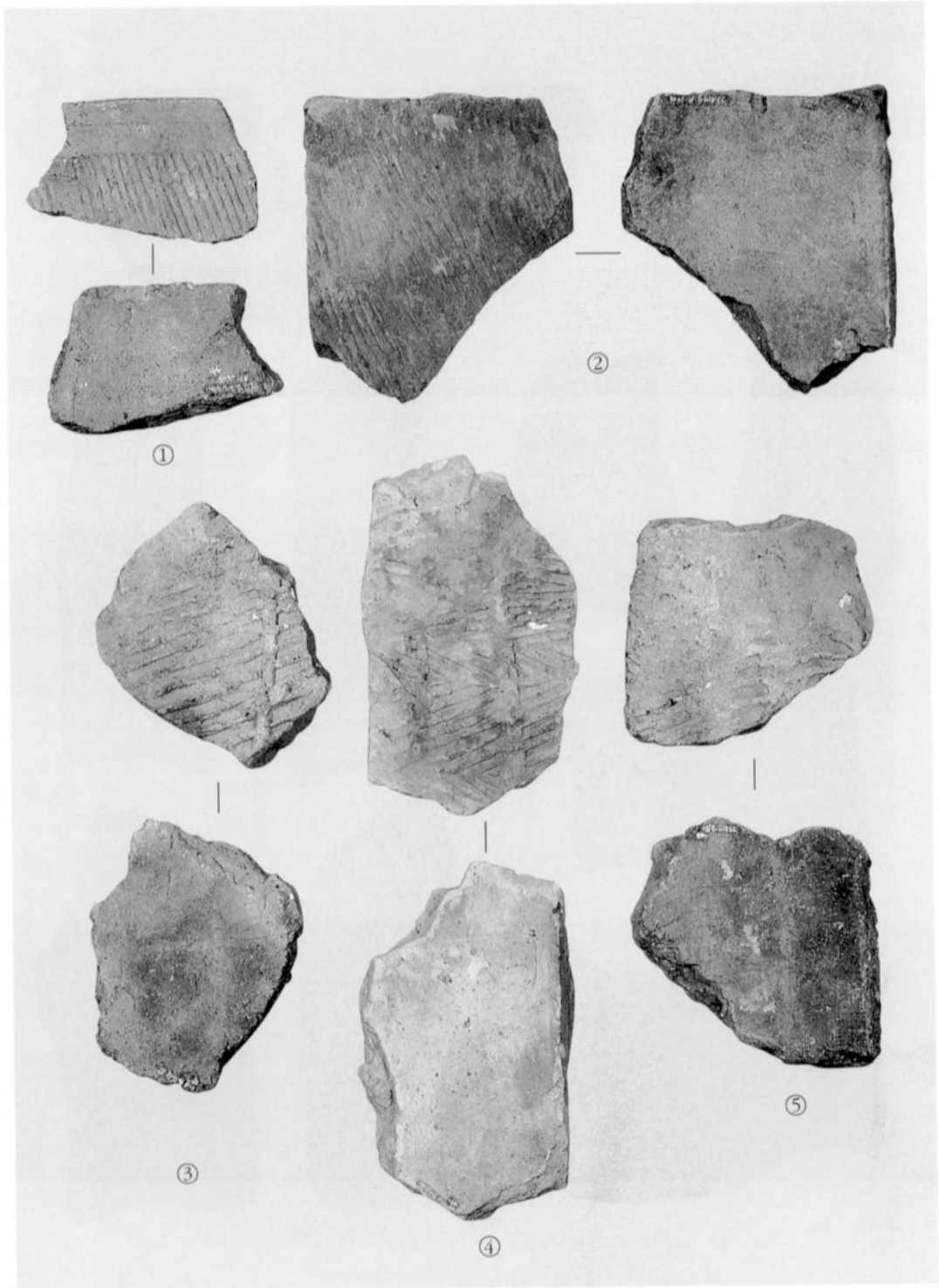
[사진 52]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유물 자기·손잡이·원형 와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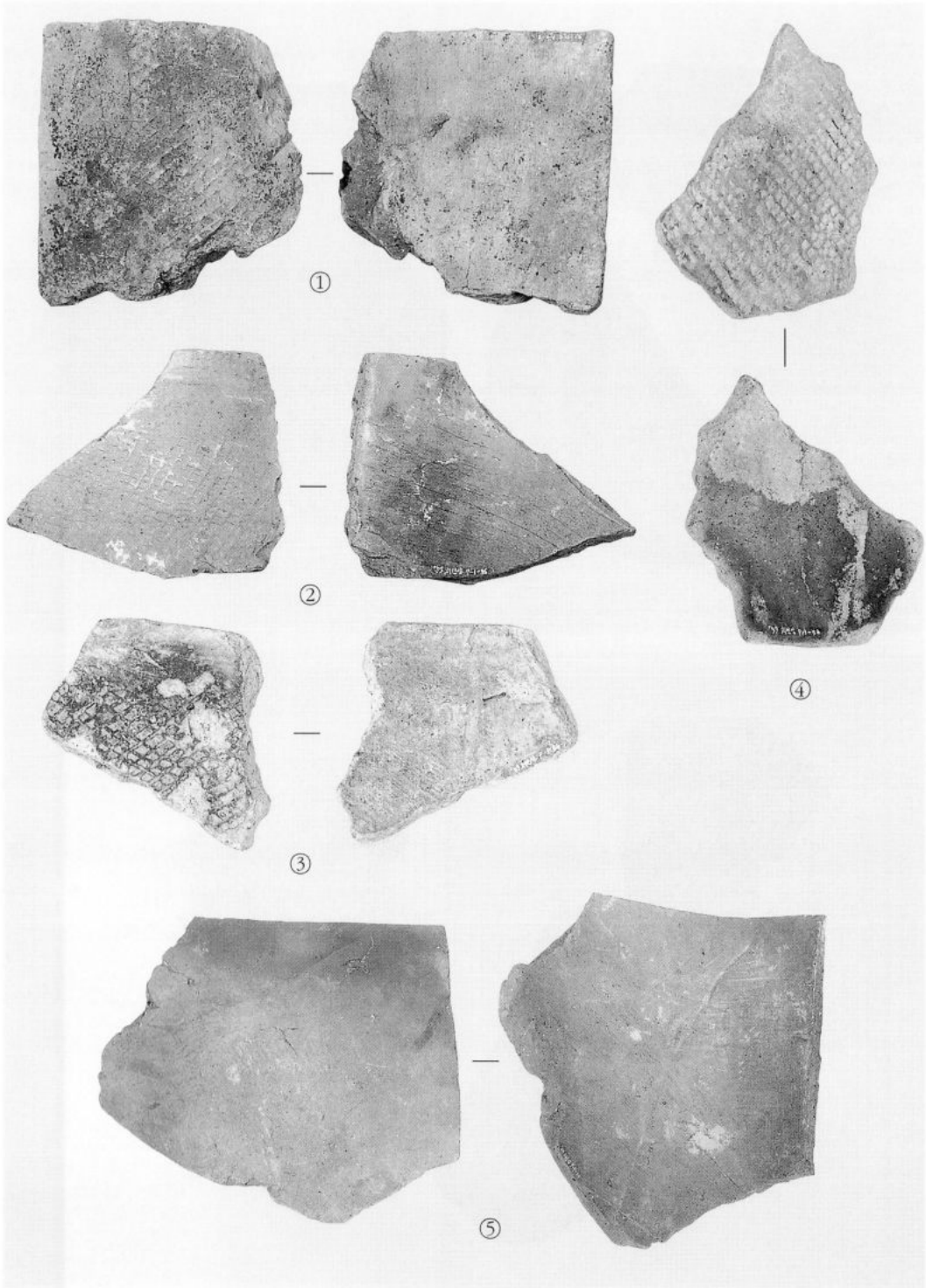
[사진 53]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유물 암막새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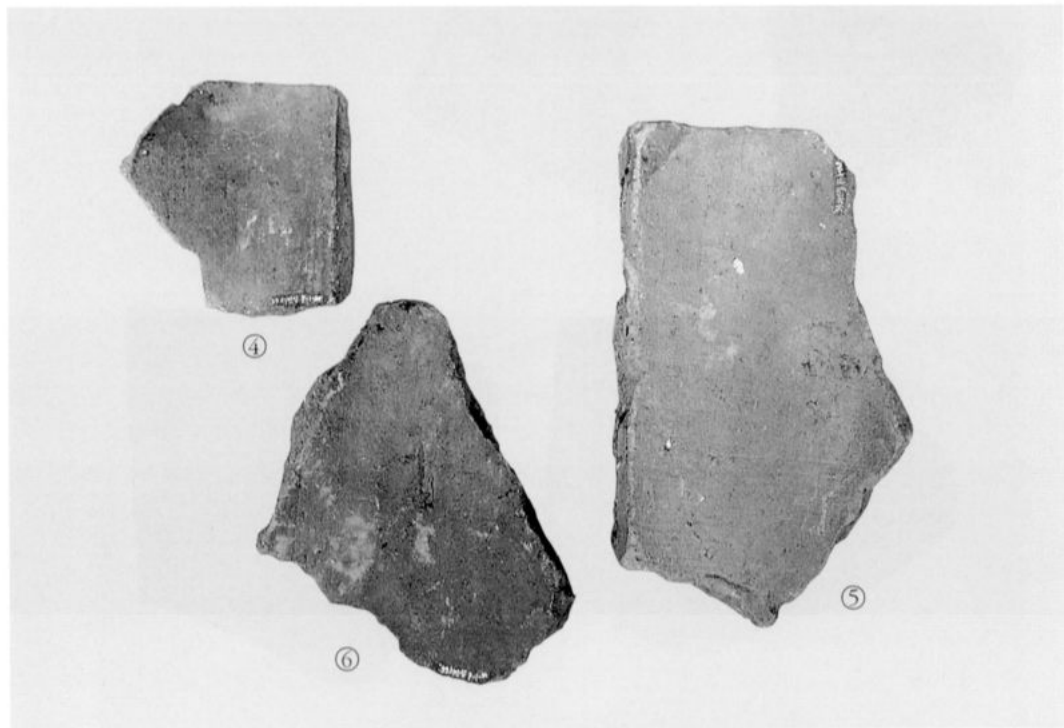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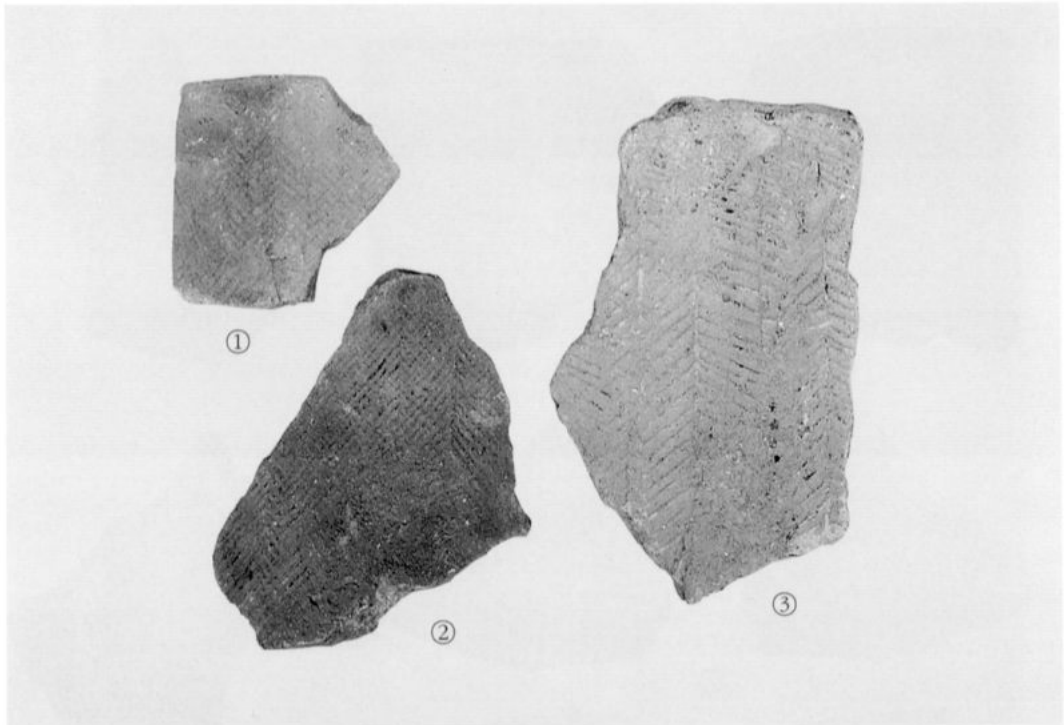
[사진 54]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유물 원형와제품·수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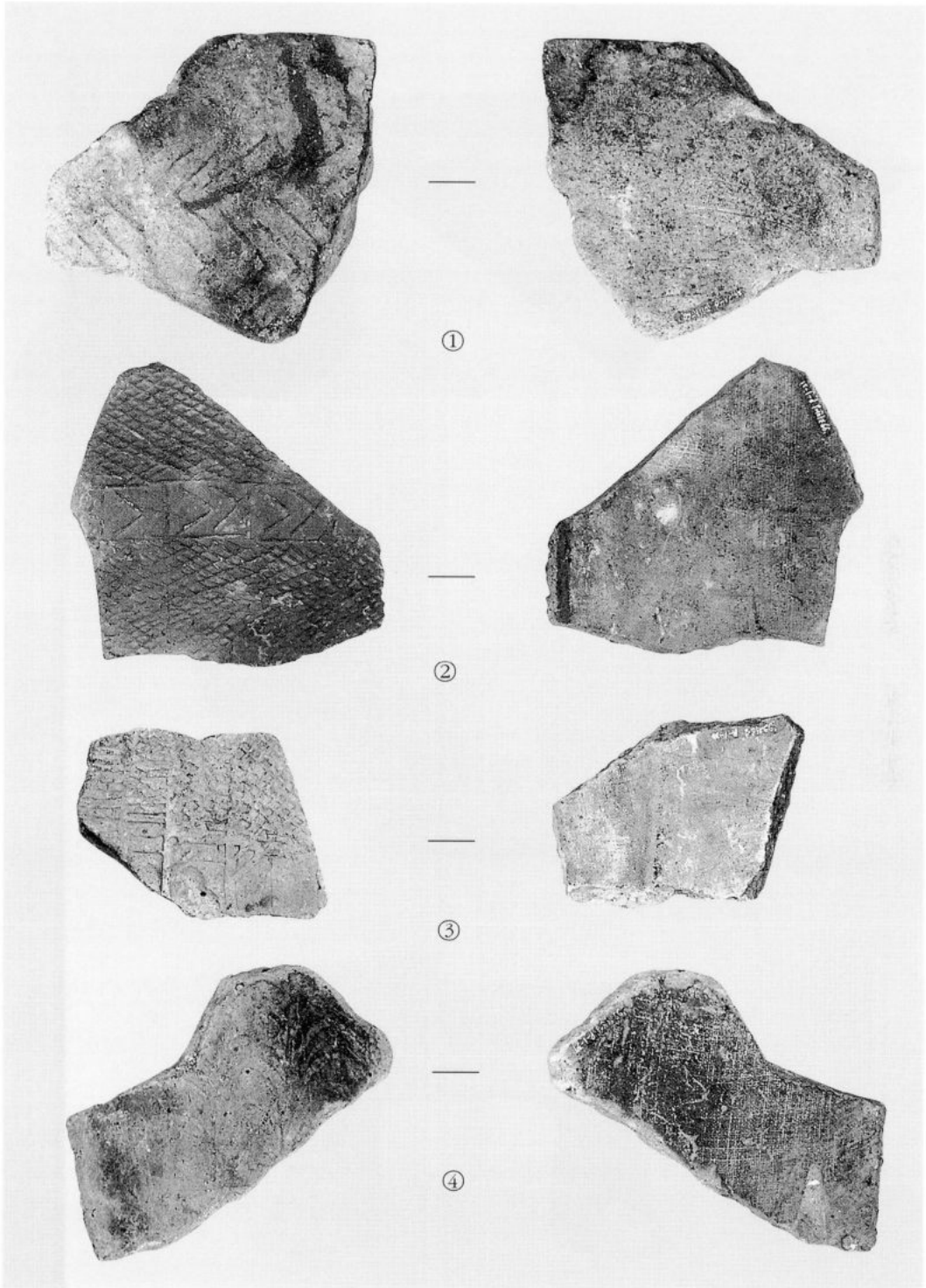
[사진 55]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유물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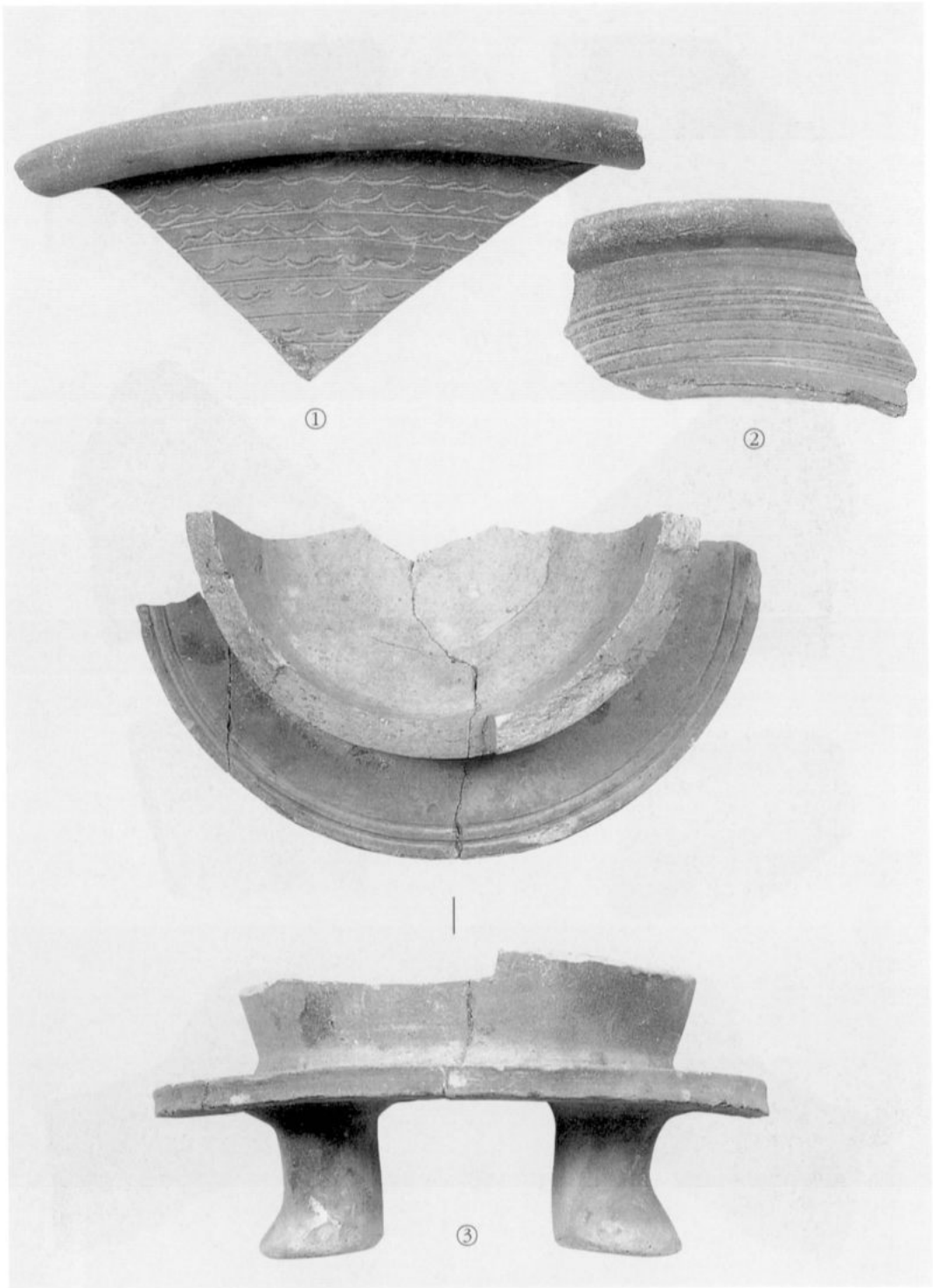
[사진 56]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유물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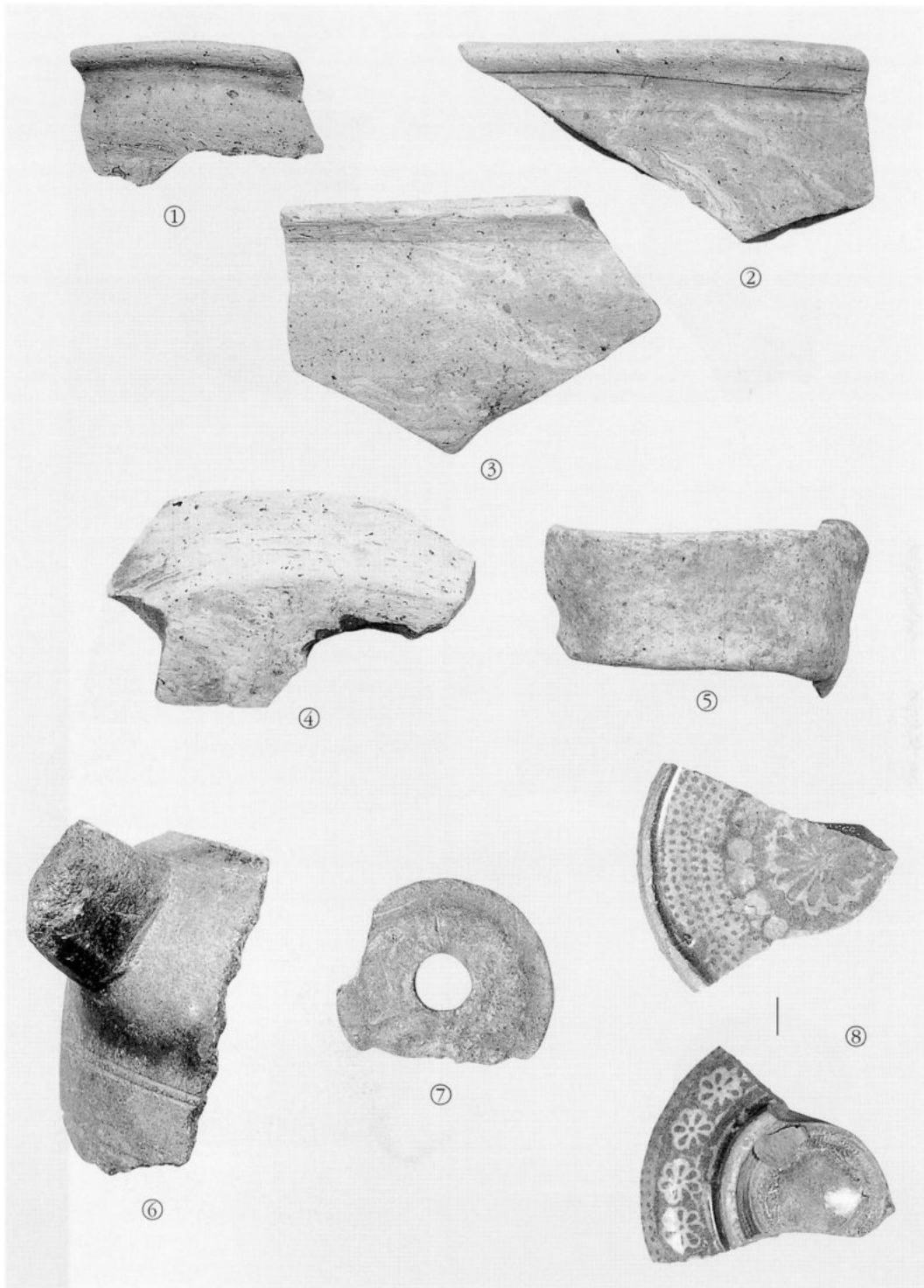
[사진 57]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유물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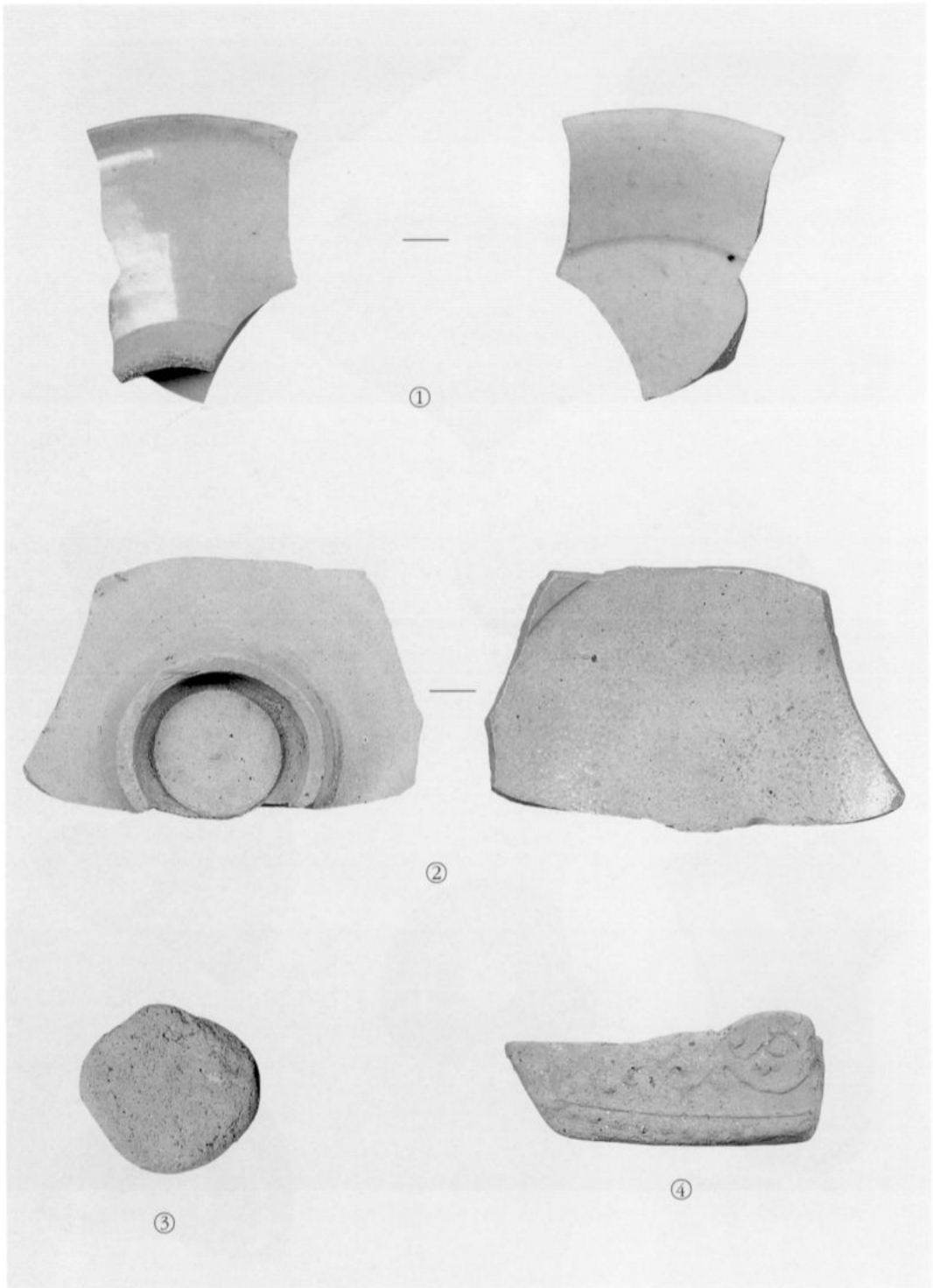
[사진 58] 처인성 시굴구덩 1·2 출토유물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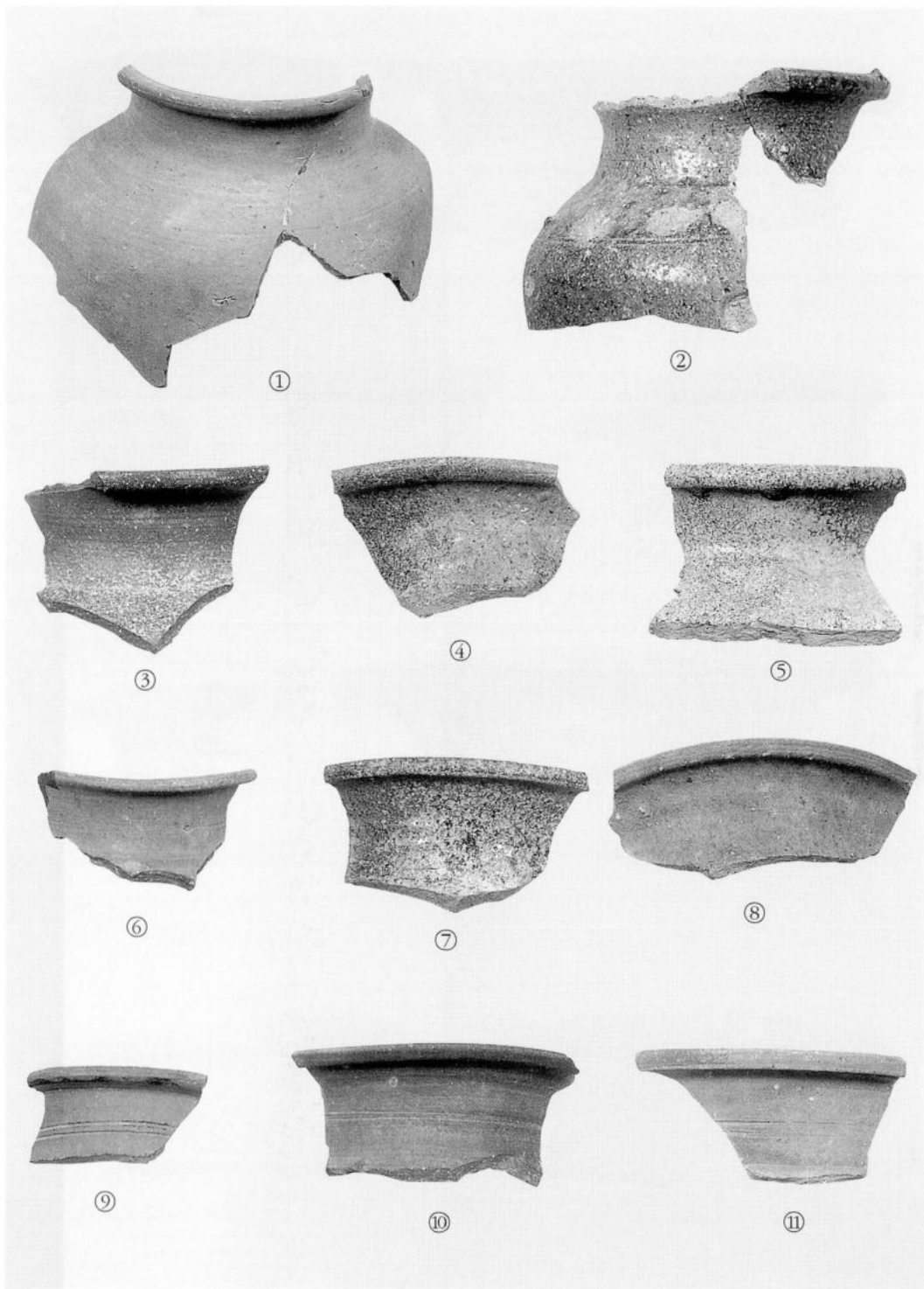
[사진 59] 처인성 시굴구덩 3 출토유물 도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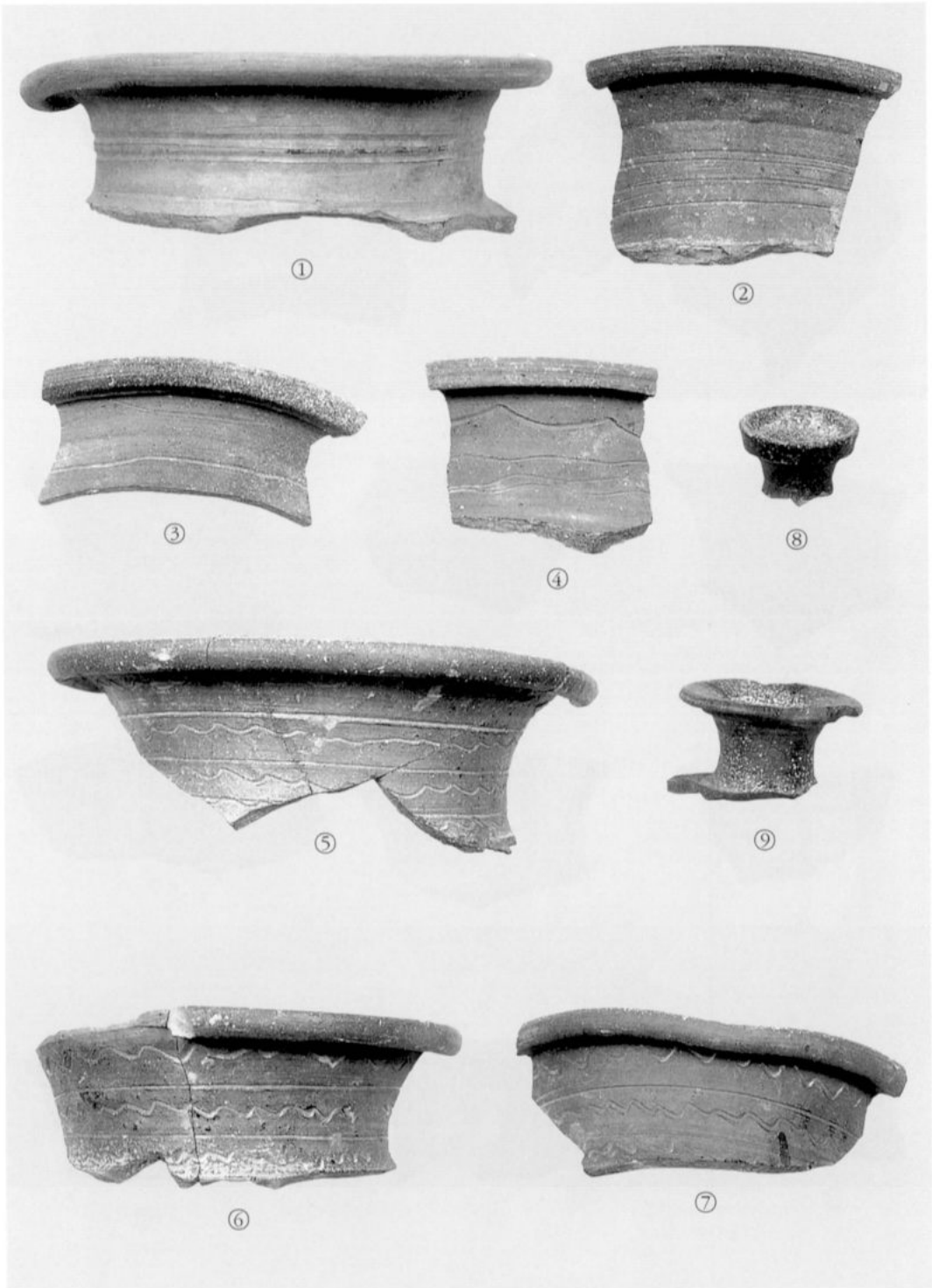
[사진 60] 처인성 시굴구덩 3 출토유물 토도기·석기·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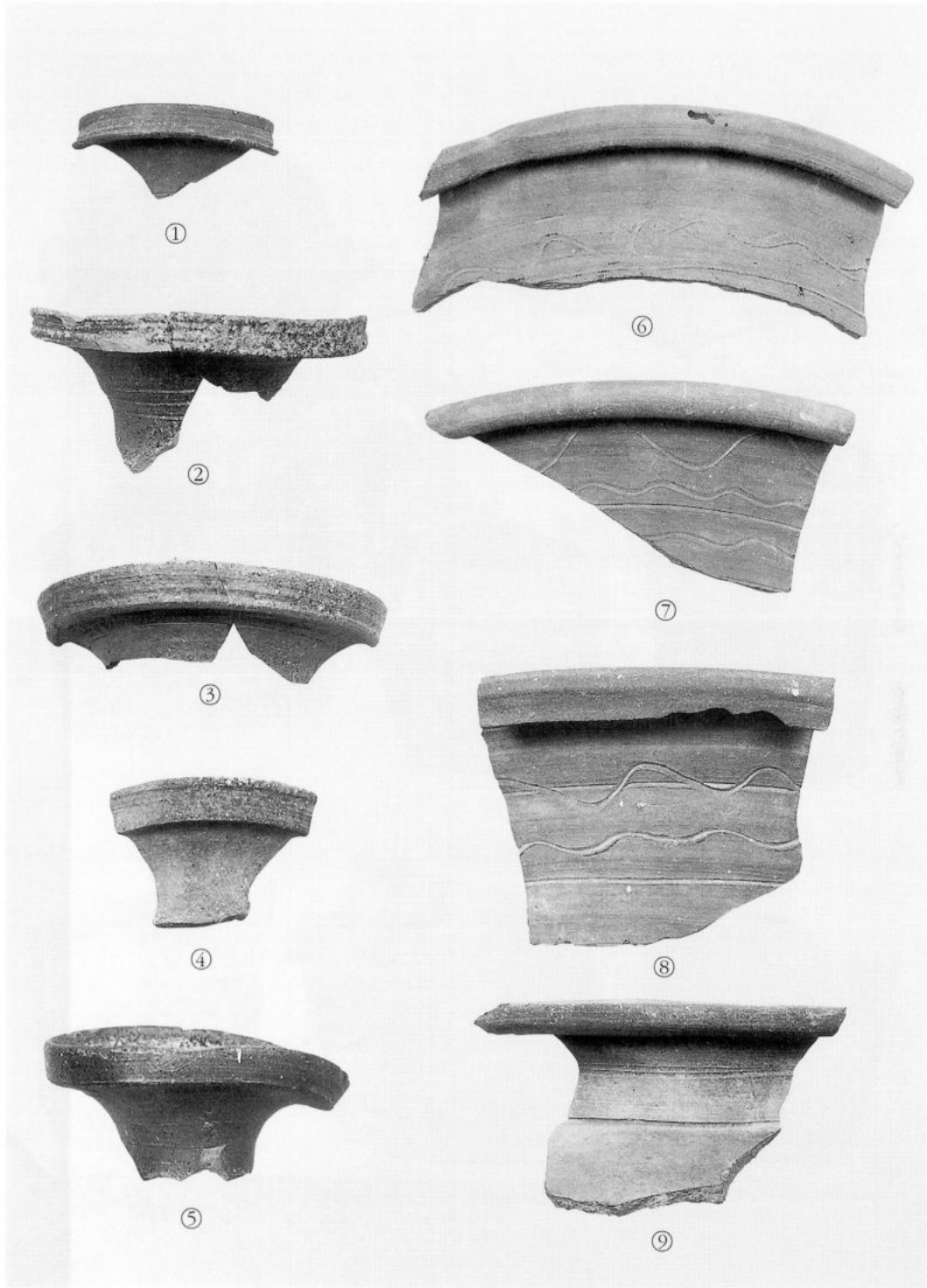
[사진 61] 처인성 시굴구덩 3 출토유물 자기 · 원형 와제품 · 암막새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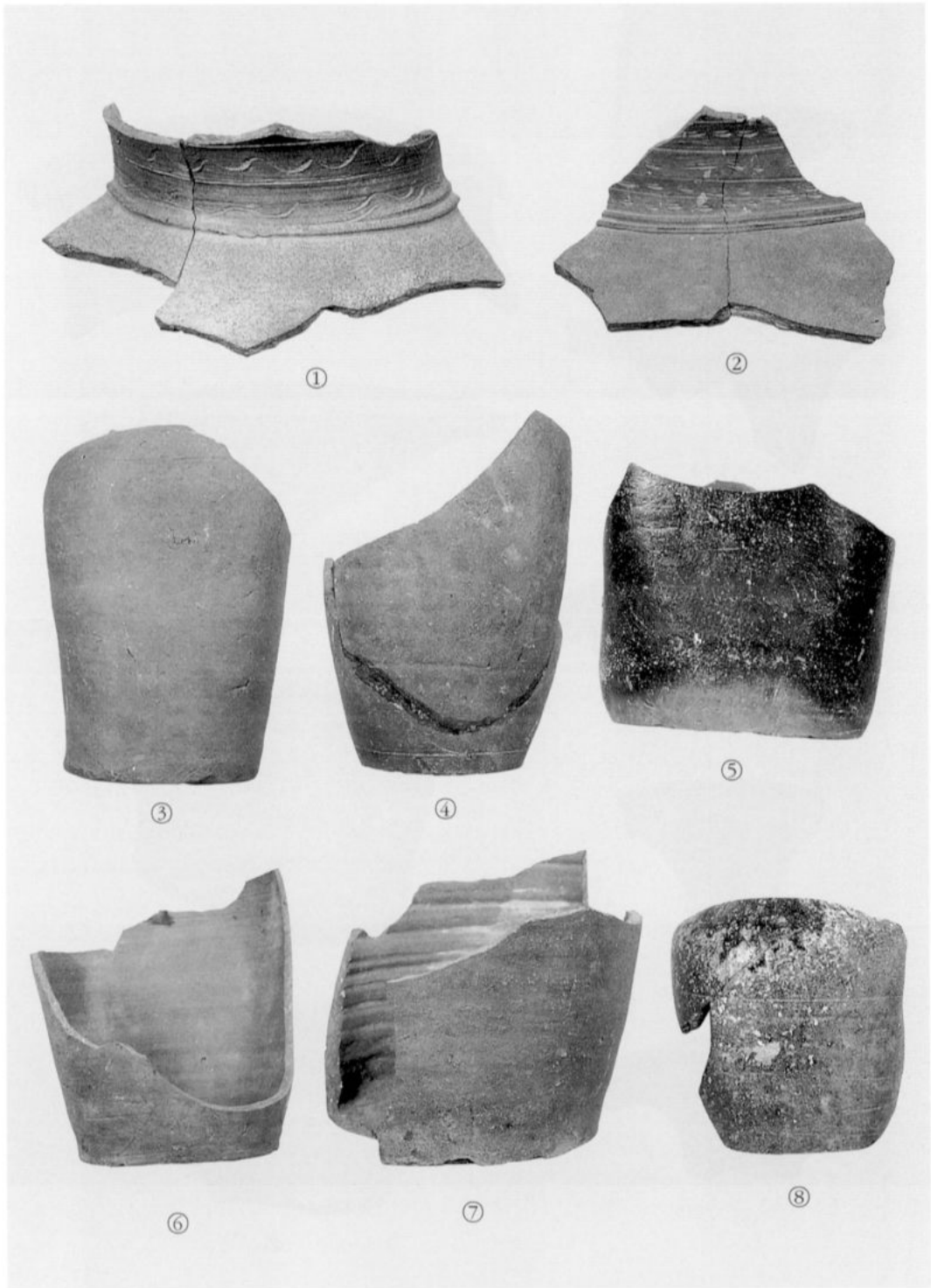
[사진 62]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구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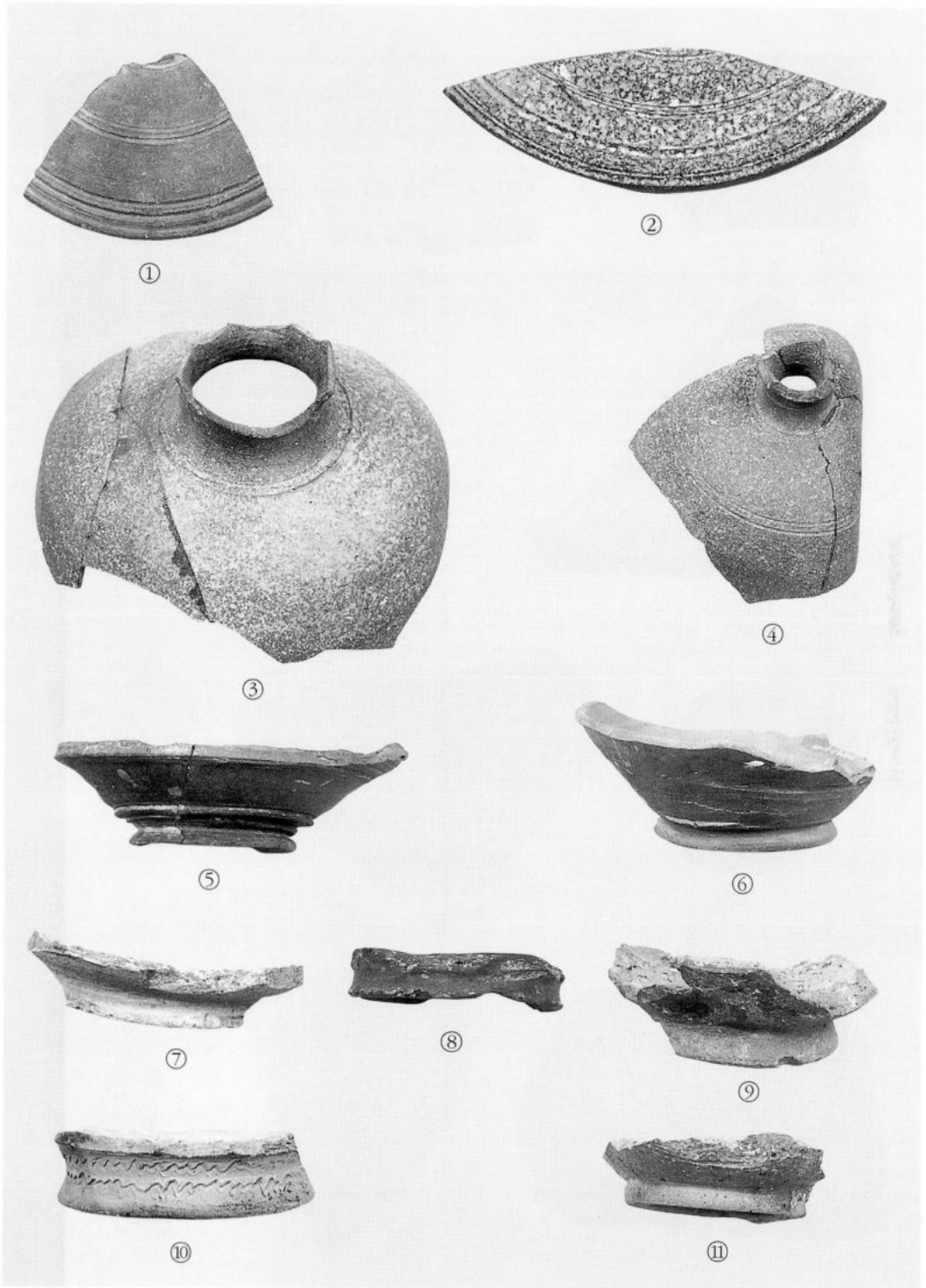
[사진 63]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구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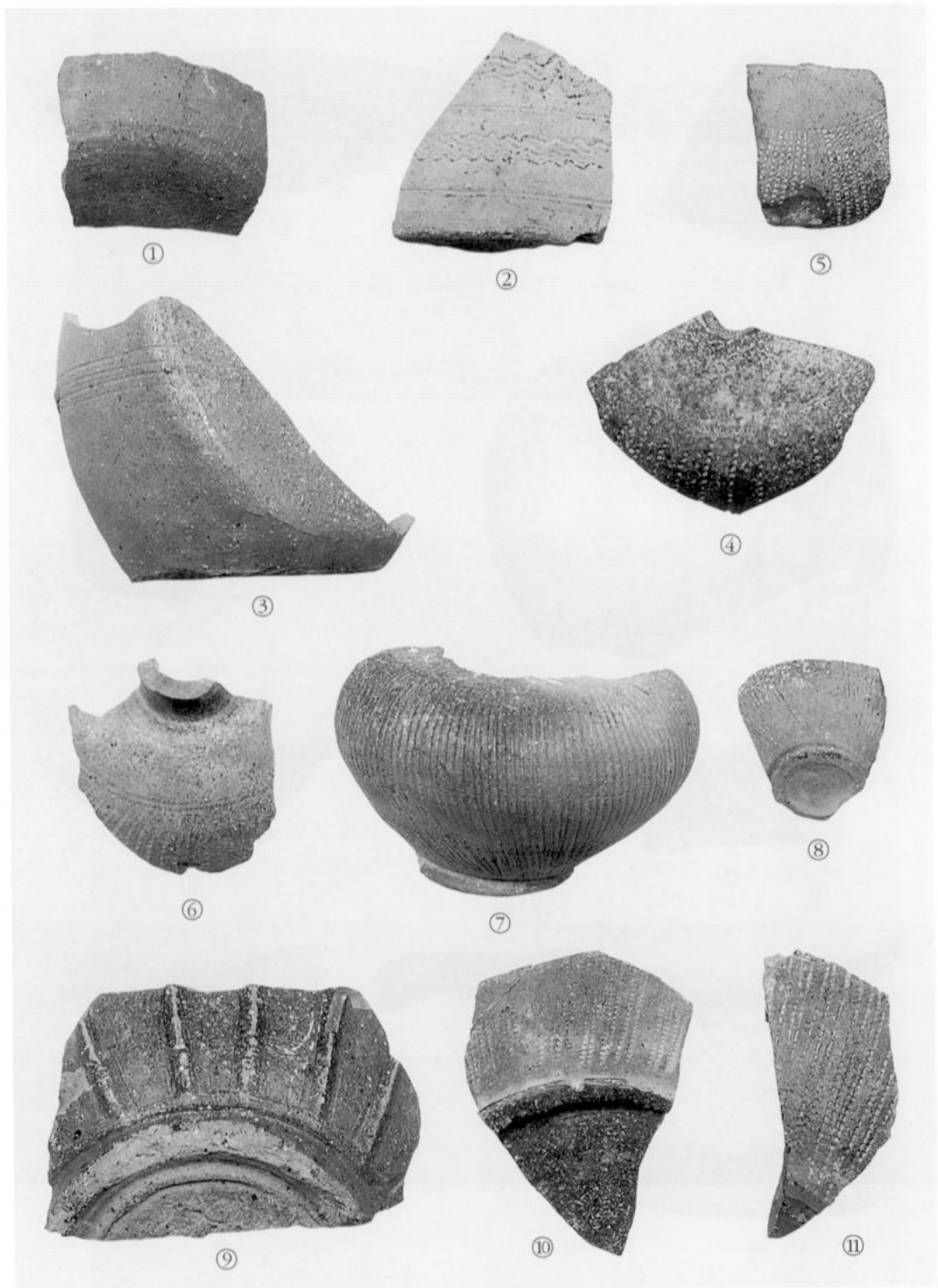
[사진 64]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구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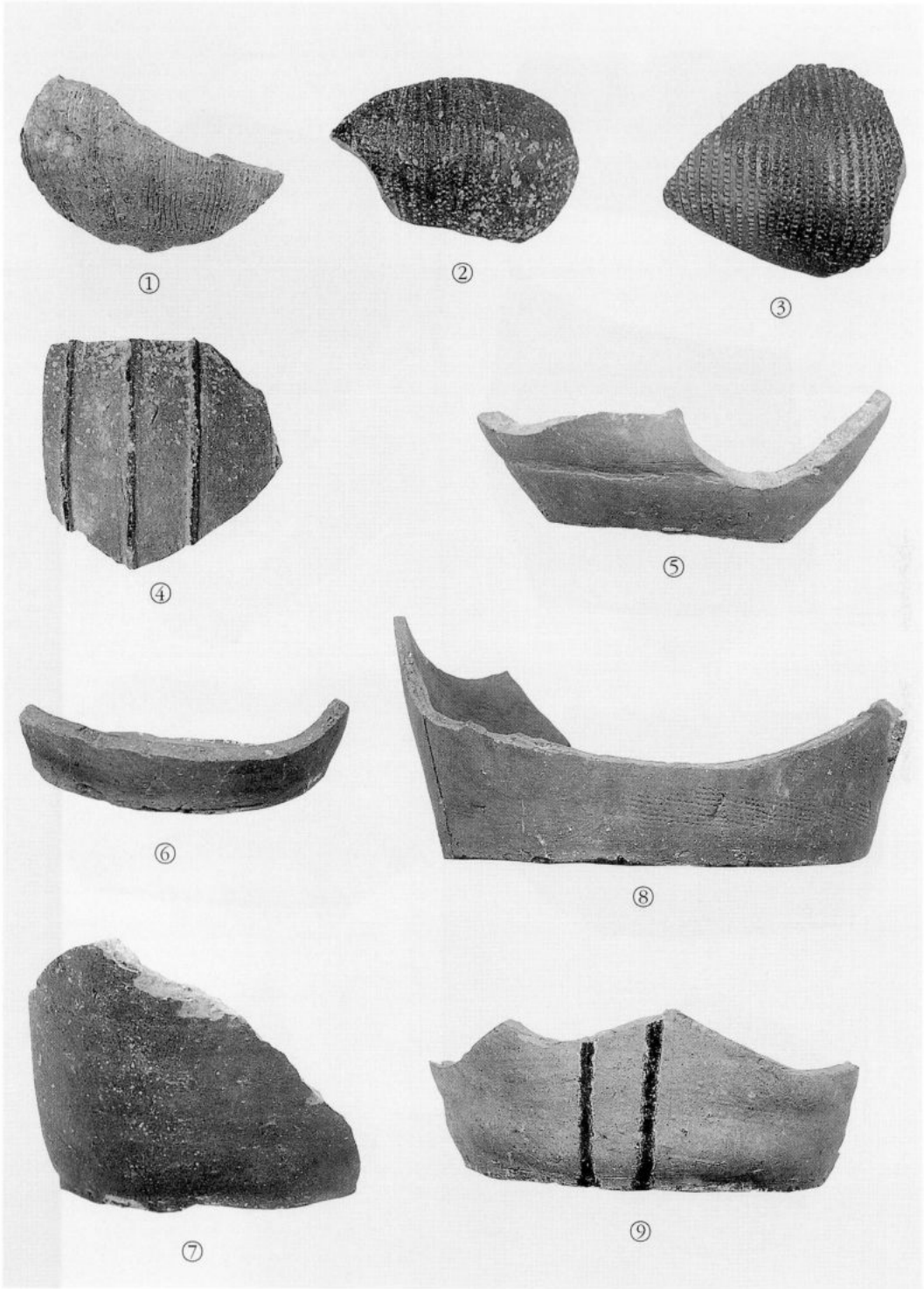
[사진 65]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구연부 · 사면편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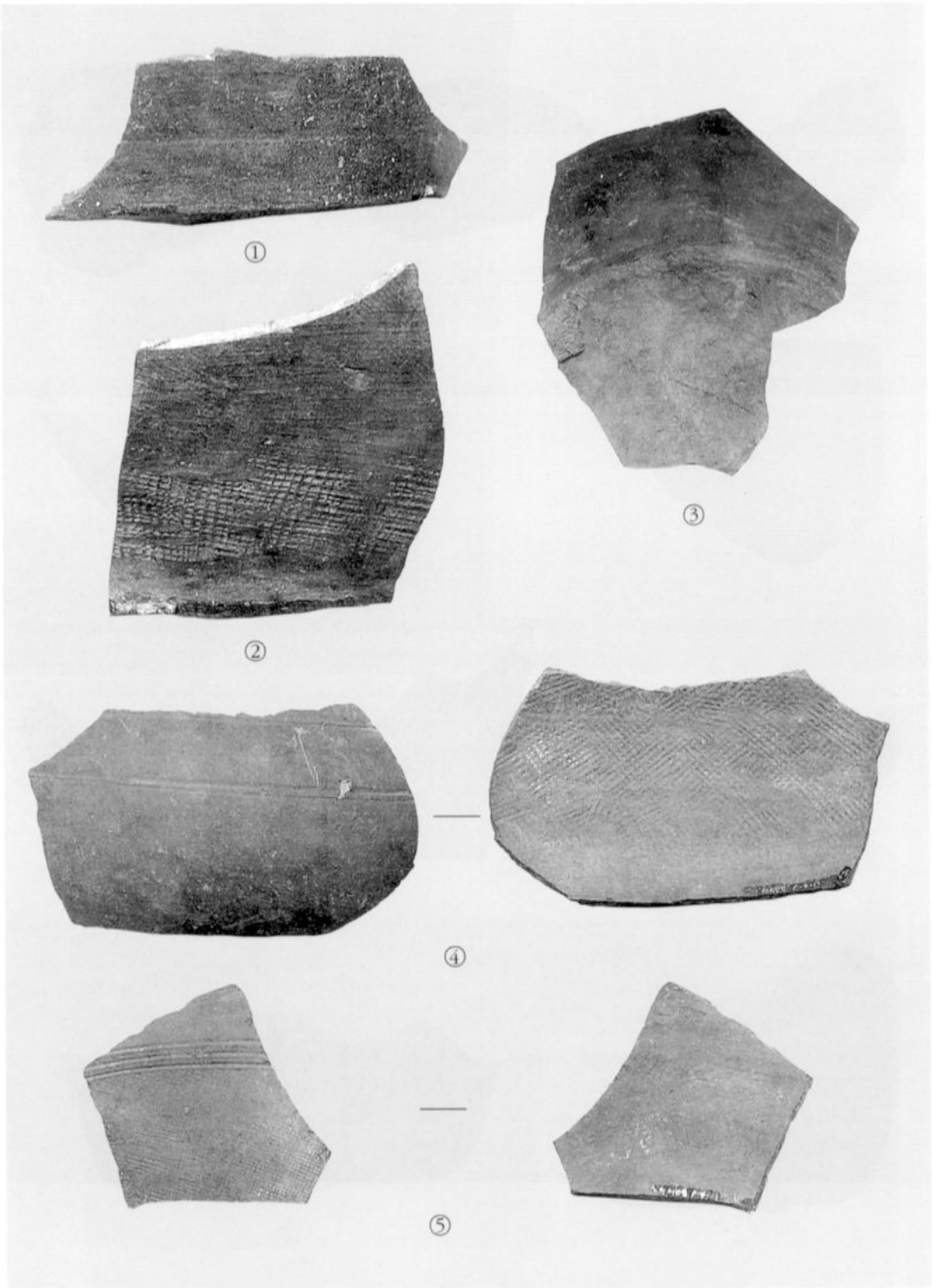
[사진 66]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뚜껑·병·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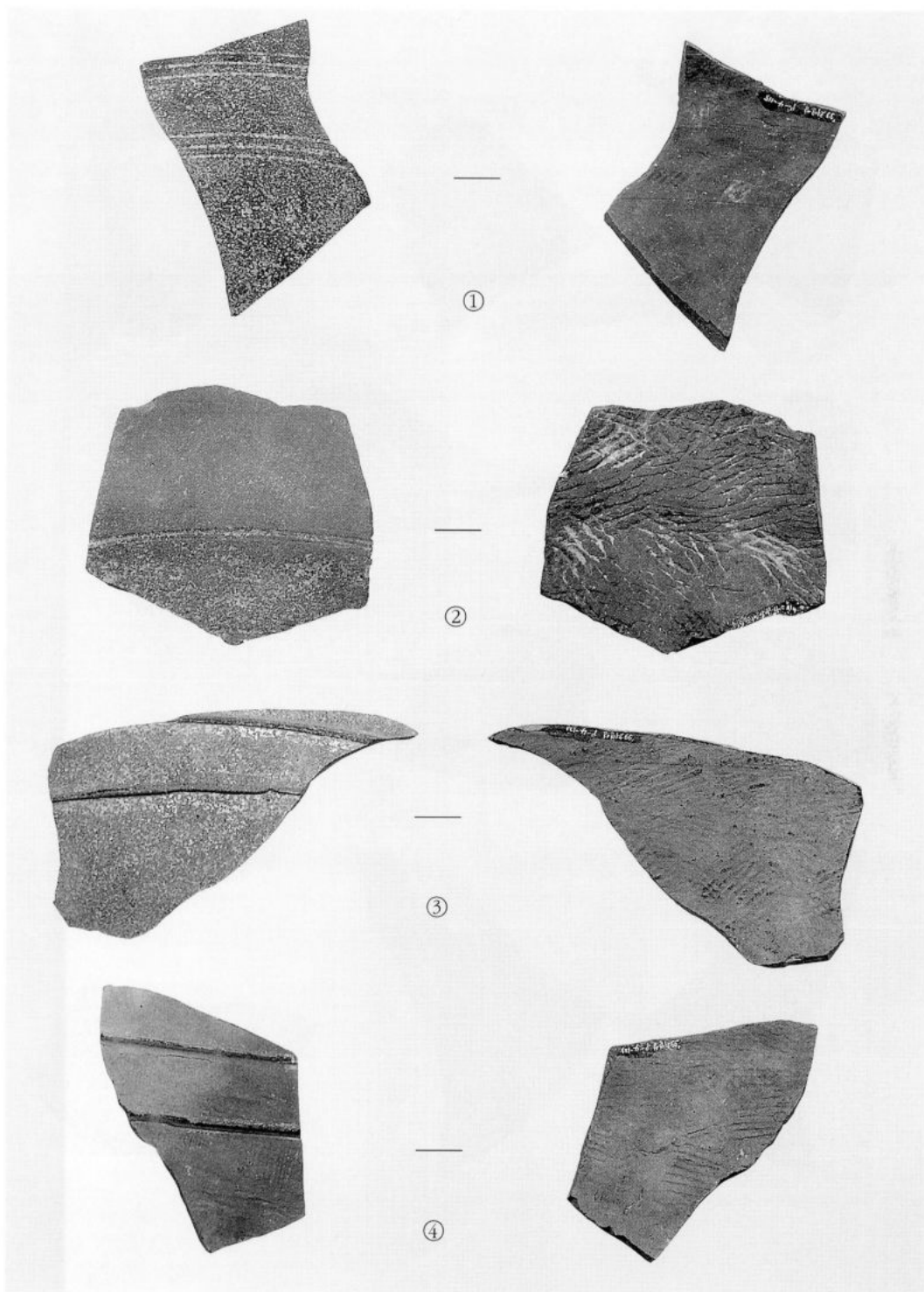
[사진 67]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저부 및 주름무늬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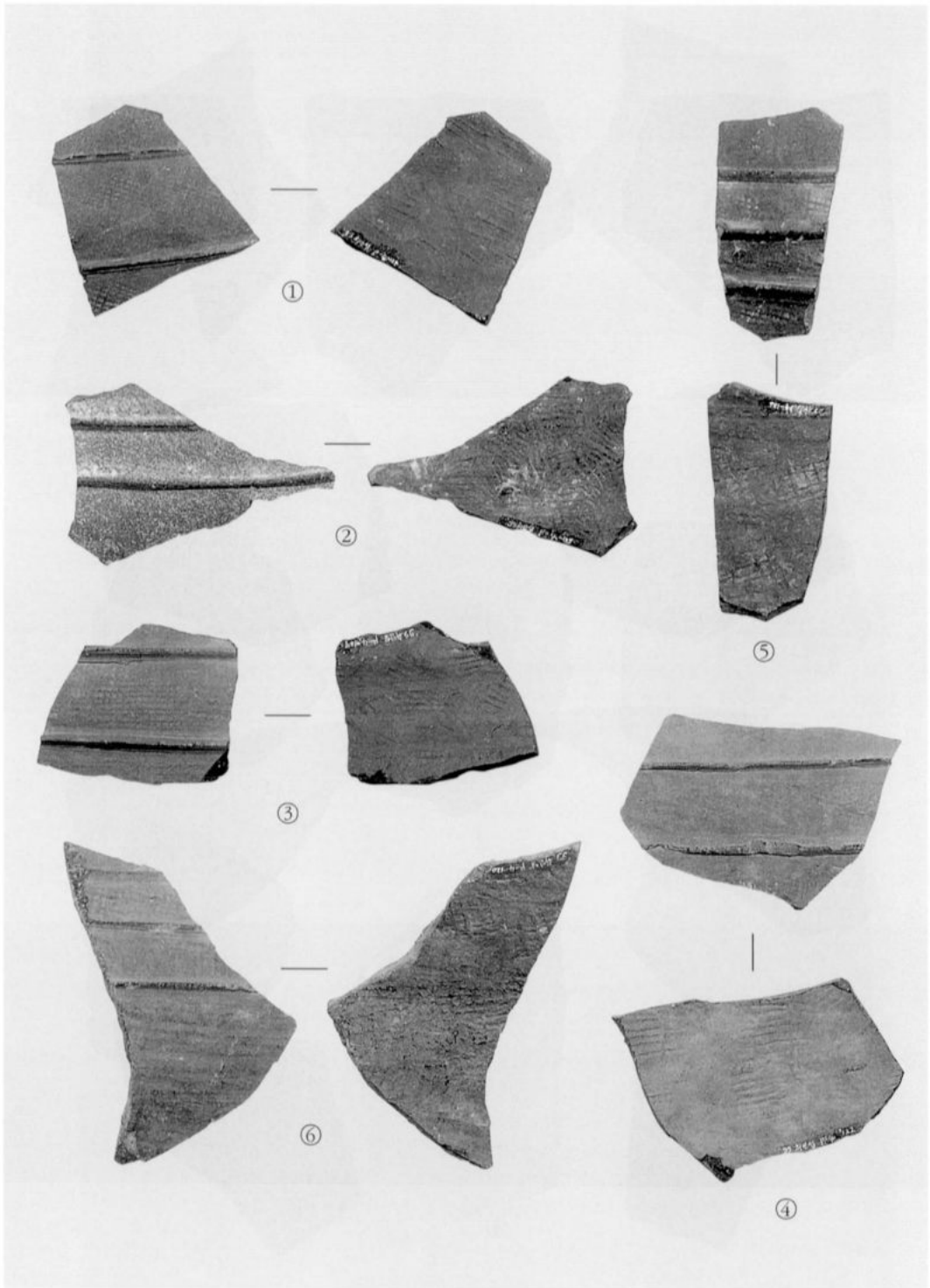
[사진 68]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동체부·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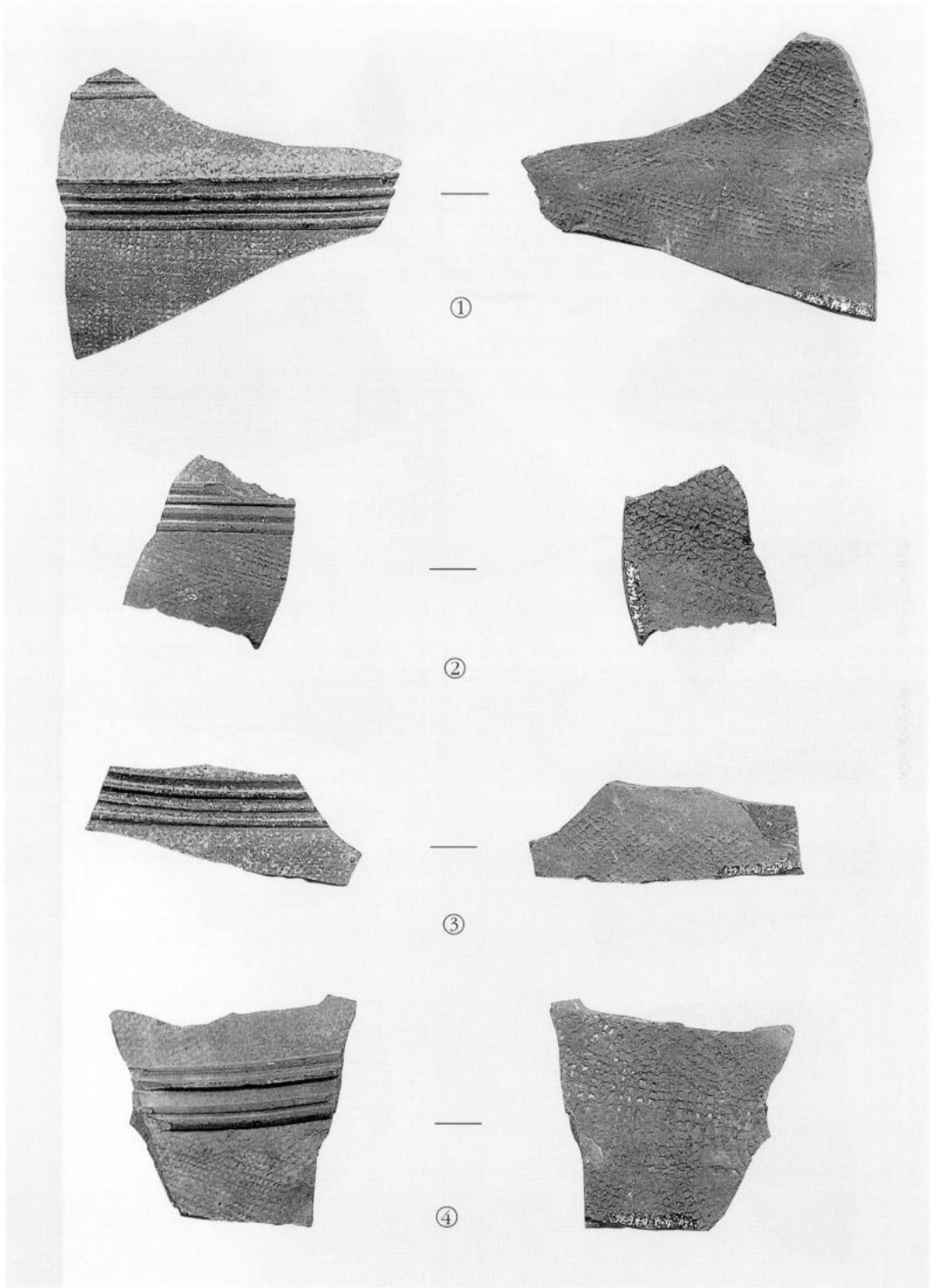
[사진 69]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저부·동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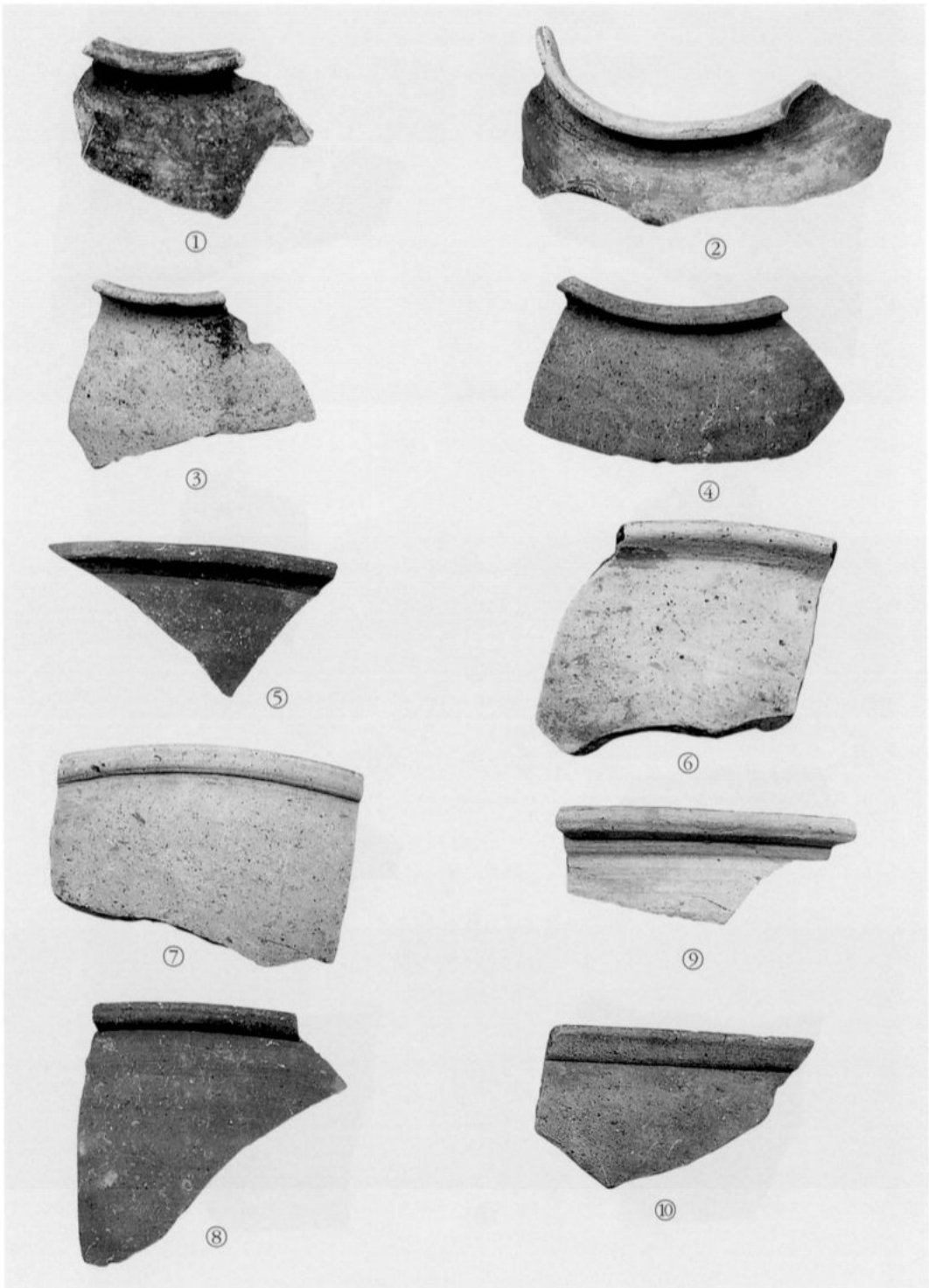
[사진 70]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동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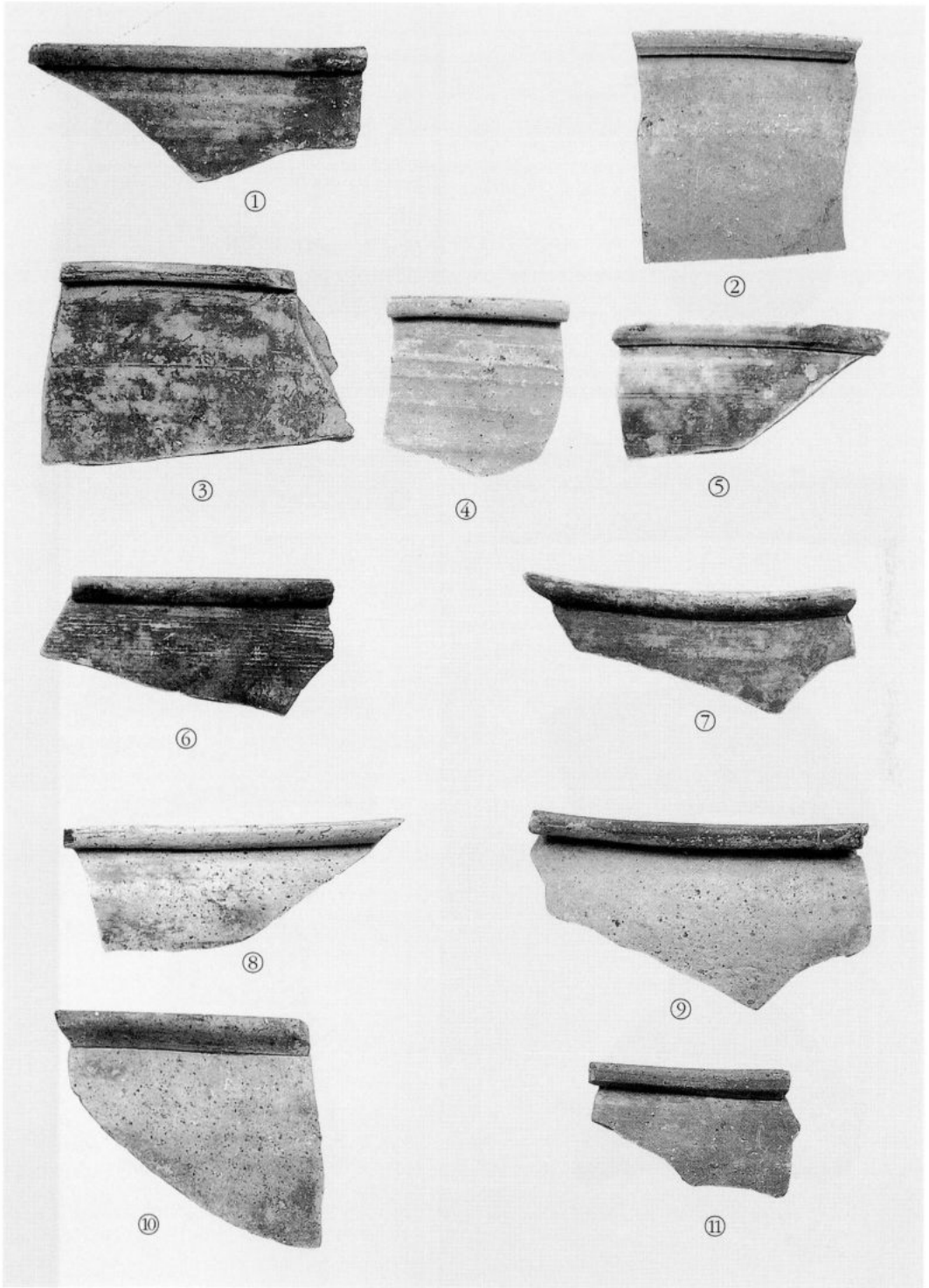
[사진 71]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동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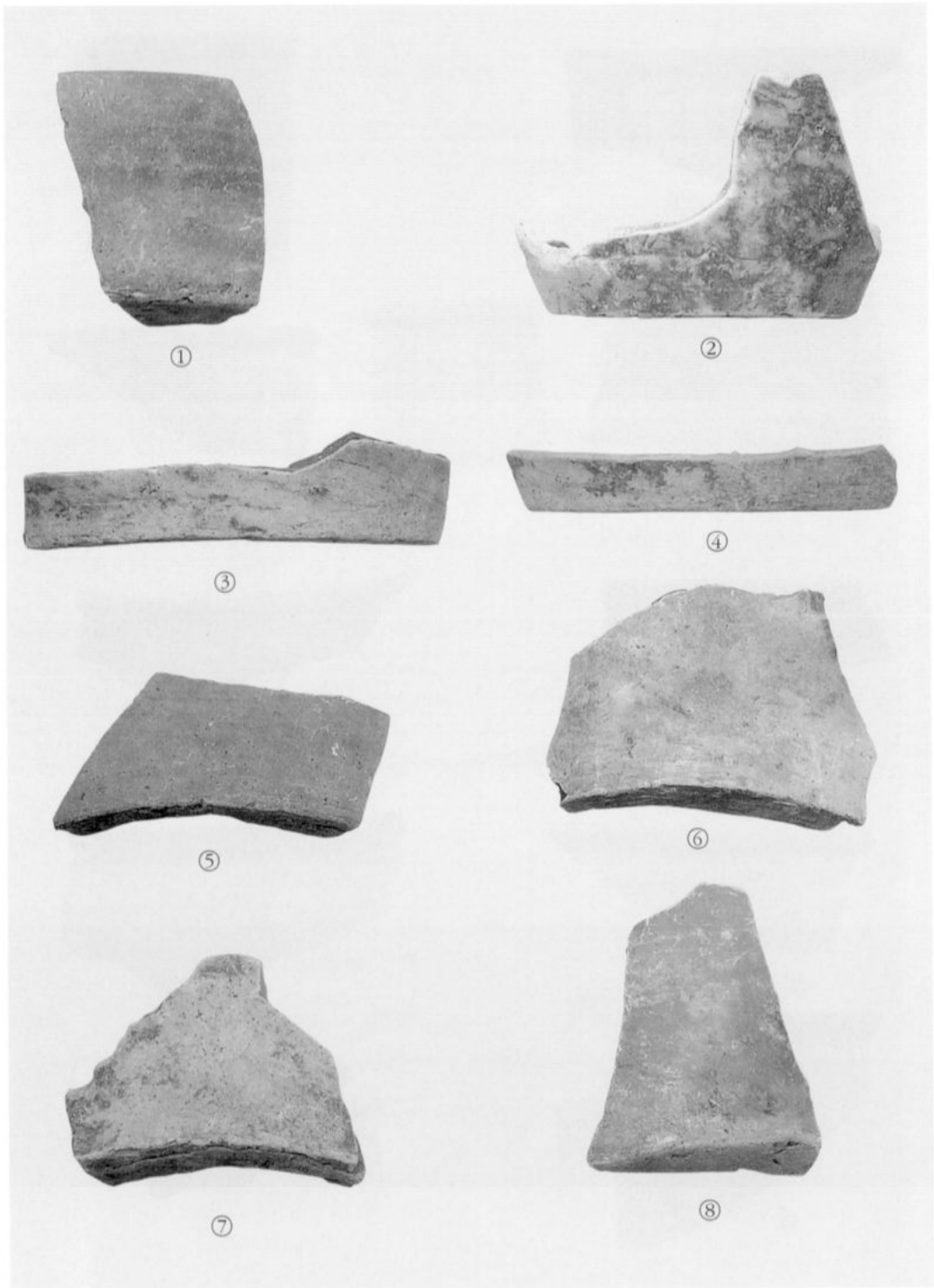
[사진 72]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동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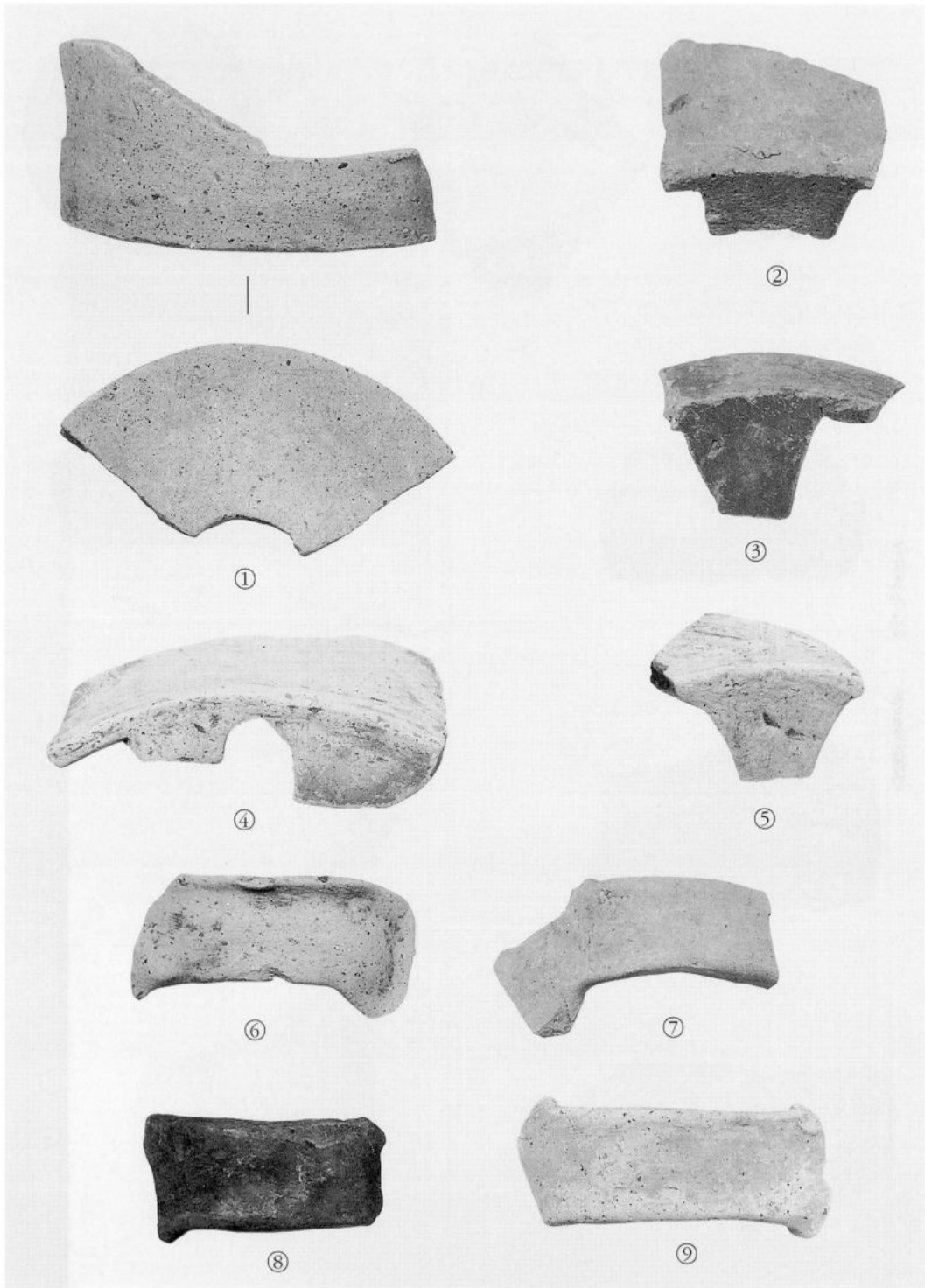
[사진 73]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구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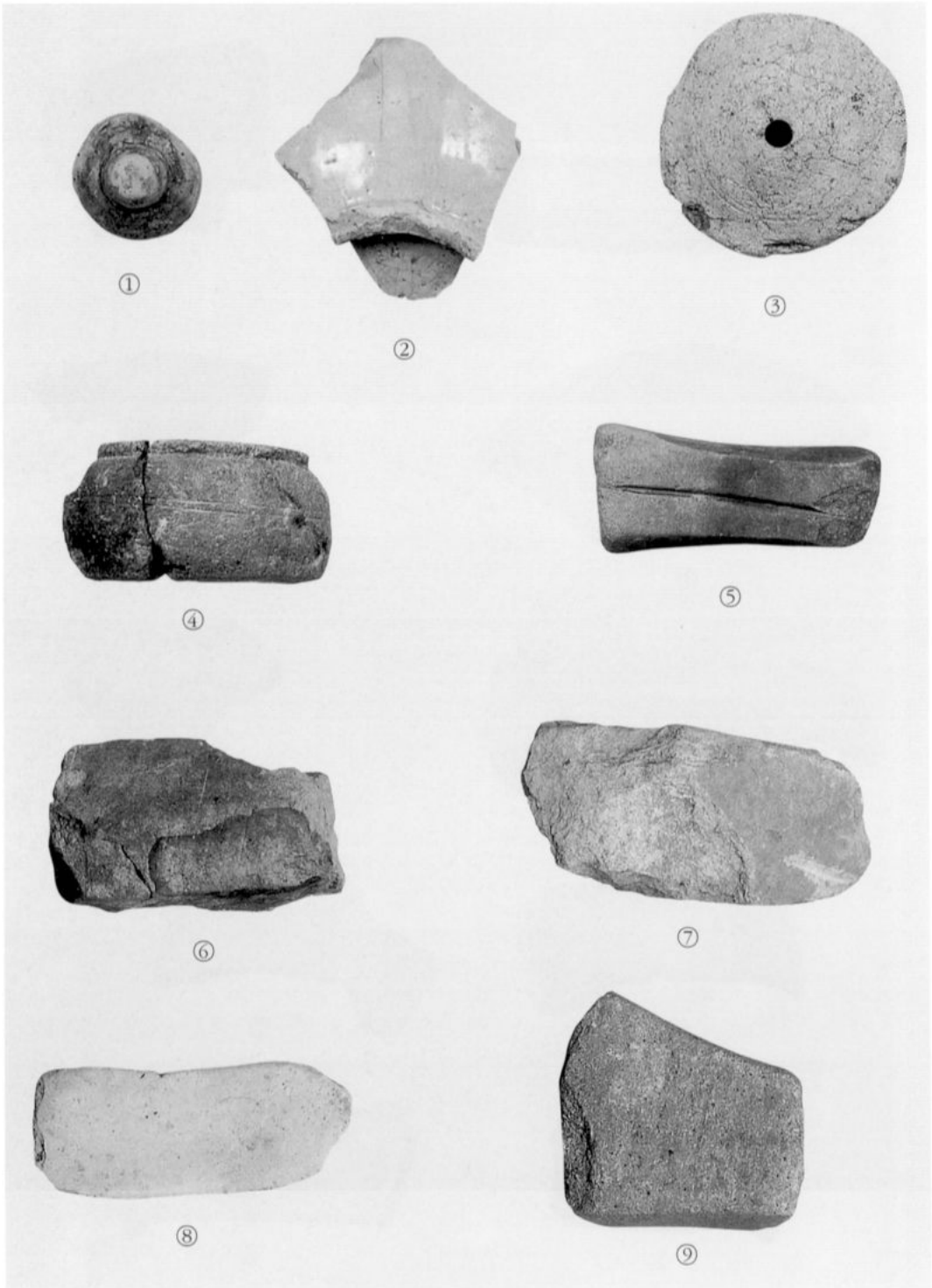
[사진 74]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구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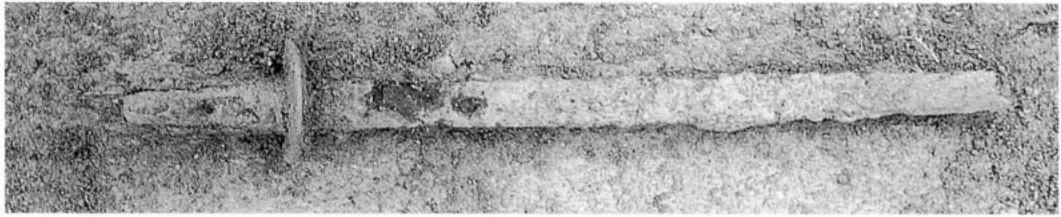
[사진 75]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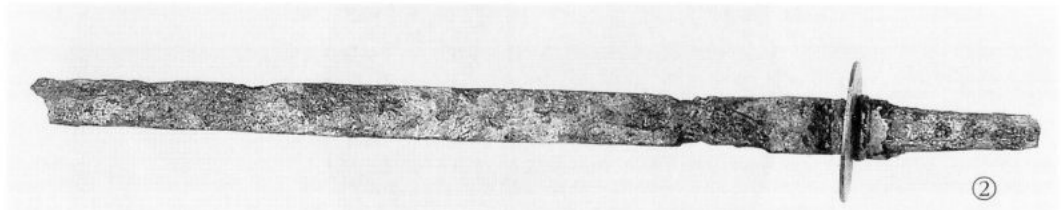
[사진 76]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토도기 저부·가로띠손잡이



[사진 77]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자기·석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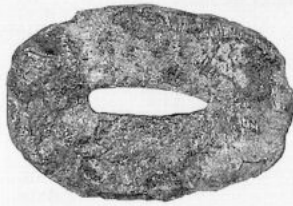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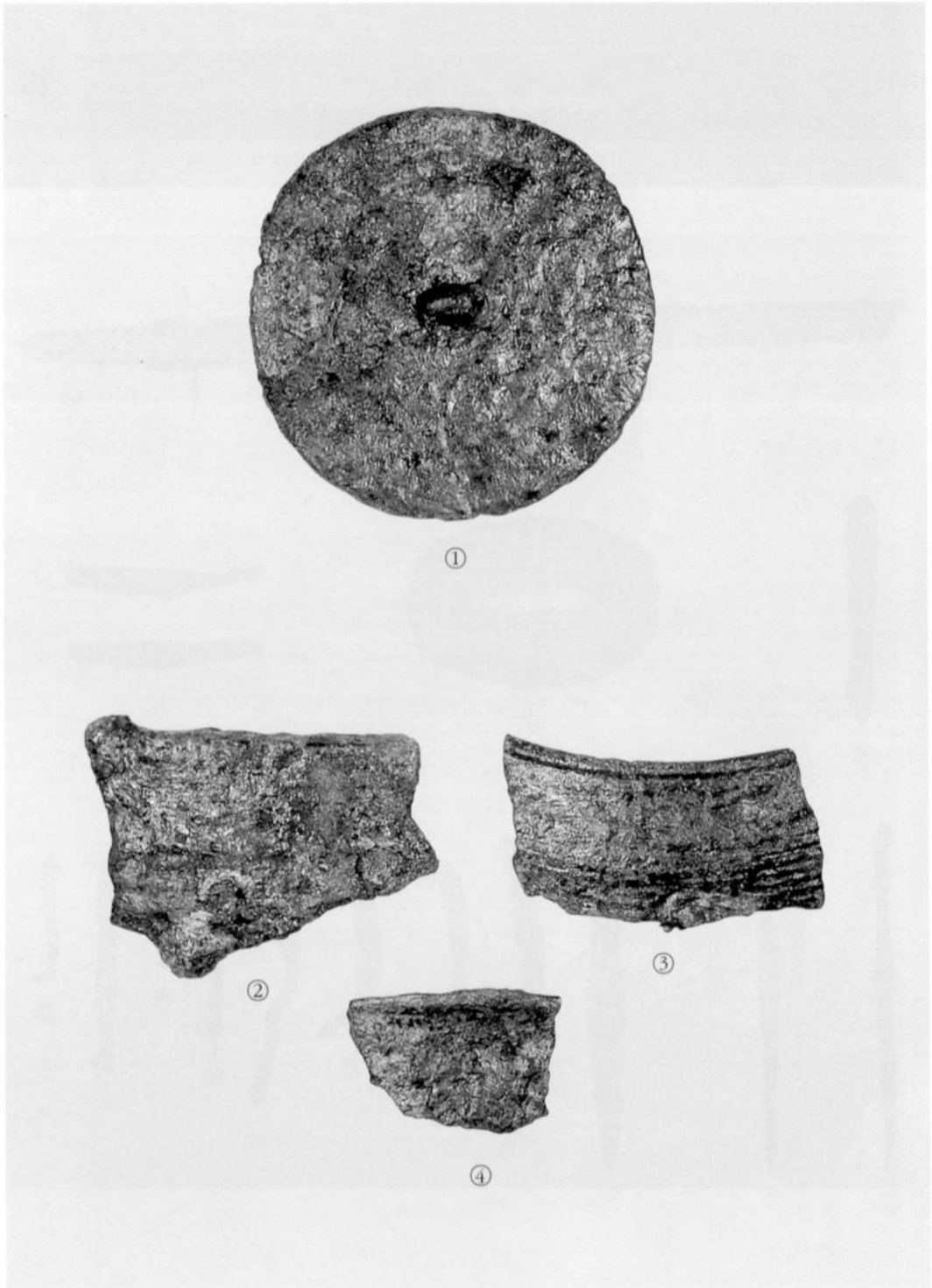


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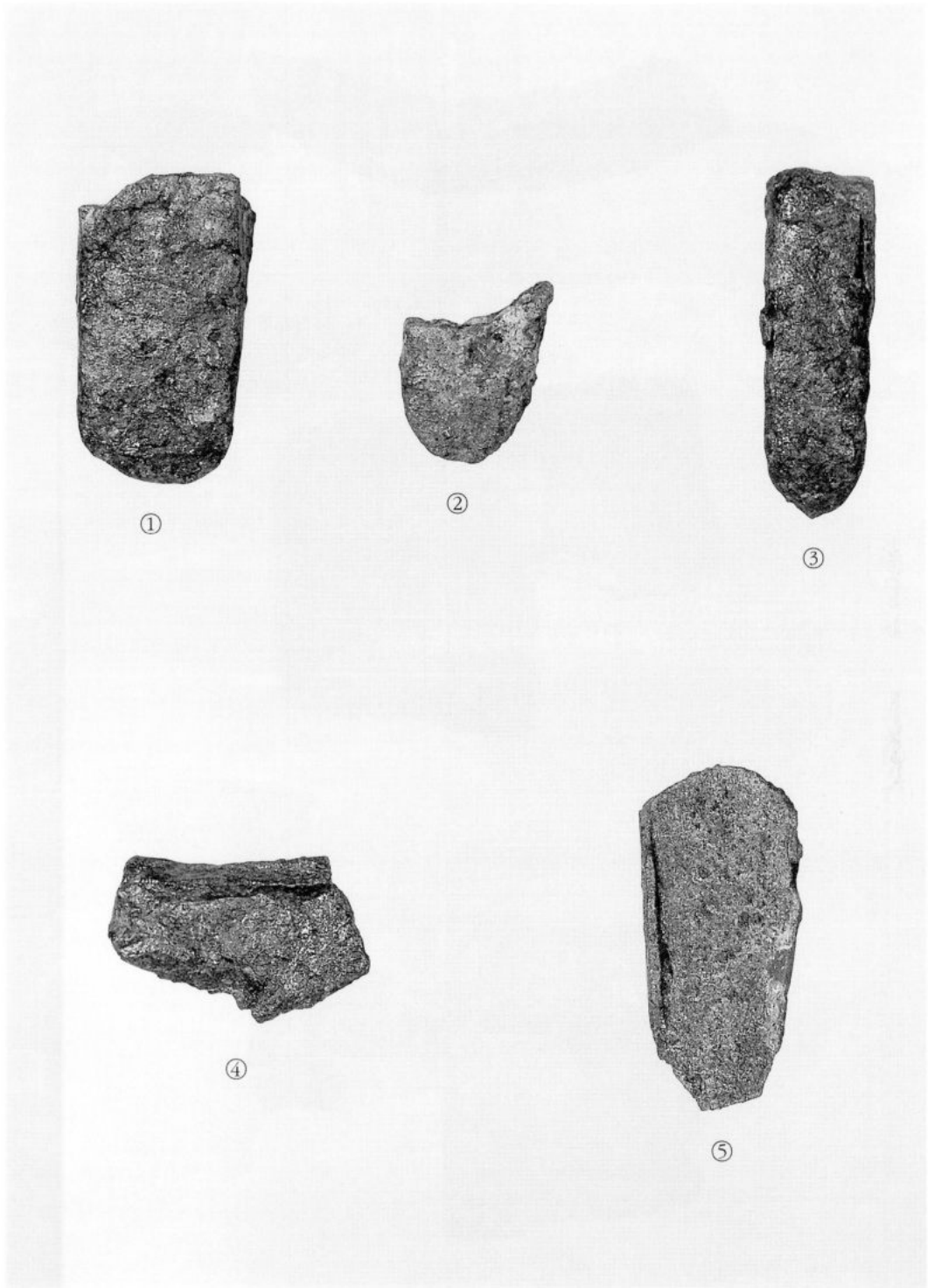


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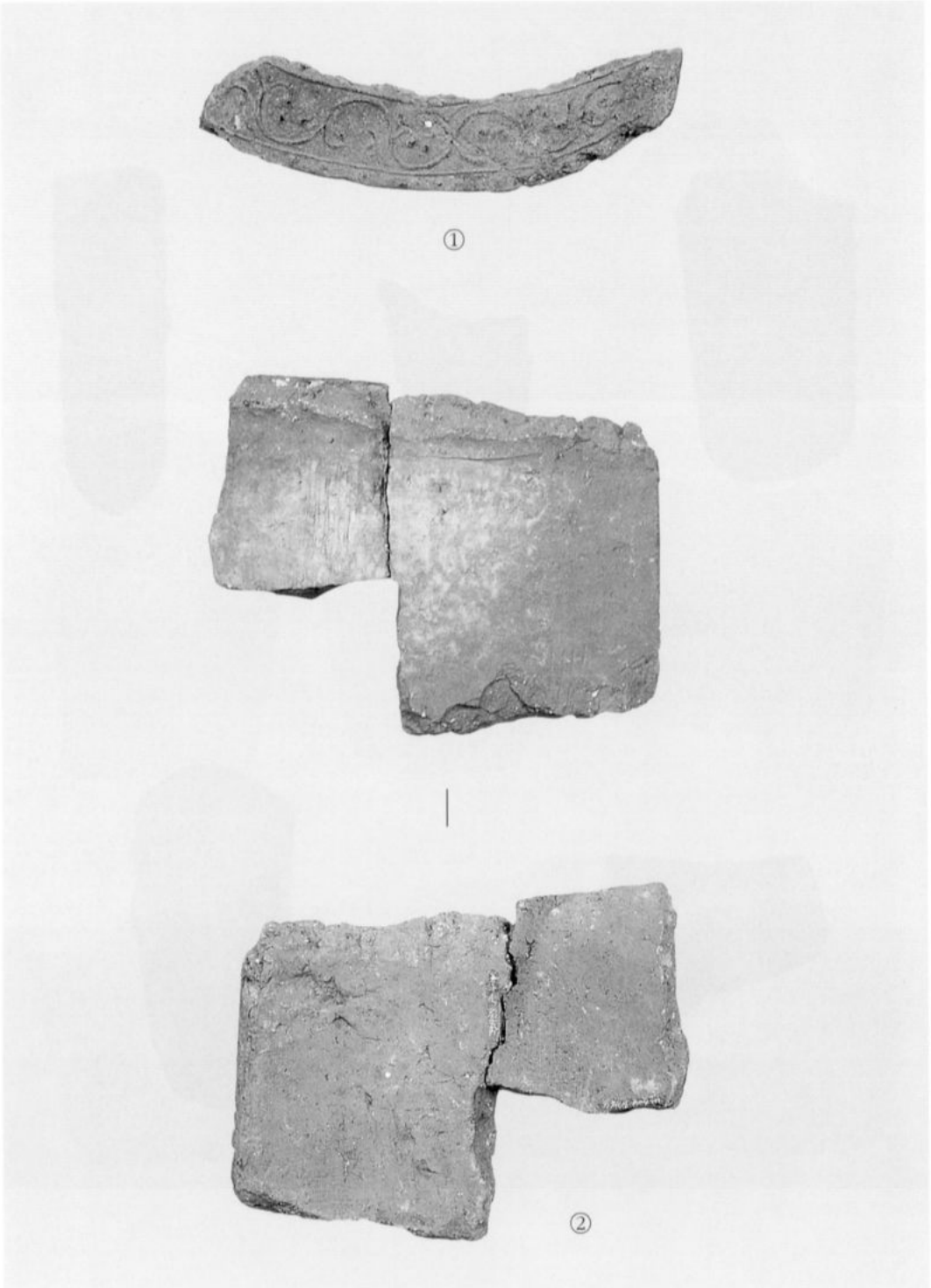
[사진 78]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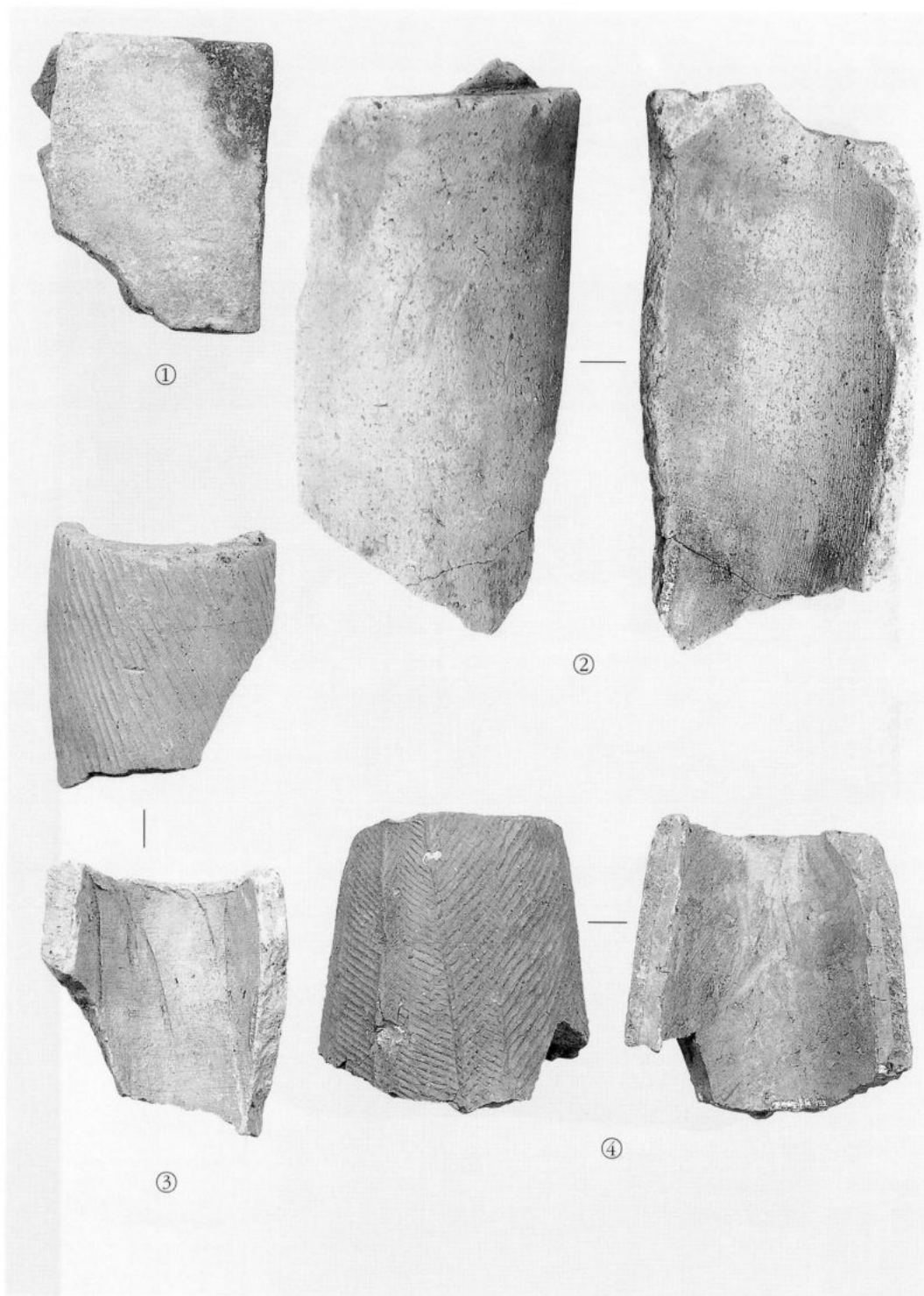
[사진 79]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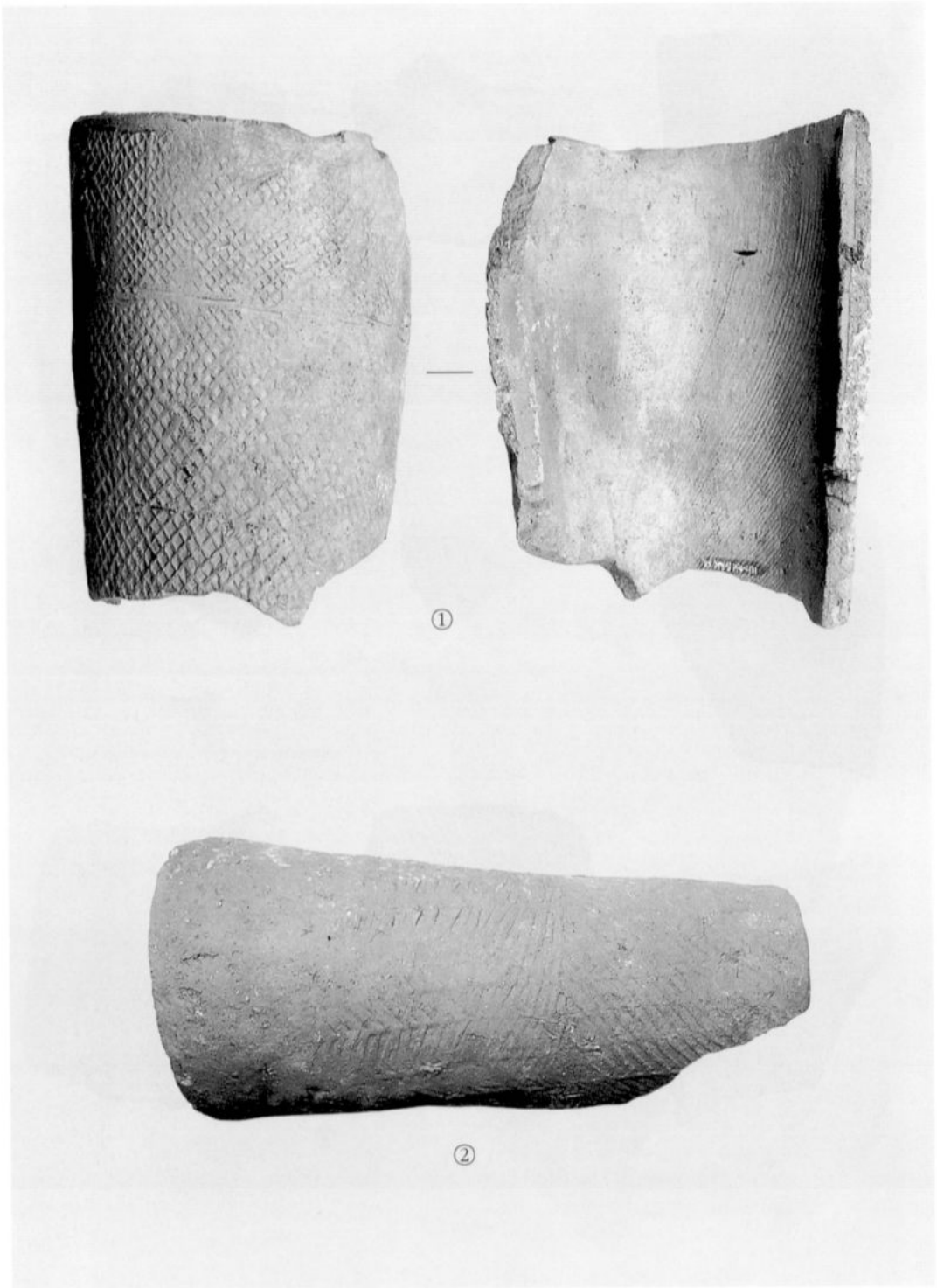
[사진 80]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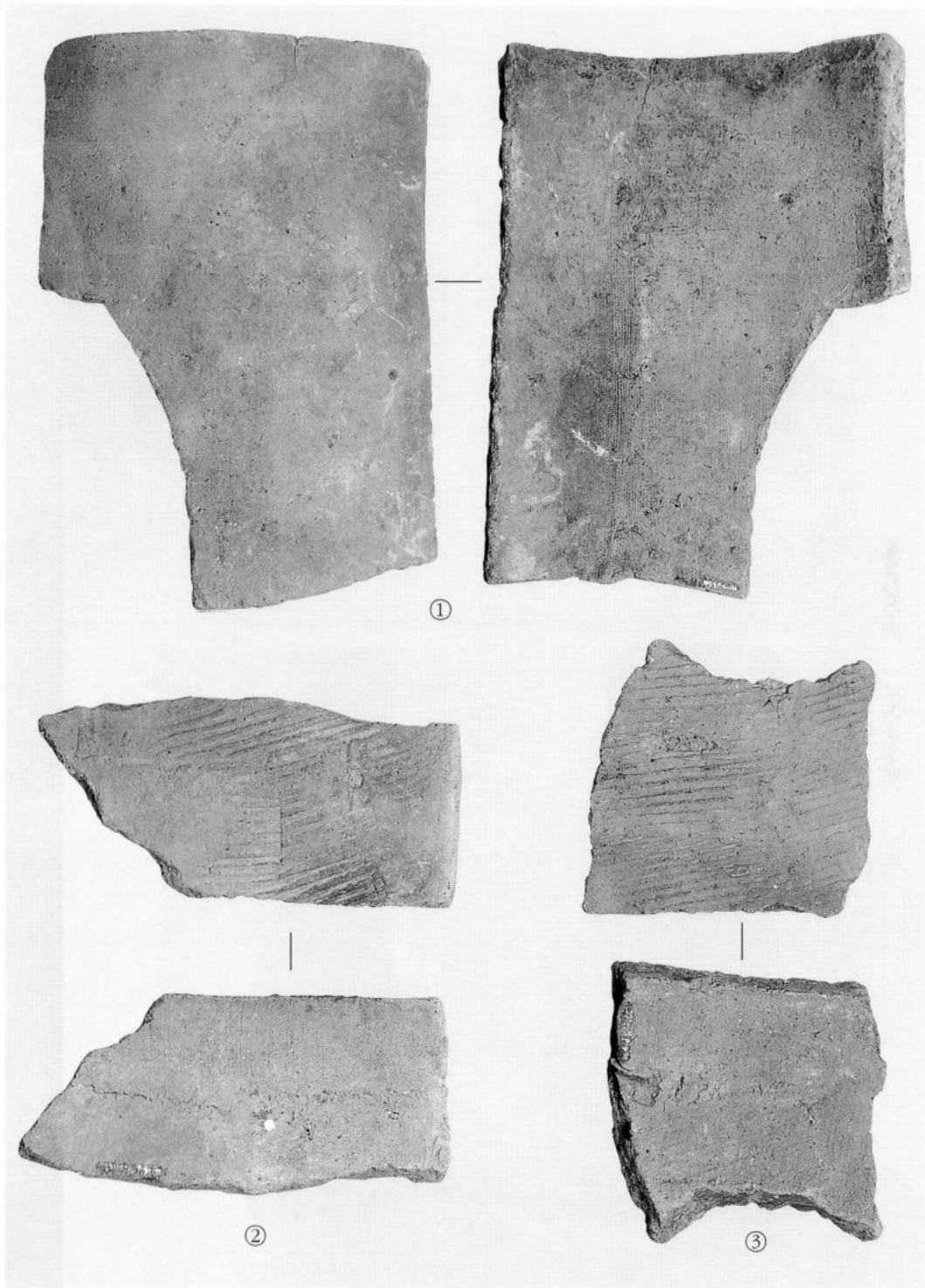
[사진 81]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암막새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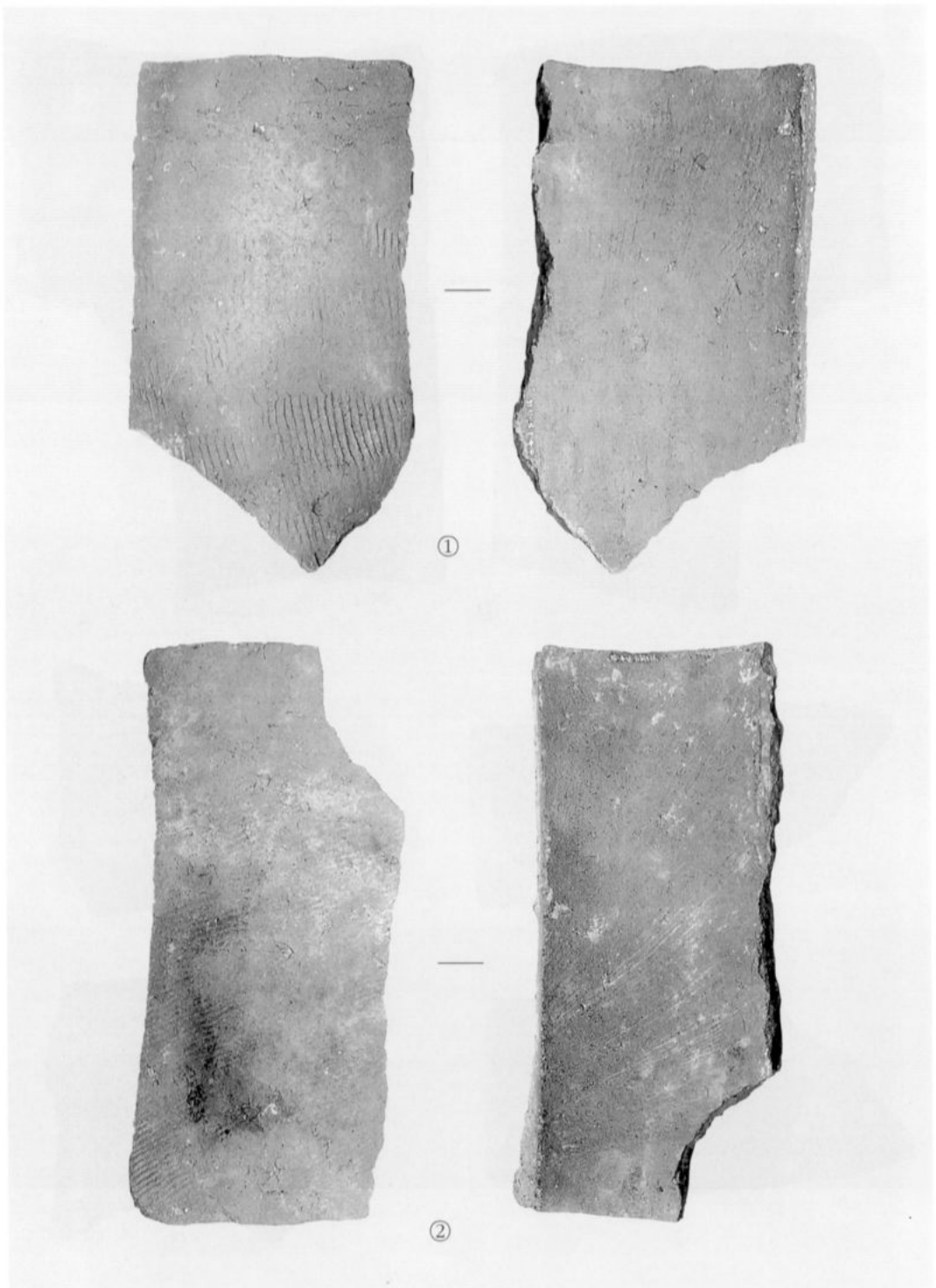
[사진 82]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수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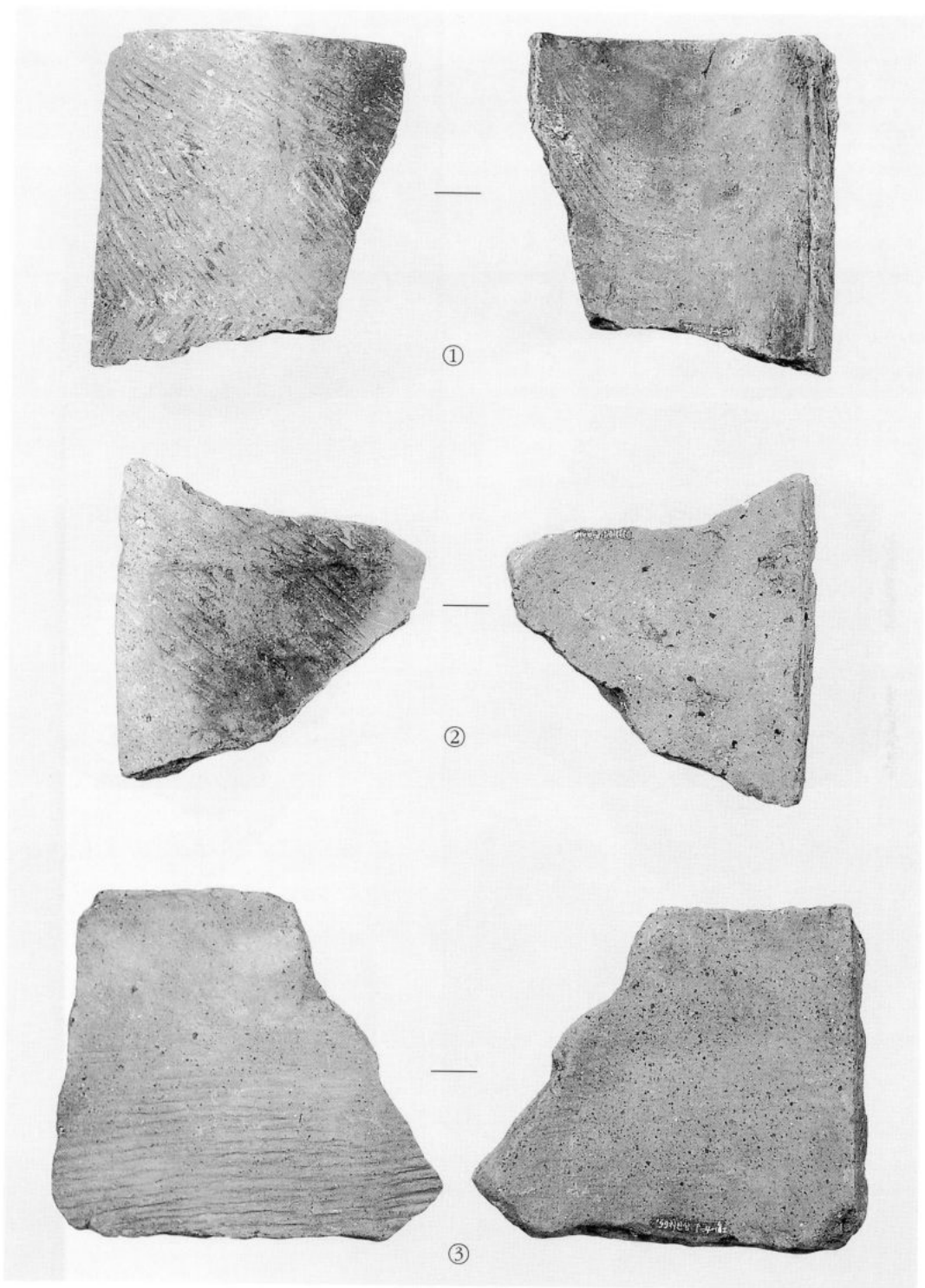
[사진 83]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수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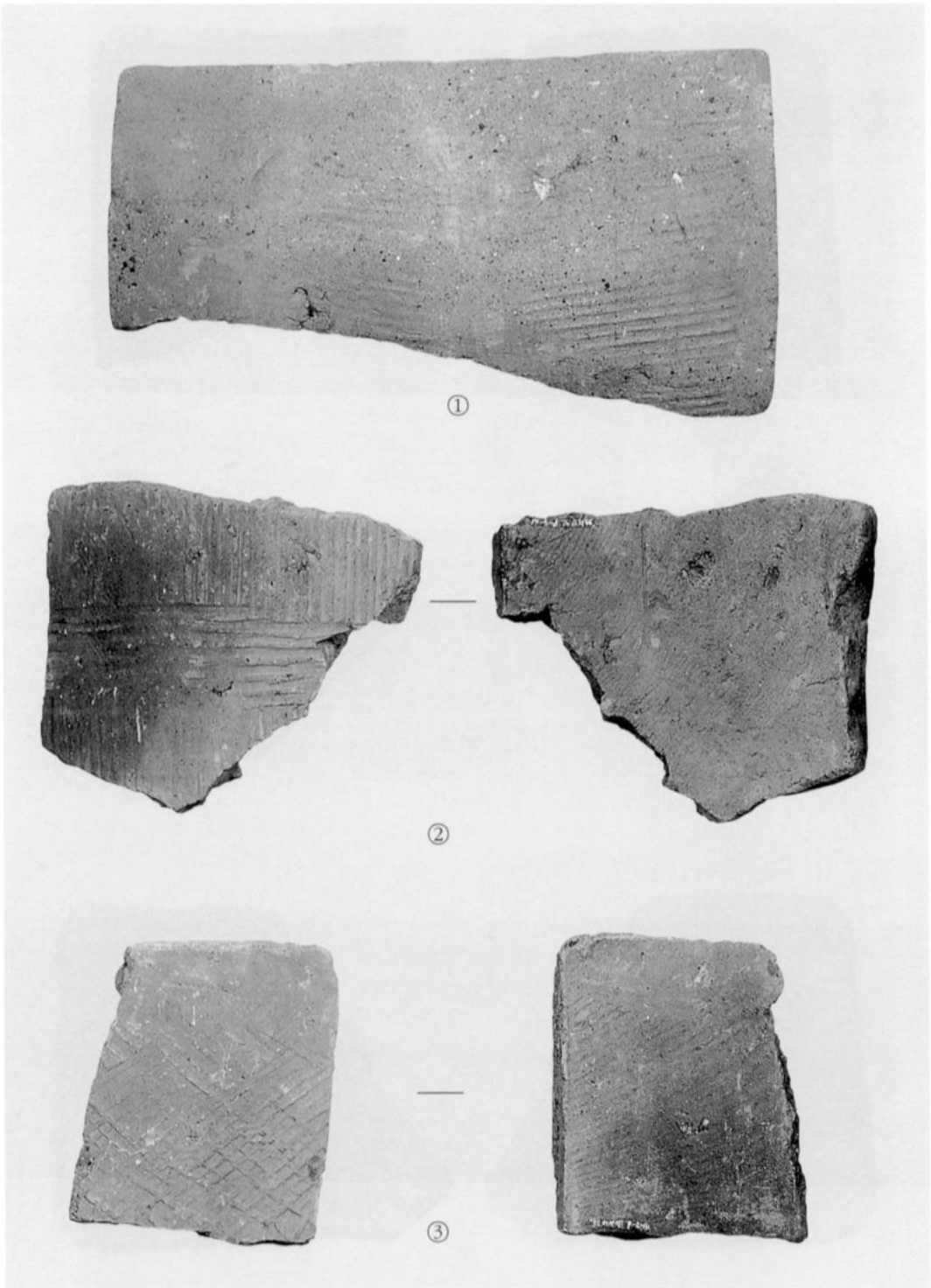
[사진 84]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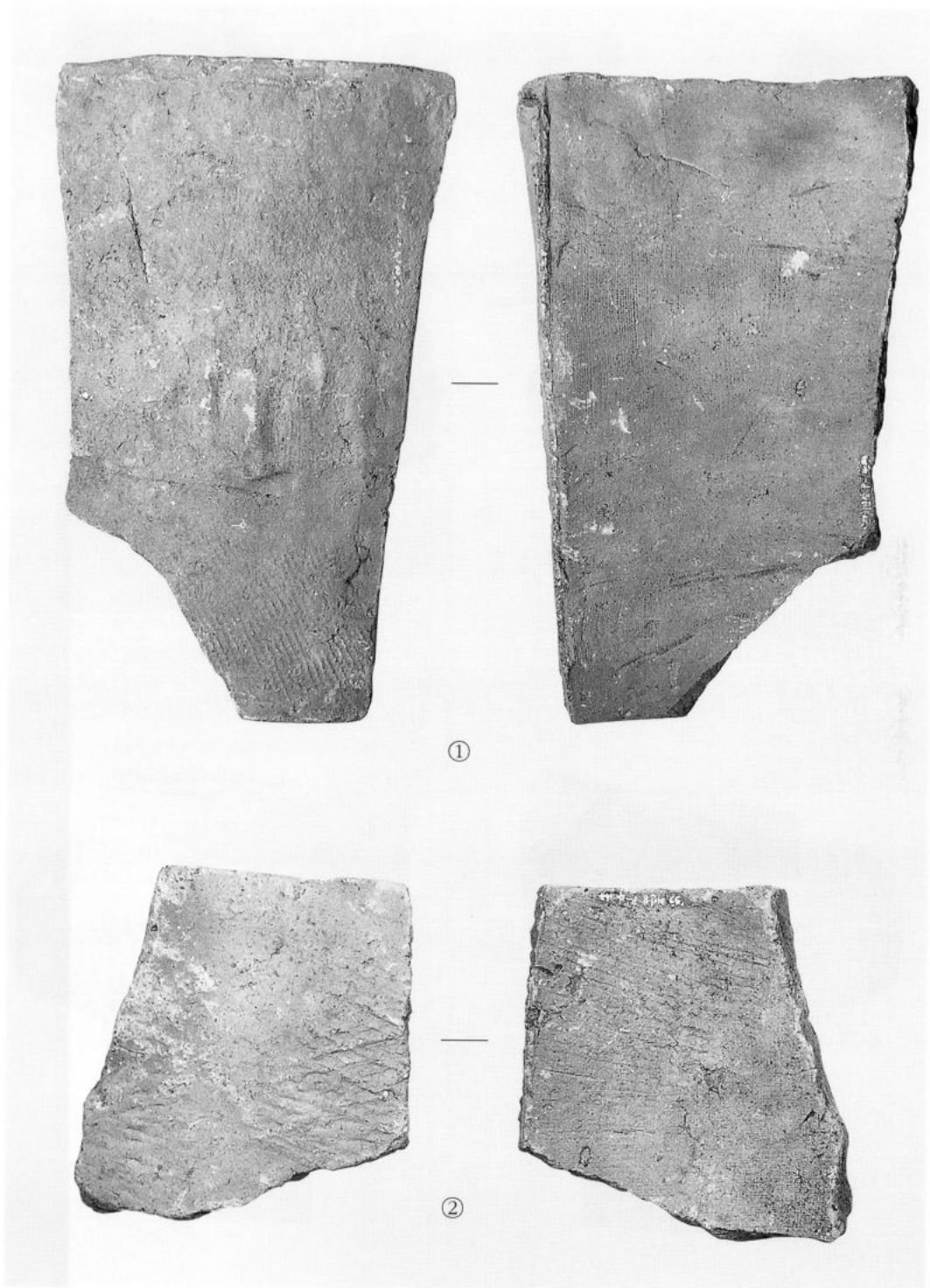
[사진 85]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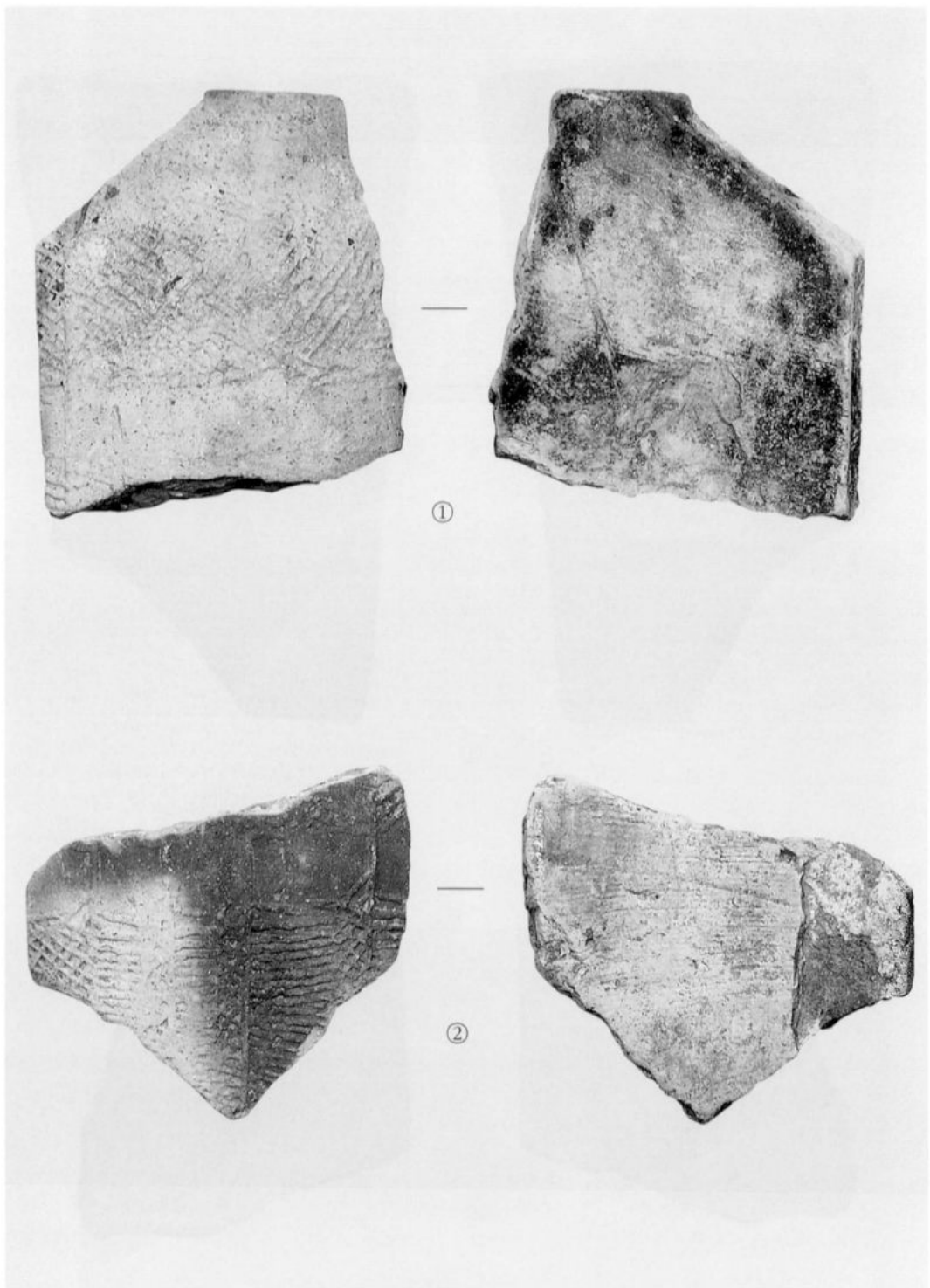
[사진 86]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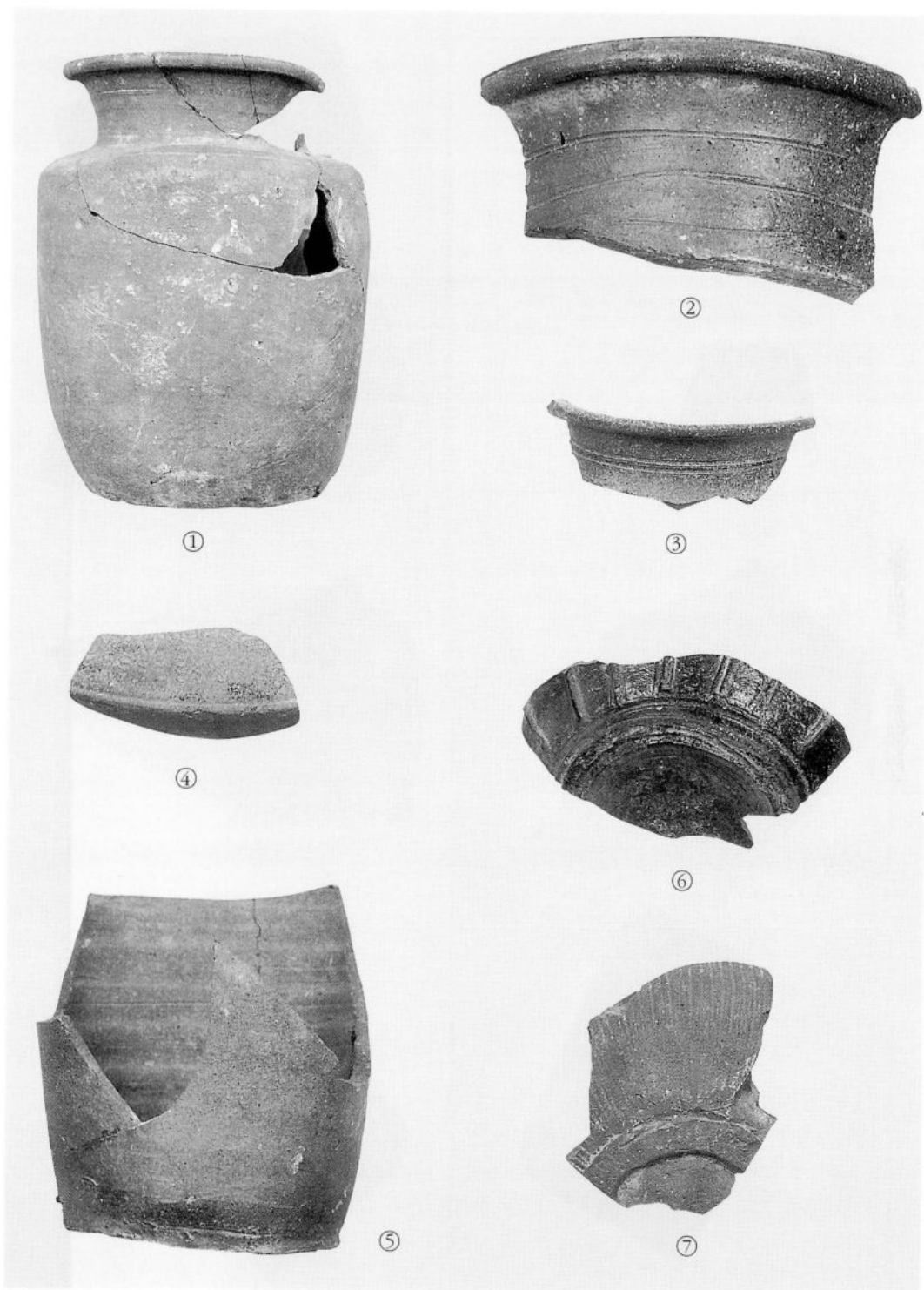
[사진 87]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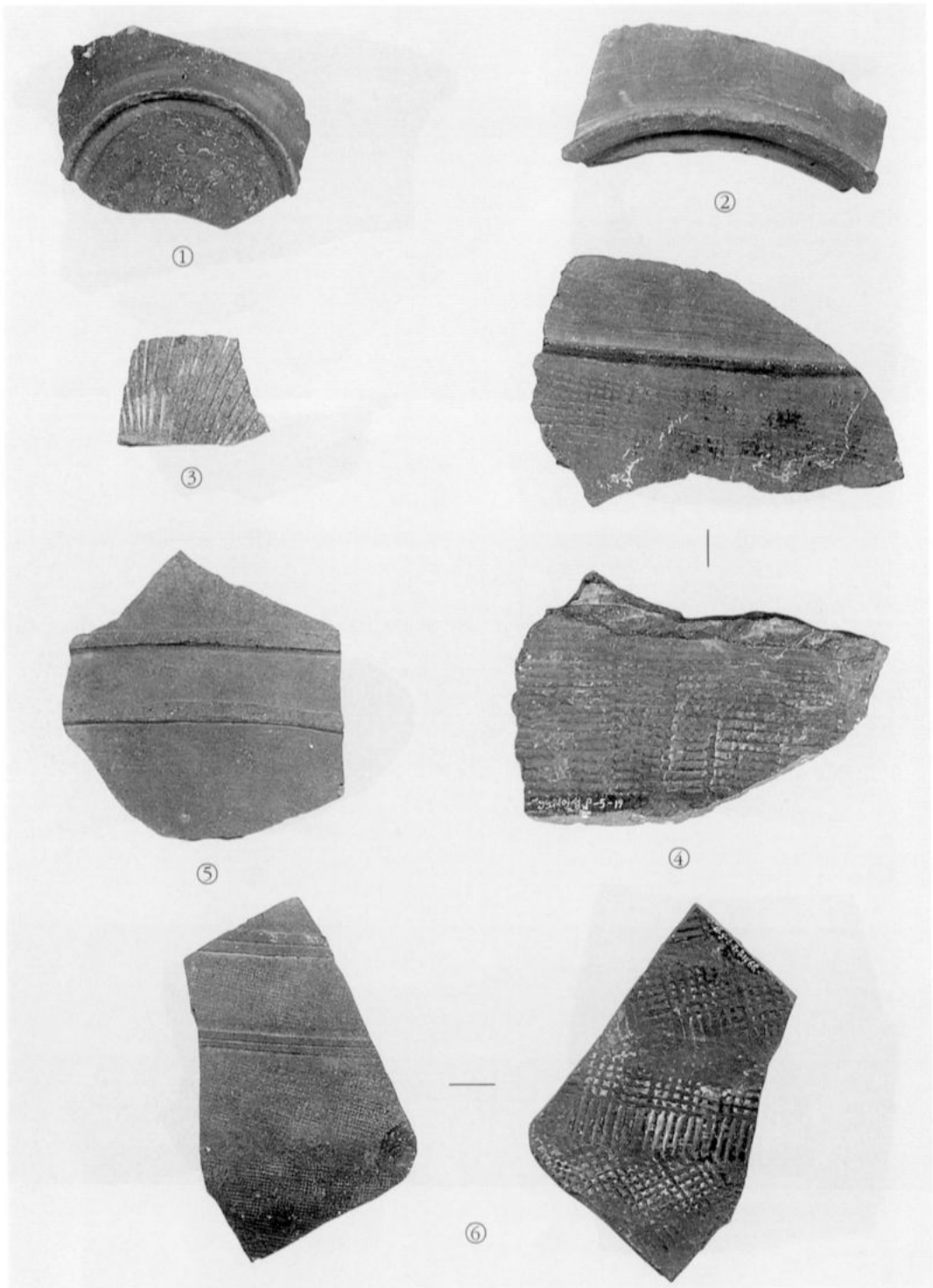
[사진 88]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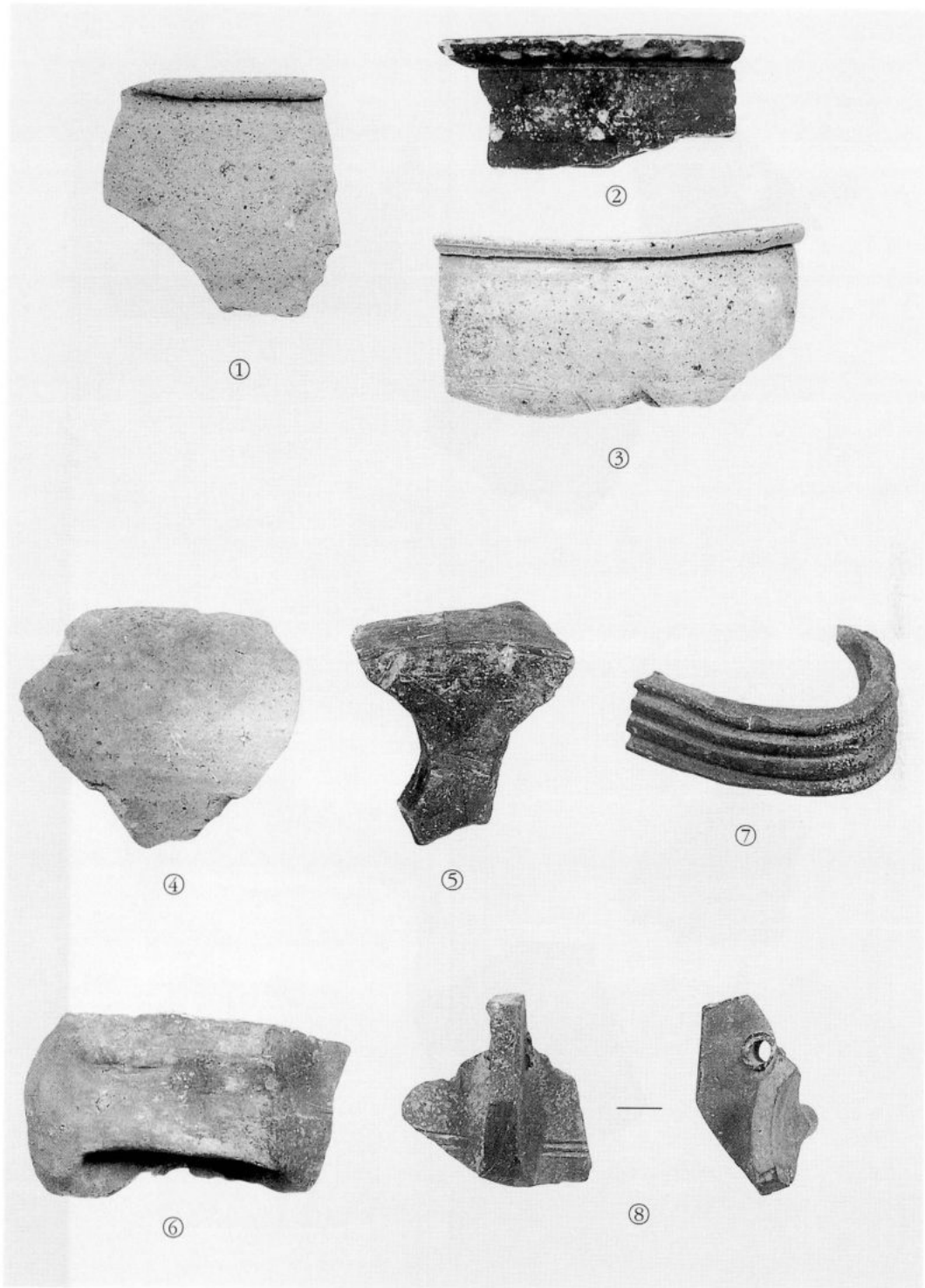
[사진 89] 처인성 시굴구덩 4 출토유물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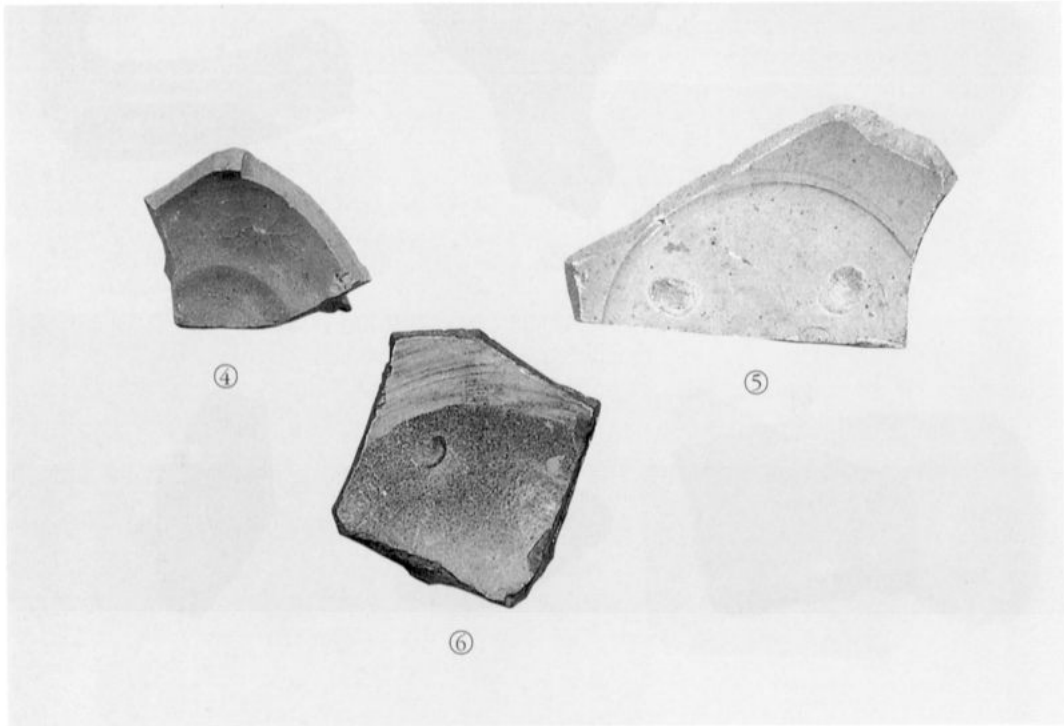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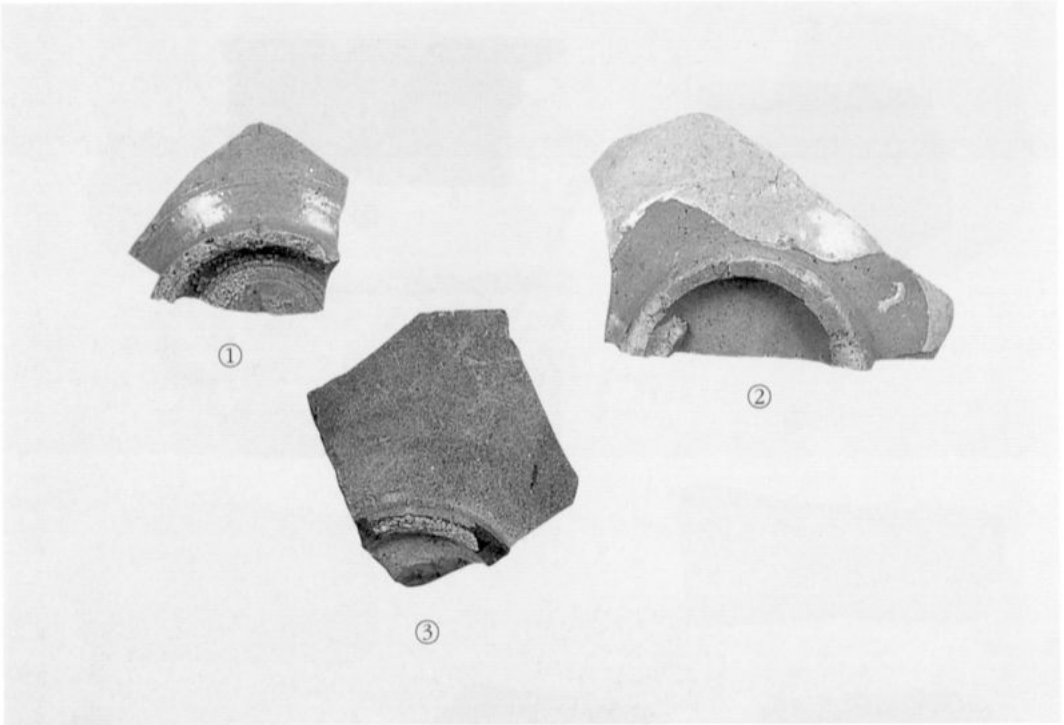
[사진 90]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사면편병·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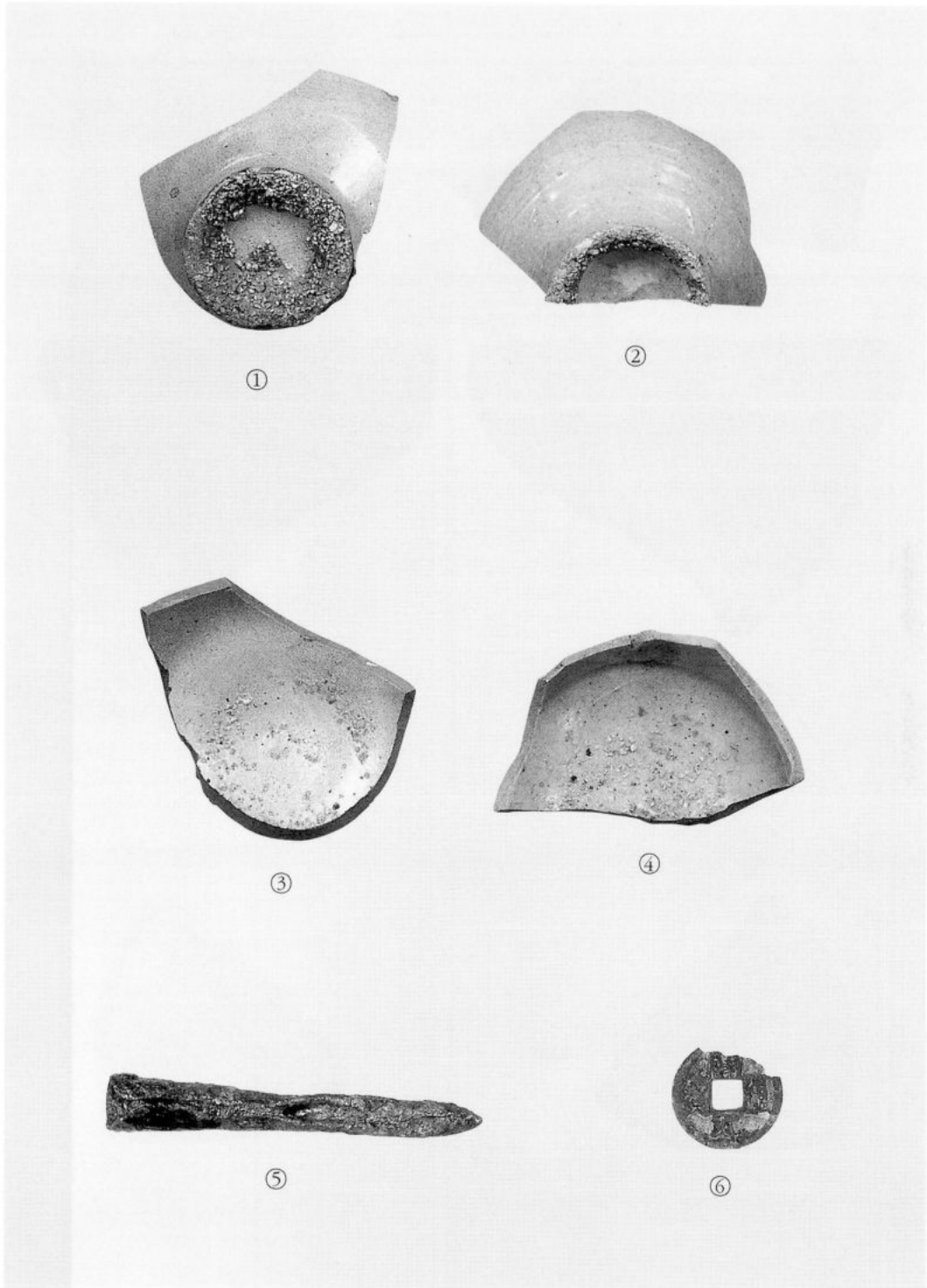
[사진 91]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토도기 동체부 및 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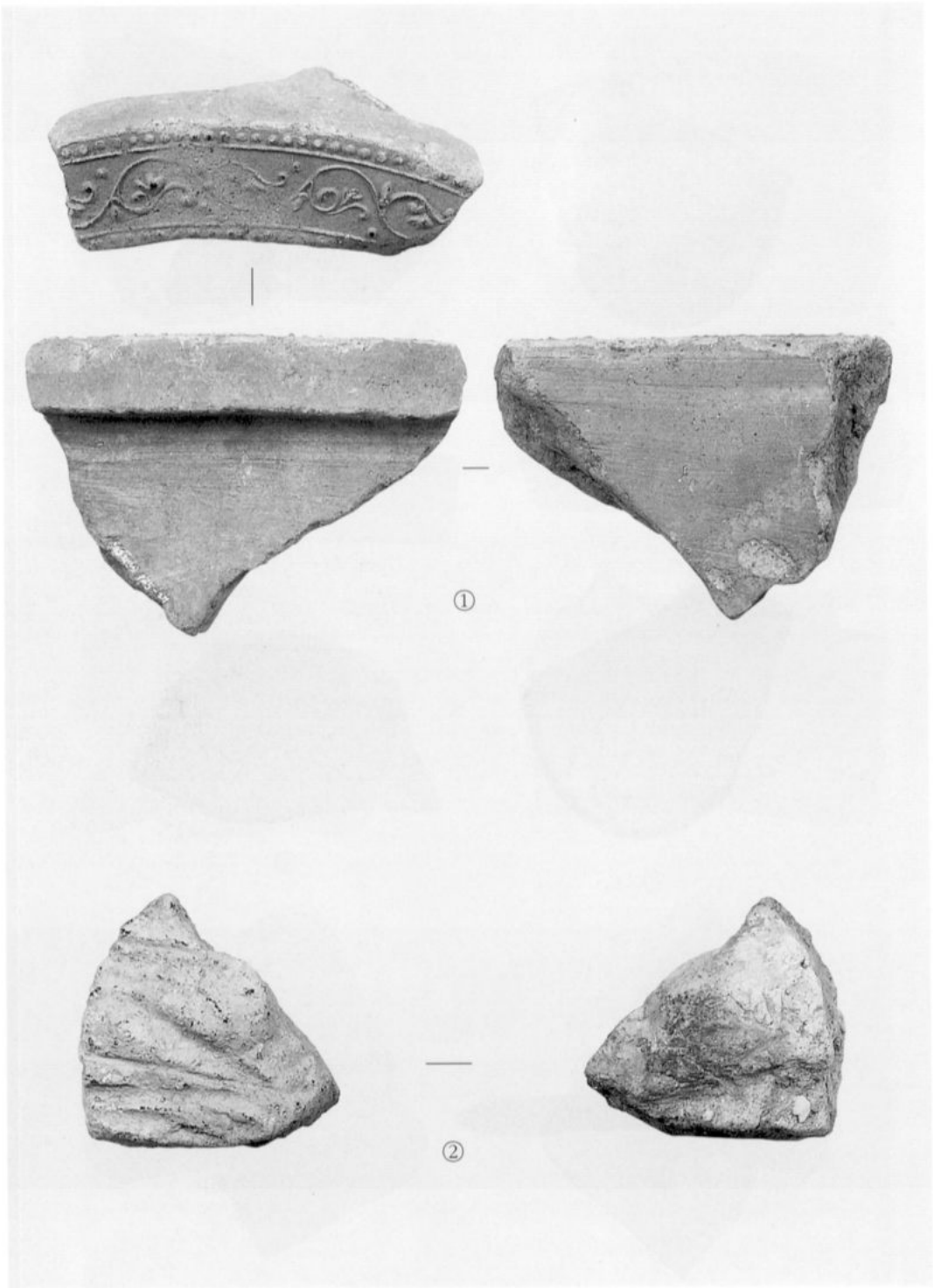
[사진 92]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도토기 구연부·저부·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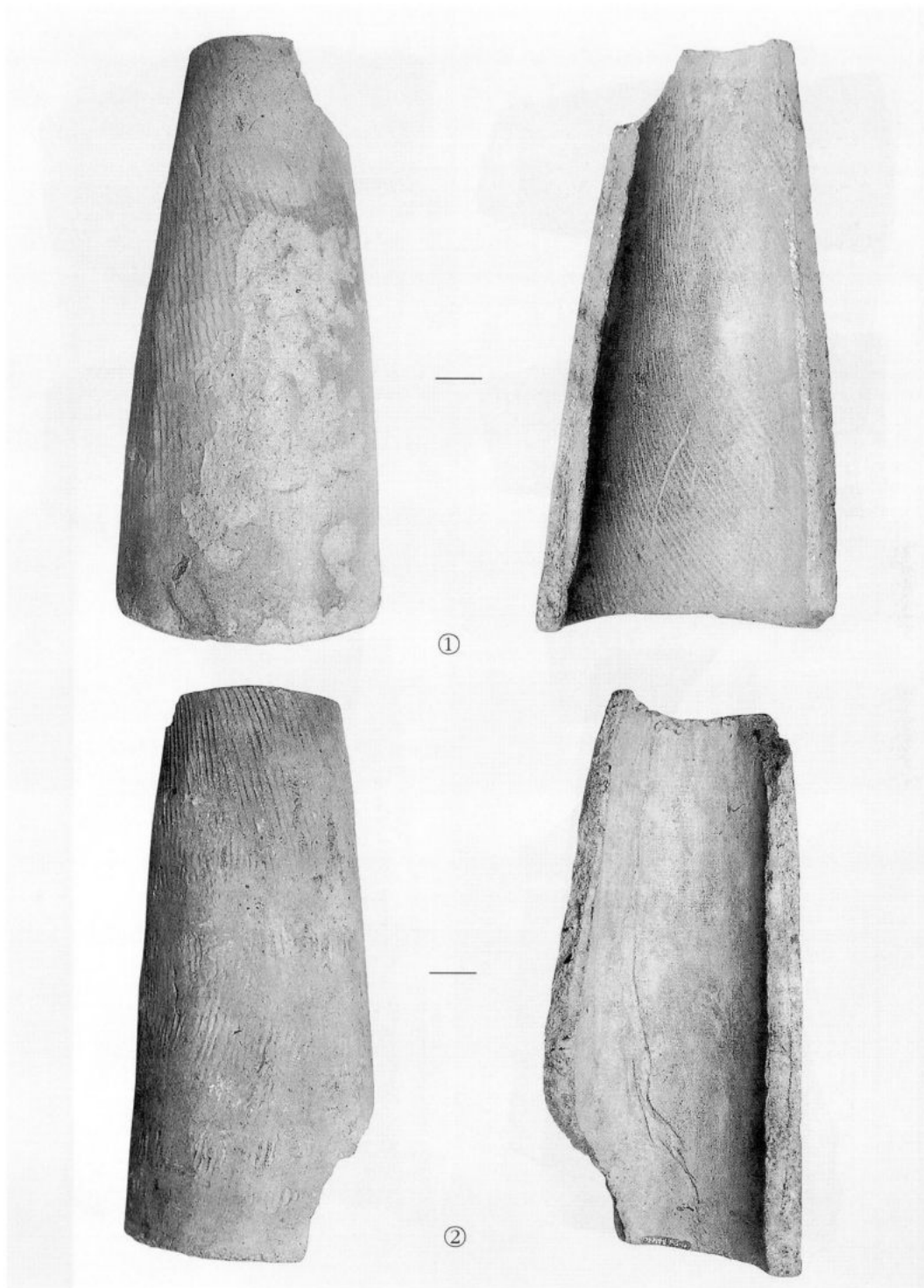
[사진 93]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자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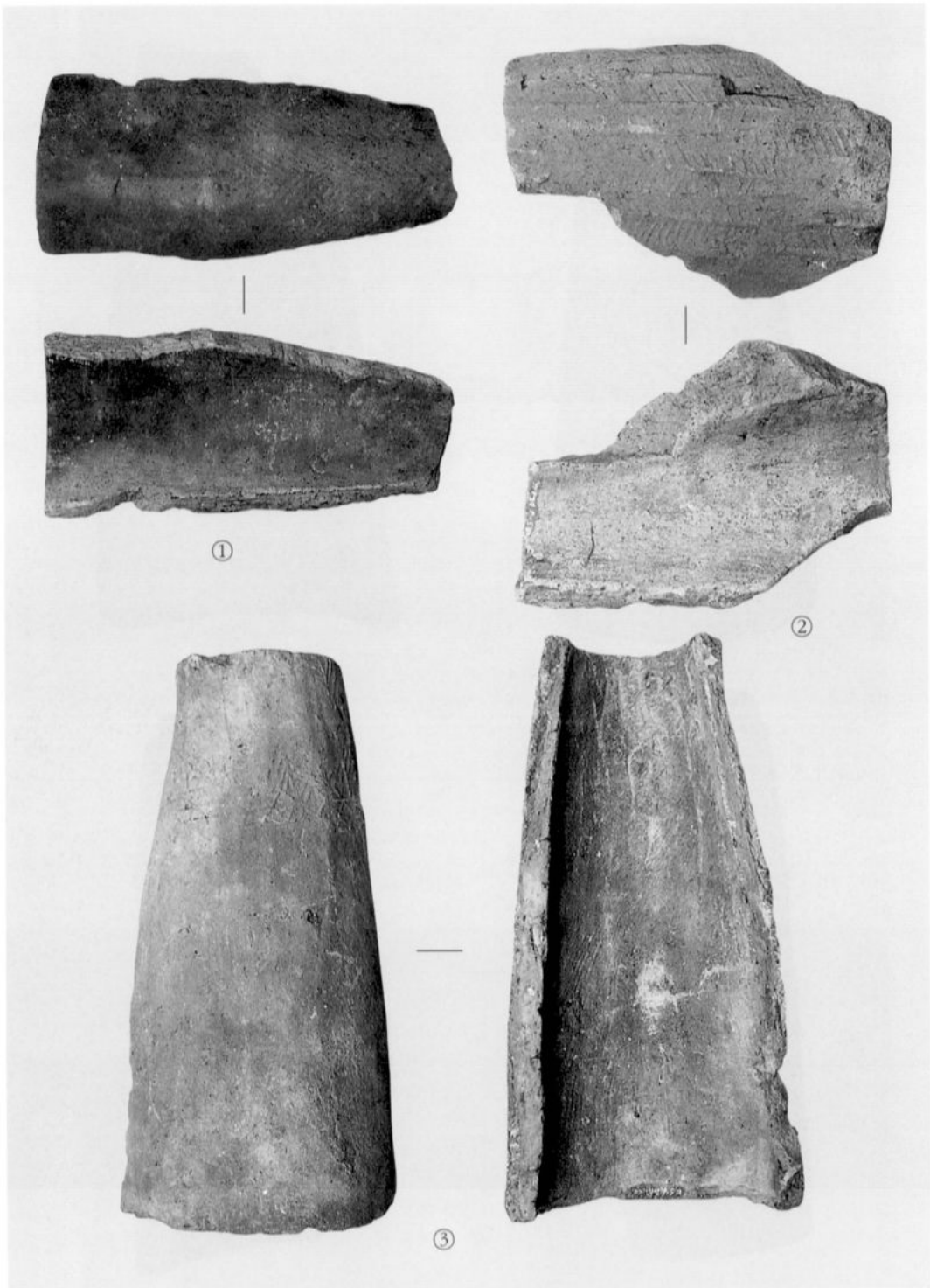
[사진 94]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자기류·철모·개원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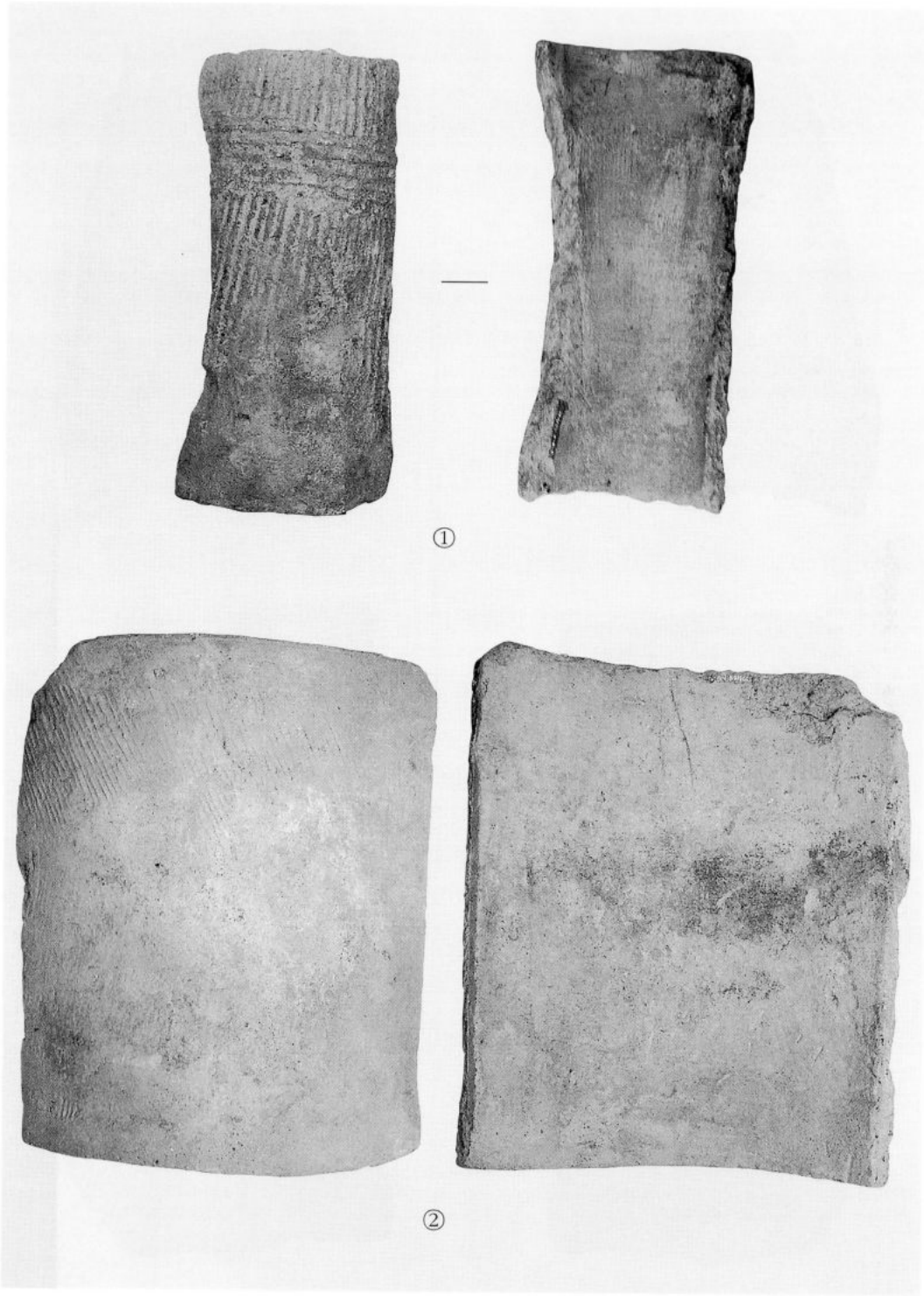
[사진 95]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암막새기와 · 치미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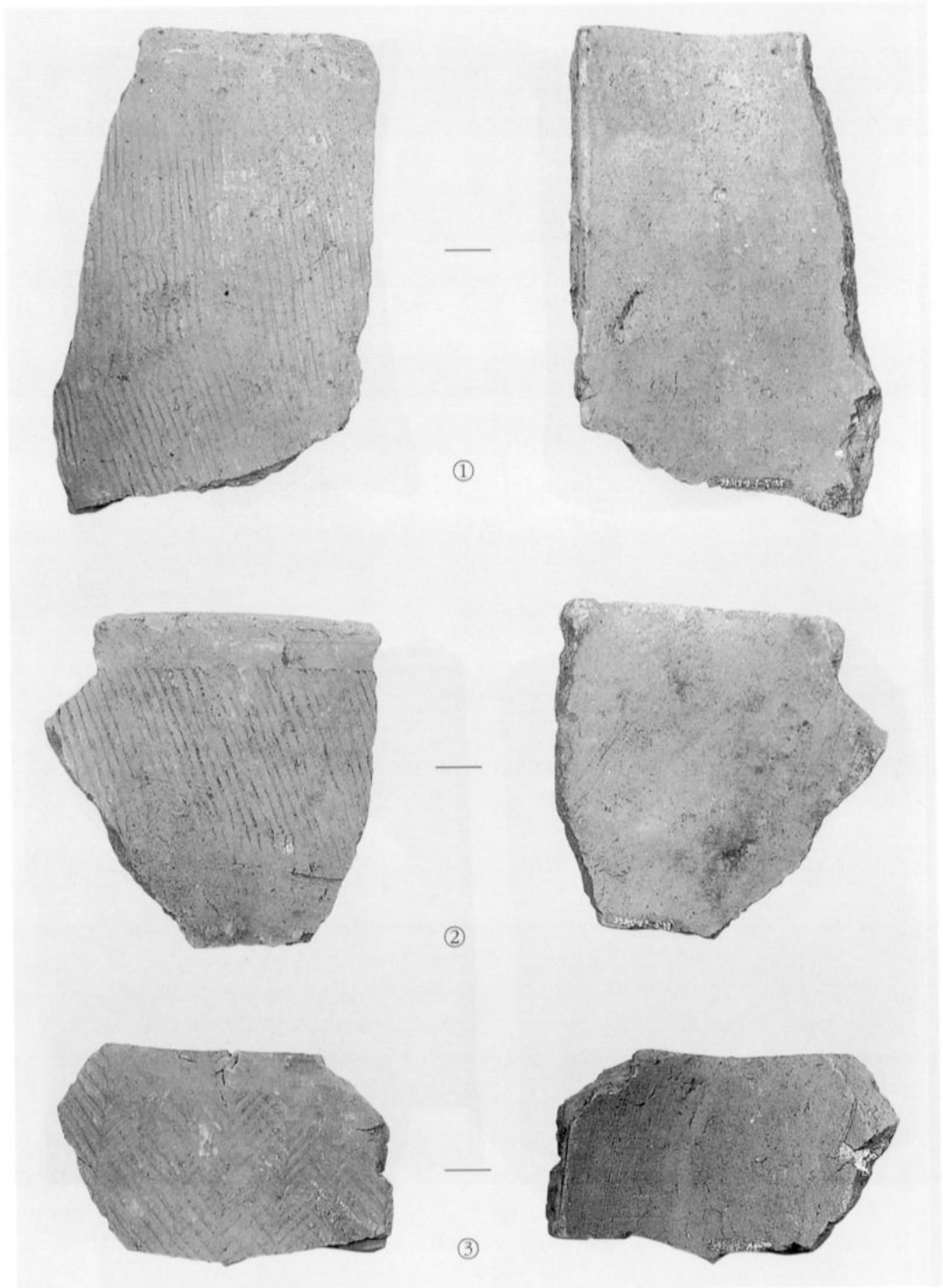
[사진 96]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수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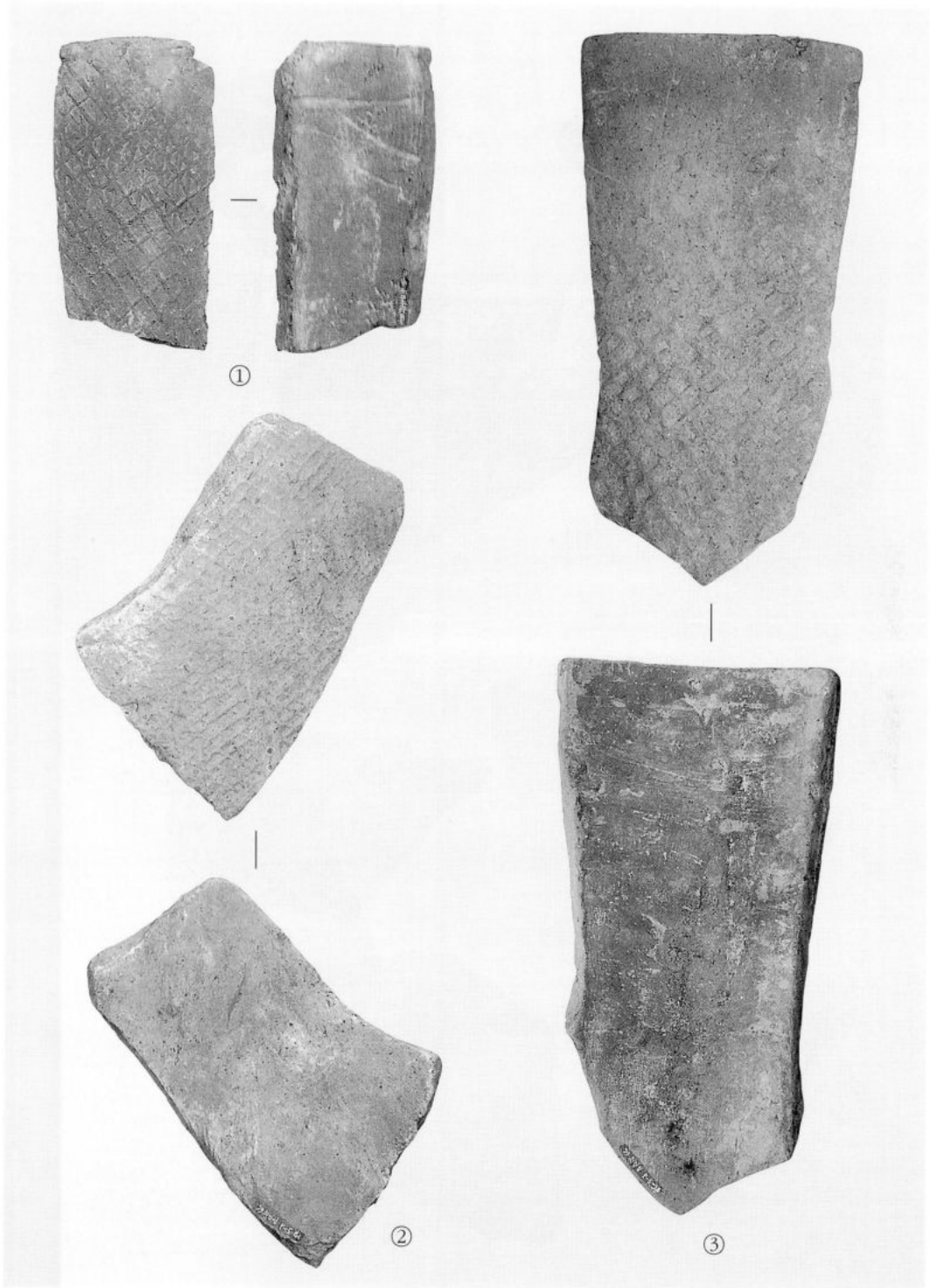
[사진 97]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수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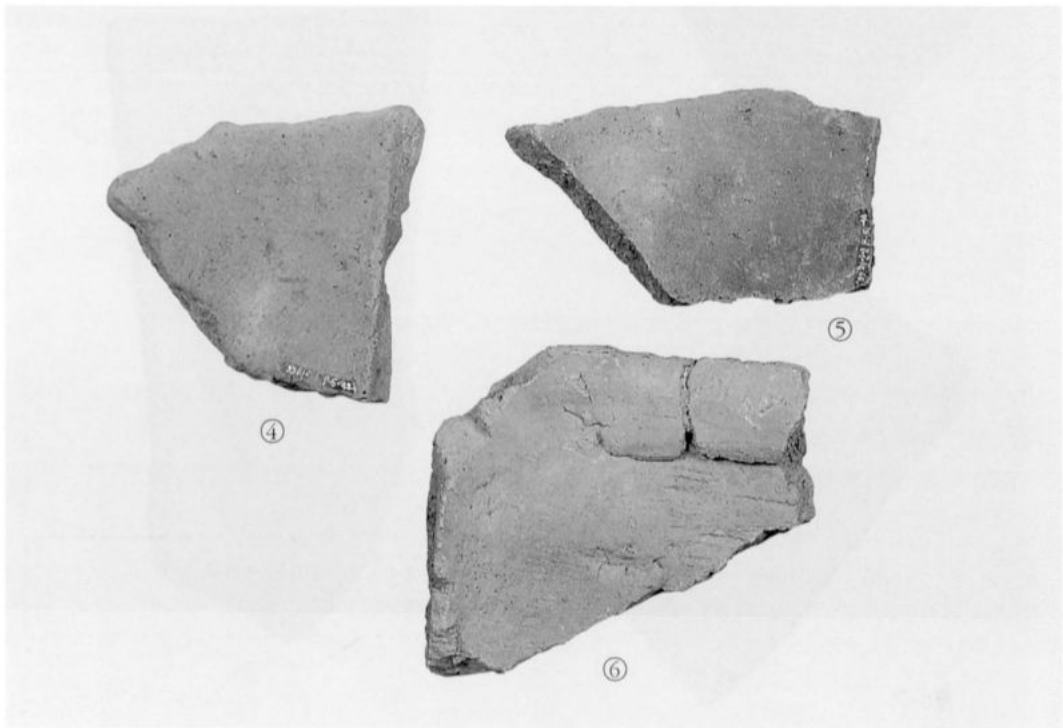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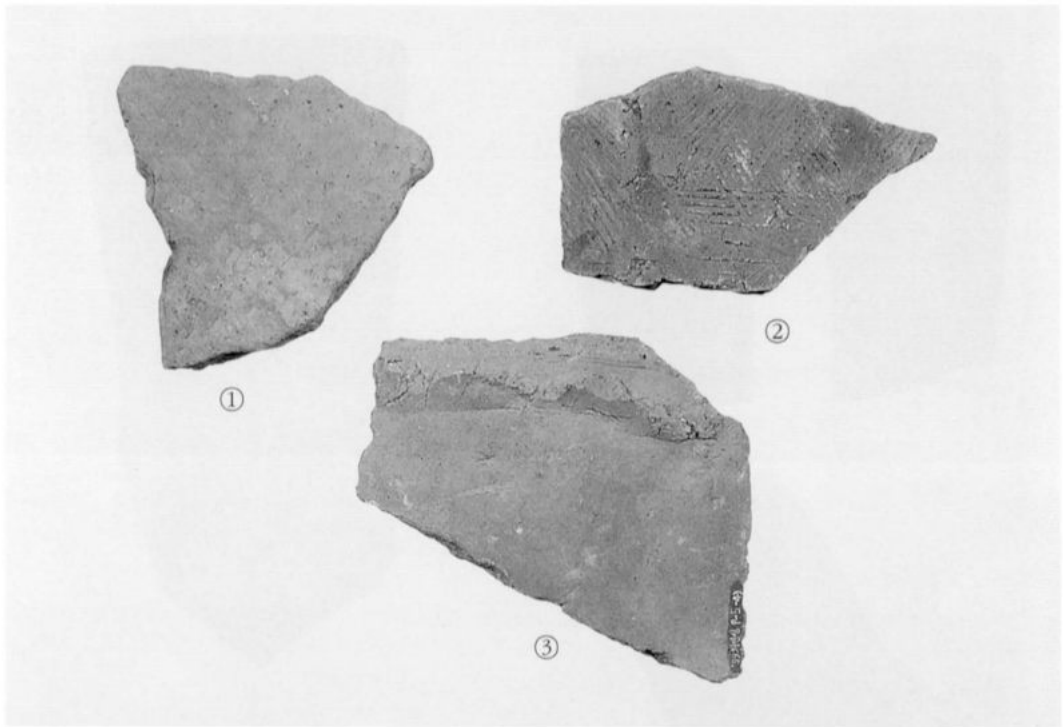
[사진 98]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수키와 · 암키와



[사진 99]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암키와



[사진100]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암키와



[사진101] 처인성 시굴구덩 5 출토유물 암키와

여

백

용인시사총서 10

용인 처인성 시굴조사보고서

인쇄일 : 2002년 9월 15일

발행일 : 2002년 9월 30일

편집 집 용인시사편찬위원회
발행 행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인쇄 : 도서출판 학연문화사
☎ 02) 865-5072 FAX 02) 853-3679

여

백



용인 처인성

시굴조사 보고서